인계동

수원시 최대 업무지구, 행정 중심지

차 례

제1부

도시지리와 도시공간

제1장
인계동의 지리적 환경과 생활터전 007

제2장
인계동의 도시공간구조 069

제2부

인계동의 역사

제1장
인계동 여주 이씨 박천공파 종산 이야기 091

제2장
20세기 초 인계동 호주의 토지소유 115

제3장
수려선 부설과 화성역 149

제4장
인계동 구시가지의 변천 175

제3부

마을 Ⅰ : 장다리천 서쪽 마을

제1장
인계동 본토박이 마을, 인계본동 207

제2장
팽나무와 정자가 있던 조용한 마을, 팽나무골 237

제3장
어느 58년 개띠의 인계동 연가 269

제4부

마을 Ⅱ : 장다리천 동쪽 마을

제1장
개천이 없던 마을, 인도래 291

제2장
가난한 사람들의 따뜻한 삶이 모인 곳, 인화촌 317

제3장
인도래에서 산 세월 341

제5부

도시화와 도시공동체

제1장
인계동에 세워진 농수산물도매시장 363

제2장
인계동 최초의 아파트, 향원아파트 399

제3장
인계동 언덕에 우뚝 선 구세군 수원교회 421

제4장
다 함께 한울타리, '다울'공동체 447

제5장
인계동 장다리길의 꿈 477

제6부

도시개발과 도시문화

제1장
동수원 개발의 전개와 특성 509

제2장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주거문화와 주민생활 549

제3장
인계동 상업지역의 소비경관 583

제4장
인계동의 문화거리 619

1부
도시지리와 도시공간

1장
인계동의 지리적 환경과 생활터전

2장
인계동의 도시공간구조

인계동(仁溪洞)이라는 이름은 이 마을을 관통해서 흐르던 조그마한 하천에서 유래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인계동 시가지가 개발되기 이전 마을의 동북쪽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하천이 흘렀는데, 이 하천의 이름이 '인도천' 또는 '인도내' 등으로 불렸던 것이다.

손승호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1장 | 인계동의 지리적 환경과 생활터전

1. 마을의 위치와 지리적 특징

1) 수원의 중앙부에 자리한 인계동

수원시의 행정 기능을 책임지는 수원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인계동은 수원시 팔달구에 속한다. 인계동의 위치는 팔달구의 동남쪽 경계에 있어, 동쪽으로는 영통구 매탄1동 및 매탄3동과 경계를 형성하고, 남쪽으로는 권선구 권선1동과 맞닿아 있다〈그림 1〉. 인계동은 북쪽의 영동사거리에서 지동사거리와 동수원사거리를 거쳐 가산골삼거리로 이어지는 중부대로를 기준으로 지동 및 우만2동과 경계를 맞대고 있다. 동쪽으로는 권광로의 동쪽으로 톱니바퀴처럼 형성된 권광로276번길를 비롯하여 인계로를 경계로 매탄1동과 닿아 있으며, 곡선사거리에서 신매탄사거리에 이르는 동수원로를 사이에 두고 매탄3동과 경계를 이룬다. 인계동의 남쪽으로는 농수산사거리에서 곡선사거리에 이르는 권선로 및 솔밭사거리에서 시청앞사거리를 지나 시청역사거리에 이르는 효원로를 경계로 권선1동과 맞닿아 있다. 시청역사거리에는 분당선 전철의 수원시청역(경기도문화의전당)이 설치되어 있다. 동의 서쪽은 솔밭사거리에서 인계로와 만나는 효원로165번길과 수원천을 사이에 두고 매교동 및 행궁동(법정동은 구천동)과 경계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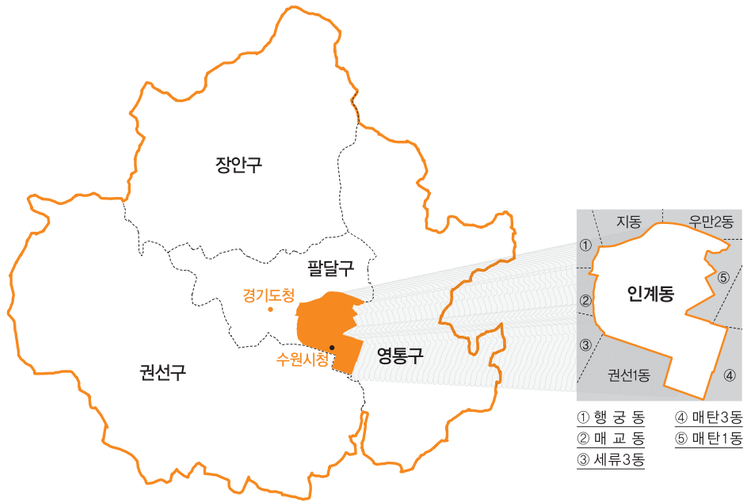


그림 1 수원시의 중앙에 자리한 인계동과 그 주변 지역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의 도로망은 폭이 넓은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가 뒤섞인 미로형인 경우가 많지만, 도시계획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시가지의 도로망은 반듯하고 넓은 도로로 이루어진 경우가 일반적이다. 인계동은 수원 화성에서 시작된 수원 시가지가 형성되었던 초기부터 취락이 들어서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계동의 서쪽에 자리한 행궁동이나 매교동 또는 북쪽에 자리한 지동과는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도로 및 하천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다. 실제 시가지에서는 행정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에 반해 시가화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동쪽과 남쪽은 대체로 대로를 기준으로 행정 경계가 설정되어 반듯한 모양을 취한다. 서구 도시와 달리, 도시의 시가지가 입지한 지형이 평평하지 않고 시가지가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는 직선의 도로가 행정 경계로 채택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수원이 본격적인 근대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던 1900년대 초반, 인계동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 아니었으며,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성격을 지녔다. 1960년대 들어 수원의 시가지가 수평적 확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원 화성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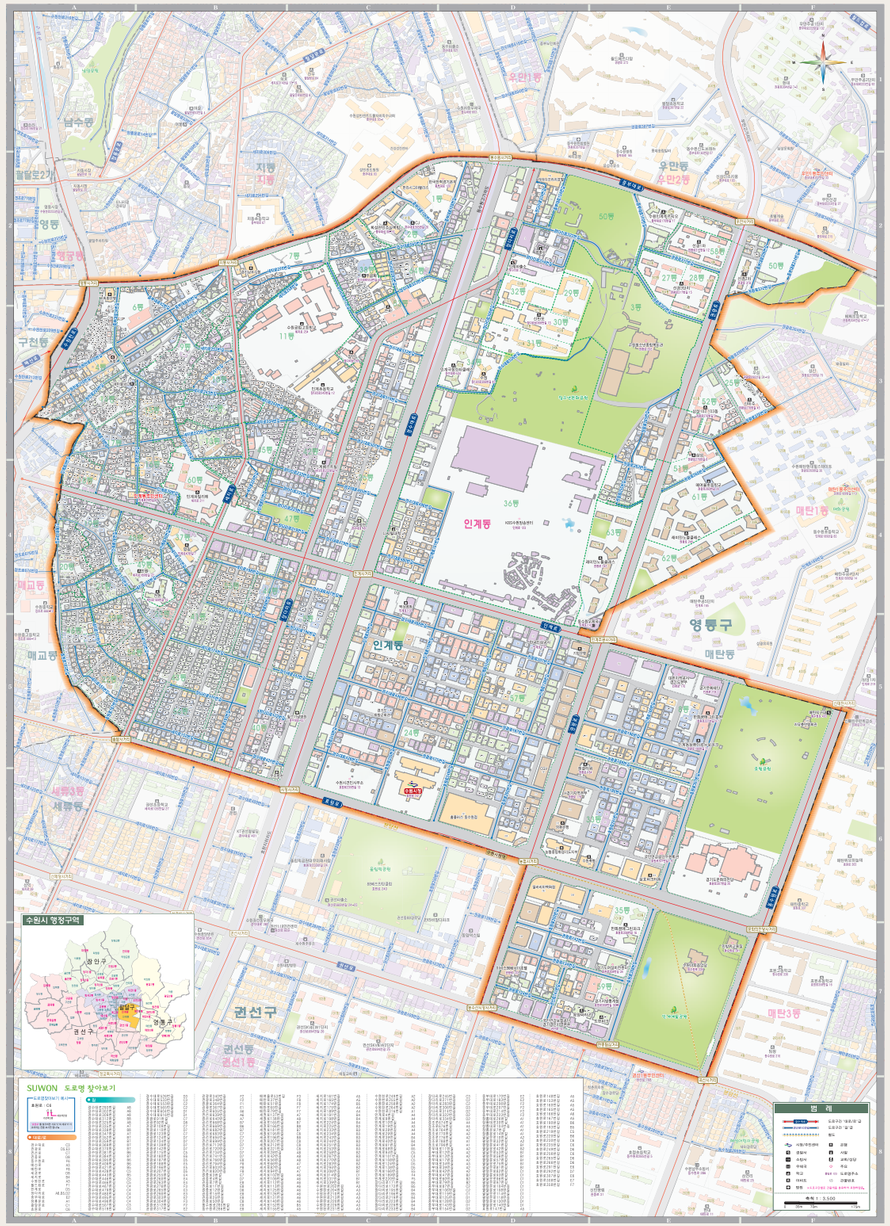


그림 2 인계동의 도로망

그림 3 1972년 인계동 경관(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천과 국도 42호선을 따라 시가지가 형성된 데 비해 현 수원시청 일대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림 4 2000년 인계동 전경(수원박물관 제공)

시가지가 확장하면서 지금의 인계동 일대에서도 도시화가 서서히 진전되었다.

인계동의 시가지 형성 역사는 한때 수원의 중심시가지였던 화성 주변에 비해 다소 늦지만, 결코 짧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인계동을 가로지르는 국도 제1호선(경수대로)의 서쪽에 자리한 시가지의 개발 시기가 국도 제1호선의 동쪽에 자리한 시가지의 개발 시기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세지로의 서쪽에 자리한 시가지는 지리적으로 수원 화성의 남쪽에 형성된 시장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수원 화성 팔달문 남쪽의 시가지가 일제강점기 수려선 철도의 개통과 함께 번성했을 때에 함께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의 인계동은 인계동주민센터가 자리한 세지로의 서쪽, 세지로와 국도 제1호선의 중간구역, 국도 제1호선의 동쪽으로 나누어 보면, 수원 화성에서 멀어지는 동쪽 방향으로 갈수록 시가지의 개발 시기가 늦다. 즉 시가지 개발의 역사가 오래된 경수대로 서쪽의 시가지는 낡고 노후한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의 체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계동은 행정동(行政洞)의 명칭이기도 하고 법정동(法定洞)의 명칭이기도 하다. 즉 행정 업무의 처리를 위해 설정된 행정동 인계동의 경계와 1914년에 만들어진 지명에 해당하는 법정동 인계동의 경계가 일치한다. 특히 인계동은 1963년 1월 1일 수원시의 행정경계 조정이 있을 때에 유일하게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도록 하나의 법정동을 대상으로 행정동을 구성한 곳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2018년까지도 인계동의 행정동이 분동되지 않았음은 그만큼 인계동에 거주하는 상주인구의 규모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8년 기준으로 수원시에는 57개의 법정동과 43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같은 지명을 기준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가 일치하는 곳은 9개 동에 불과하다.[1] 법정동은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확대, 인구 이동,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 도모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여러 개의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에 통합되어 관할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시가지 형성 시기가 빠른 곳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협소한 공간 범위를 지칭하는 마을 이름이 현재의 법정동 경계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계동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29번길 6(인계동 909-69)에 위치한다. 인계동의 서쪽 경계인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동쪽으로 뻗은 도로가 인계로이다. 인계동의 면적은 총 2.91㎢으로, 수원시 전체 면적(121.05㎢)의

그림 5 1949년 인계동사무소

그림 6 1984년 인계동사무소

그림 7 1995년 인계동사무소 준공

그림 8 2001년 인계동주민자치센터 개소

2.4%를 차지하며 팔달구 면적(12.86㎢)의 22.6%에 해당한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인계동에는 4만 4,15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세대수는 1만 8,527세대로 이루어져 있다.[2] 행정체계는 64통 323반으로 구성되었다.

수원천의 동쪽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동쪽으로 뻗은 인계로는 인계동의 시가지를 남북으로 갈라놓았다. 한편 국도 제1호선은 인계동의 시가지를 동서 방향으로 갈라놓는다. 인계동의 서쪽에 수원 화성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인계동의 시가지 발달은 수원 화성과 수원천이 있는 서쪽에서 시작하여 동쪽 방향으로 외연적인 확장을 경험하였다. 이는 인계동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가로망이나 건물의 양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도시의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음은 곧 시가지 형성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현대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인계동의 가장 서쪽 구역은 솔밭사거리에서 지동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을 통과하는 세지로의 서쪽에 해당하는데, 이 구역은 근대

그림 9 국도 1호선 서쪽 인계동 지역의 도시경관(김승일 제공)
팽나무고개삼거리를 지나 동쪽으로 인계로가 놓여 있다.

그림 10 경수대로(국도 1호선) 주변 도시경관(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도시 수원의 형성과 함께 발달하기 시작한 시가지이다. 도로망은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건축물도 건축연대가 오래된 저층의 건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세지로의 서쪽에 자리한 시가지가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수원시의 건강한 도시 발전을 위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재개발지구의 공식적인 명칭은 인계로 남쪽이 팔달115-8(팔달8) 주택재개발지구이고, 인계로 북쪽은 팔달115-9(팔달10) 주택재개발지구이다.

2) 고도가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진 마을

인계동은 수원시 북쪽의 시 경계부에 자리한 광교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산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지형적 특징을 보인다.[3] 인계동은 수원시를 흐르는 주요 하천이 화강암 풍화층을 차별 침식하여 만든 낮은 구릉지와 충적지에 위치한다. 따라서 인계동에는 수원시의 진산에 해당하는 광교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주변을 통과하는 뚜렷한 산줄기가 발달해 있지 않다. 인계동의 서쪽에 자리한 팔달산(145.5m)도 수원시 북쪽을 둘러싼 산지와는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잔구성 산지의 성격을 가진다. 잔구성 산지는 산줄기에 연속해서 솟아 있는 산이 아니라, 평평한 곳에 홀로 솟아 있는 산지를 가리킨다. 즉 오랜 기간에 걸쳐 풍화와 침식을 받아 수원시의 지형적 특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차별침식을 받아 단단한 암석이 상대적으로 침식을 덜 받고 남아 있는 구릉이 팔달산이다.

인계동의 서쪽으로는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수원 화성을 지나 남쪽으로 흘러가는 수원천이 흐르고, 인계동의 동쪽으로 매탄동을 지나서는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가는 원천천(遠川川, 머내)이 흐른다.[4] 원천천과 수원천은 수원비행장의 남단에서 서로 만나며, 이후 황구지천으로 유입한다. 이와 같이 인계동은 수원천과 원천리천의 사이에 자리고 있지만, 원천리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이들 두 하천의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인계동에는 하천의 영향으로 평지와 함께 일찍부터 농경지가 발달해 있었다.

수원시의 해발고도는 광교산에서 남쪽의 시가지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원 화성과 그 주변 지역은 산지와 평지의 접촉부에 형성되는 산록 완사면에 자리하므로, 해발고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인계동의 해발고도도 높은 수준은 아니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할수록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지금과 같은 시가지가 개발되기 이전 인계동은 북쪽에서 낮게 뻗어 내린 두 개의 산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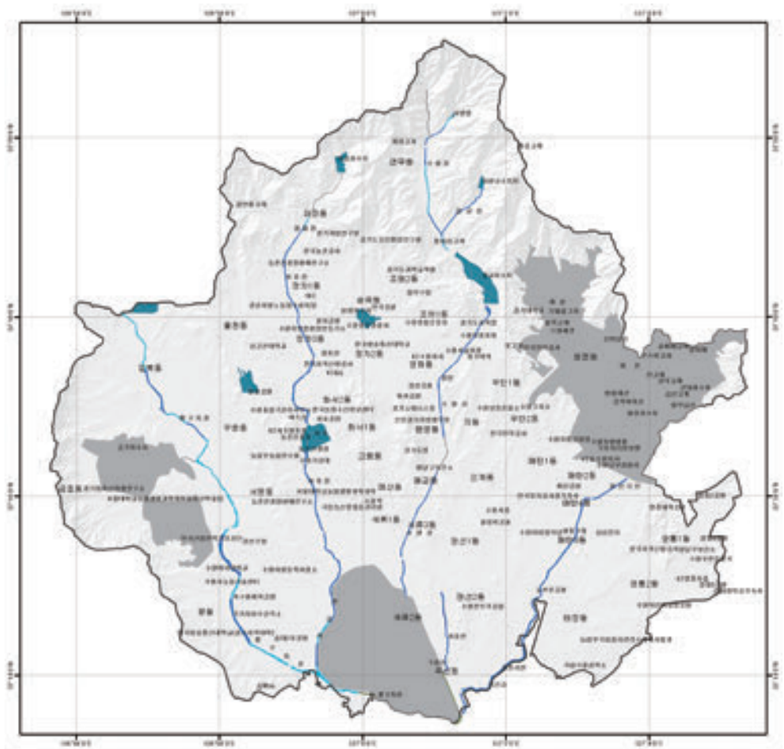


그림 11 수원의 하천

기가 남서쪽으로 이어졌으며, 왼쪽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의 서쪽으로 수원천이 흐르고, 오른쪽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동쪽으로는 원천천이 흘렀다. 이들 두 개의 산줄기는 해발고도가 60m 내외에 불과하였다. 현재 수원시청이 자리한 곳의 해발고도는 약 48m이고, 인계동의 북쪽에 조성된 수원청소년문화공원 중앙광장의 해발고도는 58m 내외에 불과하다. 수원천에 인접한 팽나무고개삼거리 일대의 해발고도는 47m 정도에 달한다. 인계동과 그 주변 지역을 통과하는 산줄기의 정상부와 하곡의 해발고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높고 낮은 지형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면서 형성된 구릉지에 지금의 인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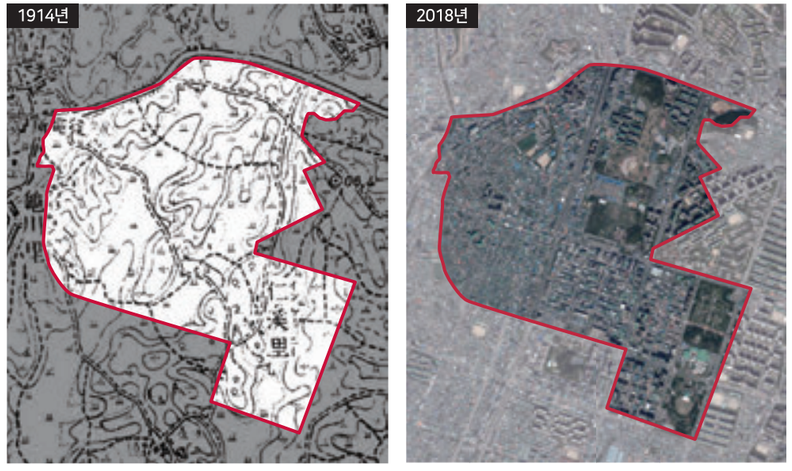


그림 12 인계동의 과거와 현재

시가지가 들어서 있는 모습이다.

현대의 모습을 통해 인계동의 지형적 특징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수원시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자연지형이 인공지형으로 개조되었기 때문이다. 수원 화성을 통과하던 국도 제1호선이 수원 중심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노선을 변경하면서 인계동을 가로지르게 된 것을 비롯하여 대단위의 주거단지가 개발되기도 하였으며, 수원시청을 중심으로 대단위의 상업업무지역이 조성되면서 인계동 본래의 지형이 사라져 버렸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측량된 『조선지형도』(수원)와 2018년의 위성사진을 비교함으로써, 인계동과 그 일대 지역의 지형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그림 12〉. 우리나라의 도시가 일제의 상업자본에 의해 근대 도시로 전환되기 시작한 1910년대 초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그림 12〉에서 인계동의 북쪽을 동서 방향으로 통과하는 도로는 지금의 국도 제42호선(중부대로)의 전신이다. 1910년대에 이 도로는 수원 화성의 남쪽을 지나 동쪽으로는 신갈을 경유하여 용인(김량장) 방면으로 향했으며, 서쪽으로는 시흥 및 화성(남양) 방면으로 연결되었던 도로이다.

수원의 도시화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1910년대에 지금의 인계동 일대는 농촌 마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한적한 곳이었다. 수원천에 접한 인계동 서쪽의 하천변에 소규모의 취락이 들어서 있는 정도였다. 인계동의 북쪽 경계에 해당하는 곳에는 조그마한 언덕이 있었으며, 그 이름은 당시 온석현(溫石峴)이었다〈그림 13〉. 이 고개의 남쪽 사면에 소규모의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현재 화성상가아파트 남쪽과 파밀리에아파트 사이에 형성된 마을로, 그 마을의 이름도 고개이름과 같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온석현의 전면에 펼쳐져 있던 농경지는 북쪽에서 흘러내리던 하천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 하천은 인계동을 통과하던 두 개의 구릉성 산줄기의 사이를 동북-서남 방향으로 흘렀다. 이 하천의 이름은 지금의 인계동이라는 지명의 근원이 된 인도내 또는 인도천이었다.

그림 13 태장면 인계리와 온석현(1917년)

인계동을 구성하는 평지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었으며, 고도가 높지 않은 구릉지는 임야로 남아 있었지만, 북쪽에서는 일부 구릉지가 밭으로 이용되었다. 〈그림 12〉의 1914년 지도에서 인계리라는 지명이 표기된 주변에서 과수원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들어 사람이 많이 거주하던 주요 시가지로부터 약간 떨어진 장소에서는 과수농업이 발달하였다.[5] 당시 수원에 살았던 사람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수원 화성과 팔달문 주변에 밀집 시가지가 형성되었던 만큼, 인계동은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수원 화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소비하던 채소나 과수를 재배하던 근교 농업지역의 성격도 지녔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수원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계동 일대에서도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과거 인계동을 통과하던 구릉성 산줄기의 모습을 비롯하여, 산줄기 사이에 펼쳐져 있던 농경지, 산사면의 밭과 과수원 등의 모습도 현재는 확인이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골짜기 사이를 흐르던 소규모의 하천인 인계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14 인계동 지명의 근원이 된 인도내(1954년, 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3) 국도 제1호선이 통과하는 인계동

인계동은 현대 수원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수원 화성에서 다소 분리된 장소이기에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발달도 다소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가화구역이 확대되고 수원 도심의 통과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른 노선 이설 등에 의해 지금은 국도를 비롯하여 간선도로가 여럿 개설되었다.

인계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 가운데 대표적인 주간선도로에는 국도 제1호선과 국도 제42호선이 있다. 주간선도로는 도로의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도시 내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도로망이다. 국도 제1호선은 본래 수원천의 동쪽을 따라 이동하다가 교동사거리와 중동사거리를 지나 수원 화성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통과하였다. 그러나 국도 제1호선은 서울과 수원의 남부 지방을 운행하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수원 중심시가지의 교통 혼잡문제가 대두되면서 초기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 수원 화성을 관통하던 구간을 동쪽으로 우회시켜 지금과 같은 노선으로 변경되었다. 인계동을 통과하는 국도 제1호선은 왕복 8~10차로로 구성된다.

국도 제42호선은 인계동을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라, 인계동의 북쪽에서 지동 및 우만2동과 경계를 형성하는 도로이다. 수원천과 만나는 영동사거리에서 지동사거리를 지나 동수원사거리를 거쳐 인계안골사거리를 통과하는 도로이다. 이 도로 역시 국도 제1호선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신작로(新作路)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계동은 수원시 내에서의 접근성은 물론 수원 주변에 자리한 도시로부터의 접근성도 매우 양호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근래에 개통된 수도권 전철이 통과하면서 인계동의 교통 편리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인계동을 통과하는 전철은 분당선 철도이며, 정차역으로는 수원시청역(경기도문화의전당)과 매교역이 있다. 매교역은 인계동의 서쪽 매교동과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다. 분당선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이다. 분당선이 처음 개통되었던 1994년 9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 구간만 운행하였으나, 점차 운행 구간을 확대하여 수원시청역이 포함되는 망포역-수원역 구간은 2013년 11월 30일에 운행을 시작하였다. 분당선 철도의 개통과 함께 인계동에서 수원역을 경유하여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 용인과 성남 방향으로의 움직임도 훨씬 수월해졌다.

매산동의 가로망을 구성하는 도로의 도로명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경수대로를 비롯하

그림 15 1981년 경수산업도로 3공구 기공식(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그림 16 1981년 국도 제1호선 건설현장(수원박물관 제공)

그림 17 1981년 국도 제1호선 건설(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여 장다리로·세지로·권광로·동수원로가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다. 한편 동서 방향으로 뻗은 도로의 도로명은 권선로·효원로·인계로·중부대로 등이 있다. 이들 도로에서 분기한 도로의 도로명은 기준이 되는 도로명에서 파생되어 부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서술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경수대로와 중부대로의 폭이 가장 넓으며 주간선도로로서 기능한다. 권광로·인계로·동수원로·효원로 등은 보조간선도로로 기능한다.

2. 수원시의 상업·업무 중심지로 성장한 인계동

1920년대 지금의 인계동에는 114호가 거주[6]하였을 뿐, 행정이나 정치의 중추관리기능은 전혀 없었다. 당시 수원군 전체로 보면 규모가 작은 마을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인계동과 접해 있던 지동에 152호, 매산동에 277호가 거주했음을 고려하면 인계동에 살던 사람의 수가 많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일제강점기에 인계동은 도회지의 성격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였던 당시 수원의 주변부적 위치에 있던 마을에 불과했던 셈이다.

수원에서는 194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시가지의 토지구획을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치르기까지 혼란기에 빠지면서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어 1979년 말까지 신규 사업지구가 꾸준히 지정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1970년대 말까지 수원시에는 8개 사업지구가 지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인계동이 포함된 사업지구가 2개에 달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계동을 비롯하여 지동 및 우만동 일대가 지만인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인계동과 권선동 일대를 아우르는 권선지구가 지정되었다. 지만인계지구는 112만 7,000여㎡의 면적을 대상으로 1981년 7월 사업에 착수하여 1989년 5월에 토지구획정리가 마무리되었으며, 권선지구는 240만 3,000여㎡의 부지를 대상으로 1981년 11월 사업에 착수하여 1989년 11월에 토지구획정리가 마무리되었다.[7] 권선지구에 포함된 부지의 면적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1990년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828만 4,000여㎡의 29.0%에 달할 정도로 넓은 부지를 포함하였다. 권선지구와 지만인계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인계동은 아주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은 물론 주거기능까지 겸비한 수원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요컨대 수원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인계동 일대는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상업지역으로 변모하였다.

그림 18 1987년 지만인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계동 일대(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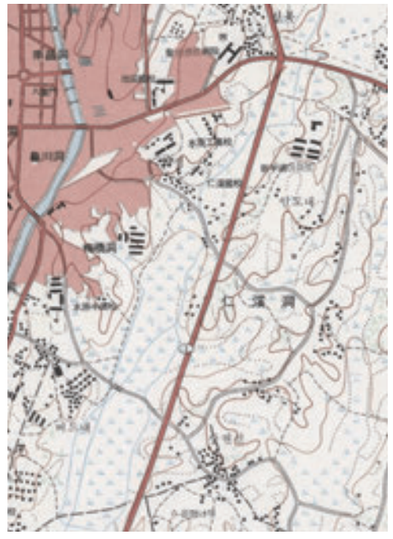


그림 19 토지구획정리사업 전(1983년)

그림 20 토지구획정리사업 후(2001년)

경기도의 행정 중심지인 동시에 수위도시로 성장한 수원의 도시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시가지가 수평적 확장을 경험하면서 수원 화성의 동쪽에 자리한 인계동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6년 수원시에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도로변이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용도지구의 지정이 확대되었는데, 이 시기에 인계동 및 권선동의 중심업무지구 및 상업지구가 신규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다.

인계동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 전 모습을 보여 주는 〈그림 19〉에서 보면, 1980년대 초반에는 인계동의 농경지와 구릉지 사이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도로만 개설되었을 뿐 시가지의 발달은 수원천변에 자리한 인계동의 서쪽에 한정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2001년 모습을 보면 계획적으로 개발된 시가지의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도로명 기준으로 세지로의 동쪽은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직교형의 반듯한 도로망과 주요 공공기관과 대형 상가 등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의 시가지 발달이 수원 화성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수원천을 기준으로 서쪽에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수원에서는 동서 간에 차별적으로 도시 발전이 진행되었다. 수원시 서부에서 서부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수원의 동부를 살리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이 1984년에 본격적으로 수립되었다.

1984년에 수립된 수원도시기본계획은 2001년을 목표연도로 수립되었는데, 주요 개발전략에 따르면 이미 시가지 발달이 이루어진 서부생활권을 수원시의 구시가지로 설정하여 상업서비스 및 유통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인계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생활권은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수원시청을 입지시키는 동시에 중심상업지구 및 업무지구로 개발하도록 하였다.[8] 이에 따라 수원시는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에 각각 하나의 핵을 보유하는 2핵 도시로 구상되기에 이르렀으며, 인계동은 수원시의 상업업무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수원시청 부근은 업무지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쪽의 원천로를 따라서는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또한 경수대로 주변의 도로망은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바둑판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교통 여건도 양호한 마을이 인계동이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수원의 신시가지라 할 수 있는 동수원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인계동이 동수원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인계동의 현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형성된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삼성아파트 및 선경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밀집한 인구밀집지역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수원시청이 입지하고 있으며, 백화점을 비롯하여 증권회사·금융회사·대형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수원시의 CBD라 할 수 있다.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는 중심업무지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도시가 확대되어 가는 데 초점이 되는 핵심부이다. 이 지구는 경제·사회·시민생활의 초점이 되며, 그곳에는 백화점·고급소매점·호텔·은행·언론사 등의 각종 시설이 집중한다.[9]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도심이라 불리는데, 엄밀히 말하면 도심보다 더 좁은 공간 범위가 중심업무지구이다. 셋째,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시 야외음악당,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이 입지하고 있는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그림 21 2000년 국도 1호선 동쪽 시가지의 도로망(수원박물관 제공)
경수대로(좌측), 권광로(우측), 효원로(수원시청 앞) 등이 보인다.

그림 22 인계동 상업·업무 중심지(김승일 제공)

3. 마을 이름과 행정구역의 변천

1) 마을의 이름

인계동(仁溪洞)이라는 이름은 이 마을을 관통해서 흐르던 조그마한 하천에서 유래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인계동 시가지가 개발되기 이전 마을의 동북쪽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하천이 흘렀는데, 이 하천의 이름이 '인도천' 또는 '인도내' 등으로 불렸던 것이다. 구릉지 사이의 골짜기에서 발원해 흐르던 하천은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천(川)보다는 계(溪)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일설에 따르면 인도천이라는 이름 대신 아름다운 시내 계(溪)로 바꾸어 지금의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작은 하천을 개울이라 불렀으며 한자로는 계(溪)라 표기하였고, 이것들이 합하여 흐르는 약간 큰 개울을 천(川)이라 불렀고, 그보다 더 규모가 큰 하천은 강(江)이라 부른다. 인계는 남서쪽으로 흘러 그보다 규모가 큰 수원천으로 합류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도천 또는 인도내의 이름이 지금과 같이 인계로 변경된 것은 아름다움의 의미를 내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00년대 이전에 간행된 지리지나 지도에는 인계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1789년에 간행된『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수원군 광교면(光敎面)에는 매산리(梅山里)와 인동리(仁洞里)가 속해 있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동리가 지금의 인계동 일대를 포함하는 마을이라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1831년에 광교면은 북부에 속하였고 지금의 인계동은 당시 남부에 속했음을 고려하면 인동리는 인계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1831년에 간행된『화성지(華城志)』에도 인계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는다.『화성지』에 따르면 수원 화성으로 읍치를 이전한 후 남부면과 북부면으로 나누어 당시 상황을 기술해 놓았는데, 남부 또는 북부에 포함된 마을 이름에 인계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903년 작성된『수원군양안』에 인계리와 관련되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온석현, 장교평, 인도천 등이 그것이다.

인계라는 이름이 등장한 시기는 1914년에 일제가 한반도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명의 변경 내역을 정리한『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서이다. 당시 수원군 남부면 인계(仁溪)는 우만리 및 구천동 일부와 병합되어 수원군 태장면 인계리로 한다는 기록이 있다. 즉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인계는 지금의 42번 국도 남쪽에 자리한 자연마을이었던 셈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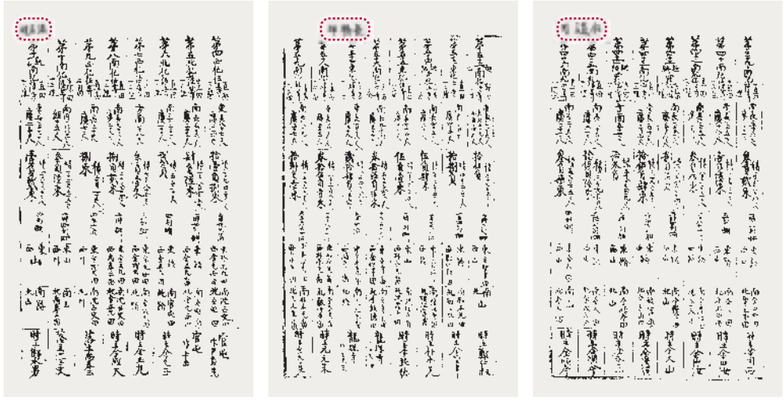


그림 23 『수원군양안』(1903년)에 나타나는 인계동 관련 지명(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온석현, 장교평, 인도천 등의 지명이 등장한다.

자연마을의 이름은 하천 이름과 동일하게 인도내, 인도천, 인도래 등으로 불리거나 인계라 불렸다고 한다.[10] 자연마을 인도래는 1950년대에 '인도래미'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인계동에는 매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초등학교가 인계동의 동쪽에서 매탄1동과의 경계부에 자리하고 있다. 매여울은 학교 이름뿐만 아니라 배움터·도서관·근린공원·지하차도 등의 이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인계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매탄(梅灘)을 순우리말로 풀어 놓은 것으로 보면 된다. 매탄이라는 이름은 인계동의 동쪽에서 흐르는 하천인 원천천이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여울에서 유래하였다. 여울 근처의 마을이라는 데에서 '매여울'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를 한자화한 것이 지금의 지명이다. 여기에서 '매'는 물의 옛말이다.[11] 특히 수원 지역이 일찍부터 물이 많아 물과 관련한 지명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매산(梅山), 매교(梅橋)처럼 '매'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대부분 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2) 행정구역

지금의 인계동은 1912년에 수원군 남부면의 자연마을인 인계로 편제되었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 수원군 태장면(台章面) 인계리(仁溪里)로 소속이 변경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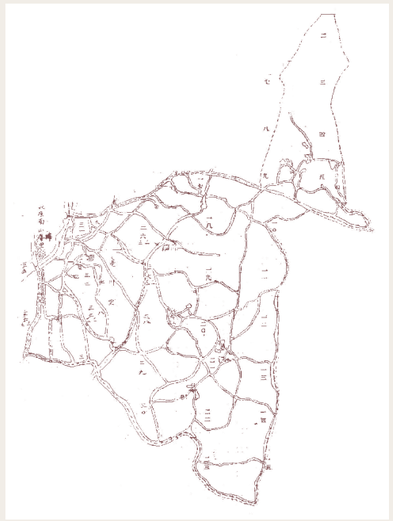


그림 24 1914년 인계리 행정구역

그림 25 1936년 인계정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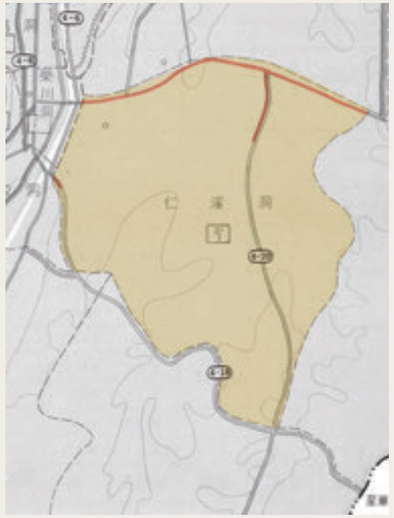


그림 26 1980년 인계동 행정구역

그림 27 2001년 인계동 행정구역

었다. 1914년에 인계리는 인접한 마을을 편입하여 새롭게 인계리로 편제되었는데, 당시 인계리와 병합된 마을은 그 이전에 수원군 남부면에 속했던 우만리(牛滿里)와 구천동(龜川洞) 일부 지역이다. 당시의 동(洞)은 지금과 같은 행정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단지 마을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수원시의 중심부에서 법정동의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다.

1931년 4월 1일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편제되었던 수원군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되었다. 1936년에는 수원읍 주변에 자리한 태장면·일왕면·안룡면의 일부가 수원읍에 편입되었는데, 이때에 태장면에 속했던 인계리는 수원읍에 편입되면서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인 '인계정(仁溪町)'으로 변경되었다. 태장면에 편제되었다가 1936년에 수원읍에 편입된 곳은 인계리와 지리(池里, 지금의 지동), 우만리(牛滿里, 지금의 우만동)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만 1년이 되던 1949년 8월 15일(대통령령 제161호) 수원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수원시의 행정구역은 모두 27개 동으로 재편되었다. 이때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을 없애는 과정에서 인계정이라 불리던 마을 이름은 인계동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수원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1988년 7월 1일부터 수원시에서 구제(區制)가 실시되었다. 이때에 수원에 설치된 구는 장안구와 권선구였다. 당시 인계동은 권선구(勸善區)에 편제되었다. 1989년에는 인계동과 동쪽에 접한 우만동의 일부 지역과 인계동의 남쪽에 접한 권선동의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인계동에 편입하였다. 1993년에 수원의 옛 중심지 일대를 팔달구로 재편성하면서 인계동은 권선구에서 팔달구로 소속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생활터전의 지리적 환경 변화

1) 인적이 드물었던 1800년대 말

조선 후기 수원 화성이 건설되기 이전 지금의 인계동과 그 주변 지역은 인적이 많지 않고 취락도 크게 형성되지 못한 곳으로 남아 있었다. 수원 화성의 건설과 함께 팔달산 동쪽에 성곽과 함께 시가지가 발달하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자리매김을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8〉에 제시된 지도는 수원 화성이 건설된 이

그림 28 조선 후기 인계동과 그 주변 지역
원으로 표기된 곳이 지금의 인계동 일대이다.

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1872년 지방지도』는 조선 후기 각 군현의 상황을 그린 지도로 수원 화성을 비롯하여 남부(南部)·팔달산(八達山)·향교(鄕校) 등의 지명을 확인할 수 있고, 수원 화성을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는 수원천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지도에서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의 인계동에 해당하는 곳이다. 한편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한반도 전국을 그린 지도이다. 따라서 당시 수원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당시의 지리적 환경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수원 화성의 북쪽에 설치된 장안문 근처에 영화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도로망이 잘 발달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 화성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도로의 우측 부분이 지금의 인계동 일대이다.

일제가 1880년대의 한반도 상황을 비밀리에 측량해 제작한 『구한말지형도』에서는 지금의 인계동 일대가 묘사되어 있지만, 뚜렷한 지리적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다만 북쪽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 논과 밭, 임야, 과수원 등으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정도이다〈그림 29〉. 인계동 서쪽의 수원천변에는 상류천동(上柳川洞)이라는 마을이 있다. 수원 화성을 통과하는 수원천은 수원 화성의 성곽 모습이 버드나무처럼 생겼다는 데에서 유천(柳川)이라고도 불렸다. 팔달문에서 동쪽으로 뻗은 도로가 원천동 방향으로 개설되어 있고 인계동의 동쪽 산줄기를 따라 조그마한 도로도 개설되었다. 인계동과 경계를 형성하는 지동의 우측으로 내곡(內谷)과 목곡(木谷)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일대는 지금의 못골시장에 해당한다. 이들 마을이 있던 골짜기가 남쪽 방향으로 이어지면 인계동으로 연결되고 그 골짜기를 흐르던 물이 인도내(인도천)이다. 1890년대 들어 수원이 주변 지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수원의 동쪽에 자리한 용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인계동도 한적한 농촌적 풍경을 간직한 마을의 성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림 29 1880년대 말 인계동과 그 주변 지역

2) 수려선을 따라 시가지가 형성되는 1940년대

수원시는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하고 지금의 수원역 자리에 철도역이 생기면서 한강 이남 지방에서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통 발달과 함께 수원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면서 수원역에서 팔달문에 이르는 구간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저잣거리가 형성되었던 팔달문의 동남쪽에 자리한 인계동은 과거의 모습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의 한반도 수탈이 본격화하고 수원 동쪽에 자리한 여주·이천 지방의 쌀을 일본으로 빼돌리는 계획이 수립되면서 수원과 인천항을 연결하는 철도와 함께 수원에서 여주에 이르는 철도가 개통되었다. 이 철도는 수려선(水麗線) 철도로, 1930년 12월 1일에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에서 협궤로 부설하여 수원에서 이천까지 운행을 시작하였고 1931년 12월 1일에는 이천에서 여주에 이어지는 구간이 운행을 시작하였다. 총 노선 길이는 73.4㎞에 달했고 선로의 폭은 일반 철도의 절반 수준인 762㎜이다. 수려선 철도는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팔달문에 인접한 화성역을 거쳐 동쪽의 원천역으로 이어졌다. 수려선 철도는 1972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수려선의 정차역인 화성역은 지금의 인계동 북서쪽에 자리하였다〈그림 31〉. 화성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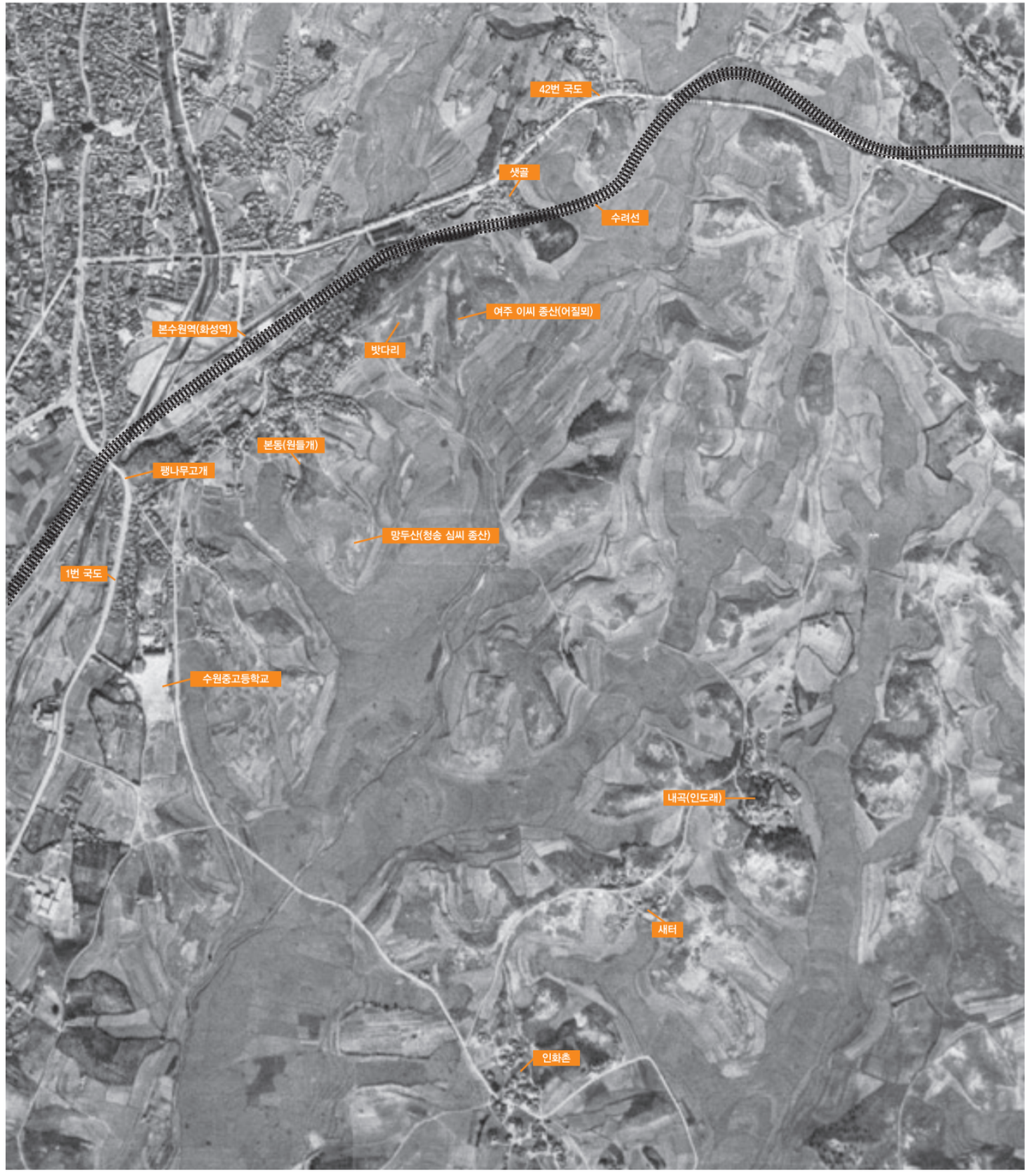


그림 30 1940년대 수려선 노선과 인계동(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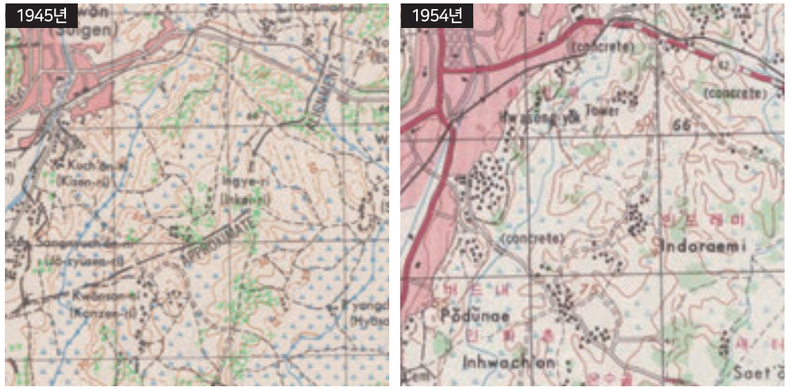


그림 31 수려선 개통과 화성역 설치 이후 인계동의 시가지 확장

지금의 지번 주소로 전환하면 인계동 754-10번지에 자리하였다. 본래의 역 이름은 본수원역(本水原驛)이었으나 당시 팔달문(또는 수원 화성) 남쪽에 여러 큰 시장이 번성했고 수원 화성과도 지리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1948년 1월에 화성역(華城驛)으로 변경되었다.

철도 교통로가 개설되면서 인계동의 북서쪽은 화성역을 중심으로 1940년대 초반에 시가지가 일부 형성되었다. 철길의 북쪽은 팔달문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이 자리했던 곳이기에 비교적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철길의 남쪽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는 데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일반적으로 철길은 자동차 도로와 달리 시가지가 수평적으로 팽창하는 데 장애물로 인식된다. 그 이유는 사람이나 육상교통 수단이 철길을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일부 도시에서는 철길을 기준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시가지가 조성되기도 한다.

인계동의 북서쪽으로 시가지가 확산된 모습은 1954년 지도에서 보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 미군이 작성한 1945년의 지도에서 보면 수원천변에 가옥이 띄엄띄엄 들어서 있었지만, 1954년에 제작된 지도에서는 화성역의 남쪽으로까지 시가지가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수원의 중심시가지를 가로지르는 국도 제1호선과 국도 제42호선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1945년의 마을 이름은 Ingye-ri로 지금과 같은 인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1954년 마을 이름은 앞에서도 한 번 언급한 바 있는 인도래미로 표기된 점이 특징적이다〈그림 31〉.

한편 1944년은 수원시에서 최초로 시가지계획이 결정되었다. 1944년 8월 10일 고시(총독부고시 제1053호)된 시가지계획 구역의 면적은 29.39㎢에 달하였다. 그러나 인계동은 당시의 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3) 동수원 개발이 본격화한 1980년대

1970년대 들어 수원의 도시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수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인계동을 비롯한 동수원 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9년에는 수원의 중심시가지가 동수원으로 이전하였다. 동수원은 대규모 지구를 대상으로 토지구획이 실시되었고 방대한 택지가 개발되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공공시설 및 관공서가 연달아 입지하였다. 여기에 상업기능이 집적하면서 신시가지로 태어났다.

수원시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도시의 시가지가 증가하는 인구와 산업활동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조성된 서수원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동수원 일대를 신시가지로 개발하였다. 당시 동수원으로 포함된 구역의 면적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약 10%에 달할 정도로 넓은 범위를 포함하였다. 이때에 개발된 곳은 권선동 일대의 권선지구(240만 3,000㎡), 지동·우만동·인계동을 아우르는 지만인계지구(112만 6,900㎡), 파송지구(48만㎡) 등으로 구성되어 1988년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이후 매탄동 일대에 매탄1지구(96만 6,000㎡)와 매탄2지구(79만 5,000㎡)의 택지개발이 진행되었다. 매탄동은 인계동의 동쪽에 접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부지에 1987년 수원시청사가 신축되었으며, 시청 앞쪽으로는 올림픽공원 등이 조성되었다. KBS수원센터가 1991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기성시가지에 자리하고 있던 관공서들이 시청 주변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계동은 순식간에 수원시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계동의 서쪽은 기존 수원시가지가 사방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질서하게 개발된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세지로 동쪽으로는 가로망과 토지개발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경수대로의 동쪽으로도 시가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도시화가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인계동은 동수원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도시화를 이룬 지역이 되었다.

인계동을 비롯한 동수원의 급속한 개발은 결국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동수원에 8,000여 가구의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갑작스럽게 학생이 증가한 것이 문제

그림 32 1985년 11월 15일 수원시청사 신축 기공 (수원박물관 제공)

그림 33 1987년 1월 22일 수원시청사 준공 (수원박물관 제공)

그림 34 2006년 3월 30일 수원시청사 별관 준공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그림 35 수원시청사(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의 발단이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부 또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함께 들어서지 않아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어린 학생들이 인접 지역의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때 초등학교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계동의 북쪽에 있던 지동초등학교는 동수원으로 전입해 온 학생이 급증하면서 1988년에 전체 60학급에 3,3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동수원 개발계획으로 인계동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당시 인계동 1128번지에 있던 수원시립화장장의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수원시립화장장은 1962년 6월 30일 건립되었는데, 건립될 당시만 해도 인계동은 한적한 곳이었으며 수원의 외곽에 자리한 곳이었기에

그림 36 1990년 인계동 개발 현장(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그림 37 1989년 3월 4일 인계지구(수원박물관 제공)

주민들과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수원의 주변부에 해당하던 인계동이 상업업무의 중심지, 문화 및 주거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가 매우 거세졌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인계동에 있던 수원시립화장장의 이전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수원시립화장장은 2001년 지금의 영통구에 수원시 연화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12)]

4) 도시재생이 필요해진 2000년대

시가지 형성의 역사가 오래된 수원의 구도심에서는 지속적으로 침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원 화성의 주변 지역은 1970년대까지 유지하던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1980년대 들어 빼앗기게 되었다. 수원시에서는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인 지역개발 방식인 하향식 도시개발 대신 거주자 중심의 도시 관리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수원 화성 주변에 형성된 구시가지의 체질을 개선하고 노후 건물을 보수하거나 철거함으

그림 38 2018년 인계동(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로써,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수원천과 세지로의 사이에 자리한 인계동의 시가지는 195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 도시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의 노후화가 수원시 전체의 건전한 도시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인계동의 일부 구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된 도시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려는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행정구역의 명칭은 인계동이지만 인계동에서 진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공식 명칭은 팔달115-8구역 주택재개발, 팔달115-9구역 주택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팔달115-8구역(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인계동과 매교동에 걸쳐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17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팔달115-8구역에 접해 있는 팔달115-9구역(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은 인계동 847-3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들 두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7,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신시가지가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은 2000년대 중반까지 상주인구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났던 곳이다. 인계동의 인구는 2005년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저점을 찍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 변화는 구시가지에서의 인구 감소와 신규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설명이 가능하다.

5) 서부와 동부의 차별적 시가지 발달

인계동은 엄격하게 표현하면 동 경계에 포함된 모든 시가지의 성격이 같지 않다. 수원시의 시가지가 외연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에 연담하여 도시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원천변에서부터 동쪽으로 향할수록 시가지의 개발 시기가 늦어지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인계동의 지역성에도 반영된다. 따라서 인계동을 두 구역으로 구분하면 1990년대 이전에 시가지 조성이 마무리된 경수대로(국도 제1호선)의 서쪽과 동수원 개발사업에 의해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된 경수대로의 동쪽으로 나눌 수 있다. 경수대로와 중부대로가 교차하는 동수원사거리에서 남쪽의 시청사거리 동쪽이 진정한 동수원이기 때문에 인계동은 동수원 신시가지와 팔달문 주변 구시가지의 중간에 자리한 점이지대적 성격을 보인다. 구시가지는 저층의 주택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신시가지는 넓은 녹지공간을 비롯하여 고층의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로 채워져 있다. 점진적으로 쇠퇴해 가는 구시가지를 살리는 일은 현대도시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이다.

동부의 북쪽 경계에 있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와 문화공원 주변은 신반포아파트(1983년 8월 입주), 인계선경1~3차아파트(1993년 6월~1996년 4월 입주), 수정아파트(2009년 2월 입주), 인계푸르지오아파트(주상복합, 2012년 12월 입주), 동문굿모닝힐(주상복합, 2020년 11월 입주예정) 등의 아파트가 주거지역을 이루고 있다. 수원시청의 동쪽으로 권광로를 넘어서는 수원 나혜석거리가 조성되어 주변에 문화시설과 상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나혜석거리 동쪽 끝은 경기도문화의전당 및 효원공원과 접하고 있으며, 효원로를 건너 남쪽으로는 인계예술공원과 함께 문화행정기관, 오피스텔, 상가 등이 집중되어 있다.

인계동의 서부는 경수대로와 인접해서 비교적 규모가 큰 병원과 상가들이 있으나, 좀 더 서쪽으로는 오래된 구시가지 지역으로 단층주택, 빌라, 아파트, 소형상가, 학교 등이 혼재하고 있는 복합 주거지역이다. 건물의 규모와 면적도 경수대로와 멀어질수록 작아지며, 도로망도 직교형이나 방사형이 아닌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다. 곳곳에 작은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1980년대의 대표적인 아파트로는 무궁화아파트(1986년 6월 입주)와 은하아파트(1987년 5월 입주)가 있으며, 전원아파트(1992년 3월 입주), 영광아파트(1995년 10월 입주), 장안6차아파트(1995년 12월 입주)는 1990년대 입주한 대표적 아파트라 할 수 있다. 2000년대에는 CJ아파트(2001년 6월 입주)를 비롯하여 비교적 단지 규모가 큰 파밀리에아파트(2009년 6월)와 주상복합인 희성연인아파트(2012년 5월 입주)가 대표적인 아파트이다.

5. 인계동의 인구 변화와 경제활동

1)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고령화하는 인계동

1960년 인계동의 인구는 총 7,433명(남자 3,648명, 여자 3,785명)으로 세류동(1만 113명)과 지동(8,515명) 다음으로 수원시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인계동의 인구 규모의 변화〈그림 39〉를 보면, 인계동의 총인구는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

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그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하고 있다. 1980년에 2만 명에 도달했던 인구는 1990년에 3만 명에 도달하였으나, 이후 4만 명 규모에 도달한 것은 20년 후인 2010년에 가능하였다. 이후 2015년에 소폭 증가한 4만 3,412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 3만 9,461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8년 현재 인계동은 수원시에서 10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팔달8구역과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이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총인구수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변화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1965~1970년에 연평균 8.0%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높은 인구 증가를 보인 기간으로 밝혀졌다. 1970~1975년은 세 번째로 높은 연평균 6.0%, 1975~1980년은 5.7%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으며, 1980~1985년은 6.8%로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시기이다. 1985~1990년은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기록해 인구 증가 추세가 둔화하였으나, 1990~1995년은 연평균 4.0%대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어 2000년까지 1.1%의 연평균 인구 증가를 보였고 2000~2005년에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었다. 이후 2005~2010년에 약간의 반등을 보이나 2010년 이후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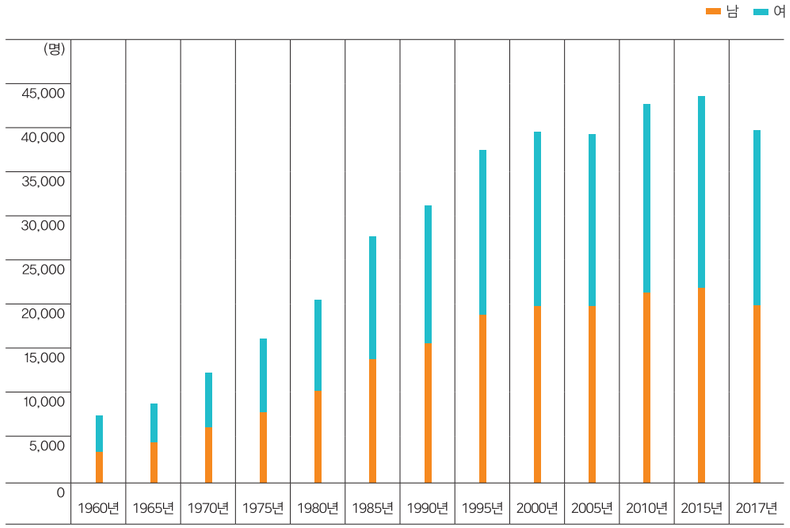


그림 39 인계동 인구 규모의 변화

인계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의 인구피라미드를 작성하였다〈그림 40〉. 인구피라미드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인 형태에 따라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혹은 방추형), 별형(혹은 도시형)이 있다. 피라미드형은 개발도상국에 많이 나타나는 다산다사형의 형태로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고 노년층의 비율이 적은 형태이다.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로 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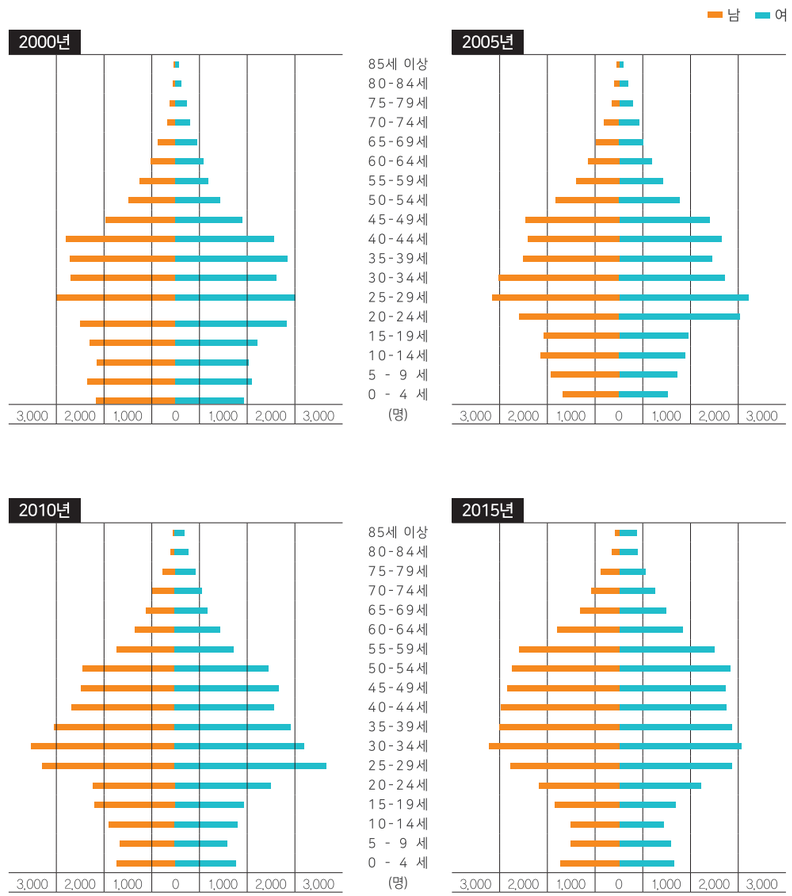


그림 40 인계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그림 41 2008년 인계동 마을음악회에 참석한 인계동 주민들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형태로 과거 선진국에 많이 나타난 형태이다. 항아리형(혹은 방추형)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감소하며 유소년층의 인구가 청장년층보다 적은 형태로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별형은 도시형이라고도 하며 청장년층의 전입 인구 증가로 청장년층과 그 자녀들인 유소년층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인계동은 이미 2000년부터 인구 증가가 둔화한 별형의 형태를 보인다.

시기별 인구피라미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 인구피라미드는 25~29세의 비중이 남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20~44세 5세 간격 연령대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한다. 20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각 연령대 평균 1,500명 수준을, 여자의 경우는 각 연령대 평균 1,300명 수준을 나타내었다. 유소년층의 경우 남자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는 나이가 어릴수록 인구가 적어지고 있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45세 이상의 인구는 자연적인 피라미드형태를 보이며, 45~59세는 남자가, 60세 이후부터 여자가 많은 인구구성을 보인다.

2005년의 인구피라미드는 2000년에 비해 사회적 인구 증가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특히 20~29세의 여자 인구, 25~34세 남자 인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반면에 35~44세의 남자 인구와 35~49세의 여자 인구는 감소하였다. 20세 미만 인구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인구 규모가 작아지는 형태를 보이며, 특히 4세 이하 여자의 경우는 1,000명 미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60세 이상 인구는 5년 전인 2000년에 한 단계 어린 연령대의 인구수가 다음 단계의 연령대로 이어지고 있어, 낮은 사망률의 영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인구피라미드는 청장년층의 사회적 인구 증가가 특징적이다. 남자의 경우는 25~44세, 특히 30~34세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25~54세, 특히 25~29세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남자 인구 중 15~19세의 구간을 제외한 25세 미만의 규모는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20~24세의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5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할 때 청장년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였다. 또한, 50세 이상의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으며, 실제 65세 인구의 비중이 2010년에 7.0%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의 기준에 도달하였다.

2015년의 인구피라미드는 2010년에 비해 더욱더 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젊은 노동인구가 줄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5년에 이르러 9.3%로 증가하였다. 또한, 50세 이상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55~59세의 남여 인구가 모두 크게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 80세 이상의 인구의 증가가 현저하였다.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남자는 25~39세 연령층에서 그리고 여자는 25~29세 연령층에서 인구가 많이 감소하였다. 5~9세 및 10~14세의 인구도 남녀 모두 1,000명 아래로 감소해 자연적인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증가가 정체된 한국인과는 달리, 인계동의 외국인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인계동의 등록외국인수의 변화를 토대로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1995년 총 71명의 등록외국인수는 5년 만인 2000년에 92명이 증가하여 129.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다시 5년 후인 2005년은 2000년에 비해 229명이 늘어나 140.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무려 1,050명이 증가하여 267.9%의 최대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5년은 2010년 대비 56.9%

표 1 인계동의 등록외국인수 변화

(단위 : 명)

구분 / 연도	남	여	합계
1995년	45	26	71
2000년	76	87	163
2005년	179	213	392
2010년	727	715	1,442
2015년	1,171	1,091	2,262
2016년	1,098	1,032	2,130

자료 :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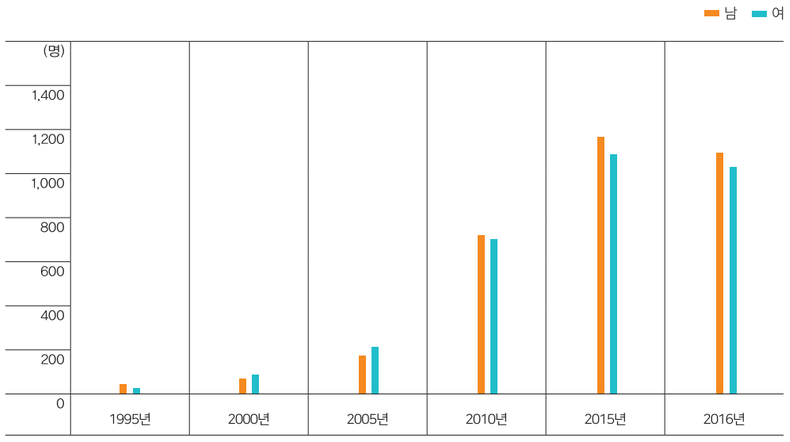


그림 42 인계동의 등록외국인수 변화

의 증가율로 다소 증가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려 820명이 증가하여 이 기간에도 외국인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년 후인 2016년에는 오히려 132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정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 등록외국인의 남녀비율은 2000년과 2005년에는 여자 외국인의 비율이 높다가 이후로는 남자 외국인의 비율이 약간 높게 유지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인계동의 한국인 인구 증가가 정체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등록외국인수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경기도의 등록외국인수가 2002년 이후 급증했던 것과 일치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04년에 전국의 등록외국인수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1.0%를 넘어섰으며 2016년에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2.8%에 이르렀는데, 인계동의 경우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5.4%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팔달구 전체 6.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13)]

2) 금융 · 소비 · 행정의 중심지 인계동

인계동의 경제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산업대분류에 따른 부문별 사업체수를 분석하였다〈표 2〉. 인계동의 사업체수는 1997년 4,053개로 조사된 이후, 2005년에 93개의 사업체가 감소한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6,087개를 기록하여 2010년 대비 1,332개가 증가하였다.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119개의 사업체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 부문별 추세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1997년 213개의 사업체수를 기록한 후 2000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123개의 사업체를 기록하여 큰 감소를 겪었고, 2015년에 다시 185개로 증가하였으나,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건설업은 1997년에 269개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에 233개로 감소하였고, 2005년에 264개로 반등하였으나, 2010년에 169개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5년에 237개, 2016년에 250개를 기록하였으나, 1997년 사업체수의 약 9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매업 및 소매업은 2000년에 사업체수가 1997년 대비 6.9%가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2000년 대비 12.5%가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사업체수가 다시 증가하여 1,054개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676개가 늘어나 1,730개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도 14개가 증가하여 소폭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운수업은 2005년까지

표 2 인계동에 입지한 주요 사업체수 변화

(단위 : 개)

산업 분류	1997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전 체	4,053	4,749	4,656	4,755	6,087	6,206
제조업	213	227	219	123	185	172
건설업	269	233	264	169	237	250
도매업 및 소매업	1,163	1,083	948	1,054	1,730	1,744
운수업	220	259	309	220	278	285
숙박업 및 음식점업	1,017	1,269	1,174	1,259	1,342	1,352
금융업 및 보험업	199	224	260	270	305	3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364	196	222	266	354	388
사업지원 서비스업	–	282	312	143	199	197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9	10	11	8	10	10
교육서비스업	116	144	117	137	146	15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2	90	102	149	201	20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05	497	479	549	602	623
기 타	6	235	239	408	498	497

자료 :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 연도.
비고 : 1997년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이 별도로 조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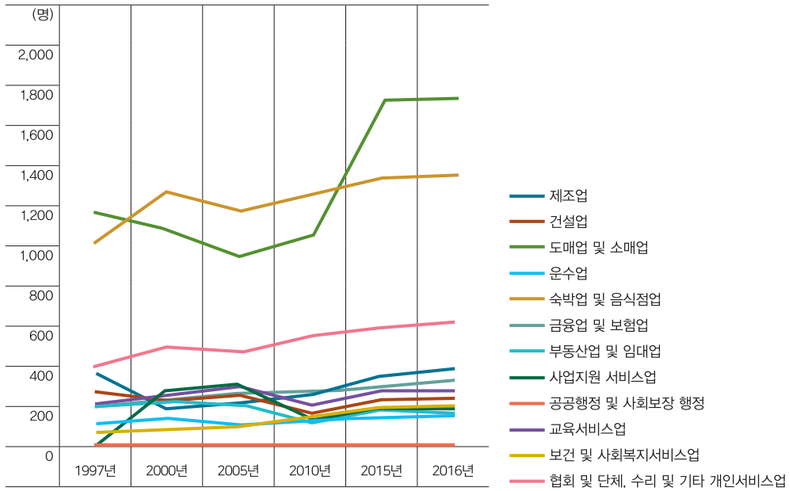


그림 43 인계동에 입지한 주요 사업체수 변화

사업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309개에 이르렀으나, 201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다시 1997년과 같은 220개를 기록하였다. 2015년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2010년 대비 58개가 증가하여 278개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도 지속해서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으나 2005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숙박업 및 음식점업은 2005년에 2000년 대비 사업체수가 7.5%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사업체수가 증가하였는데, 2010년은 2005년 대비 6.8%, 2015년은 2010년 대비 6.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금융업 및 보험업은 2005~2010년을 제외하고 전 기간 10% 이상의 성장을 보였는데, 사업체수 증가가 1997~2000년 11.2%, 2000~2005년 13.8%, 2005~2010년 3.7%, 2010~2015년 11.4%로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997년 364개를 기록한 이후 2015년까지도 과거의 사업체수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1997년 국가 재정위기 이후 3년이 지난 2000년에는 1997년 대비 46.1%가 감소한 196개로 조사되었다. 2005년에는 2000년 대비 11.7% 증가,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24.8%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체수가 354개에 이르러 1997년 대비 약 97%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국가 재정위기 이후 20년이 지난 2016년이 되어서야

그림 44 인계동의 숙박업과 음식점업

비로소 1997년의 사업체수를 넘어선 388개를 기록하였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000년에 282개로 시작하여 2005년에 312개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143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2015년 이후로는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나 2005년 대비 약 6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은 1997년 9개에서 2005년 11개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10개로 조사되어 사업체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교육서비스업은 2000년에 1997년 대비 24.1% 정도 증가한 이후 2005년 다시 1997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137개의 사업체, 2015년에는 146개의 사업체, 2016년에는 155개의 사업체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997년 72개로 조사된 후 지속해서 그 수가 늘어나, 2000년에는 1997년 대비 20%, 2005년에는 2000년 대비 11.7%,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31.5%,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25.8%의 사업체수가 증가하여, 2016년 206개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1997년 405개의 사업

체수를 기록한 이후 2000년에는 1997년 대비 18.5% 증가한 497개, 2005년에는 2000년 대비 3.6% 감소한 479개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12.7% 증가한 549개의 사업체,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8.8% 증가한 602개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도 2015년 대비 3.3% 증가한 623개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각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보면, 인계동은 도매업 및 소매업의 비중이 28.1%, 숙박업 및 음식점업이 21.8%를 차지하여, 두 산업이 전체 사업체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인계동의 주요 산업이 많은 유동인구를 배경으로 하는 소비산업임을 의미한다. 수원시청 뒤 먹자골목과 나혜석거리 주변은 이러한 업종이 밀집된 대표적인 곳이다. 또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6.3%, 금융업 및 보험업 5.3%의 순으로 3개 산업 부문이 21.6%를 차지한다. 따라서 인계동은 도매업 및 소매업과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집중으로 설명되는 소비중심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원시청 및 문화공간의 입지와 관련시킬 수 있는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의 중심지이며, 부동산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역적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인계동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1997년 2만 9,360명에서 2016년 4만 7,438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표 3〉. 2005년에는 2000년 대비 2.1% 증가하여 약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사업체수가 크게 증가했던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종사자수 역시 1만 489명이 증가하여 약 2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에는 특히 건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서 큰 고용자수 증가세를 보였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1997년 7.2명이었던 것이 2016년 7.6명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산업 부문별 종사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1997년 1,168명에서 2000년 1,568명으로 25.5%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2000년 대비 약 5%가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약 74%의 종사자수가 감소하였고, 2015년과 2016년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건설업은 시기에 따라 부침이 큰 부문인데, 1997년 5,339명을 기록한 후, 2000년에는 61.1%가 감소한 2,076명을 기록하였고, 2005년에는 2000년 대비 47.7% 증가한 3,066명으로 회복되었으나 2010년에는 다시 2,41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5년에는 4,172명, 2016년에는 4,278명으로 1997년 대비 약 80%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도매업 및 소매업은 1997년 6,844명이었으나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415명으로 줄었다. 2015년에는 다시 반등하여 5,931명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하여 1997년 대비 약 86% 수준을 보인다. 운수업은 1997년 470명을 기록한 이후, 2000년에는 40%가 증가한 658명, 2005년에는 약간 감소한 651명,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약 6% 증가한 690명, 2015년에는 713명을 기록하였다.

숙박업 및 음식점업은 1997년 3,645명이었던 종사자수가 2000년 5,157명으로 41.5%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4,665명으로 2000년 대비 9.5%가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약 7.8%가 증가한 5,027명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6,534명으로 약 30%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6,227명을 기록하여, 1997년 대비 1.7배 수준을 보인다. 금융업 및 보험업은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1997년 4,681명이었던 종사자수는 2000년 6,446명으로 약 38% 증가하였으며, 2005년

표 3 인계동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종별 변화

(단위 : 명)

산업 분류	1997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전 체	29,360	33,271	33,985	36,110	46,599	47,438
제조업	1,168	1,568	1,491	389	521	520
건설업	5,339	2,076	3,066	2,411	4,172	4,278
도매업 및 소매업	6,844	5,707	4,656	4,415	5,931	5,890
운수업	470	658	651	690	713	71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645	5,157	4,665	5,027	6,534	6,227
금융업 및 보험업	4,681	6,446	6,199	7,166	7,855	8,1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3,309	982	981	1,587	1,801	2,320
사업지원 서비스업	–	3,223	5,222	4,888	7,537	7,083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954	1,919	1,536	1,334	1,982	2,051
교육서비스업	638	1,590	1,504	1,497	1,402	1,48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88	778	1,013	1,750	2,400	2,6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436	1,666	1,600	1,906	2,034	2,136
기 타	388	1,501	1,401	3,050	3,717	3,998

자료 :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 연도.
비고 : 1997년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이 별도로 조사되지 않았다.

그림 45 인계동 권광로 일대의 금융 관련 사업체(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그림 46 2019년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계동(김승일 제공)

에는 3.8% 감소한 6,199명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7,166명으로 15.6%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7,855명, 2016년에는 8,130명으로 1997년 대비 약 1.7배 증가하였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의 변동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었다. 1997년에 3,309명을 기록했던 종사자수는 2000년에 982명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에도 2000년과 비슷한 981명의 종사자수를 보인 후, 2010년에는 1,587명, 2015년에는 1,801명, 2016년에는 2,320명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 1997년의 70% 수준이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000년에 3,223명의 종사자수를 기록한 이후 2005년에 5,222명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6.4% 감소한 4,888명을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7,537명으로 2010년 대비 54.2%가 증가하였다.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은 1997년에 954명의 종사자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 1,91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이후, 2005년 1,536명, 2010년 1,334명, 2015년 1,982명, 2016년 2,051명에 이르렀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수는 1997년 638명이었던 것이 2000년 1,59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해서 종사자수가 증가하여 1997년의 488명에서 2016년에는 2,613명으로 증가하였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00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1997년 1,436명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136명을 기록하여 약 20년 동안 종사자수가 약 1.5배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기타 부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663명)은 교육서비스업보다 오히려 높은 종사자수를 보인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195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56명)도 상당한 종사자수를 가진다.

1997년과 2016년의 산업 부문 순위를 비교해 보면, 1997년은 도매업 및 소매업이 전체 종사자수의 23.3%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 18.2%, 금융업 및 보험업 15.9%, 숙박업 및 음식점업 1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3%의 순서였다. 그러나 이 순위는 2016년에 바뀌게 되는데, 2016년에 인계동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17.1%인 8,130명의 종사자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083명으로 14.9%, 숙박업 및 음식점업이 6,227명으로 13.1%, 도매업 및 소매업이 5,890명으로 12.4%, 그리고 건설업이 4,278명으로 9.0%를 차지하였다. 1997년에 종사자수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은 2016년에 각각 4위와 5위로 내려앉았다. 1997년 3위였던 금융업 및 보험업은 2016년에 1위를 차지하였으며, 4위였던 숙박업 및 음식점업은 3위로 상승하였다. 5위였던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7위로 밀려났는데, 이는 사업지원 서비스업(2위)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위) 종사자수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인계동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수를 가지고 있는 도매업 및 소매업은 종사자수를 기준으로는 전체 종사자수의 12.4%를 차지하며, 사업체수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던 숙박업 및 음식점업은 전체 종사자수의 13.1%를 차지한다. 특이하게도 2016년 사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불과했던 건설업은 종사자수 기준에서는 9.0%를 차지하여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평균 17.1명에 이른다. 가장 많은 사업체수를 보였던 도매업 및 소매업과 두 번째를 차지했던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순위가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3위와 4위로 후퇴한 것은 이들 업종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16년 평균 3.4명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평균 4.6명으로 전체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7.6명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전체 종사자수 기준으로 2위 업종에 해당하는 14.9%를 차지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5.3%를 차지했던 금융 및 보험업은 종사자수 기준으로 17.1%를 차지하여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평균 24.9명으로 종사자 규모가 상당한 금융 및 보험회사들이 인계동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수 분포에서 1997년 이후 IMF로 대변되는 국가적인 재정위기의 여파를 찾아볼 수 있는데, 1997년과 2000년 사이에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사자수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에 숙박업 및 음식점업, 금융업 및 보험업,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년이 지난 2016년의 경우, 건설업은 1997년과 비교하여 약 80% 수준으로 종사자수를 회복하였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997년 대비 약 70%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숙박업 및 음식점업과 금융업 및 보험업은 1997년과 비교하여 1.7배 이상 종사자수가 증가하였으며,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은 2.1배 이상,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5.3배 이상 종사자수가 증가하였다.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계동은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금융업 및 보험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됐지만, 제조업과 운수업은 입지가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관내 아파트 재개발과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신축과 관련한 건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회복도 특징적이다. 수원시청 및 공공문화기관의 입지와 관련하여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지속적인 강화도 인계동의 지역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6. 구시가지를 살리고 동서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한 인계동

수원 화성의 남동쪽에 자리한 인계동은 수원천의 동쪽에서부터 매탄1동과 경계를 형성하는 동수원로에 이르는 범위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시가지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계 안에 자리한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 수원의 도심 역할을 했던 팔달문 방면의 시가지는 1931년에 수려선 철도가 개설된 후 본수원역(1948년에 화성역으로 명칭 변경)이 생기면서부터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그 당시에 생긴 시가지의 동쪽 경계는 지금의 세지로이다.

1980년대 들어 수원시 도시 전체적으로 동서 간 불균형 개발이 심화됨에 따라 이미 시가지가 개발되었던 서수원에 대응하는 동수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시기에 일차적으로 세지로의 동쪽에서 경수대로의 서쪽에 이르는 구간의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이후 동수원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경수대로 동쪽에서 동수원로에 이르는 시가지가 개발되었고, 수원시청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및 상업업무기능이 입지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계동은 수원시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지만, 인계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가지의 역사는 3부분으로 단절된 듯하다.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서쪽의 시가지는 개발이 가장 부진한 동시에 노후화가 진행되었지만, 동수원 개발과 함께 조성된 동쪽의 시가지는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신시가지이다.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는 물과 기름 같아서 서로 융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인계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계동에서 나타나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차별적 성장은 인계동의 동서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노후 시가지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며, 대부분 저층의 주거단지로 구성된 서쪽의 주택단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인계동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1) 인계동, 지동, 고등동, 영화동, 송죽동, 호매실동, 금곡동, 구운동, 원천동 등 9개 동의 법정동 경계와 행정동 경계가 일치한다.
2) 수원시 팔달구(https://paldal.suwon.go.kr).
3)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2014, 42~43쪽.
4) 원천천은 원천리천이라고도 불린다.
5) 건설부 국립지리원, 『한국지지: 지방편 1(서울, 인천, 경기)』, 1984, 356쪽.
6)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수원문화원, 1986, 68~71쪽.
7) 수원시, 『2011 수원시정백서』, 미즈커뮤니케이션, 2011, 796~797쪽.
8) 수원시,『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현대지도문화사, 2000, 91쪽.
9) 남영우·최재헌·손승호, 『세계화시대의 도시와 국토』, 법문사, 2018, 418쪽.
10)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의 지명 유래–중부편』, 2008, 212쪽.
11)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의 지명 유래–중부편』, 2008, 216쪽.
12) 수원시 연화장(https://www.suwonudc.co.kr/suwonyhj/mainPage.do).
13) 2016년 『수원통계연보』에 있는 인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이다.

교동의 매산로에 위치하였던 수원시청이 1987년에 인계동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수원의 중심지가 수원역 부근에서 경수산업대로를 넘어 인계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동수원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시청의 이전으로 도시의 중심상권으로 성장한 인계동은 2000년대 영통중심상권이 성장하기 전까지 1990년대 수원시 내 다양한 기업의 직장인이 가장 많이 찾는 상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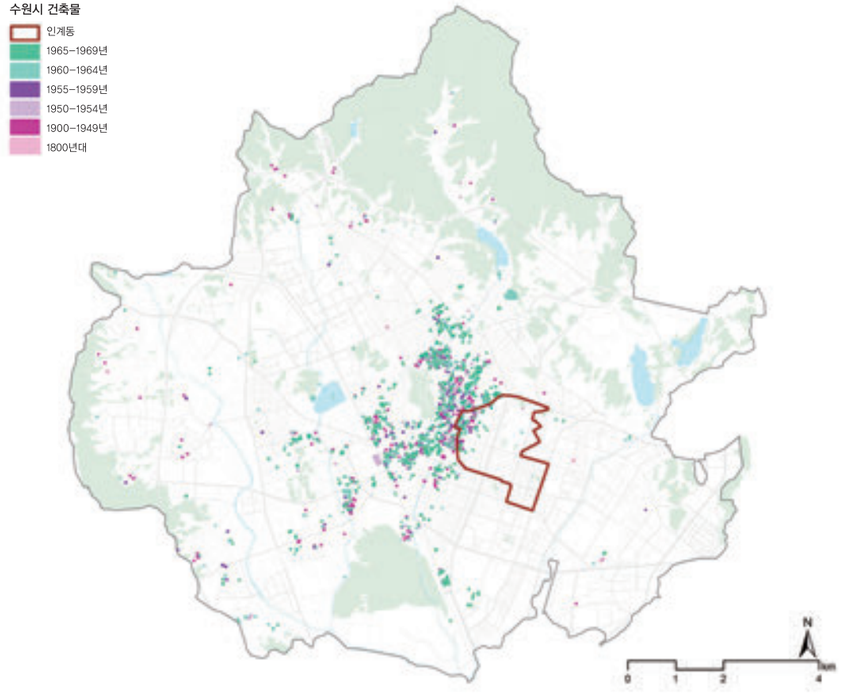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행궁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2장 | 인계동의 도시공간구조

1. 수원시의 도시 변천과 인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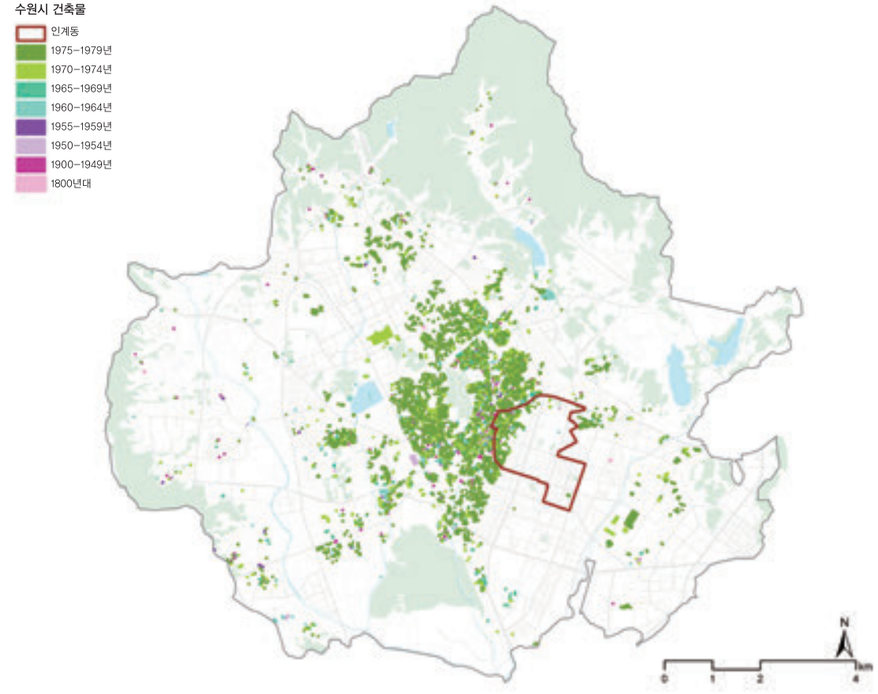
인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의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수원 화성 내 십(十)자로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던 수원 지역은 1905년에 수원역이 개통된 이후 팔달문에서 수원역까지의 가로(매산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다. 1956년 수원시청사가 팔달구 매산로 119(교동 74-1)로 옮겨지고, 1967년 서울 중구 세종로에 위치하던 경기도청이 효원로 1(매산로3가)로 이전하면서 수원역과 팔달문 사이의 도시공간은 수원의 중심을 넘어 경기도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과정에서 팔달지구(팔달로1가, 팔달로2가, 영동, 남수동)에 1954년 3월 13일부터 1965년 4월 19일까지 9만 6,987㎡ 면적으로 주거지가 개발되면서, 팔달지구 우측에 위치한 현재의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와 팔달지구 사이의 공간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인계동은 수원의 주요 주거지역으로 인식되기보다 수원역에서 수원천을 지나 확장되어 온 주거지의 연장선상에서 인계동의 서쪽 끝자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900~1969년 5년 단위의 수원시 건축물 조성 현황과 인계동의 공간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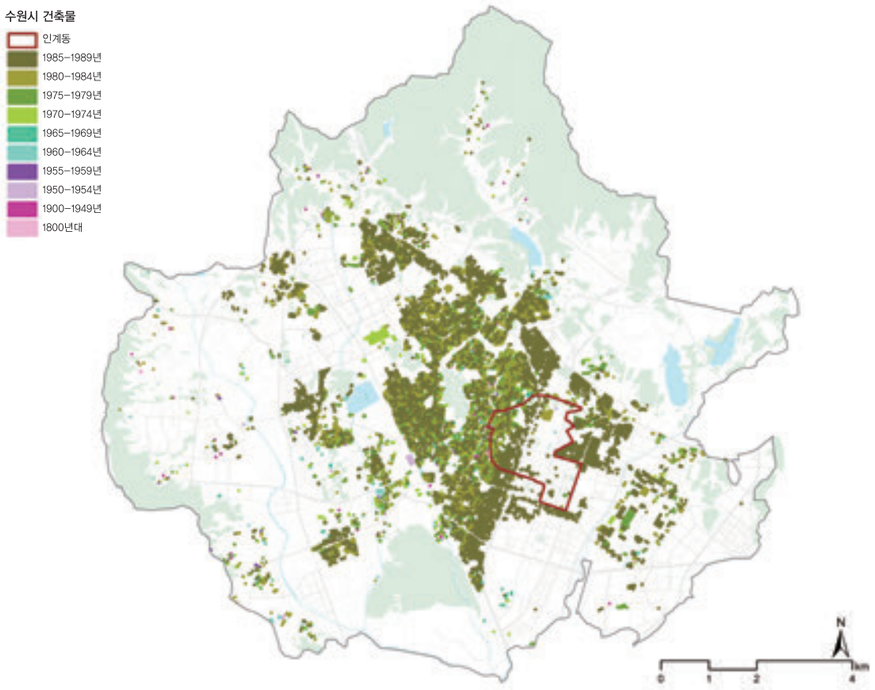
1970년대에 들어서 인계동 주변 지역에는 큰 변화들이 나타났다. 1973년 8월 삼성전자 본사가 수원으로 이전하고, 1976년 11월 경수산업도로가 개통된 데 이어 1981년 연장 구간이 인계동을 관통하면서 수원시에서 인계동의 입지는 크게 변화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까지 고화지구(매산로1가, 매산로2가, 고등동, 화서동), 영화1지구(영화동, 정자동, 조원동, 송죽동), 역전1~2지구(세류동, 고등동, 매산로1가, 매산로2가) 등 수원역과 동수원까지의 공간에 집중되었던 주거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 경수산업도로 인근 지역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1900~1979년 5년 단위의 수원시 건축물 조성 현황과 인계동의 공간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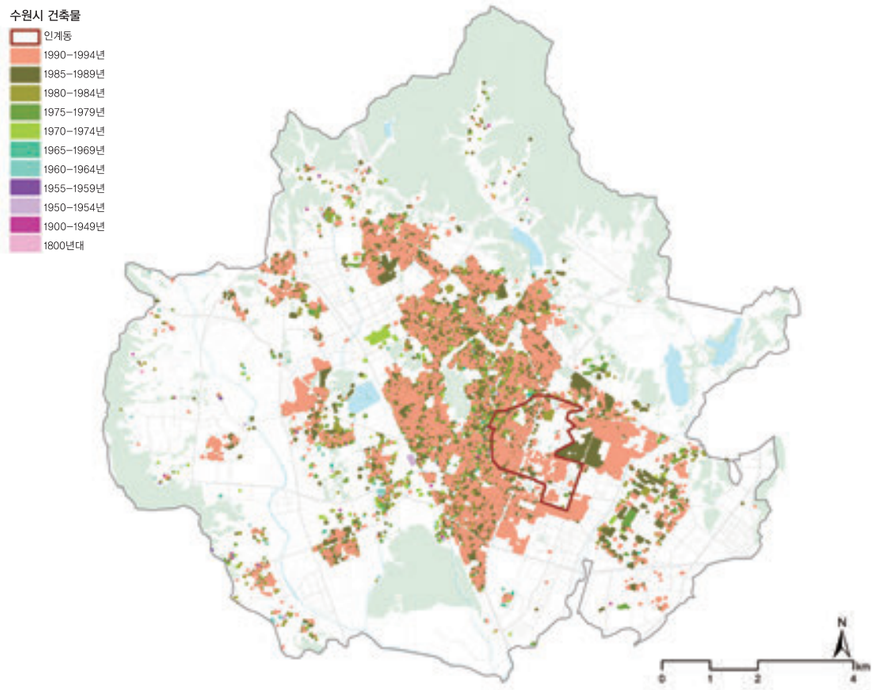
다음으로 인계동의 큰 변화를 이끈 요인은 지만인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이다. 지만인계지구는 1970년대까지 수원천 주변으로 조성되었던 주거지역을 경수산업도로까지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81년 7월 1일부터 1989년 5월 31일까지 112만 6,978㎡의 면적에 진행된 지만인계지구 조성사업에는 지동, 우만동, 연무동, 인계동이 포함되었다. 1981년 11월 17일부터 1989년 11월 11일까지 유사한 시기 진행된 권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도 인계동이 포함되면서 경수대로 서측 지역은 신주거지역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1980년대 인계동의 큰 변화는 수원시청의 이전이다. 1956년부터 매산로에 자리 잡았



1900~1989년 5년 단위의 수원시 건축물 조성 현황과 인계동의 공간적 관계

던 수원시청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7년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1111),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수원시청의 이전은 인계동이 경수산업도로 서쪽에 편중된 개발에서 동쪽으로 개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거지를 넘어 수원시의 새로운 상업 중심공간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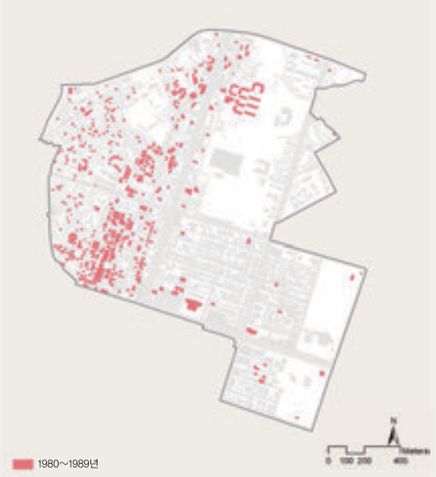


1900~1994년 5년 단위의 수원시 건축물 조성 현황과 인계동의 공간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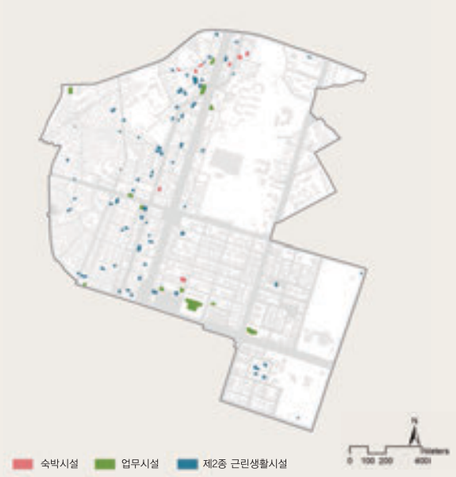
2. 인계동의 도시공간 특성

1) 도시공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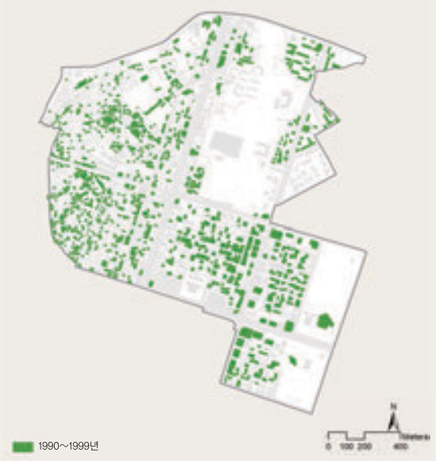
수원시의 도시 변천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계동은 경수산업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었고, 동쪽은 수원시청의 이전과 함께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업공간으로서 인계동은 명암이 존재하였다. 수원시청 인근 지역은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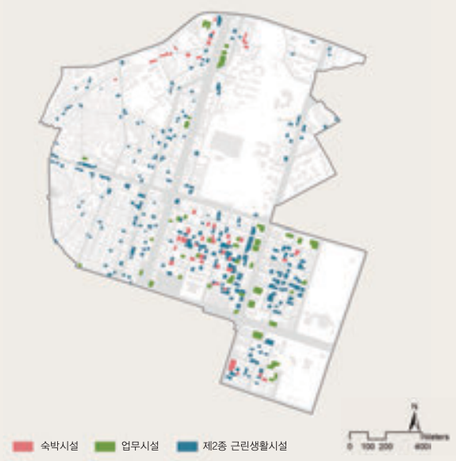
1980~1989년 인계동에 조성된 건축물



1980~1989년 인계동 숙박, 업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1990~1999년 인계동에 조성된 건축물



1990~1999년 인계동 숙박, 업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무시설의 증가와 함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인계동의 도시공간 특성은 인계동의 성장과 숙박, 업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변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다.

인계동이 주거지로 본격 조성된 것은 1980년 초 지만인계지구이다. 1980년 초에는 팔달지구의 외연적 확산결과 현재의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소규모 주택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숙박, 업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입지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만인계지구의 조성으로 본격적으로 인계동이 주거지역이 마련되면서 경수산업도로 서쪽의 주거지는 크게 증가하였다. 경수산업도로의 영향으로 주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늘어났으나,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주목할 수준은 아니었다.

인계동이 현재와 유사한 상업지역이 밀집하게 된 계기는 1987년 수원시청 이전이다. 수원시청이 1987년 인계동으로 이전한 이후 1990년대에 급격하게 수원시청 인근 지역에 건축물이 증가하였다. 1980년대까지 인계동에 증가한 건물은 대부분 주거용도였던 것과는 달리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 숙박시설이다. 경수산업도로 주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분산되어 분포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원시청 뒤편과 현재의 나혜석거리 주변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업무, 숙박시설이 집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 인계동의 특징

19세기 산업혁명으로 공업도시가 형성되면서 근대적 도시계획 이론이 형성되었는데, 페리(C. A. Perry)의 근린주구 이론을 살펴보면 마을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약 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근린주구가 모여 형성된 2차 생활권, 2차 생활권이 모여 형성된 3차 생활권의 중심은 시청이다. 하나의 완결된 도시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느끼는 실질적인 도시의 범위를 3차 생활권으로 봤을 때 시청은 도시의 중심이다. 현대의 도시계획에서는 미개발지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균형발전을 목표로 시청의 위치를 이전하기도 한다. 시청 등 관청의 이전이 지역 주민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로 작동하는 이유이다.

교동의 매산로에 위치하였던 수원시청이 1987년에 인계동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수원의 중심지가 수원역 부근에서 경수산업대로를 넘어 인계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동수원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시청의 이전으로 도시의 중심상

1979년 도시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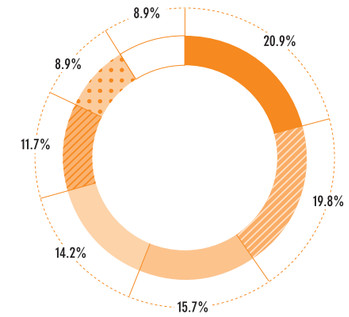
1989년 도시기본계획

권으로 성장한 인계동은 2000년대 영통중심상권이 성장하기 전까지 1990년대 수원시 내 다양한 기업의 직장인이 가장 많이 찾는 상권이 되었다.

인계동은 수원시 상업의 중심지이다. 상업시설의 변화는 도시공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와 광역화 등으로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수도권은 대규모 택지개발, 광역교통망 등의 발달로 인구가 밀집되고, 그로 인한 기반시설이 밀집되면서 상권도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 따라서 상업시설의 흥망 및 업종의 변화를 통해 그 지역의 공간과 생활 패턴의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수원시와 인계동의 상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원시의 상권정보는 총 14개소로 수원시청은 주요 상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 주요 상권 매출액은 망포역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며, 매출건수로는 망포역, 수원역, 경희대입구 상권에 이어 4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수원은 2000년대 초반 인구 100만 명을 넘기며,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2000년부터 20여 년간 상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원시와 인계동의 인허가 상업시설을 시계열로 구분



수원시 주요 상권 월평균 매출건수

	단위 :만 원
망포역	2,605
수원역	2,464
경희대입구	1,955
수원시청	1,773
성균관대	1,453
영통역	1,108
아주대삼거리	1,108

(2017년 하반기 기준)

수원시 주요 상권 월평균 매출액

	단위 :만 원
망포역	9,235
수원시청	8,510
영통역	6,117
경희대입구	5,298
수원역	5,243
아주대삼거리	3,539
성균관대	3,406

하고, 업종의 대분류, 중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업종 간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업종은 크게 건강, 동물, 식품, 자원환경, 문화, 생활, 기타 등 총 7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중구분과 세구분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중구분까지의 업종을 통해 수원과 인계동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수원시 상업 업종의 변화를 살펴보면, 식품과 생활 업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으나 비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전체 식품과 생활 업종 비율은 2000년대 각각 45.9%, 22.5%로 약 13.4%의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식품 38.9%, 생활 36.0%, 두 업종 간 격차는 2.9%로 그 차이가 확연히

인허가 업체 업종 구분기준

대구분	중구분	대구분	중구분
건강	의료기관	문화	게임
	의료기기		공연
동물	동물		관광
	축산		문화기획
식품	급식		노래방
	식품제조/가공/판매		비디오
	유흥주점/단란주점		숙박
	음식점		여행
자원환경	목재		영화
	에너지		음악
	지하수	생활	미용
	환경관리		이용
기타	미디어		세탁소/빨래방
	담배		유통
	물류		체육
	민방위		목욕탕/찜질방/사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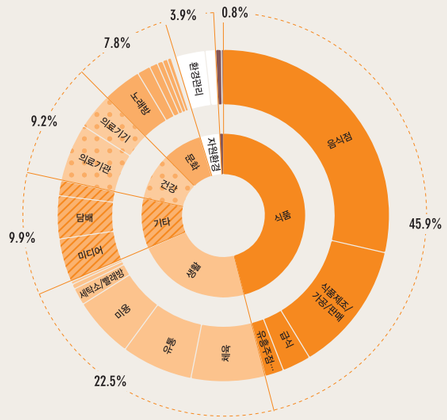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물 업종의 성장이 눈에 띄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업종에서의 비율은 낮으나, 타 업종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에 비해서 동물 업종의 비율은 0.8%에서 1.7%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업종별 비율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식품 업종의 비율 감소는 음식점과 유흥주점·단란주점 업종의 비율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 업종의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유통 업종의 비율 증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통 업종의 경우 2000년대 7.0%였던 비율이 2010년대 27.8%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체육 업종 비율은 7.2%에서 1.7%로 약 5.5%가 하락하였으나, 유통업의 성장 폭이 전체 생활 업종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이를 상쇄할 수 있었다.

문화 분야에서는 게임 업종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노래방, 비디오 업종은 하락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공연이나 음악, 문화기획 등의 업종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향후 수원시의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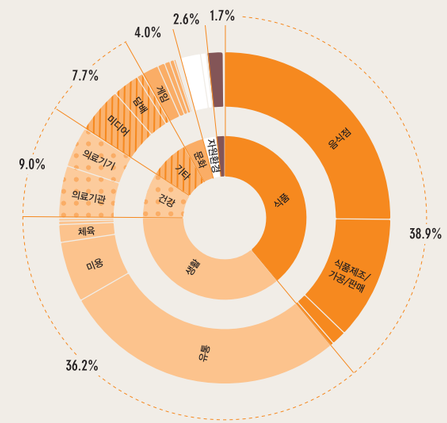
전체 업종 중 비율이 높은 주요 업종들의 업체수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

수원시 인허가 업체의 업종별 비율



수원시 (2001~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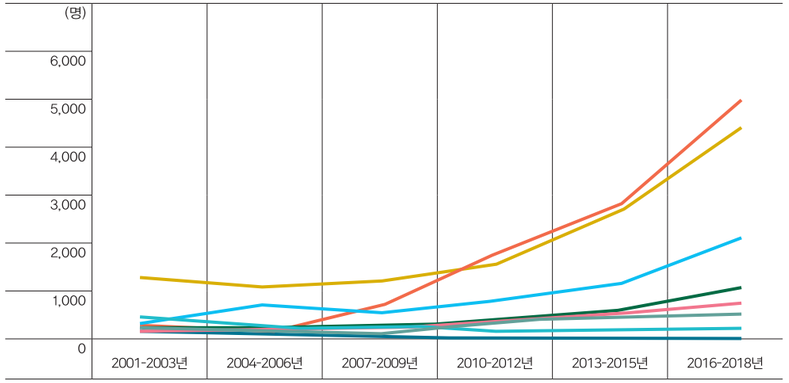
	대구분	업종비율	중구분	업종비율
	건강	9.2	의료기관	5.7
			의료기기	3.5
	동물	0.8	동물	0.6
			축산	0.2
	문화	7.8	게임	0.8
			공연	0.1
			관광	0.1
			문화기획	0.1
			노래방	3.8
			비디오	0.4
			숙박	1.3
			여행	0.5
			영화	0.5
			음악	0.1
	생활	22.5	미용	5.9
			이용	0.5
			세탁소/빨래방	1.7
			유통	7.0
			체육	7.2
			목욕탕/찜질방/사우나	0.3
	식품	45.9	급식	2.8
			식품제조/가공/판매	12.7
			유흥주점/단란주점	1.8
			음식점	28.6
	자원환경	3.9	목재	–
			에너지	1.0
			지하수	0.0
			환경관리	2.9
	기타	9.9	미디어	4.3
			담배	4.2
			물류	–
			민방위	1.5



수원시 (2010~2018)

	대구분	업종비율	중구분	업종비율
	건강	9.0	의료기관	5.1
			의료기기	4.0
	동물	1.7	동물	1.6
			축산	0.1
	문화	4.0	게임	1.6
			공연	0.0
			관광	0.1
			문화기획	1.0
			노래방	0.7
			비디오	2.0
			숙박	0.4
			여행	0.5
			영화	0.1
			음악	0.1
	생활	36.0	미용	5.9
			이용	0.3
			세탁소/빨래방	3.0
			유통	27.8
			체육	17.0
			목욕탕/찜질방/사우나	0.0
	식품	38.9	급식	14.0
			식품제조/가공/판매	12.1
			유흥주점/단란주점	0.3
			음식점	25.1
	자원환경	2.6	목재	0.1
			에너지	0.6
			지하수	0.0
			환경관리	2.0
	기타	7.7	미디어	2.6
			담배	4.5
			물류	0.0
			민방위	0.6

수원시 주요 업종 인허가 업체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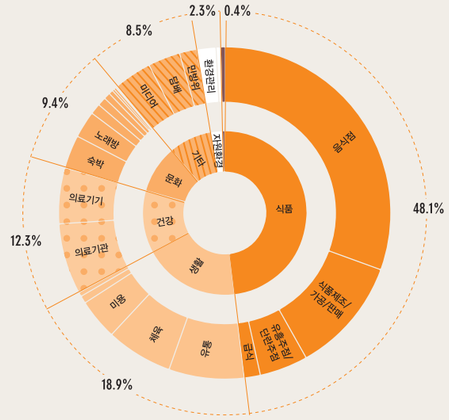
대구분	중구분	2001–2003년	2004–2006년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	2016–2018년
식품	식품제조/가공/판매	338	710	575	851	1,234	2,075
	유흥주점/단란주점	125	59	48	35	42	36
	음식점	1,279	1,121	1,247	1,594	2,693	4,382
생활	미용	228	231	299	407	599	1,032
	유통	46	123	718	1,818	2,793	4,967
	체육	464	172	284	161	195	236
건강	의료기관	289	224	208	437	543	770
	의료기기	139	155	157	317	493	558

다. 비율은 업종 간의 상대적 증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구분 기준의 주요 업종을 바탕으로 수원시의 상업 분야 성장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음식점은 타 업종에 비해 인허가 업체수가 매우 높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위에 올라 있으며, 그 격차도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앞서 비율에서 음식점 업종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수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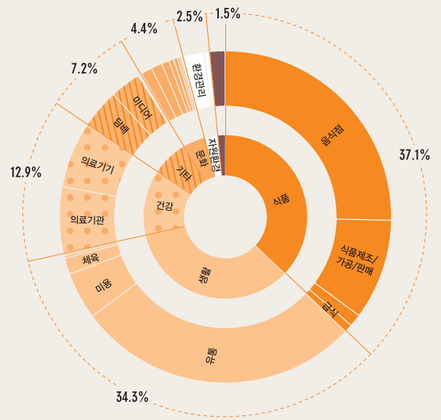
반면 유통 업종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업체수가 가장 낮았으나, 2007년부터 급격한

인계동 인허가 업체의 업종별 비율



인계동 (2001~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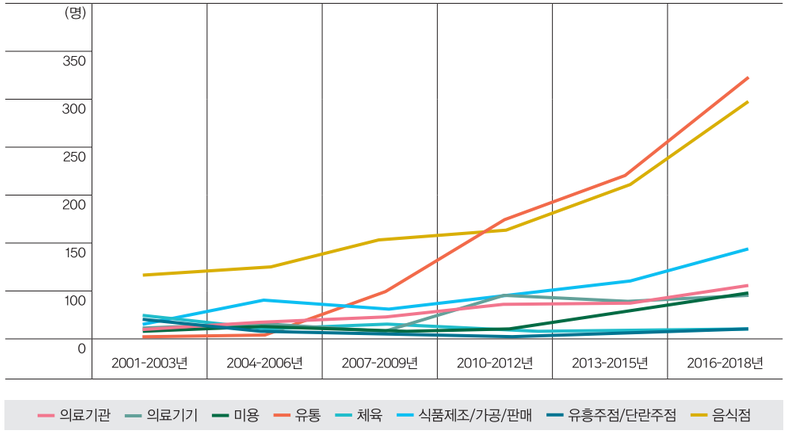
대구분	업종비율	중구분	업종비율
건강	12.3	의료기관	6.9
		의료기기	5.4
동물	0.4	동물	0.3
		축산	0.1
문화	9.4	게임	0.8
		공연	0.6
		관광	0.1
		문화기획	0.2
		노래방	2.6
		비디오	0.4
		숙박	3.2
		여행	1.0
		영화	0.2
		음악	0.1
생활	18.9	미용	4.0
		이용	0.0
		세탁소/빨래방	0.7
		유통	7.3
		체육	6.5
		목욕탕/찜질방/사우나	0.4
식품	48.1	급식	1.6
		식품제조/가공/판매	11.3
		유흥주점/단란주점	4.7
		음식점	30.5
자원환경	2.3	목재	0.0
		에너지	0.4
		지하수	0.0
		환경관리	1.9
기타	8.5	미디어	3.7
		담배	3.1
		물류	0.0
		민방위	1.7



인계동 (2010~2018)

대구분	업종비율	중구분	업종비율
건강	12.9	의료기관	6.5
		의료기기	6.4
동물	1.5	동물	1.5
		축산	0.0
문화	4.4	게임	1.1
		공연	0.0
		관광	0.2
		문화기획	0.1
		노래방	0.4
		비디오	0.5
		숙박	1.1
		여행	0.7
		영화	0.2
		음악	0.1
생활	34.3	미용	4.6
		이용	0.2
		세탁소/빨래방	0.2
		유통	27.7
		체육	1.6
		목욕탕/찜질방/사우나	0.0
식품	37.1	급식	0.8
		식품제조/가공/판매	9.8
		유흥주점/단란주점	1.2
		음식점	25.3
자원환경	2.5	목재	0.0
		에너지	0.5
		지하수	0.0
		환경관리	2.0
기타	7.2	미디어	3.0
		담배	3.8
		물류	0.0
		민방위	0.4

인계동 주요 업종 인허가 업체수 변화



대구분	중구분	2001-2003년	2004-2006년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	2016-2018년
식품	식품제조/가공/판매	21	48	39	54	72	110
	유흥주점/단란주점	28	9	8	6	12	11
	음식점	80	90	122	134	189	286
생활	미용	11	16	11	14	40	57
	유통	2	8	60	145	201	320
	체육	29	13	20	13	12	13
건강	의료기관	15	21	30	43	47	66
	의료기기	17	21	14	53	46	56

성장을 시작해 현재 가장 많은 업체가 수원 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통 업종의 증가는 식품제조·가공·판매, 음식점 등의 업체 증가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의 성장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기간에 인계동 상업 변화를 살펴보면, 수원과 마찬가지로 생활 및 문화 분야의 업종수는 증가하고, 식품 업종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인계동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업종은 음식점(30.5%)이며, 식품제조·가공·판매(11.3%), 유통(7.3%) 등의 상업시설이 많이 집적되어 있었다. 인계동은 주로 식품, 생활, 건강 분야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업종의 대구분에 따른 비율은 2010년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생활과 식품 분야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기여한 업종은 유통(27.7%)으로, 2000년대에 비해 약 3.8배 정도 업종 비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2000년대에 비해 2010년에 감소한 업종도 있다. 음식점은 25.3%로 2000년대에 비해 약 5.2% 감소하였고, 유흥주점·단란주점은 4.7%에서 1.2%로 약 3.5%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계동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식품과 생활 업종의 상업시설 비율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음식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계동은 수원시청과 수원시청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왔고, 나혜석거리 등과 같이 유동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요 업종의 업체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3년 단위로 구분해 주요 업종의 업체수 증가 추이를 보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음식점과 유통업종의 업체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음식점과 유통업종의 업체수 증가 추세는 수원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의 경우 2001~2003년에 비해 2016~2018년에는 약 160배가 증가하면서, 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성장하였다. 음식점 업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전체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업체수는 오히려 증가해 타 업종과의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계동의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종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원 전체 추세에 비해 인계동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종의 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서 업종 비율에서 건강업의 비율이 지속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3. 인계동의 한계

상업시설과 유동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쓰레기, 주차 등의 도시문제를 불러온다. 시청 뒤편 인계박스, 나혜석거리를 중심으로 주변에 대형판매시설과 상업가로가 밀집하고 있고, 대형 건축물보다는 소형 건물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지하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판매시설

에서는 마을과의 상생을 위하여 인계동의 마을행사에 후원금을 통해 기여하고 있으나, 평소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나타난다.

수원시의 도시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서수원과 동수원의 지역 격차이다. 인계동은 작은 수원시이다. 수원시가 국철 1호선을 중심으로 서수원과 동수원으로 양분된 것과 유사하게 인계동도 경수산업도로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의 격차가 상당하게 나타난다.

인계동은 슬럼화되는 마을 분위기, 주택의 노후화, 다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부족,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주차 등이 난무한 자투리땅, 동네 주민 간 소통의 부재 등이 나타났다. 인계동 상업공간은 유동인구에 의한 불법투기물이 문제라면 인계동 구시가지는 여느 구시가지와 유사하게 자투리땅에 지역 주민들이 무단 투기한 대형 쓰레기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빈 집이 늘어나면서 우범지역가 되고 있으며, 급경사로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인계동 구시가지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8년도 담 없는 거리, 녹색거리 추진, 2013년 인계동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도시문제에 대한 종합적 처방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정책사업의 한계로 인계동의 지역 격차는 상당하게 남아 있다.

S 강점(Strength)

- 많은 문화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
- 호텔이 많아 관광객 수용 가능
- 많은 유동인구
- 행정시설이 집약됨
- 풍부한 교통
- 많은 기업(일자리)
- 특색 있는 거리
- 대규모의 상업공간
- 옛 지명이 계속 쓰임(문화복원 가능)
- 행궁동과 가까움

W 약점(Weakness)

- 재개발지역 등 구도심 주택의 노후화
- 복지시설(다문화, 노인복지)이 없음
- 쓰레기 무단투기
- 활용 못 하고 있는 자투리땅
- 인계동 고유의 특징을 살리지 못함
- 각 구간 소통이 적음
- 구도심지역에는 녹지, 휴식공간이 없음
- 신시가지의 주차난
- 환경 등으로 인한 악취
- 구도심의 삭막함
- 주민센터 규모가 작음

O 기회(Opportunity)

- 분당선 개통
- 올레길 활용 가능
- 인물, 역사, 문화, 환경적 요소 풍부
- 구도심지역의 특성(드라마 촬영 등)
- 수원 화성과 연계 가능

T 위협(Threat)

- 재개발로 인해 어두운 공간
- 구도심 지역 간 의견 차이
- 주민 참여 없는 개발

2015년 인계동 마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분석한 인계동의 모습

①

②

③

④

① 2016년 인계동 상업지역에 버려진 쓰레기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② 구시가지의 급경사에 따른 불편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③ 구시가지의 쓰레기 투기와 주차난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④ 빈 집이 많아 우범지역이 된 골목길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계동은 행정, 문화, 경제, 녹지, 주택 등 풍부한 자원을 소유한 복합형 마을이다. 장다리길 특성화 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맛과 문화와 볼거리가 있는 장다리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KBS수원센터 및 인계박스(BOX), 나혜석거리 등 인계동에 위치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과의 도보연계를 통해 슬럼화된 구시가지의 활성화를 시민들은 원하였다.

4. 인계동의 가능성

인계동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인계동의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인계동에 변화를 미칠 수 있는 도시공간적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매교역과 1번 국도(경수산업도로) 사이 인계동 구시가지의 재개발이다. 현재 매교역 주변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개발 움직임은 점차 인계동 구시가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도시공간적 측면 외에도 인구 변화, 주택시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인계박스의 상권이 변화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계동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대형화 등을 유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중소 규모의 호텔이 신축되는 등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수원시청에는 수원시의회가 함께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수원시가 유일하게 수원시의회를 별도의 건축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수원시청 옆 주차장 부지에 2020년이면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조성이 본격화된다. 이 경우 현재 개선되고 있는 인계박스 상권에 새로운 촉진제가 될 개연성이 높다. 수원시청이 인계동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났던 영향력을 기대할 수는 없겠으나, 인계박스와 인계동의 전반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끝으로 동수원 지역 상권의 활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희망을 걸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인계동의 인허가 상가 현황을 살펴보면, 인계박스를 중심으로 개폐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계박스는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지역으로, 정책효과에 따른 상권 변화로 인식할 수 있다. 더 반가운 점은 동수원사거리 주변으로 상가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동수원사거리의 고가로 인한 상권의 침체가 개선될 여지가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1~2018년 3년 단위 인계동 지역 상가의 개폐업 현황

2부
인계동의 역사

1장

인계동 여주 이씨 박천공파 종산 이야기

2장

20세기 초 인계동 호주의 토지소유

3장

수려선 부설과 화성역

4장

인계동 구시가지의 변천

학사공 이고 선생 이래 누대에 걸쳐 수원에 세거하던 여주 이씨들은 광교산 아래 상광교와 조원동, 팔달산 남쪽 및 인계동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살았다.
여주 이씨 박천공파 종중은 후학들을 길러내는 것이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판단하여 종산 자리에 수원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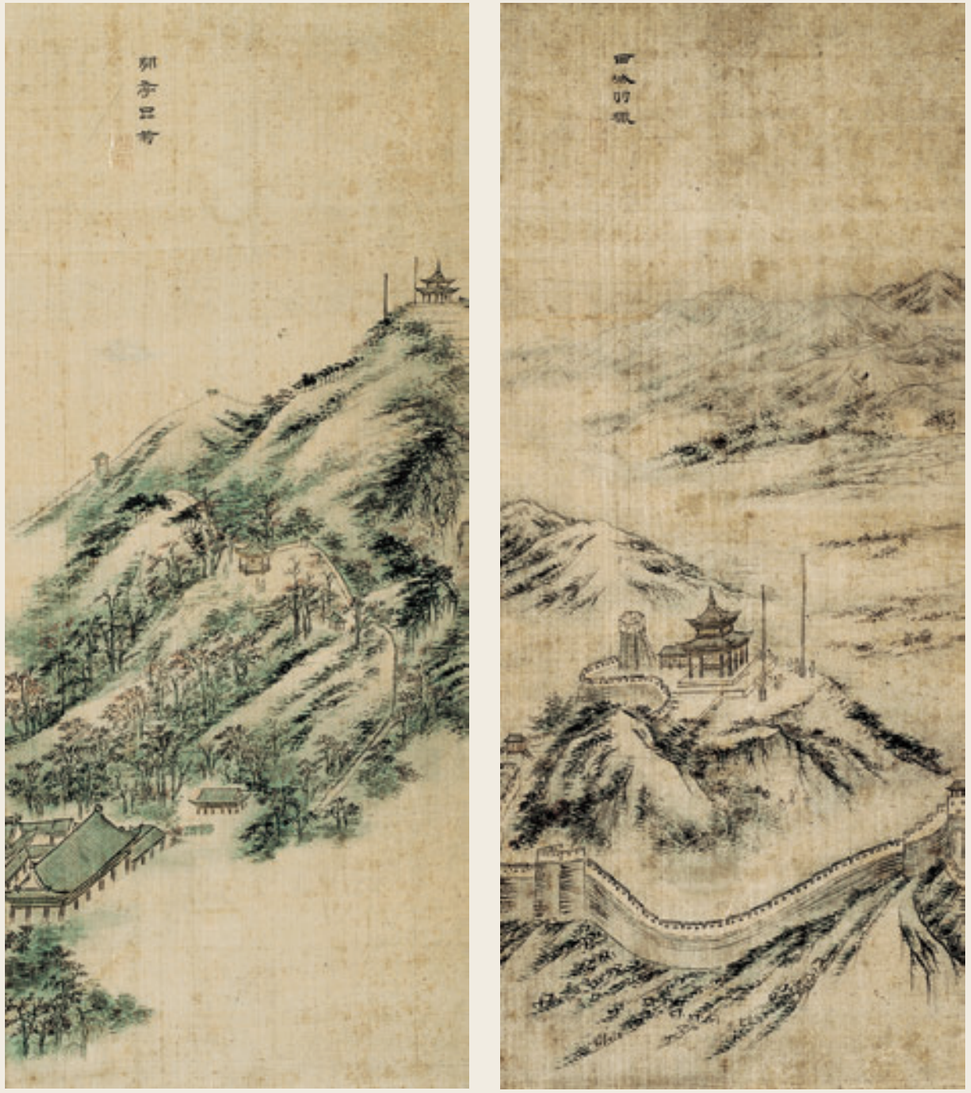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1장 | 인계동 여주 이씨 박천공파 종산 이야기

1. 팔달산 주인 이고

여주 이씨가 수원에 뿌리내리게 된 것은 팔달산 주인 이고(李皐, 1338~1420)로부터 비롯된다. 이고는 고려 말 조선 초 문신으로 공민왕 때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를 지낸 이겸(李謙)의 손자이자 이윤방(李允芳)의 아들이다.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가 한림학사를 거쳐 1389년(공양왕 1)에 정3품 사헌부 집의에 올랐다. 이후 정국이 혼란하자 집현전 직제학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수원 광교산 남쪽 탑산(塔山, 현 팔달산)에 은거하여 스스로 '망천(忘川)'이라 호를 짓고 세상일을 잊고자 하였다. 이때 공양왕이 내관을 보내 사는 즐거움을 물었는데, "집 뒤 조그만 산의 경치가 아름답고 들 가운데 있어 사통팔달하여 올라 보면 사방으로 가리는 것이 없이 다 통합니다."라 하였으니 이는 풍자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는 이고를 등용하고자 삼사좌승 겸 경기도안렴사(三司左丞兼京畿道安廉使)를 제수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태조는 화공을 시켜 그가 거처하는 탑산을 그려 오게 하고는 이름을 '팔달산(八達山)'이라 지어 주었다고 한다. 수원의 진산 광교산은 고려 태조가 명명하였고, 행궁의 주산 팔달산은 조선의 태조가 이름을 지은 것이니,



이고가 은거했던 팔달산(김홍도, 「한정품국」과 「서성우렵도」,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광교산과 팔달산으로 하여 수원의 의미 부여는 강력한 것이 될 수 있었다.

이고는 태조의 부름에 마지못해 관직에 나아가 1395년(태조 4) 5개월 동안 대간(臺諫)으로 활동하며 직언을 서슴지 않다가 파직되었다. 10년 뒤 1409년(태종 9) 7월 숨어서 벼슬하지 않는 유일(遺逸) 가운데 강직하고 품행이 뛰어난 선비로 추천받아 이조참의 및 공안부윤(恭安府尹)에 제수받았으나 두 달 만에 사직하였다. 이는 의도적으로 출사하는 것을 피한 것으로 이미 나이 71세로 노사(老辭)한 것이기도 하다.

집은 팔달산 동북쪽 꼭대기에 있었고, 일찍이 동북쪽 냇가를 소요하면서 세상일을 잊고자 '망천(忘川)'이라 하고 드디어 자기의 호로 삼았다. 만년에는 산의 동남쪽 몇 리 되는 곳으로 이주하고 늘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선행하라고 권장하여 그 마을이 '권선리(勸善里)'로 명명되었다. 상을 당해 시묘살이를 하면서 피눈물이 멈추지 않아 한쪽 눈을 실명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지극한 효성을 칭찬하였다. 1420년(세종 2)에 별세하자 효자 정려를 내리고 '高麗孝子 翰林學士 李皐之碑'라는 큰 비석을 권선리 마을 입구에 세우게 하였다. 이에 정몽주, 이색, 길재 등과 더불어 고려에 충절을 지킨 신하 26명으로 기록되었고, 송산 조견(趙狷) 및 둔촌 이집(李集)과 함께 고려 말 삼학사로 일컬어졌다.

수원의 명소인 팔달산과 망천(수원천)을 비롯하여 그가 사용하던 우물[學士井]과 낚시터[釣臺] 및 권선리 등은 이고와 관련된 지명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조대 지역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펴져 있었고, 화성이 축성되면서 이고 선생에 대한 현창이 진행되었다.

정조는 남문루에 올라 팔달산이 효자인 이고가 살던 곳이라 하여 이를 기려 남문을 '팔달문(八達門)'이라 이름 지었고, 유허지에 '학사대(學士臺)'를 세우게 하였다. 또한 정조는 치제문을 1795년 윤 2월 9일 직접 써서 부사직 조진관(趙鎭寬)을 예관(禮官)으로 보내 광교산 이고 묘소에 치제(致祭)하였다. 다음은 정조가 쓴 치제문의 일부이다.

팔달산주인(八達山主人) 처사(處士) 이고(李皐)의 묘소에 치제한 글

산 이름이 팔달인 것은	山名八達
성주(聖主=태조)께서 주신 거라네.	聖人攸錫
그 가운데 은거하는 이가 있어	中有逸民
홀로 기거하며 지냈네.	獨寐寤宿
……	……
이 땅에 수원 읍치를 세우니	卽地建治

정조가 치제문을 직접 써서 치제한 광교산 이고 묘소

팔달산이 끌어당기듯 둘러싸고 있네.	控揖襟帶
망루가 즐비하고 마을을 이루니	樓櫓閭井
하나의 큰 도회지가 되었네.	一大都會
팔달산 주인옹이 여기에 있어	主翁於此
황연히 신이 살피는 듯하니	怳若神胥
광세(曠世)의 감회가 깊은지라.	曠感者深
이에 나의 행차를 멈추었네.	爲停鑾輿

한편 1795년(정조 19) 3월 15일 화성의 유학 박주양(朴周陽), 윤성렬(尹聲烈) 등 143명이 연명으로 고려의 충신 이고의 서원을 세워 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여주 이씨 문중에서 전해 오는 내용을 비롯하여 이고 선생에 대한 사적을 널리 수집하여 상소문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정조실록』과 『일성록』에도 실렸고, 1899년 『수원군읍지』의 고적조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고 선생의 서원을 신설해 달라는 화성유생들의 요청에 대하여 정조는 살던 터를 찾아 학사대(學士臺)를 세웠고, 그의 묘를 찾아가 치제를 지냈으니 충분하다며 국법으로 막고 있는 서원의 신설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고 묘역 치제는 정조 이후 고종 때까지 5번에 걸쳐 왕명으로 시행됨으로써 이고 선생의 충절은 널리 공인되었다. 현재 광교산 이고 묘역은 수원시 향토유적 제22호(2007. 6. 4)로 지정되었다.

2. 정조대 여주 이씨 문중의 현달

1) 이석조와 『집설』

정조는 1789년 신읍치 이전 당시 "수원의 새로 정한 고을은 바로 팔달산(八達山) 아래에 위치한 곳으로 지명이 광교(光敎)인데 그 지역의 명인(名人)은 세종 때 이조참판 보문각제학(吏曹參判寶文閣提學)을 지낸 이심(李諗)이며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16대를 대대로 거주하고 있다."[1]고 하면서 팔달산과 이고의 아들 이심과 오랫동안 이곳에 세거해 온 여주 이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즉 팔달산 주인 이고 선생을 비롯하여 아들 이심이 조선조에 출사하여 높은 벼슬을 하며 수원에서 세거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고의 13세손 이석조(李奭祚, 1713~1796)는 정조시대 화성 축성과 더불어 가장 빛나는 여주 이씨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경기도를 비롯한 기호지방의 대표적 여주 이씨 인물로 이익(李瀷, 1681~1763)이 있다. 성호 이익은 유형원(柳馨遠)의 학문을 계승하여 조선 후기의 실학을 대성했고, 그의 사상은 다산 정약용(丁若鏞)을 비롯한 후대 실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성호 이익의 종손인 이가환(李家煥, 1742~1801) 등은 기호남인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같은 여주 이씨지만 이석조 가문은 증조부 이동형과 조부 이응이 우암 송시열 문하였던 까닭에 강력한 노론 집안이었다. 이석조의 증조부 이동형(李東亨, 1637~1717)은 병자호란 때 피란 중 충청도 보은에서 태어나 신독재 김집(金集)과 우암 송시열(宋時烈)에게 배웠다. 특히 1678년(숙종 4) 송시열과 김수항(金壽恒)의 억울함을 상소한 일로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다가 2년 만에 돌아왔고, 기사환국으로 스승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당하자 벼슬을 그만둘 정도로 노론 당색이 강했다. 1694년(숙종 5) 호조좌랑

수원공고 이사장이었던 이기형이 기증한 『집설』(수원박물관 제공)
1795년 간, 12권 4책[元·亨·利·貞], 10행 20자, 19×18㎝

으로 복직되면서 수원 광교로 이사함으로써 수원에 세거하게 되었다. 조부 이응(李膺, 1660~1742)은 수원에서 태어나서 송시열의 문하에서 배웠다. 박세채(朴世采)·권상하(權尙夏)·김간(金幹)·김창협(金昌協) 등 노론의 핵심적 인사와 사귀었고, 관직은 우윤에 이르렀다. 이러한 집안의 가풍은 소론과 노론의 정치적 갈등으로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석조는 젊어서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역의 명망 있는 선비로 추앙받았고,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는 선비라고 해서 고을에서 관찰사에게 10여 차례나 추천되었다. 그러나 끝내 발탁되지 못한 채 향촌 교화에 힘쓰고 있었다.

이석조는 수원 신읍치 조성과 더불어 정조가 수원에 행차하여 과거를 본 응제(應製) 때 장원급제함으로써 혜성처럼 등장하였다. 즉 1792년(정조 16) 12월 13일 수원별시에서 80세의 나이로 장원급제하였던 것이다. 원래 유학 이석조는 삼상(三上)의 등급이었으나 정조가 장원으로 뽑았다. 시권에 점수를 매기고서 이름을 뜯어 보았더니 나이 80의 늙은 유학 이석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이석조는 정조의 지극한 관심과 대우를 받았다.

1794년(정조 18) 정시 문과에 이석조가 합격하자 매우 기뻐한 정조는 두 달 뒤 정언으로 삼았다. 이석조의 문장과 식견을 직접 성적을 매길 때 익히 알았고 문벌도 좋다는 평가였다. 뿐만 아니라 화성행차 때 새로 급제한 이석조를 시종에 제수하여 어가를 모시게 하였다. 곧 공조참의로 명하였다가 이듬해 지중추부사로 삼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다.

1795년(정조 19) 어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화성에서 회갑잔치를 펼쳤던 을묘년 원행 때 80세가 넘은 이석조는 화성 양로연에 참석해 비단과 지팡이를 하사받았고, 특전으로 가선대부가 되었다. 이후 한성좌윤과 우윤을 거쳐 특별히 교지를 내려져 승정원 좌승지에 제수받았다. 임금은 가마를 내려 그것을 타고 사은숙배하도록 했으며, 기로소에 드는 특전을 받았다.

『집설(輯說)』(수원박물관 제공)

1795년(정조 19) 6월 이석조는 공조참판으로 재직하면서 화성 축성에 관련한 상소문을 올렸고, 정조는 그의 의견과 역량에 감동하였다는 비답과 함께 특별히 지중추부사로 삼았다. 더욱이 정조는 상소의 내용을 더 보충하여 올리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이석조는 심혈을 다하여 학문과 치국에 관한 견해를 묶어 12권 4책의 분량의 『집설(輯說)』을 지어 올렸다. 손자 공릉참봉 이조신(李肇新)과 현손 진사 이종윤(李鍾崙)이 이석조를 도와주었다. 이 책은 역사와 경서의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인사, 식산, 군정, 풍화, 제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담았다.[2] 이를 본 정조는 비답과 함께 이석조의 글이 학문과 정치에 대한 요결임을 칭찬하였고, 이를 등사하여 화성부 영수각에 소장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정조는 이석조에는 특별히 집을 지어 주도록 조처하였다.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이석조에게 지어 준 집값이 1,000냥이었다.[3] 개인집에게 내려준 것은 문정공 조광조

(趙光祖) 사당집(220냥)을 빼고는 유일한 사례였다. 정조 임금이 어느 정도 이석조를 특별히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석조는 정조에게 『집설』을 지어 올린 1년 뒤인 1796년 서거하였다. 그리고 이석조 사후 100년이 되는 1876년(고종 13) '경헌(景憲)'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로써 이석조는 여주 이씨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로 현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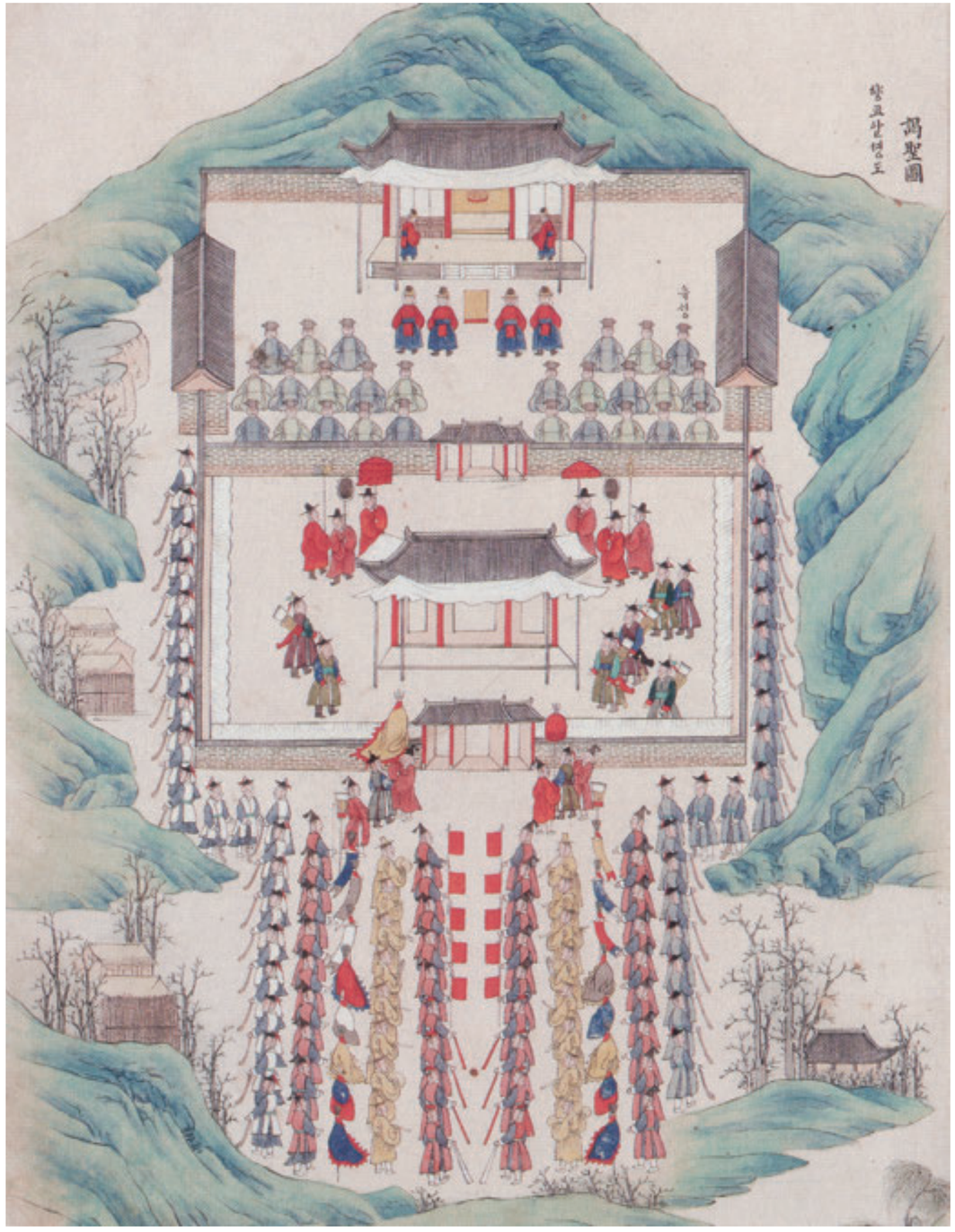
한편 2007년 6월 여주 이씨 박천공파 후손이자 수원공업고등학교 이사장이던 이기형 선생이 4책의 『집설』 필사본을 수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수원박물관에서 2014년과 2015년 『국역 집설』을 2책으로 번역 출판하여 그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2) 팔달산 여주 이씨 묘역에 설치된 수원향교

이고의 후손 가운데 14손 이운행(李運行, 1736~1799)은 집이 팔달산 아래에 있었다. 수원의 새 읍치를 팔달산으로 옮겨 오면서 향교를 팔달산 남록에 세우게 되었다. 수원향교가 이운행의 선영 곁에 세우게 되면서 그의 3세(三世) 다섯 분묘가 한꺼번에 모두 옮겨지게 되었다. 이를 들은 정조 임금은 이를 가엾게 여겨 경기감사에게 명하여 장례 물품을 넉넉하게 지급토록 하고 이운행을 등용하라고 명하였다.[4]

즉 1789년(정조 13) 7월 수원읍치가 팔달산 아래로 정해지고 8월 수원향교가 팔달산 남쪽 여주 이씨 분묘 계단 아래 10여 보 거리에 향교가 자리하게 되면서 이운행의 집과 조상 3대의 분묘 5기를 이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정조의 배려로 이운행은 광릉참봉(光陵參奉)에 임명되었다. 이운행의 3대조는 증조부 이집(李諿)이고, 조부 이봉상(李鳳祥), 부친 이만조(李晩祚)였다. 어머니는 성훤(成愃)의 딸이고, 형은 이운형(李運亨)이다.

이운행은 1774년(영조 50) 증광시에 진사가 되었고 정조의 배려로 광릉참봉이 되었다. 더욱이 그의 나이 55세 되던 1790년(정조 14) 수원별시에서 문과 병과 2위로 급제하면서 당당히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에 1790년 4월 경모궁령(景慕宮令)을 시작으로 7월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 되었다. 사간원 정언을 지내던 1792년(정조 16) 윤4월에 윤구종(尹九宗)이 능(陵) 앞을 지날 때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죄를 물어 처벌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윤허를 받았다. 이후 사헌부지평·병조좌랑·이조정랑·사헌부장령 등을 역임하였다. 그런데 이운행의 조상 3대의 분묘가 바로 위 직계 3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운행은 박천공 이학(李鶴)의 둘째 아들로 황주목사를 역임한 이승종(李承宗, 1510~?)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이고 후손들의 묘역 자리에 세워진 수원향교(「알성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편 『화성성역의궤』에 '묘를 옮기는 데 베푼 은전(부석소, 팔달산, 동성, 매향동)'에 조수, 윤발, 정술주와 더불어 이운복(李運復) 등 4명에게 모두 200냥을 지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운행과 별도로 이운복의 조상 묘를 이장한 셈이다. 이운복(李運復, 1741~1819)은 박천공(이학)의 장남인 부사직을 지낸 이승무(李承武)의 후손으로 직산현감을 지냈다. 아버지는 명조(命祚), 조부가 수정(壽鼎)이고 고조가 한성부우윤을 지낸 이동암(東馣, 1643~?)이다. 이동암은 이석조의 증조부인 사우당 이동형의 친동생이다. 아우 이동욱(李東郁)과 더불어 형제가 함께 대과에 급제하여 수원의 여주 이씨 가문을 명문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이석조는 이운복의 9촌 당숙이고, 이운복과 이운행은 18촌이다.

이동형의 아들로 박천공 6대손인 이렴(李廉)이 만든 『여주 이씨 가승』에 따르면 박천공의 둘째 아들 부사직 이승무의 묘가 팔달산에 있다[墓在八達山]고 적혀 있다. 따라서 화성 축성에 따라 여주 이씨의 분묘 가운데 일부가 인계동으로 이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인계동 여주 이씨 종산의 조성과 토지 소유

학사공 이고 선생 이래 누대에 걸쳐 수원에 세거하던 여주 이씨들은 광교산 아래 상광교와 조원동, 팔달산 남쪽 및 인계동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살았다.

이고의 아들 이심(李審, 1379~?)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조참판을 역임하면서 수원 지역 여주 이씨의 관로를 열게 되었다. 진사에서 한림, 집의, 강원도관찰사, 인순부윤, 보문각제학, 이조참판을 역임하며 청렴과 지조로 이름을 얻었다. 조정에 청백리에 올랐고 뒷날 정난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성품이 맑고 근면하여 학문과 품행이 뛰어났다.[5] 세종대 문물 정비와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던 인물이다.

이고의 증손인 이현손(李賢孫, 1429~?)은 단종(端宗)과 삼종 동서였다. 즉 여산 송씨 송정수(宋玎壽)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장인인 송정수는 단종의 외삼촌 되는 셈이다. 이현손이 26세 때 단종이 폐위되는 계유정란(癸酉靖亂)을 예감하고 처갓집인 경남 산청으로 피해 운둔하였다. 처삼촌인 송현수(宋玹壽)가 처형되고 장인과 함께 이에 연루되어 수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1470년 성종이 즉위하면서 연좌가 풀리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계배는 하동 정씨로 일두 정여창(鄭汝昌)의 3녀였다. 이현손의 무덤은 산청에 있다. 이현손의 손자로 박천군수를 역임한 이학(李鶴, 1481~1537)을 파시조로 하는 박천공파(博川公派)는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 세거하면서 수원의 유력한 성씨로 성장하였다.

팔달산 여주 이씨 묘역에 설치된 향교와 인계동으로 이장된 박천공파 묘역(수원부지도, 1872년, 수원박물관 제공)

박천공 이학은 학사공 이고의 5대손이자 집의공 이현손의 장손이다. 아버지는 음죽현감 이영효(李永孝)이고 선산 김씨로 병사 김치원(金致遠)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산청에서 태어났다. 박천공 이학은 35세경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와 여러 관직을 거쳐 1537년 박천군수가 되었는데, 그해 11월 부임지에서 별세하였고 묘소는 수원 인계동에 남향으로 모셨다. 따로 박천공의 부인 단성(丹城) 문씨 묘가 인계동에 있었다. 부인은 목화 개량과 보급에 힘썼던 강성군 문익점(文益漸)의 현손녀였다.

이들 부부는 부사직 이승무, 황주목사 이승종, 서윤 이승서가 있다. 그 가운데 장남 이승무의 묘와 차남 이승종의 묘가 박천공 묘소 부근에 자리하고 있었다.

부사직을 지낸 이승무(李承武)는 박천공 이학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인물이다. 인계동 부사직공 이승무의 묘에서 묘지석이 출토되었지만 생몰년을 알 수 없다고 적고 있다. 그럼에도 묘지석을 제작하여 묻은 것은 1806년(순조 6)의 일이다. 다른 곳에 있던 묘를 이곳 인계동으로 옮겨 온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주 이씨 가승』

에 묘가 팔달산에 있다는 언급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화성 건설과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부사직공 이승무의 무덤은 아버지 박천공 묘의 바로 아래에 있다.

둘째 아들인 이승종(李承宗, 1510~?)은 1543년(중종 28)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갔고, 1561년(명종 16) 황주목사가 되었다. 무과 출신이지만 경사(經史)에도 능통하여 통정대부에 가자되고 당상관에 올랐다. 황주공 이승종의 묘는 어머니 단성 문씨의 묘에서 동북방에 자리하면서 동향하고 있다.

온성부사로 임진왜란 때 함경도에서 전사한 이수(李銖, 1540~1593)는 박천공 이학의 손자로 아버지 이승종과 어머니 팔거 현씨 사이 4남 1녀 가운데 4남으로 수원에서 태어났다. 선조 초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1572년 나주판관, 1577년 진도군수를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 함경도 온성부사가 되었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부대가 함경도를 침략하여 회령부에서 왕자인 임해군과 순화군이 인질로 잡히자 이를 구출하고자 항전하다가 전사하였다. 1593년 1월 22일이었고 향년 54세였다. 전란 중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여 고향인 인계동에 허묘를 조성하였다.

이수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덕윤(李德潤)과 이덕해(李德海)이다. 서흥부사를 지낸 서흥공 이덕해의 묘는 아버지 황주공 이승종의 묘 아래쪽에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여주 이씨 박천공파가 인계동에 분묘를 쓴 이유는 인계동 일대가 여주 이씨 사패지(賜牌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패지란 사전(賜田) 또는 별사전(別賜田)라고도 하는데 국가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왕이 특별히 하사하는 토지를 말한다. 1911년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인계리에 여주 이씨 소유 토지는 거의 8만 평에 이르는 규모였다.

여주 이씨 종중 재산을 몇 사람의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등기하였다. 우선 이하형(李夏衡)·이범구(李範九)·이종혁(李鍾赫)·이종철(李鍾喆) 등 4명으로 연명된 등기 토지와 또 다른 이종한(李鍾漢)·이용규(李用奎)·이종헌(李鍾憲)·이종환(李鍾煥) 등 4명의 연명 등기 토지가 있다.

첫째, 조원동에 살고 있던 이하형(李夏衡)·이범구(李範九)·이종혁(李鍾赫)·이종철(李鍾喆) 등 4명 소유로 연명 등기된 토지는 모두 임야로 모두 6만 8,302평이다. 둘째 종중 재산은 이종한(李鍾漢)·이용규(李用奎)·이종헌(李鍾憲)·이종환(李鍾煥) 4명 소유로 등기된 임야 4,709평과 대지 90평 및 논 2,450평과 밭 1,242평이다. 따라서 여주 이씨 종중 소유로 연명 등기된 인계동의 토지는 임야 7만 3,011평이고, 대지 90평, 논밭 3,692평(논 2,450평, 밭 1,242평)으로 전체 토지 규모는 총 7만 6,793평이다.

이들 인계동 여주 이씨 종중 토지에는 현재 수원공고(249번지)를 비롯하여 동수원병

1910년대 인계리 여주 이씨 종중 소유 토지(수원공고 부근, 국가기록원 제공)

표 1 여주 이씨 종중 소유 토지 현황(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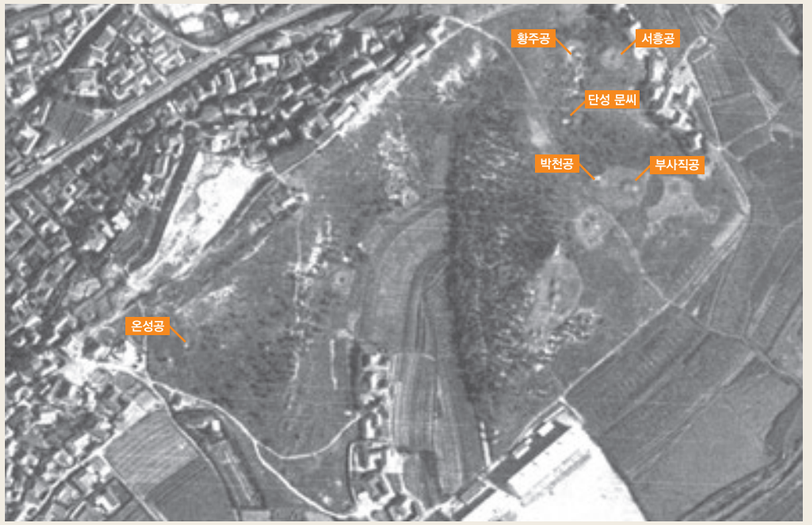
소유지	지번	지목	지적(평)	소유자(공동명의)
수원군 장주면 인계리	176	임야	7,786	이하형(李夏衡) – 日用面 棗園洞 이범구(李範九) – 日用面 棗園洞 이종혁(李鍾赫) – 日用面 棗園洞 이종철(李鍾喆) – 日用面 棗園洞
	182	임야	352	
	184	임야	94	
	203	임야	3,546	
	211	임야	489	
	241	임야	3,486	
	248	임야	4,785	
	249	임야	11,570	

소유지	지번	지목	지적(평)	소유자(공동명의)
	253	임야	168	
	281	임야	7,245	
	303	임야	12,358	
	323	임야	9,386	
	328	임야	117	
	505	임야	63	
	506	임야	6,857	
	225	畓	723	이종한(李鍾漢) – 북부면 迎華洞 이용규(李用奎) – 광주군 旺倫面 二里 이종헌(李鍾憲) – 일용면 棗園洞 이종환(李鍾煥) – 북부면 石山洞
	250	田	2,002	
	251	垈	90	
	252	전	206	
	753	답	120	
	754	전	242	
	755	답	399	
	816	임야	1,089	
	847	임야	3,620	
합계			76,793	

원 맞은편 라마다호텔 뒷산(176번지, 182번지, 184번지), 인계동 KBS드라마센터(505번지, 506번지),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공원(323번지), 인계한양수자인아파트(248번지), 인계신반포아파트(225번지), 2001아울렛(754번지), 인계초등학교 등 인계동의 주요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4. 수원공고의 설립과 여주 이씨 분묘 이장

『여주 이씨 족보』(1884년 갑신보)에 따르면 수원공고가 자리한 249번지 일대를 '수원 남부 권선리 외교(外橋)'로 적고 있다. '외교(外橋)'는 우리 이름으로 '밧다리'라고 불렀다. 『수원공고 30년사』에는 '어질뫼'로 적고 있다.[6] 인계동은 1970년대까지 수원의 변두리로 이해되던 곳이었다. 인계동 북쪽 구릉진 언덕 위에 작은 숲이었던 여주 이씨 종중산은 언덕 아래 남쪽으로는 논과 밭이 펼쳐진 들판이었다. 인계동을 남향으로 바라보는 아리잠



수원공고 설립 전 여주 이씨 분묘(1966년, 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수원공고 설립 후 여주 이씨 분묘 이장(1975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직한 작은 솔숲이었던 것이다.

여주 이씨 박천공파 종중은 1968년 봄부터 학교 설립을 계획하였다. 문중재산으로 후학을 길러내는 것이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판단하였다. 1968년 10월 12일 수원 남문 영동회관에서 종중회의를 거쳐 학교 설립이 결의되고 발기인 총회를 거쳐 추진위원 13명이 선출되었다. 이에 몇 년간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종유재산이 처분되어 자금을 마련하고, 1970년 3월 종중총회에서 학교 설립 인가와 더불어 자금출연을 승인받았다. 학교법인 광인(光仁)학원을 설립하여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광인학원은 이고 선생의 인의선업(仁義善業)의 유지를 받들어 권선(勸善)과 인도(仁道)의 뜻을 이어 나간다는 뜻이었다.

이에 1970년 2월 2일 중동 20번지의 여주 이씨 종중사무실에서 1969년 2월 2일 발족한 학교설립추진위원회 결과를 추인하고 2월 26일 수원공고가 설립된 인계동 소재 박천공 묘를 위시한 선영의 이장을 의결하였다. 수원공고가 자리한 인계동 여주 이씨 종중 자산을 중심으로 종유재산 일부를 매각하여 학교 설립자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자산은 총 1만 4,471평 규모에 당시 재산총액은 1억 7,448만 9,800원이었다.

학교 부지에는 박천공을 비롯한 6개 분묘가 산재해 있었다. 즉 임진왜란 이전의 인물인 박천군수 이학(李鶴, 1481~1537) 묘를 비롯하여 부인 단성 문씨(문익점의 현손녀) 묘와 그들의 아들인 부사직 이승무(李承武), 황주목사 이승종(李承宗) 묘 그리고 이승종의 아들인 서흥부사 이덕해(李德海) 묘, 온성부사로 임진왜란 때 함경도에서 전사한 이수(李銖)의 묘 등이다.

우선 학교가 개교하기 직전인 1970년 2월 26일 인계동 선산에 중심인물인 박천공 묘소를 가장 먼저 이장하게 되었다. 박천공 묘 이전 이후 6월 29일 역사적인 수원공고 건축기공식이 개최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가 개교한 이후 강당과 체육관이 신축되면서 학교 부근 야산과 공터에 있던 여주 이씨 분묘 5기를 1974년 4월 14일 모두 이장하였다.

학교법인 광인학원은 1970년 6월 23일자로 인가되었다. 학교 승인 과정에서 문교부는 시대적 필요에 따른 공업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하였고, 학교법인 광인학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1970년 12월 26일 학교 설립이 인가되었다. 학년별로 토목과 2학급, 건축과 1학급, 총 9학급으로 학급당 60명 정원으로 모두 540명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법인 인가 이후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본관 건물 30실 가운데 15실을 완공하였고, 곧바로 학생을 모집하여 이듬해 1971년 3월 1일 수원공업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토목과(현 건설정보과) 2학급과 건축과(현 건축디자인과) 1학급 등 2개과 3학급 총 183명을 선

1981년 수원공고(수원박물관 제공)

발하여 개교하였고, 이듬해인 1972년 전기과(현 전기전자제어과)를 신설하였다.[7]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산업화를 기저로 한 경제개발이 진행되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속한 산업 발전은 새로운 산업역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1973년 포항제철소와 다목적 소양강댐이 건설되고 1974년 전철 1호선이 개통되고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공업국가로 변모하는 와중에 공업계 고등학교의 필요성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동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1991년 '자동차과'를 신설하였고, 1995년 '기계과'와 '전자통신과'를 신설하면서 여학생을 처음 받아들여 남녀공학이 되었다. 다시 2000년대 디지털시대의 진입에 따라 2003년 디지털계임과를 신설하였고, 2008년 군특성화 정보네트워크과를 신설하면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면 발전해 왔다.

5. 여주 이씨 분묘 출토 유물과 가치

수원공업고등학교가 운동장과 본관을 지어 개교한 이후 강당 등을 새롭게 신축하게 되면서 학교 주변에 있던 여주 이씨 분묘들을 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974년 4월 14일 이장하게 되어 많은 부장품들이 수습되었다.

임진왜란 이전의 인물인 박천공 이학 묘에서 명기 9점과 벼루 1점이 출토되었다. 그의 아들인 부사직공 이승무(李承武) 묘에서 묘지석과 숟가락 등 5점, 황주공 이승종(李承宗) 묘에서 명기 14점과 갓끈 구슬 6점이 나왔다. 또한 16세기를 살았던 서흥공 이덕해(李德海) 묘에서 명기 10점과 장군 1점이 수습되었다. 명기를 비롯하여 특이하게 벼루와 갓끈 구슬과 장군 및 묘지석은 관심과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박천공의 묘는 상당한 공력이 들어간 형태로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송판으로 내곽을 만들고 다시 관을 만들어 넣었던 것이다. 파묘 당시 내곽으로 만든 송판이 상당히 두껍고 건실하여 태워 버리지 않고 인계사거리 부근 냇가에 널다리로 쓰게 하여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였다고 한다.

온성공 이수의 묘는 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는 공터에 남향으로 위치하였다. 시신이 없이 의관장(衣冠葬)으로 조성된 온성공(이수) 묘의 이장은 지역 원로들의 깊은 관심을 받았다. 어떻게 의관장을 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이에 파묘해 보니 의관장은 관 아래부터 버선, 행전, 바지, 저고리 등을 쌓고 그 위에 갓을 얹어 놓은 형태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기를 쐬자 갓은 형태를 잃고 바스러져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1974년 3월 31일 수원시 조원동에 있던 17세 이유(李焴, 1602~1637)의 묘지에서 수습한 명기 24점을 비롯하여 수원 여주 이씨의 오랜 세거지 가운데 하나였던 조원동이 개발되면서 많은 분묘가 이장을 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조원동이 개발되면서 상당한 수의 분묘가 이장하게 되었다. 이에 2003년 3월 11일 조원동 여주 이씨 분묘 이장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원동에서는 부사직공 이승무의 아들 이치(李緇)와 그의 아들인 이덕언(李德言, 1568~1633)의 묘에서 묘지석이 각각 3점씩 모두 6점이 수습되었다. 이덕언의 아들 이훤(李烜, 1606~1656) 묘에서 묘지석 3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광교산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면서 학사공 이고의 손자이자 이심의 아들인 이백견(李伯堅, 1408~?)의 묘를 2004년 8월 4일 이장하면서 묘지석 2점을 더 수습하였다.

표 2 인계동 여주 이씨 분묘 출토 유물

분묘	이름	수량	크기(㎝)
이학(李鶴) 묘	뚜껑 형태의 백자 명기	1	지름 4.7, 높이 2.5
	뚜껑 형태의 백자 명기	1	지름 3.8, 높이 2.5
	접시 형태의 백자 명기	1	지름 6.0, 높이 1.8
	접시 형태의 백자 명기	1	지름 6.0, 높이 1.1
	접시 형태의 백자 명기	1	지름 6.1, 높이 1.0
	접시 형태의 백자 명기	1	지름 6.3, 높이 1.2
	항아리 형태의 백자 명기	1	입지름 3.1, 높이 6.3
	항아리 형태의 백자 명기	1	입지름 2.7, 높이 5.2
	항아리 형태의 토기	1	입지름 16.0, 높이 23.7
	가정7년(嘉靖七年) 묵서(墨書)명 벼루	1	13.2×6.7
이승무(李承武) 묘	묘지석	1	
	묘지석	1	
	쇠숟가락	1	
	쇠젓가락	1	
	쇠숟가락	1	
이승종(李承宗) 묘	주병 형태의 백자 명기	1	
	항아리 형태의 백자 명기	1	
	단지 형태의 백자 명기	1	
	사발 형태의 백자 명기	1	
	사발 형태의 백자 명기	1	
	합 형태의 백자 명기	1	
	합 형태의 백자 명기	1	
	접시 형태의 백자 명기	1	
	접시 형태의 백자 명기	1	
	접시 형태의 백자 명기	1	
	접시 형태의 백자 명기	1	
	뚜껑 형태의 백자 명기	1	
	뚜껑 형태의 백자 명기	1	
	갓끈 구슬	6	
이덕해(李德海) 묘	도자기로 된 장군	1	
	주병 형태의 백자 명기	1	
	항아리 형태의 백자 명기	1	
	항아리 형태의 백자 명기	1	
	뚜껑 형태의 백자 명기	1	
	뚜껑 형태의 백자 명기	1	
	사발 형태의 백자 명기	1	
	사발 형태의 백자 명기	1	
	사발 형태의 백자 명기	1	
	사발 형태의 백자 명기	1	
	접시 형태의 백자 명기	1	
합계		46	

이학 묘 부장품(수원박물관 제공)

이승무 묘지석(수원박물관 제공)

이승종 묘 부장품(수원박물관 제공)

이덕해 묘 부장품(수원박물관 제공)

인계동과 조원동 및 하광교동에서 수습된 여주 이씨 박천공파 종중의 기증유물은 크게 묘지(墓誌)와 부장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이백견, 이승무, 이치, 이훤 등의 묘지는 원형이 잘 남아 있어 내용을 제대로 보여 주고 있다. 묘지석은 모두 1806년(순조 6)에 묻은 것으로 화성 건설 이후 묘역을 옮긴 뒤 다시 만들어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 묘지의 내용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당하여 가승이 전해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적지 못함을 애석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주 이씨 가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부장품은 주로 자기류의 명기를 들 수 있다. 명기(明器)란 사후세계에서 사용할 생활용구로 주로 묘에 함께 넣는 부장품을 일컫는다. 특히 박천공 이학의 묘 부장품에는 '벼루'와 '먹'이 수습되었는데, 벼루의 뒷면에는 '嘉靖七年'이라는 글씨가 있어 1528년(중종 23)에 직접 사용하던 것을 함께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숟가락과 젓가락, 장군병, 갓끈 구슬, 편병 등 다양한 묘 부장품과 명기 등을 통해 조선시대 수원 지역 양반 사대부 가문의 매장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8]

이들 유물은 이장할 때 수습되어 수원공고 이사장실에 잘 보관되어 있었다. 이때 이기형 이사장을 찾아뵙고 박물관에 기증할 것을 부탁드리자 흔쾌히 기증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종중회의를 거쳐 2008년 5월 수원박물관에 명기(明器)와 묘지석(墓誌石) 등 총 78건 83점을 기증하였다. 이에 여주 이씨 유물들은 수원박물관에 상설 전시되어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문중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 『일성록』 정조 13년 기유(1789) 7월 23일(정미), 「전충청 수우후(前忠淸水虞候) 이은창(李殷昌)을 용서하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2) 황미숙, 「18세기 水原 士大夫 李奭祚의 時務論 연구 : 『輯說』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 『화성성역의궤』 권6, 「재용」 하, 실입 3, '개인집에 내려 준 것'(『역주 화성성역의궤』, 수원화성박물관, 2016, 570쪽).
4) 『정조실록』, 정조 13년 기유(1789) 8월 7일(경신), 「이운행을 등용토록 명하다」.
5) 『驪州李氏歷史人物誌』, 우평, 1997, 89쪽.
6) 수원공고30년사편찬위원회, 『수원공고 30년사』, 광인학원·수원공업고등학교, 2001, 77쪽.
7) 수원공고30년사편찬위원회, 『수원공고 30년사』, 광인학원·수원공업고등학교, 2001.
8) 김경표, 「여주 이씨 박천공파 종중 기증유물」, 『물고을』 6, 수원박물관, 2011.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제국주의가 식민 통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지만, 조선조 이래 발달해 온 사적 토지소유를 법인하여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사적 토지소유권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겸병과 그에 따른 식민지지주제가 발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조석곤 상지대학교 교수

2장

20세기 초 인계동 호주의 토지소유

-『토지조사부』와『제적부』분석을 중심으로

1. 머리말

경제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자본과 노동력임은 경제원론 수준의 상식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전근대사회에서는 주요 생산수단이 토지와 노동력, 즉 경지와 인구였다. 산업사회의 생산력은 자본에 담겨 있지만, 농업사회의 생산력은 경지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개항 이후 한국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근대화 과정을 순조롭게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다시 말해 20세기 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여전히 경지와 사람이었던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한반도를 수중에 넣은 일본은 조선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조선총독부와 산하 기관의 주요 직책은 일본인이 장악하였다. 일제는 한반도를 늘어나는 일본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 공급지이자,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되는 초보적 자본주의 생산품의 판매처로 만들고자 했다. 전근대사회라면 이러한 과정은 조세나 공납 등을 통한 직접적인 잉여추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대화 과정을 통해 확립된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상품화폐경제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그림 1　한일강제병합조약 체결을 주도한 통감부 수뇌
(『병합기념 조선사진첩』, 1910, 수원광교박물관 제공)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자본주의적 방식의 잉여 추출에 적합한 제도를 이식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근대화 과정으로 포장하였다. 이 과정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식민 지배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탈체제의 확립으로 인식되는 것이었다.

이 장에서 다룰 자료인 『토지조사부』와 『제적부』는 한반도가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 전후에 일제가 주도하여 작성하였다. 『토지조사부』는 1912년 '토지조사령'에 입각하여 일제가 실시한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이다. 이 사업은 일제의 식민 통치의 기반을 닦았다고 스스로 평가할 만큼 역점을 둔 사업이었는데, 『토지조사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장부가 『토지대장』을 만들고 토지에 대한 등기제도를 시행할 때 그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하여 온 사적 소유권은 '사업'을 통하여 비로소 근대적 소유권으로 법인(法認)될 수 있었다.[1] 산림을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작업을 1912년부터 1918년이라는 단시간 내에 통일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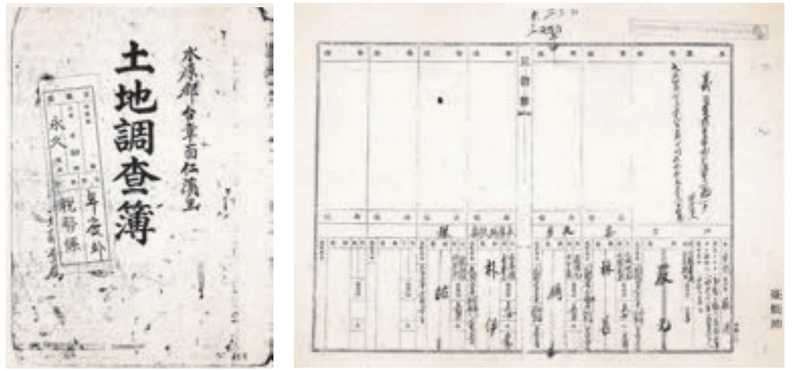


그림 2　인계리의 『토지조사부』와 『제적부』

료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사적 소유권의 발전 정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기존의 토지소유관계가 근대적인 제도 속으로 손쉽게 편입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적부』는 일제가 작성한 호적으로 호주가 제적되었을 경우에 호적부에서 빼내 따로 묶은 장부이다. 제적(除籍)되는 경우는 대부분 호주가 사망한 경우이다. 호주가 사망하면 새로운 가구원이 호주가 되었고, 다른 구성원들은 그 호적에 다시 등록되었다. 『제적부』는 1922년 '조선호적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1923년분부터 존재하지만 당시 사용되던 호적은 1909년에 시행된 '민적법'(법률 제8호. 1909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제적된 호적은 1909년부터 만들어진 호적이다.[2] 물론 조선시대에도 호적이 있었지만, 호적 작성 목적이 신분관계를 파악하고 조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적법에 의해 만든 호적은 조선에 거주하는 인구를 가족관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작성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일제가 식민 통치 초반에 『토지조사부』와 『호적부』를 만든 이유는 분명하다. 많은 돈을 들여 전국에 걸쳐서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식민 통치를 위해 당시 조선에 있던 생산요소인 사람과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민적작성사업이나 토지조사사업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인계리에도 남아 있다. 인계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한말 남부면 인계리, 우만리, 구천동 일부를 합하여

태장면 인계리가 되었고, 1936년 수원읍 인계정 및 우만정으로 분설되었다. 1988년 수원시가 분구되면서 권선구에 속하였다가 1993년 3개구로 분구되면서 팔달구에 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계리 『토지조사부』와 『제적부』를 통해 1910년대 인계리의 경지와 인구의 존재형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제적부』 중에서 민적법에 따라 작성된 호적들을 추려서 분석에 이용한다. 이는 1910년대에 인계리에 살았던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2절에서는 『토지조사부』의 작성 과정을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3절에서는 민적의 작성기준이 되었던 민적법을 소개하고, 민적이 어떤 성격의 자료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4절에서는 양자를 결합하여 1910년대 인계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토지소유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2.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토지조사부』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제국주의가 식민 통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지만, 조선조 이래 발달해 온 사적 토지소유를 법인하여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사적 토지소유권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겸병과 그에 따른 식민지지주제가 발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신고주의에 입각하여 토지소유권자를 확정하였다. '토지조사령시행규칙'에는 토지소유권자는 토지신고서에 "민적부에 등록된 이름으로 자기 소유 토지의 소재, 자번호, 지목,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해서체로 또박또박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신고서는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에 기재된 사항을 옮겨 적었다. 즉 『결수연명부』가 토지신고의 근거자료였다.

『결수연명부』는 을사조약 이후 일제가 징세기구를 개혁하면서 징세대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장부였다. 토지신고서를 결수연명부에 기초하여 작성하도록 한 일제의 방침은 지세납부자=소유자라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 『결수연명부』의 납세자는 반드시 지주 명의로 할 것을 규정했던 것이다. '신고주의'는 토지약탈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납세자를 토지소유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절차였다. 일제는 토지신고서의 내용을 『결수연명부』와 대조하였으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원인을 추적하여 기록하게 했다.[3)]

그림 3 경성부 정동에 위치했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청사(『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수원광교박물관 제공)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내에 설치된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실시했던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재정 기반 확충과 수탈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고된 토지는 분쟁의 사유가 없으면 사정(査定)을 거쳐 신고자를 소유자로 확정하였다. 혹 분쟁이 있는 토지는 분쟁지 심사를 거쳐 소유자를 결정하였다. 사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재결(裁決)을 통해 사정 명의인이 바뀔 수도 있었다. 사정 또는 재결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었으며, 소유자는 토지소유권의 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토지조사사업 이전에도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에 관한 권리들이 존재했지만, 일제는 사정 및 재결을 소유권의 '원시취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정 및 재결 이외의 모든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었다. 소유권의 등기를 위해서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이 필요하였다. 즉 토지조사사업은 법적으로 토지의 최초 소유자를 확정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한말의 토지소유권은 적절한 조치만 있다면 근대적인 등기제도와 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에까지 도달하였음을 의미하였다.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난점은 국유지 중에 그 소유권 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토지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조선 후기에 궁방전·아문둔전(통칭 역둔토

그림 4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형측량(『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수원광교박물관 제공)

라 부른다)을 마련하기 위해 절수지(折收地)가 확대되었는데, 세월이 지나며 절수지의 소유권 귀속문제가 명확치 않게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무시기 역둔토의 수세를 둘러싸고 이미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해결되지 못한 토지들이 토지조사사업의 분쟁지가 된 경우가 많았다.

결국 소유권 사정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국유지와 민유지의 구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1912년 산림과 미간지에 대한 국민유 구별 표준을 작성하였는데, 이 기준은 이미 민유지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토지는 이전의 여러 입법조치(정부에서 여러 절차를 통해 사유지임을 인정한 토지도 포함)에 의하여 사유지임이 문서로 입증될 수 있는 토지이거나 납세의 실적이 있는 토지였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후자이다. 토지의 사유를 판정함에 있어서 지세납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나중에 분쟁지심사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4]

지세납부 여부뿐만 아니라 지세납부액도 소유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윤선은 "징수되는 세액의 고저 여부로 인하여 전답에 대한 민의 소유의식, 경작권 인식이 달라"[5]지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세납부 여부가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국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그것이 사실상 지대지만 편의를 봐 주어서 헐하게 지대를 부과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임시토지조사국의 입장은 유토와 무토의 현실적인 구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단 역둔토대장에 근거하여 국유지를 설정하고 분쟁을 기다려 사안별로 해결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인계동에서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의 상황을 『토지조사부』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토지조사사업은 소유권조사, 지가조사, 지형지모조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소유권조사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토지소유권조사는 토지신고서를 수합하는 준비조사, 측량반이 작성한 지도의 필지와 토지신고서를 대조하면서 지주·지번·지목 등을 확인하는 일필지조사, 한 필지에 대해 여러 명의 토지신고서가 존재하고나 신고서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 이를 조사하는 분쟁지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표 1　인계리 토지신고일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이후	계
필지수	800	86	3	68	10	967
면적	798,822	70,321	1,387	177,963	15,466	1,063,959

자료 : 『토지조사부(인계리)』.

토지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지역에 따라 달랐는데 인계리에서 토지신고는 1911년 3월 20일부터 시작하여 1911년 8월 4일에 종료되었다. 가장 늦게 신고된 한 필지는 국유지였다. 첫날인 3월 20일에만 606필지가 신고되었으며, 한 달 동안인 4월 20일까지 전체의 96.6%인 886필지가 신고되었다. 7월 이후에 신고된 10필지 중 8필지는 국유지였다. 이처럼 같은 날 토지신고서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원군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지신고서가 면에 보관되어 있는 『결수연명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을 것임을 시사한다.[6]

토지신고서는 일필지측량에 근거하여 조사된 지주·경계·지목·지번 등과 대조하면서 필지별 정보를 확정하였다. 일필지조사의 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부분의 임야나 도로 등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이 때문이다.[7] 일필지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실지조사부』가 작성되었다. 일필지조사 시 필지별 경계나 토지소유자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화해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분쟁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5　일필지조사(『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수원광교박물관 제공)

그림 6　분쟁지조사(『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수원광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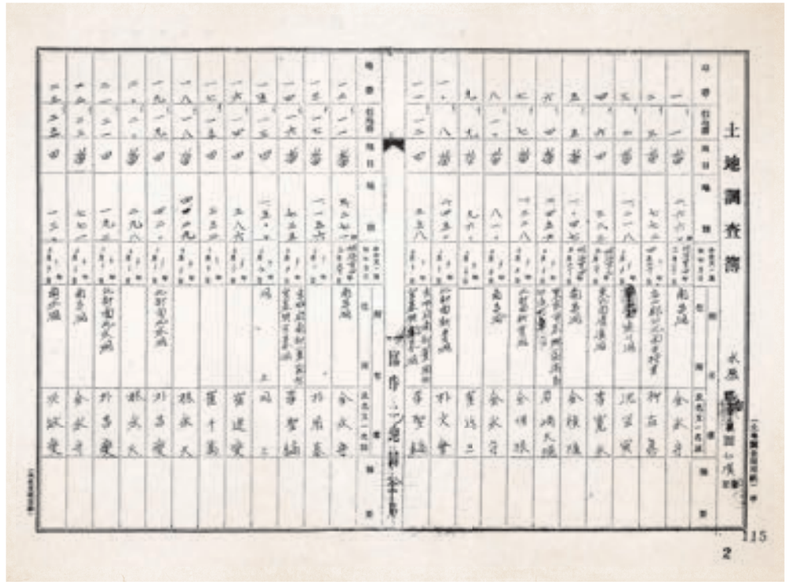


그림 7　인계리 『토지조사부』의 예(국가기록원 제공)

분쟁지조사는 분쟁지심사위원회로 넘어온 분쟁지에 대해 그 소유권을 판별하는 작업이었다. 분쟁지심사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와 서류심사 등을 거쳐 작성된 분쟁지조서를 심사하여 분쟁지의 소유자 또는 경계를 확정하였다. 분쟁지조사는 1910년 9월부터 1918년 1월까지 총 3만 3,937건, 9만 9,445필을 심사하였는데, 인계리에는 분쟁지가 없었고, 무신고지가 1필지 있을 뿐이었다.[8]

일필지조사와 분쟁지조사가 종료되면 그 내용을 근거로 『토지조사부』를 작성하였는데, 이 작성 과정이 곧 토지소유권 사정 과정이었다. 〈그림 1〉은 인계동 토지조사부의 첫 장이다. 토지조사부에는 필지별로 지번, 지목, 가지번(假地番),[9] 지적, 토지신고일,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록하였다.

사정은 토지의 소유자 및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내용을 30일간 공시하도록 하였다. 사정의 공시는 1913년 11월 12일 충북 청주군 청주면에서 시작하여 1917년 10월 28일 평북 용천군 신도면 일부 지방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태장면의 경우는 1913

년 12월 27일부터 1914년 1월 25일까지로 전국적으로 가장 빠른 편에 속하였다. 사정이 갖는 의미는 식민지 조선의 모든 토지에 새로운 소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것이 구래의 소유관계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사정에 의해 이전의 소유관계는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지금도 토지 관련 재판에서 간간히 『토지조사부』가 활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

표 2 수원군의 불복신청지

호수	구분	주소	재결명의인	재결일	필지수
391	일부소유권	태장면 인계리 572	동척	1916년 6월 17일	1
452	일부소유권	태장면 지리 외 3, 410 외 152	총독부 국장	1918년 11월 2일	153

자료 : 『조선총독부관보』 각 일자.

임시토지조사국의 사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사정에 대한 불복 및 재심의 신청에 대해 재결을 내리는 기관으로 토지소유권 확정에 관한 최고의 심사기관이었다.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겸임하였다. 인계동 불복신청지는 2건이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452호는 필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수원역을 지나는 철도선로의 일부소유권분쟁이다.

391호의 동척과 관련된 일부소유권분쟁은 〈그림 8〉에 표시되어 있다. 지적원도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최초 지적도인데, 필지별로 번지수와 지목이 표시되어 있다. 지목 밑에 표시된 숫자는 '가지번'으로서, 지적 원도 이후에 작성된 지적도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 분쟁은 560번지 국유지와 572번지 김승현 사이의 분쟁인데, 두 필지 사이에 있는 도로의 면적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를 둘러싼 분쟁으로 보인다. 민간인 사이에서는 이것은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유지(그리고 그것을 불하받은 동척)의 경우는 동일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건별로 분쟁지로 처리하였다. 재결 결과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적도에 도로로 그려진 것으로 보아 동척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표 3〉은 인계리 지목별 국민유별 사정 필수 및 면적 현황을 정리하였다. 국유지는 필지수에서는 2.8%, 면적에서는 3.9%였다. 전국적으로 국유지가 차지한 면적은 전체의 2.6%였는데, 인계리의 국유지 면적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 종래 능위토였던 용주사의 소유 토지 22필지 1만 9,483평을 합하면 그 비중은 필지에서는 5.1%, 면적에서는 5.7%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한다.

그림 8 인계리 불복신청지 지적도(인계리 지적원도)

표 3 인계리 지목별·국유·민유별 사정 필수 및 면적 현황

구분	국유		민유		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전	7	5,475	463	329,585	470	335,060
답	6	6,203	286	324,563	292	330,766
대			49	11,272	49	11,272
임야	3	6,832	136	356,036	139	362,868
잡종지			1	104	1	104
분묘지	11	22,924	5	965	16	23,889
합계	27	41,434	940	1,022,525	967	1,063,959

자료 : 『토지조사부(인계리)』.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하였지만 소농 보호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농의 몰락과 지주제의 발전에 유리한 제도로 기능하게 되었다. 등기제도의 도입과 토지에 관한 공부(公簿)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토지매매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토지매매가 급증하였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마련한 자금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되었다. 물론 토지매매의 활성화가 곧바로 지주제의 발전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조사사업은 사적 토지소유권을 절대화함으로써 토지보유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토지의 이용권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입법체제 역시 식민지지주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3. 민적법의 시행과 민적의 성격

조선시대에도 국가는 호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조선사회에서 호는 군역이나 공물납세의 기본 단위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조세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호의 편제 역시 어떤 형태로 납세단위를 확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었다. 조선 후기 호적이 신분제적 질서를 반영하거나, 동거하는 노비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갑오개혁 이후 호적 작성의 목적으로 정확한 인구 파악이 전면에 등장하였다. 갑오정권은 1896년 '호구조사규칙'을 정하여 조선시대 이래 유지하였던 호적제를 이러한 목적에 맞도록 변경하였다. 일제도 1909년 '민적법' 및 1922년 '조선호적령' 등을 통해 새로운 호적제도를 도입하였다.

호구조사규칙에 의해 작성된 호적은 통상 '광 무호적'이라 부른다. 광무정권은 호구조사사무를 위해서 9월 3일에 '호구조사세칙'을 공포하였다. 인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 빈한하여 자신의 호적을 갖지 못하면서 친지의 집에 기거하는 경우도 기구(寄口)로 등록했고, 인구 중첩을 막기 위해 호주의 부모·형제·자손이라 하더라도 각 호에 분거하고 있으면 별도의 호적으로 작성하였다. 하지만 현존하는 광무호적을 살펴보면 개인의 신상정보 파악에는 소홀했는데, 그 이유는 호구조사의 목적이 개별 가호 단위의 인구 규모 파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실제 호구조사에 따른 호적표는 매년 새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광무호적이 신분관계증명서의 성격보다는 국세조사의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광무호적에 반영되고 있는 호적 파악방식은 근본적으로는 조선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대의 호적은 호를 혈연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광무호적은 하나의 가좌(家座)에서 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생활공동체를 한 호로 파악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호구 파악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10]

그림 9 1903년 광무호적(수원박물관 제공)

일제는 좀 더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제도 보완을 시도하였다. 이 일은 특히 을사조약 이후 의병운동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긴요하였다. 1907년 통감부 산하 경무고문부가 주축이 되어 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1906년 '호구조사규칙'에 의해 조사한 호구수보다 1.7배나 되자,[11] 일제는 1908년 호적사무를 경무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제 호구 파악의 목적이 인구의 정확한 파악은 물론 거주민의 이동도 파악하는 것으로 변했는데, 1909년 3월 공포된 민적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민적법' 시행에 따른 내무대신의 훈령에 따르면 "국민의 신분관계를 법률상으로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전국의 호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상의 편의"를 기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었다. 민적과 관련된 내용은 호주가 본적지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며, 면장은 이를 취합하여 경찰관서에 보내면 경찰관서에서는 그 내용을 『민적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했다.

1) 민적 기재방식의 특징

인구동태 파악도 목적이었지만 민적은 일본의 호적제도를 따랐기 때문에, 개인별 신상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10〉은 당시 작성된 민적의 한 사례이다. 이제 민적의 기재양식을 중심으로 민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인계동의 민적은 총 140호가 있으며, 여기에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925명이었다. 이를 합한 1,065명 중에서 중복되는 인원(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사람) 59명을 제외하면 1,006명의 인구정보가 있다. 호주가 동일한 호적이 1건 있으므로 이 중 호주는 139명, 가구원은 867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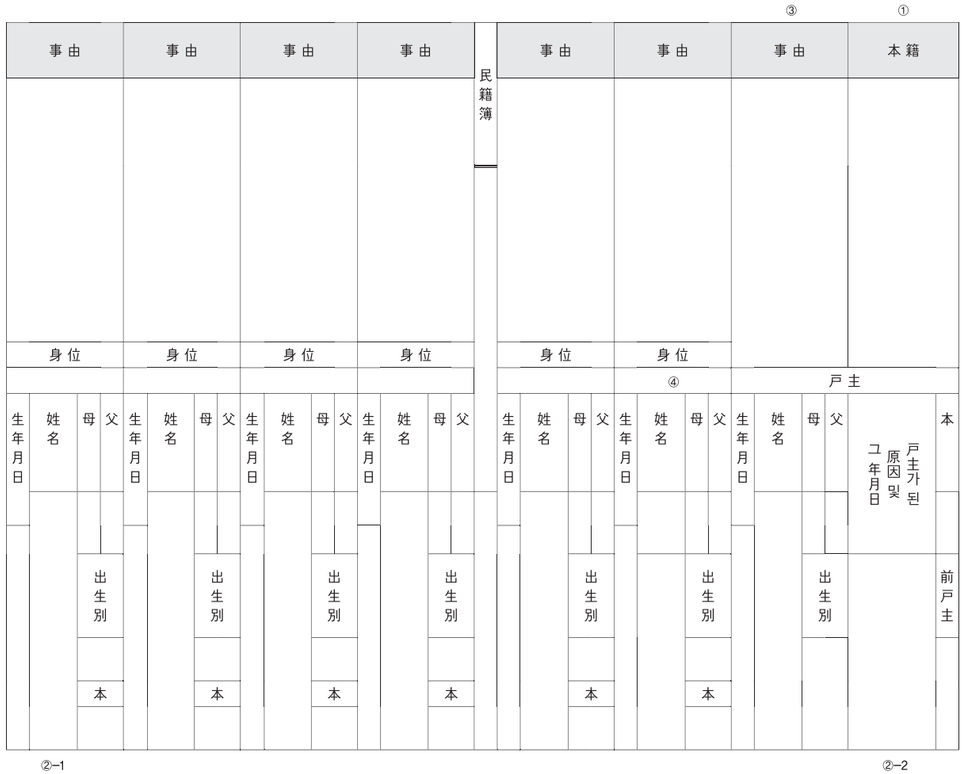


그림 10 민적의 예시

(1) 호주 기재방식과 특징

호적에는 호주와 가구원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호주의 경우는 가구원과 달리 본적과 전 호주의 성명, 호주가 된 사유와 그 일자를 기재하였다. 호주는 그 호의 대표자로서 다른 가족 구성원은 그 호주와 혈연적 관계 속에서만 그 호적에 기재될 수 있었다. 〈그림 10〉의 ①을 보면 호주에는 본적과 호주가 된 사유 등을 기록하였다. 호주가 된 원인은 전 호주의 사망, 분가, 일가창립 등인데, 이를 통해서 그 신분관계를 거슬러 올라가 파악할 수 있다.

표 4 인계리 호주의 성별 호주가 된 사유

구분	상속	분가	일가 창립	부적 분리	계
남	76	39	7	2	124
여	7	3	4	1	15
합계	83	42	11	3	139

자료 : 『제적부(인계리)』.

〈표 4〉는 인계리 호주의 호주가 된 사연을 성별로 정리한 것이다. 남성 호주는 124명(89.2%)으로 성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호주의 권리가 장자 혹은 남성 혈족을 통해 상속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그 숫자는 적지만 일가 창립의 경우나 부적에서 분리된 경우는 여자 호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혼한 여성이나 혼자 사는 여성이 호적을 취득해야 할 경우 일가창립 해당사유가 되므로 여성이 호주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부적 분리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민적법에는 '부적(附籍)'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두고 있었다. 부적제도는 민적법에는 그 규정이 없지만, 민적법시행세칙에 부적자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종래 기구나 고용 등으로 파악되었던 인구들은 별도의 호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지만, 호적을 가지면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는 조선시대의 관행을 고려하여 부적(附籍)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부적자의 호적은 일반 호적과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로 편성하지만 부적주(附籍主)의 민적 말미에 편철하고, 부적주의 성명과 부적하게 된 취지를 부적자의 민적의 좌측 상단 난외에 기재하게 했다.

이 부적자들은 광무호적에서는 기구·고용란에 숫자로만 파악되던 사람들이었다. 해당 호의 경제력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숫자면 족했지만, 개인들의 인구동태를 파악

하고자 했던 통감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성명과 인적사항도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관행에 따르면 이들은 별도의 호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부적주의 호적에 '붙여서'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혈연을 달리하면 별도의 호적으로 편성되어야 했지만, 종래의 관행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유제로 남아 있다가, 1922년 조선호적령에 따라 부적제도가 사라지면서 『제적부』에 남게 된 사례들이다.

(2) 본적의 의미

호주의 본적란에는 주소가 적혀 있다. 최초로 민적이 작성되었던 1909년에는 광무호적의 통호가 지번 역할을 하였으므로 'O통 O호'라 기재하였다가 조선토지조사사업으로 현재와 같은 지번체계가 성립되면서 번지수를 기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흔적이 민적의 본적란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본적란 좌측 하단에는 직업이 적혀 있다. 인계리 139호 중 직업이 적힌 호적은 66호로 전체의 47.4%였고, 모두 농업이었다. 원래 민적법에서는 직업을 적으라는 규정이 없었지만, 민적 작성 초기에 경찰관서에서 동향 파악의 편의상 광무호적에 기재된 직업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가 1915년 민적법 개정 이후에 작성된 민적에서는 직업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통호가 적혀 있지 않은 호적 중에서도 직업이 적힌 호적이 있는데, 이 경우도 전입 등으로 새로 호적을 만들 때 적힌 내용을 관행적으로 옮겨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적은 면단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면내에서 옮길 경우에는 제적하지 않고 사유란에 적었지만, 면단위를 넘어서는 이주가 있는 경우는 전적(轉籍)으로 처리하여 이전 거주지의 호적을 말소하고 신거주지에 새로 호적을 만들었다. 〈그림 10〉의 ③에는 이 내용이 적혀 있다. 호주가 경기도 양주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이 호적은 제적되었고, 아마 양주군에서는 새로 호적이 작성되었을 것이다. 민적표 양식에 기재된 본적(本籍)은 상상의 혈연공동체인 '가족'의 주소를 의미하는 현재의 본적 개념과는 다르며, 오히려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개념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3) 신상파악 항목의 동일성

호주 상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면, 호주나 가족 구성원에 관해서 파악하는 신상파악 항목은 동일하였다. 가구원에 관한 정보인 〈그림 10〉의 '②-1'과 호주에 관한 개인 정보인 '②-2'의 기재항목은 부모의 성명과 출생순서, 본인 성명과 생년월일, 호적에 기록되는 신상 정보의 기록 및 변경 사유를 적는 사유란 등 정확히 일치한다. 사유란에 적히는 내용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양자,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흥, 부적, 이거, 개명 등 총 14가지였다.[12] 호주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를 통해 그 내용을 호적에 기록하도록 규정했지만, 면장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에서도 민적의 기재내용에 관한 변동사항을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었다.

호주나 가족원의 이름은 모두 성과 명을 기록하였지만 여자의 경우는 성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호주의 경우 성 뒤에 '씨'를 붙여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호주가 아닌 경우도 '씨' 또는 '성녀(姓女)'를 붙인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자녀의 경우는 이름만 적도록 했는데, 이름이 없을 경우 기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언년이, 얌전이, 아기 등과 같은 아명(兒名)을 그대로 기입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920년대가 되면 대부분의 여성 가족원도 한자 이름을 가지게 되며, 기존에 이름이 없었던 여성 가족원의 경우도 개명 절차를 통해 한자 이름을 기록한 경우도 많았다.

(4) 신분의 기재

〈그림 10〉의 ④ 신위란에는 호주와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기록하였다. 〈그림 11〉은 인계리 호주와 가구원의 가족 구성을 가계도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족 구성을 보면 호주를 중심으로 위로는 1세대, 아래로는 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증조모 이상의 혈족은 호적에 없었던 반면, 증손자녀도 14명 등장하고 있다. 증손자녀가 호적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물리적인 한 공간에 동거한 것은 아니다. 출생지 주소가 본적과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호적령에 따라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장손으로 이어지는 직계가족의 경우는 동일한 본적지의 호적에 계속 등록되기 때문이다.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은데 장남 이외의 남자형제는 결혼과 함께 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호적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직계단혼가족이 기본 형태이며 일부 방계 혈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다.

부계혈족 중심의 호적체계로 볼 때 그 원칙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도 눈에 띈다. 첫째, 삼촌이나 고모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 승계 과정에서 분호되지 않은 경우라 해석할 수 있지만, 처가 쪽 식구들이 기록된 사례는 역시 부계혈족주의 원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연자(連子)의 입적도 이런 관행의 유산이다. 이혼 경험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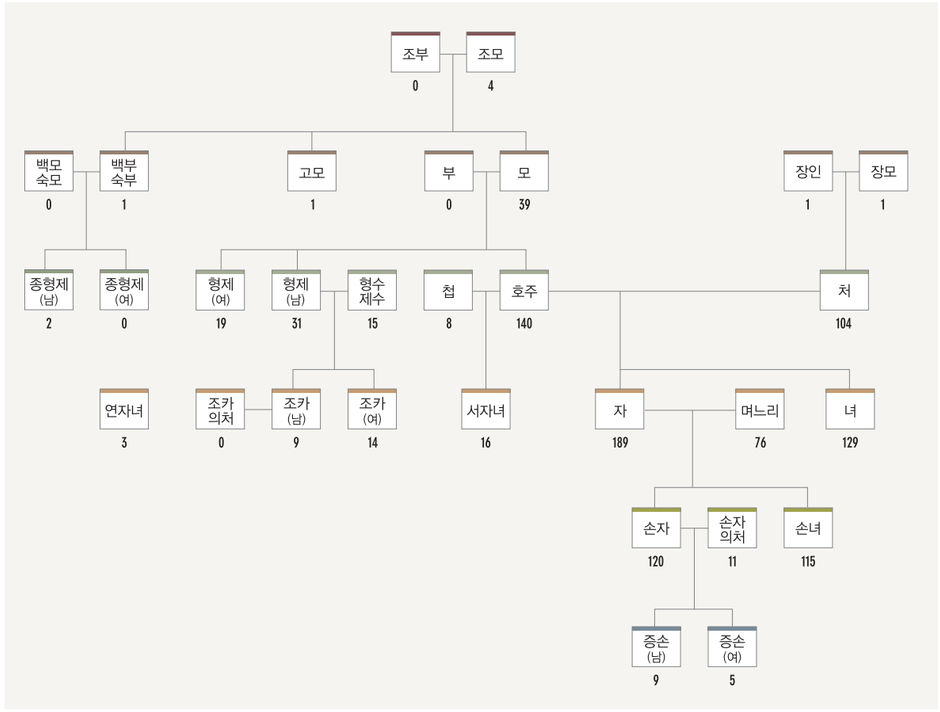


그림 11 인계리 호주와 가구원의 가족 구성
모에는 1명의 양모와 1명의 서모가 포함되었고, 자에는 5명의 양자가 포함되었다.

부인과 결혼할 때 그 부인에게 전 남편 소생이 있었을 경우 연자의 신분으로 호적에 입적시켰다. 인계리에도 3명의 연자녀가 등록되어 있다. 셋째, 여성 가구원이 결혼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함께 입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기 민적은 광무호적 기재방식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록상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다. 애초 민적을 작성할 때는 자녀의 출생순서를 성별을 가리지 않고 표기했다가 나중에 성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첩과 서자녀도 애초에는 등록에 제약이 없었는데 1915년 민적법 개정으로 일부일처제의 원칙하에 첩은 등록할 수 없게 되었다.

2) 인계리 호적에 나타난 가족 구성

이제 인계리의 호적을 이용하여 결혼, 출생, 사망 등과 같은 인구학적 정보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일제시기의 출생, 사망, 평균수명 등의 인구지표에 대해 살펴보자. 지역적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샘플도 많지 않아서 유의미한 결론을 얻어 내긴 어렵겠지만, 『제적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를 제시한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10년 인구에 대한 추계는 1,500만 명에서 1,700만 명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13] 어떤 수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1910년대 인구증가율이 달라질 것이다. 인구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것이므로 결국 출생률과 사망률에 관한 객관적 정보의 확보가 인구 추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인구 변동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민적부』를 이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4]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인계리 호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성별 결혼 여부를 살펴보자. 총 1,006명 중에서 기혼자의 비중은 51.6%였는데, 성별로는 남자는 미혼이, 여자는 기혼이 많다. 성별로 혼인 여부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적부가 갖는 특징 때문이다. 우선 호주를 중심으로 한 세대 위의 인구는 여성이 압도적이다. 부친이 살아 있는 경우라면 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 세대의 경우 여자 기혼자는 다른 호적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자녀의 성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미혼자인 남성이 많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표 5〉를 가지고 남성 혼인율이 여성 혼인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고 해석하긴 곤란하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출생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자.

인구증가율은 출산율에서 사망률을 뺀 수치이다. 출산율은 여성의 건강상태라고 하는 생리적 특성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결혼과 출산에 관한 사회적 관습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망률은 건강 및 영양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사망률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유아사망률이다. 대개 전근대사회에서는 출산한 아이는 영유아시기에 절반 가까이 사망했지만, 근대사회에 들어와 보건위생관념이 확립되면서 영유아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다산소사형의 인구 구성으로 이행할 수 있었다고 본다.

표 5 인계리 호적 구성원의 성별 결혼 현황

구분	남	여	계
미혼	273	214	487
기혼	199	320	519
계	472	534	1,006

자료 : 『제적부(인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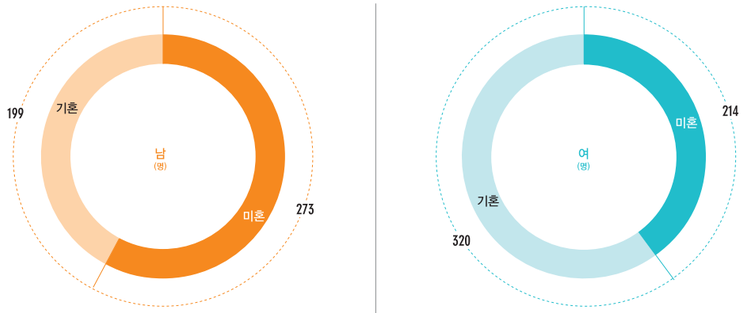


그림 12 인계리 호적 구성원의 성별 결혼 현황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초혼연령과 혼인율이다. 여성의 경우 생리적으로는 10대 초반을 넘어서는 출산할 수 있지만 실제 첫 아이를 낳는 나이는 이와는 무관하게 결혼에 관한 사회적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 권태환·김두섭은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이 1925년에 남성 21.1세, 여자 16.6세였으며, 1940~1955년에 남성은 21.8세에서 24.7세, 여자 17.8세에서 20.5세로 3세 가까이 급상승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남성 29.3세, 여자 26.5세였다고 정리하였다.[15] 〈표 6〉은 인계리 기혼자 중 결혼일을 알 수 있는 사람 404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초혼 나이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남성의 경우는 20대가 압도적이며, 여성의 경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결혼하였다.

표 6 인계리 성별 초혼연령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합계
남	27	116	14	2	159
여	137	102	5	1	245
합계	164	218	19	3	404

자료 : 『제적부(인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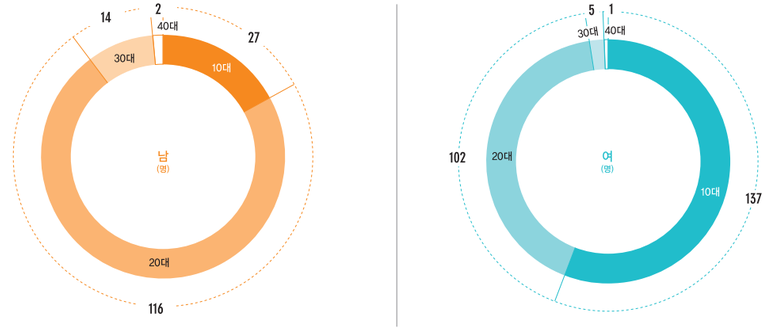


그림 13 인계리 성별 초혼연령

호적에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표 6〉만으로는 초혼연령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인구학자들은 출생시기별로 사람들을 묶어서(이렇게 묶인 집단을 코호트라고 부른다) 그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는 방법을 선호한다. 박기주·김성남은 언양면의 『제적부』 분석을 통하여 식민지기 초혼연령을 분석하면서 이 방법을 활용하였다.[16] 〈표 7〉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의 출생 코호트를 구성하고, 그들의 성별 평균 초혼연령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평균은 남자는 23.9세였고, 여자는 19.7세였다. 이 수치는 국세조사보다는 높지만, 1940년대 이후보다는 낮다.

표 7 **인계리 출생코호트별 성별 초혼연령**

출생코호트		1850	1860	1870	1880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계
인원	남	8	9	23	36	23	20	25	6	9		159
	여	10	6	13	40	43	29	46	30	24	4	245
초혼연령	남	28.6	25.4	25.9	23.9	21.1	22.6	24.3	23.5	22.2		23.9
	여	20.8	24.3	20.3	21.6	18.3	18.3	19.6	18.3	21.2	18	19.7

자료 : 『제적부(인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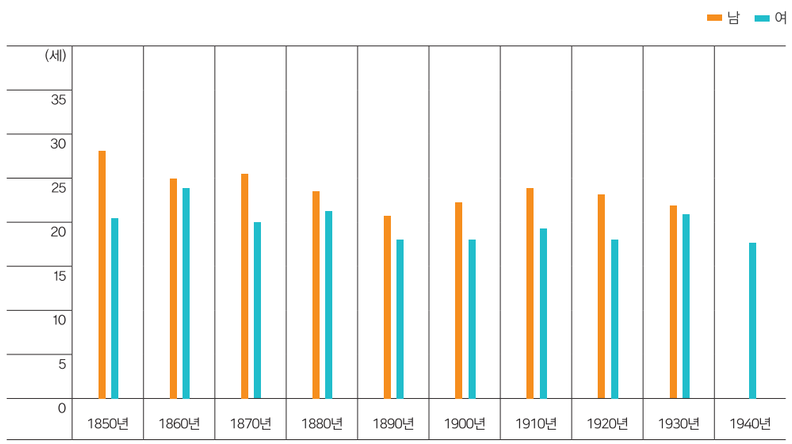


그림 14 인계리 출생코호트별 성별 초혼연령

자료를 해석하기에 앞서 이 표본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80년대 이전 출생자들의 초혼연령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민적이 작성되기 시작한 해는 1909년이므로 1880년대 이전 출생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결혼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정보가 없었고, 이들은 첫째 아이의 출생연도로 역산하여 혼인 일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만일 첫째 아이가 사망했다면 그들의 초혼연령은 그만큼 과대평가될 것이다. 1880년대 이전 출생자들의 평균 초혼연령이 높은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191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의 평균 초혼연령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1910년대 출생자가 1920년대 후반에 제적되었다면 그는 미혼자로 처리되어 이 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제적된 이후에 결혼했을 수 있으므로 평균 초혼연령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표 7〉를 살펴보자. 1870년대까지는 남성이 많지만 188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이 많다. 호적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1890년 이전에 태어난 여성의 경우 초혼연령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호적에 없기 때문에 통계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출생코호트까지의 초혼연령은 확실히 과대평가되었을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1890년대와 1900년대 출생코호트의 여성 초혼연령은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 이들의 상당수는 1909년 민적 작성시점이나 그 직후에 결혼 적령기에 도달한 사람들이므로 실제 결혼 상황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본다면, 여성의 초혼연령이 당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확실하게 반전하여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은 193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이제 사망률에 대해 살펴보자. 출생률을 제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 사망률의 경우는 보다 간단하다.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생상태 및 영양상태와 관련이 있는데, 출산 시 산모나 태아가 사망할 위험을 논외로 한다면, 영유아사망률은 주로 산모의 영양상태에 의해 좌우되며, 전염병 등에 의한 사망은 위생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종두법과 같은 근대적 의료체계의 보급이나 근대화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은 영유아사망률을 낮출 것이지만, 도시빈민의 주거여건은 전염병이 번질 수 있는 호조건이어서 일시적으로는 사망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1,006명의 표본 중에 사망제적자는 199명(19.8%)이다. 전근대사회의 사망률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영유아사망률이다. 〈표 8〉은 출생코호트별로 성별 사망자와 그로부터 평균 사망연령을 구한 것이다. 5세 미만 영유아사망률을 알 수 있는 출생코호트는 1900년대부터인데, 민적 작성시점인 1909년 이전에 사망한 영유아는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91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가 영유아사망률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출생코호트별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다. 1910년대 평균수명이 급속히 감소하는 것은 사망률의 주원인이 여전히 영유아사망률이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사망제적자도 함께 고려하여 영유아사망률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표 9〉는 제적사유가 사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출생코호트별 제적사유를 살펴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출생코호트별 영유아사망률을 대략 계산할 수 있다. 1910년대 출생코호트에 속한 사람은 사망제적자 36명과 비사망제적자 169명을 합하여 205명인데, 이중 5세 미만에 사망한 경우는 24명으로 11.7%였다. 같은 방식으로 계

표 8 인계리 사망제적자의 출생코호트별 성별 인원 및 평균수명

출생코호트	인원			평균수명		
	남	여	계	남	여	계
1850	15	17	32	72.8	70.8	71.7
1860	10	6	16	56.9	61.7	58.7
1870	13	3	16	55.4	52.3	54.8
1880	10	10	20	47.1	51.3	49.2
1890	7	6	13	39.3	31	35.5
1900	5	5	10	45.8	15.6	30.7
1910	24	12	36	10.6	12.8	11.3
1920	7	10	17	1.1	3.2	2.4
1930	9	9	18	1.4	2.8	2.1
1940	13	8	21	2.9	2.6	2.8
계	113	86	199	32.5	31.8	32.2

자료 : 『제적부(인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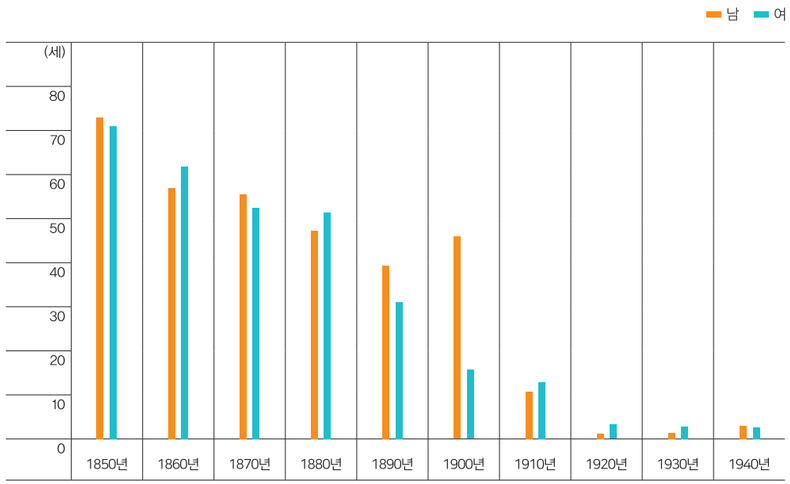


그림 15 인계리 사망제적자의 출생코호트별 성별 평균수명

산하면 1920년대 출생코호트의 5세 미만 사망률은 18.4%이고, 1930년대 및 1940년대의 경우는 각각 16.5%와 13.3%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910년대 출생코호트의 사망률보다는 높았다. 다만 1910년대 출생자의 경우 어렸을 때 사망했을 때 아예 호적에 등록하지 않아서 영유아사망률이 낮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여하튼 영유아사망률의 비율이 1910년대에 비해 1920년대 및 1930년대 출생코호트에서 더 높다는 것은 일제시기 생활수준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서 말했듯이 사망률, 특히 영유아사망률은 산모의 영양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표 9 출생코호트별 제적 당시의 연령

출생코호트		5세 이하	9세 이하	19세 이하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9세 이하	70세 이상	계
사망 제적	1850							1	14	17	32
	1860						1	9	3	3	16
	1870					2	5	3	3	3	16
	1880				2	7	2	1	3	5	20
	1890			2	5	2		3		1	13
	1900	2	0	2	0	1	4	1			10
	1910	24	1	1	3	6	1				36
	1920	14	3								17
	1930	16	2								18
	1940	18	1	2							21
	계	74	7	7	10	18	13	18	23	29	199
비사망 제적	1850							3	15	4	22
	1860						3	19	1	4	27
	1870					7	19	2	2	9	39
	1880				21	40	2	4	4	9	80
	1890			19	57	3	3	3	7	7	99
	1900		17	64	8	10	8	8	4		119
	1910	62	21	26	28	10	13	9			169
	1920	5	5	17	15	10	7				59
	1930	13	10	13	33	10					79
	1940	40	26	41	7						114
	계	120	79	180	169	90	55	48	33	33	807

자료 : 『제적부(인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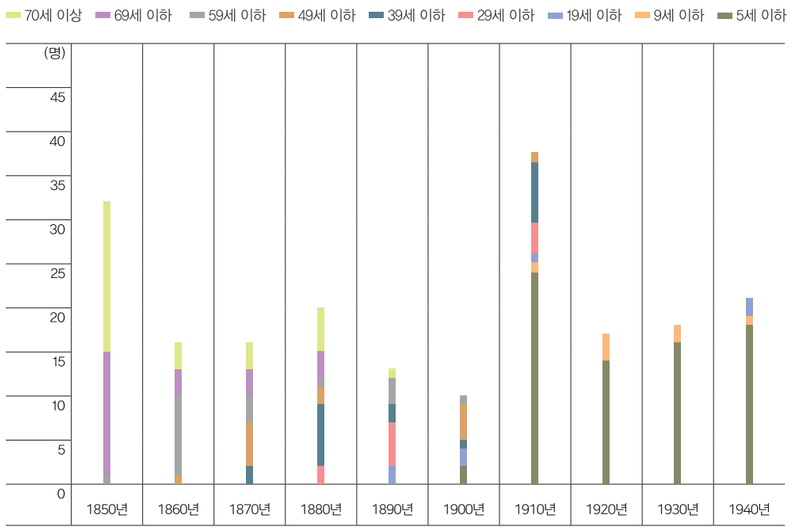


그림 16 인계리 출생코호트별 (사망) 제적 당시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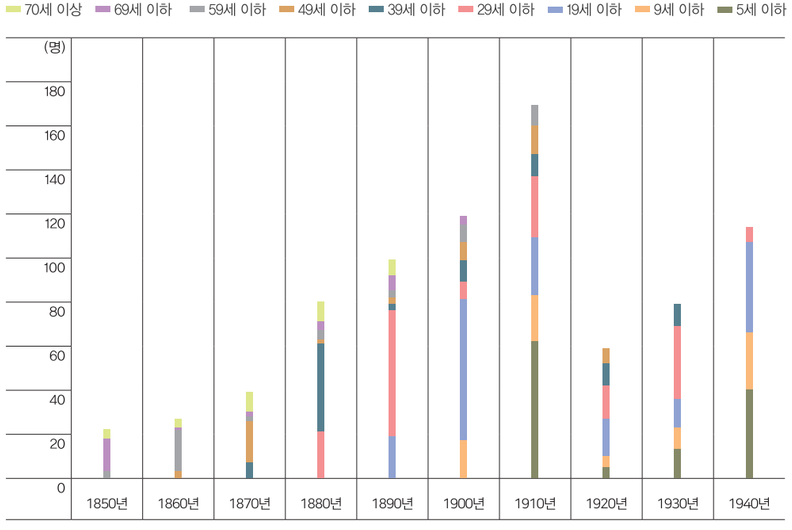


그림 17 인계리 출생코호트별 (비사망) 제적 당시의 연령

4. 민적 호주의 사회경제적 지위

앞에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1910년대 초반의 토지소유 현황을 실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민적부』는 1910년대 인계리에 주소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을 보여 준다. 토지소유 현황은 속지주의적 입장에서 소유자를 파악한 것이라 한다면, 민적의 인구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만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만일 『민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1910년대 초반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전부 파악한 것이라면 양자를 비교하면 인계리에서 토지소유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민적은 1909년도에 작성되었으며, 1922년까지 그 지역에 한 번이라도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면을 달리하여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제적부』에 그 호적은 남아 있을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대 초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인계리에 살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이 『제적부』에 그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가정에서 두 정보를 연결하여 인계리 호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론해 보기로 한다. 박성근[17]에 따르면 1931년 12월 현재 인계리에 거주하는 호수는 216호였고, 그 중 일본인이 3호 있었다고 한다.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수원읍에 가까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1910년대 초반 140호가 인계리에 거주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토지소유와 거주지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10〉를 작성하였다. 인계리 거주자가 토지를 보유한 경우는 240명이었다. 태장면 거주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필지로는 663필지 68.5%였으며, 면적으로는 55.9%를 차지하였다. 국유지를 포함하여 수원군 이외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필지로는 18.2%지만, 면적으로는 25.6%로 4분의 1 정도였다. 부재지주의 토지소유 비중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태장면이 수원읍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재촌지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1〉은 인계리 토지소유자의 대지를 포함한 경지소유 규모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5단보 미만의 영세토지소유자가 59.3%이며 보유면적은 13.1%에 불과하였다. 3정보 이상 토지소유자가 많은 편인데, 토지소유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이지만, 면적으로는 45.2%를 차지하였다. 〈표 10〉의 다른 군 거주자 면적보다도 많은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들 중에서 대토지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보여 준다.

표 10 인계리 토지소유자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

구분	필지	면적(평)	비율(%)	
			필지	면적
같은 리 거주	240	191,185	24.8	18.0
같은 면 거주	423	392,259	43.7	36.9
같은 군 거주	128	208,606	13.2	19.6
다른 군 거주	176	271,909	18.2	25.6
합계	967	1,063,959	100.0	100.0

자료 : 『토지조사부(인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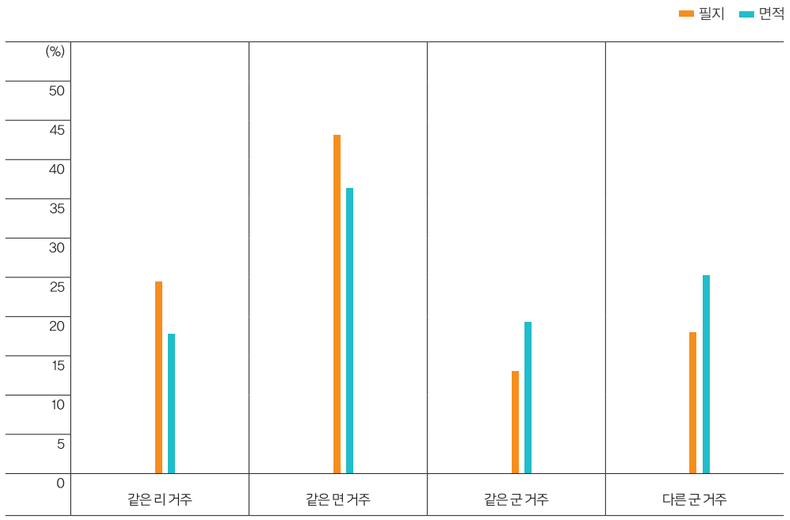


그림 18 인계리 토지소유자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

호적에 등록된 1,006명 중에서 토지대장에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은 27명이 불과하였다. 하지만 토지소유는 대개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호주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한 호에 2명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총 26호가 토지를 소유한 셈이었다. 전체 139호 중에 1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같은 리에 거주하는 사람

표 11 인계리 경지소유자 소유면적별 현황

소유 규모	인원(명)	면적(평)	비율(%)	
			인원	면적
0.5정보 미만	153	88,462	59.3	13.1
1정보 미만	49	102,585	19.0	15.2
2정보 미만	29	120,332	11.2	17.8
3정보 미만	8	59,590	3.1	8.8
3정보 이상	19	306,129	7.4	45.2
합계	258	677,098	100.0	100.0

자료 : 『토지조사부(인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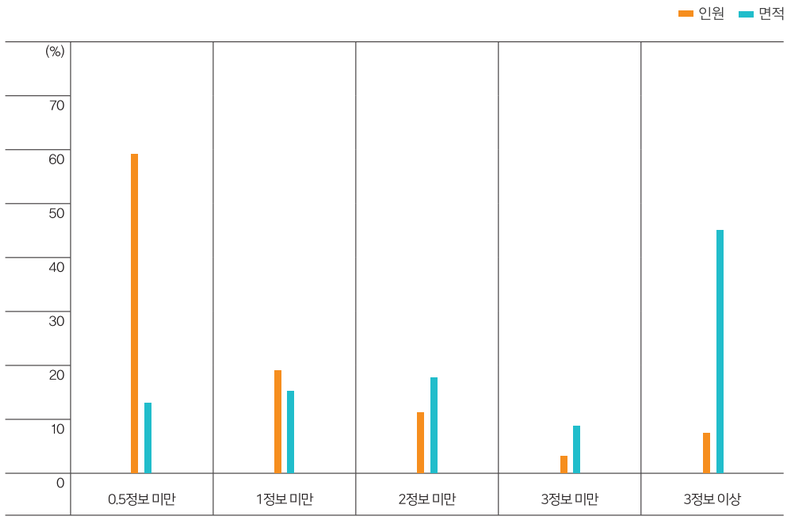


그림 19 인계리 경지소유자 소유면적별 현황

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치는 사실 우연으로 보이지만, 당시 거주자 중에서 경지를 한 필지라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20% 내외에 이를 정도로 소유분해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인계리 토지소유 규모와 가구원수의 관계

가구원수	호주		가구원		계	
	호수(명)	면적(평)	호수(명)	면적(평)	호수(명)	면적(평)
4인 이하	6	23,738			6	23,738
9인 이하	8	19,191	1	16,894	9	36,085
19인 이하	4	13,393	1	11,021	5	24,414
20인 이상	3	14,686	3	2,241	6	16,927
합계	21	71,008	5	30,156	26	101,164

자료 : 『제적부(인계리)』; 『토지조사부(인계리)』.

이제 토지소유 규모와 가구원수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139호에 1,006명의 가구원이 있었으므로 호당 평균 가구원수는 7.2명이었다. 반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호수 26호의 가구원수 평균은 10.6명이었다. 토지보유 호구의 가구원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토지소유 규모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둘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1910년대 중반 이후의 호적의 경우에는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호적에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가 식민지 초기에 진행한 토지조사와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호적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제가 이 사업들을 실시한 것은 식민지 조선에 있는 생산요소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자 함이었다. 그 사업의 결과 비로소 토지와 인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 이 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제국주의가 식민 통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지만, 조선조 이래 발달해 온 사적 토지소유를 법인하여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사적 토지소유권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겸병과 그에 따른 식민지지주제가 발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인계리의 토지조사사업은 191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는데, 총 967필지 106만 3,959평이 사정되었다. 인계리에 분쟁지는 없었으나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동척 소유지 및 철도부지 관련 불복신청이 제기되었다. 인계리 사정 토지 중에서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상회하였다.

민적 작성사업은 인구의 정확한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초기에는 의병운동 등과 관련하여 인구동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으나, 일본의 호적제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호구를 편성하였다. 이 때문에 여성 호주의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광무호적과 마찬가지로 비혈연 동거인도 등록되는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신분 기재에서도 통일성을 가하는 등 인구의 정확한 파악을 체계화하였다. 중복되는 인구를 제외하면 인계리 민적에는 총 139호와 1,006명의 인구가 있었다. 인구학적 정보를 검토하면 초혼연령은 1890년대 출생코호트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 출생코호트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영유아사망률의 비율이 1910년대에 비해 1920년대 및 1930년대 출생코호트에서 더 높았는데, 식민지기 생활수준과 관련해서 시사점이 많은 결과였다.

인계리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계리의 토지를 소유하는 비율은 면적 기준으로 18%였다. 한편 인계리 호수 139호 중에서 경지를 한 필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가호는 26호였는데, 전제 거주 가호의 20% 내외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 보유면적과 가구원수 사이의 상관관계도 관찰되지 않았는데, 호적상의 가족이 실제 생활공동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참고자료

권태환·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2002.

박기주·김성남, 「20세기 우리나라 혼인연령의 추이–경남 언양 사례」,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12–08.

박성근, 『태장향토사』, 태장공립보통학교, 1932.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7.

조석곤, 「광무년간의 호정운영체계에 관한 소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조석곤, 『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차명수, 「경제성장·소득분배·구조변화」,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출판부, 2006.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와 장부』, 선인, 2011.

石南國, 『韓國の人口增加の分析』, けいそ書房, 1972.

Kwon, T. H., H. Y. Lee, Y. Chang & E. Y. Yu, *The Population of Korea*, SNU Press, 1975.

1) 광무양전사업이 근대적 토지제도의 확립을 의도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으며, 근대적 토지제도의 주요한 한 축인 등기제도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광무양전사업에 의해 근대적 토지제도가 확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선호적령은 1922년 12월 18일 제정되었는데, 제9조에 "호주의 상속, 절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전부를 말소한 때에는 그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편철하여 제적부로 보존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률은 1923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적부』는 1923년분부터 남아 있다.
3) 조석곤, 『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53~56쪽.
4) 조석곤, 『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132쪽.
5) 조윤선, 2002, 151쪽.
6) 조석곤, 『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와 장부』, 선인, 2011.
7) 임야는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소유권이 확정되었으며, 도로는 해방 이후에 별도의 지번을 부여받아서 등록되었다.
8) 태장면 전체로는 신리에 2필지가 있었을 뿐이었다.
9) 가지번은 『실지조사부』에 기록된 지번이다. 실지조사부는 일필지조사를 수행한 측량반에서 작성하였다. 실제 지번은 측량 및 사정이 모두 끝나고 지적도가 작성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지조사부의 지번은 가지번이라고 불렀다.
10) 조석곤, 「광무년간의 호정운영체계에 관한 소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11)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7, 355쪽.
12) 본관을 적은 양식은 호주의 경우 별도의 기재란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양식에는 빠져 있다. 원래는 호주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여 15개였지만, 해당 내용은 호주란에 별도로 기재되었으므로 '사유'란에는 적지 않았다.
13) 석남국(石南國, 『韓國の人口增加の分析』, けいそ書房, 1972)은 1910년의 인구를 1,522만 명으로 추계했으며, 권태환 등(Kwon, T. H., H. Y. Lee, Y. Chang & E. Y. Yu, *The Population of Korea*, SNU Press, 1975)은 1,743만 명으로 추계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인 차명수(차명수, 「경제성장·소득분배·구조변화」,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출판부, 2006)의 추계에 따르면 1,615만 명이다.
14) 박기주·김성남, 「20세기 우리나라 혼인연령의 추이–경남 언양 사례」,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12–08.
15) 권태환·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2002.
16) 박기주·김성남, 「20세기 우리나라 혼인연령의 추이–경남 언양 사례」,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12–08.
17) 박성근, 『태장향토사』, 1932.

본수원역으로 시작하여 화성역으로 불리며 1972년까지 수려선이 폐선될 때까지 주요한 역으로 기능하였다. 해방 이후 약 4반세기 동안 수원의 동쪽 용인에서 오는 사람들은 화성역을 통해 수원으로 입성하였다. 현재는 버스정류장 이름에만 '화성역'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3장 | 수려선 부설과 화성역

1. 경동철도와 수려선 부설

수원에서 5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신설된 경동철도주식회사가 수원-여주 사이 철도를 개설하고자 출원하여 1920년 3월 1일 부설이 허가되었다.[1] 사설철도인 경동철도는 수원-여주 간 43마일의 광궤철도(廣軌鐵道)를 부설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소식에 수원 관민 일동은 1920년 3월 10일 성 안 풍창관(豊昌館)에서 축하회를 개최하며 크게 환영하였다. 그러나 1920년 3월 1일 부설 허가가 났음에도 수려선 착공이 바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1918년 일본의 쌀파동과 1919년 홍수에 따른 경제 불황의 여파 때문이었다. 이에 수원과 여주 등지의 실업가들이 나서서 경동철도주식회사를 조직하자는 의론인 일어나 1920년 4월 10일 '경동철도속성동맹회(京東鐵道速成同盟會)'를 창립하였다.[2] 경동철도를 조속히 개통하자는 모임이었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몇 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1926년 3월 2일이 공사시행 인가 기일이었다. 따라서 1926년 3월을 넘기면 부설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박함에 직면하였다. 이에 1925년 겨울부터 회사 설립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졌다. 수려선이 지나가는 주요 도시인 이천에서는 1926년 2월 16일 조

京東鐵道
期成會
成立과方針

大正九年度豫定의水原利川間
所謂京東線鐵道敷設은其後持續
하야財界의不況으로一時中止하얏
던바遺憾하얏든데過般仁川、
水原間鐵道敷設問題가漸次具體
化함에따라同地方民은仁川有志
와會合하야此目的을實現키爲
하야京東鐵道期成會를組織하야
具體的運動에着手하고昨日總會
를開催하기로決하얏는데局長을
訪問하고其情況을具陳하얏는데同
地方에는內鮮人이同一한步調로
目的貫徹에努力하는데期成同盟
會員은會長香山弘一郎氏를其他
八幹事로選擧하얏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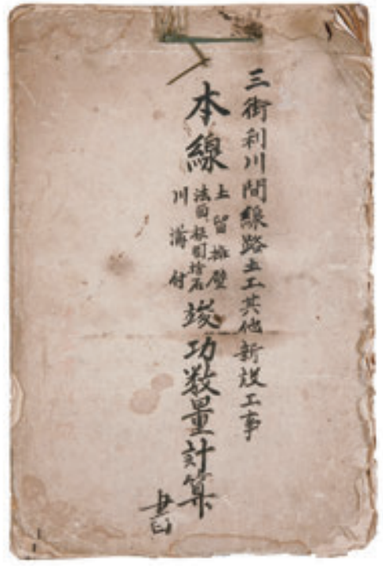
仁川
大藤久吉郎氏
水原
岡本保誠氏
烈小其鐵道實現幾
俞台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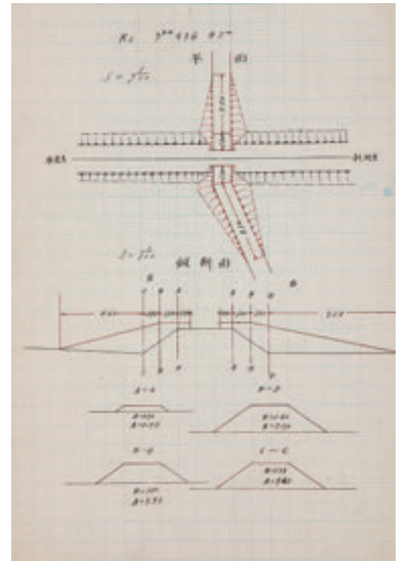
경동철도기성회 성립(『매일신보』, 1926년 10월 21일)

한욱 이천군수의 사회로 이천공회당에서 군민대회를 열어 경동철도 착공을 위한 촉진결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경동철도기성회(京東鐵道期成會)'를 조직하고 위원장 조덕환(曺德煥)과 대표위원 오누키 테츠야(小貫鐵彌)·이용묵(李容默), 그리고 위원으로 유태준(俞台濬) 등 32명을 선출하여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3]

그러나 공사인가 기일이었던 1926년 3월 2일까지 철도가 부설되지 않았고, 더욱이 철도 부설을 주도할 회사조차 조직되지 못한 지경이었다. 경동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경동철도 설립위원 및 지방 유지들의 노력으로 철도 부설공사를 1927년 3월 2일까지 연기하는 공사연기 신청을 철도국에 제출하였다.[4]

이에 수원 지역 유지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 인가받은 수려선 부설이 경기불황으로 중지되었지만 오히려 인천–수원 사이 수인선 철도 부설 문제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수원 지역민들은 인천 유지들과 회합하여 '경동철도기성회(京東鐵道期成會)'를 다시 조직하고 구체적 운동에 착수하였다. 경동철도기성회(기성동맹회)는 회장 가야마 히로시(香山弘), 부회장 스기노 에이하치(杉野永八), 간사 유아사 이헤이(湯淺伊平), 한상봉(韓相鳳), 오카모토 야스시로(岡本保城), 오오후지 히사시(大藤久), 조병렬(趙炳烈), 오누키 테츠(小貫鐵載), 조신환(曺信煥) 등으로 조직되었다.[5] 이들은 총독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1926년 10월 6일 철도국장을 방문하고 사정을 개진하였다. 주로 일본인들이 주도하였고 조선인으로는 한상봉과 조병렬, 조신환이 참여하였다.





1920년대 수려선 선로 공사 설계도 및 계산서(수원박물관 제공)
1930년 개통한 수려선 선로 및 관련 시설 공사 설계도와 계산서다. 수려선의 선로, 정면도로, 정거장, 터널, 벽체 등의 공사 설계도면과 건축자재 계산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경동철도주식회사는 재정 부족과 낮은 수송 예상량으로 인해 수려선을 조선과 만주에 건설된 1,435㎜ 표준궤가 아닌 762㎜ 협궤로 건설했다.

한상봉(韓相鳳, 1876~1933)은 수원면 신풍리 73번지에 거주한 수원 지역의 실력자였고 중추원 참의까지 지낸 대표적 친일파였다. 동생 한상룡(韓相龍, 1880~1947)이 더 유명하였다. 이들 형제는 친일행적으로 함께 『친일인명사전』에 올랐고, 외삼촌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지탄을 받는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李完用)이었다. 남작 한창수(韓昌洙)는 할아버지뻘 되는 일가친척이었다. 한상봉은 대한제국기에 한국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참위(陸軍參尉) 및 육군정위(陸軍正尉)로 근무하다가 스스로 그만둔 뒤 1906년 9월 한성은행 수원지점 지배인이 되었다. 이후 1917년 10월 수원면 상담역이 되고, 1920년 12월 선거에 의해 경기도평의회원이 되면서 1920년대 말까지 수원 정치·경제 방면의 최고 실력자로 행세하였던 인물이다. 1928년 서울 통의동 103번지로 이거하였지만 여전히 수원 경제계를 호령하고 있었다.

波瀾을惹起하는

京東鐵道起工

십오일용인에서선착수

開通期는八月中

【용인】 수원(水原)과 여주(驪州)간 오륙십리 지간 소화이년중에 이르러 착수하고 동 십오년(京東鐵道) 는십여년 전부터 문제에오르내려 거듭하여 (직할예정이엇스나 운이 불리하여 지금까지 실현에 이르지 못하엿스나 이번에 총독부 당국에서는 이 철도를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번 소화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가지고 드디어 착수하게 되엇다 한다

경동철도 수려선 기공식(『동아일보』, 1930년 2월 17일)

수려선 부설은 1928년에 가서야 본격화되었는데, 2~3차에 걸쳐 연기되었다가 1928년 5월 발기인들을 변경하여 자본금 5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총독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6] 결국 수려선은 최초 500만 원 자본금으로 광궤철도 부설이 계획되었으나 재계 불황의 여파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1928년 7월에 다시 13명의 발기인과 지역 유지들의 찬성을 얻어 자본금을 300만 원으로 인하하고 광궤를 협궤철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주식 모집에 들어갔다.[7]

이에 1928년 8월 27일 주식회사 설립이 비로소 완성되었는데, 대주주로 동산농사회사, 용산공작회사, 철도교양(鐵道敎養)조성회 등의 회사와 단체가 주도하면서 본격화될 수 있었다. 수원 주민들은 수원실업협회(水原實業協會)를 중심으로 1929년 4월 25일 수원공회당에서 제7회 정기대회를 열고 수원 발전책을 논의하였다. 그 논의의 중심은 경동철도 문제였다.[8] 수려선 철도 개설을 시급히 진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수려선 철도 기공은 1929년 5월 말에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시 해를 넘겨야 했다.

드디어 1930년 2월 2일 수원-여주 간 경동철도 기공식이 수원역 광장에서 거행되었고,[9] 이후 두 달 뒤인 4월 8일에는 용인-이천 사이 철도 공사가 착공되었다.[10] 그리고

1930년 11월 30일 우선 수원-이천 사이 53㎞ 경동철도가 개통되었다.[11] 여주까지 부설되어 수려선이 개통된 것은 1931년의 일이다.

한편 경동철도의 조선인 대주주로 1938년 수원의 3대 지주 가운데 한 명인 차준담(車濬潭)과 경성방직의 김연수(金季洙)의 참여가 주목된다. 김연수는 1936년 경동철도 취체역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2. 수원동진회의 활동과 본수원역 위치 변경운동

1920년대 수려선이 부설된다는 소문과 함께 주요한 관심은 철도역이 어디에 설치되느냐가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이미 경부철도 수원역이 매산리에 설치되면서 역 앞에 '역세권(驛勢圈)'이 형성되어 상당한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수려선의 철도역이 성 안 중심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이었다. 이에 성 안 거주 유력한 인사들이 철도역을 성 내 부근에 설치할 것을 운동하고자 만든 조직이 '수원동진회(水原同進會)'였다. 무엇보다도 수원역을 중심으로 성 밖의 비약적 발전에 비해 성 안의 발전이 지체되었다는 위기위식이 조직의 원동력이었다.

당시 성 안 사람들은 수원역이 성 밖에 생기면서 성 안은 쇠퇴하고 성 밖만 나날이 번성되어 간다고 여겼다. 10여 년 전부터 경동철도가 만들어져 수려선의 기점을 수원으로 하고, 경동철도 회사를 수원에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성 안 신풍리에 거주하는 한광호(韓光鎬, 1896년생)를 중심으로 성 안의 번영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수원동진회였다. 이에 회원을 성 안 거주자로 하여 1928년 9월 15일 저녁 8시 반 수원공회당에서 80여 명이 모여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의장 한광호의 사회로 준비회에서 제정한 규칙초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임원으로 회장 한광호, 부회장 에구치 모리오(江口守夫)가 선임되었고, 상의원(常議員), 평의원(評議員) 20명을 두었다. 이들 20명은 우선 전형위원 6명과 회장, 부회장이 결정할 것을 위임하고 폐회하였다.

수원동진회 조직을 주도한 한광호

水原同進會
定期大會延期
來十七日로

水原邑部發展策을目標로組織된水原同進會에서는本月十一日에水原公會堂大講堂에서第二回定期大會를開催코자하엿스나準備上本月十八日午後七時로延期하엿다는바今番大會는水原邑部發展策實行에必要한諸般의事項을協議하기爲하야擴大化시키자는重大한計劃案도잇슴으로當日會員各位의無論參席을切望한다더라【水原】

◇計劃案
一、各部의費用豫算編制件
二、中等程度學校期成會設置件
三、其他水原發展에關한件

수원동진회 관련 기사(『중외일보』, 1930년 5월 25일)

수원동진회는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연합 조직이었다. 수원동진회 회장으로 조직을 이끌었던 한광호는 신풍동 출신으로 1921년 수원군농사장려회 부회장, 1922년 조선농회 평의원, 1927년 수원금융조합 평의원을 역임하며 지역유지로 활동하였다. 이에 1928년 수원동진회 회장이 되고 다시 1930년 경기도회의원이 되었다. 이 외에도 한광호는 수원유치원 원장,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 감사, 화성흥산주식회사 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수원동진회의 활동 목표는 성시(城市) 발전을 위하여 경동철도의 정거장을 성 안 부근으로 유치하는 운동과 성 안과 성 밖으로 나누어져 있는 시장을 성안시장으로 합치는 운동을 주요한 사업으로 내걸었다. 더욱이 수원동진회 회칙의 정관 제1조는 '수원 북부 거주자로써 조직함', 제3조 '수원면 북부의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수원면 북부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성 안 사람들의 이익에 충실한 노선이었다. 이에 문 밖 구천동 사람들의 불만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0년 5월 18일 제2회 정기대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수원 북부 거주자를 '수원면 거주자'로 회원 자격을 확대하고, 그 목적도 수원 북부가 아니라 '수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바꿨다.[12] 수원 북부지역으로 한정하는 지역적 폐쇄성과 패쇄적 인적 구성을 비판받았기 때문이다.

수원동진회를 중심으로 1930년 본수원역(本水原驛)의 위치 변경운동이 펼쳐졌다. 본수원역의 위치를 현재 위치보다 성 안 쪽으로 가깝게 변경하고자 한 듯하다. 즉 본수원역 위치 변경 요구는 수원천을 건너 동쪽 인계동에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고, 수원천 건너기 직전 서쪽 매교 언저리에 역을 설치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매교에서 수원천을 따라 북상하여 시내와 가깝도록 노선을 변경하고 역을 시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이는 수원시민대회 개최를 고민할 정도로 커다란 관심을 가진 사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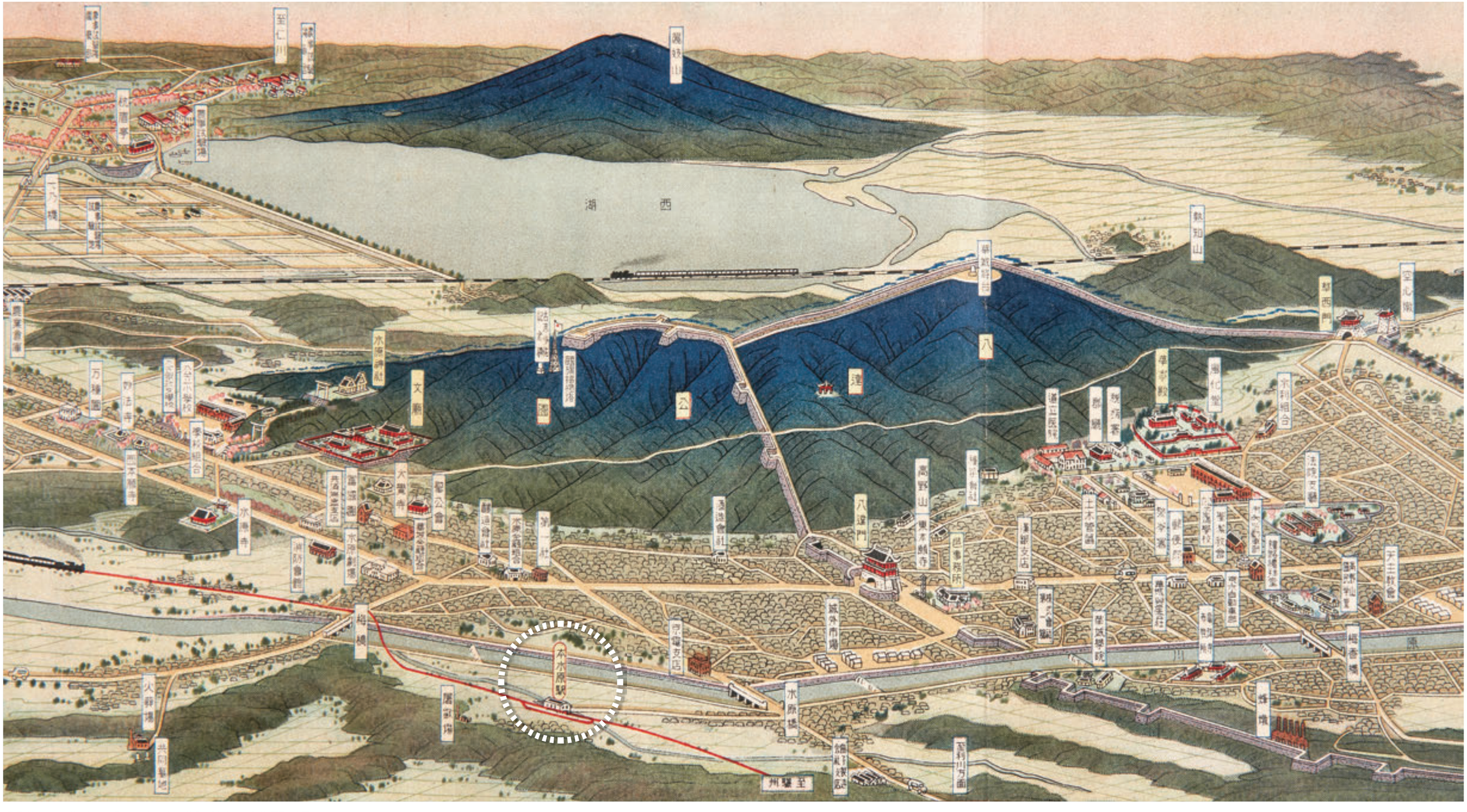
역 위치 변경운동은 읍내 사람들의 처지에서 기획되고 진행된 것이지만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었다. 실제 본수원역이 위치한 곳은 인계리 끝자락에 해당하며 큰 마을이 형성된 곳도 아니었다. 수원천 건너편 매교동이거나 용인 가는 길 건너 지동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더욱이 수원교 북쪽 읍내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본수원역의 위치는 도로교통도 좋지 않은 궁벽한 곳이 아닐 수 없었다. 인계동 큰 마을에서 보자 해도 인계동 끝자락 산 아래 후미진 곳이었다.

1936년에 제작된 「관광의 고도 수원」 지도를 보면 확연하게 본수원역 위치 변경운동이 이해된다. 매교에서 수원천을 따라 북쪽으로 가는 동안 천변 동쪽은 논이 펼쳐져 있고 큰 마을이 없는 반면 천변 서쪽은 집들로 가득 찬 번성한 도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수원역 위치 변경운동은 수원면협의회원(水原面協議會員)을 실행위원으로 여론을 환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면협의원들을 비롯하 성 안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1930년 초 철도국에 역 위치 변경 의견이 올라갔다. 철도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경동철도 등 관계 기관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1930년 4월 2일 철도국 사와자키(澤崎) 감독과장은 우메하라(梅原) 수원면장에게 보낸 회답공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현재의 예정지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13] 기술상으로 현재 위치가 적당하여 변경이 어렵다는 통지였다. 수원면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성 안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 사안이었음에도 철도국의 통지는 그동안 지역민의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4월 2일 수원면장은 바로 면협의회원을 비롯하여 본수원역 위치 변경을 위해 노력하던 이들과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수원면 공회당에 모여 협의를 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면장과 면협의원들은 협의를 거듭하였지만 뚜렷한 묘책이 없었다. 결국 1930년 4월 21일 공회당에서 면장과 면협의원 및 지역 대표들이 모여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고 위치 변경 운동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14] 이로써 본수원역 위치 변경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현재 위치에 본수원역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본수원역 위치 변경운동이 실패하자 수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수원동진회의 중요한 과제는 수원에 중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문제에 집중하였다. 어떤 종류의 중등학교를 설립할 것인지가 논쟁이었다. 조선인과 일본인 연합단체였던 수원동진회는 일본인들의 '실업



「관광의 고도 수원」에 그려진 수려선과 본수원역(1936년, 수원박물관 제공)

京東鐵道沿線圖

設立	資本金	建帶鐵道營業幹線	出願線	建帶旅客自動車營業幹線	建帶貨物自動車營業幹線
昭和三年八月廿七日	五百萬圓	二六粁〇	七十粁	三百九十九粁八	三百六十五粁

京畿道　忠淸南道　忠淸北道　江原道　京城　仁川　水原　鉢山　鮮店　發安場　烏山　南風　松田　長湖院里　竹山　安仲　澤平　安天　山聖里　龍仁　陽智　午川　白岩　利川　竹堂　茂村　驪州　梧柳　新堅　東里湖　文幕　原州　神林里　橫城　橫城郡　平昌郡　寧越郡　堤川郡　忠州郡　原州郡　驪州郡　陰城　丹陽　水山里　川堤　寧越　平昌　芳林　善峰　洪川　議政府　至元山　漢江　金浦　永登浦　楊平　京里安　古川　豐德川　新德川　本水原　沙江　梅花里　網岩　鎭川　山聖

例　凡

- 線路
- 線路
- 線路
- 線路
- 線路
- 線路
- 線路
- 線路
- 線路
- 線路
- 線路
- 線路

線路　川場所　區域　業營車動自貨物　業營車動自客旅　所業營車留　原州

縮尺五拾万分之一

경동철도연선도(『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영업보고서』, 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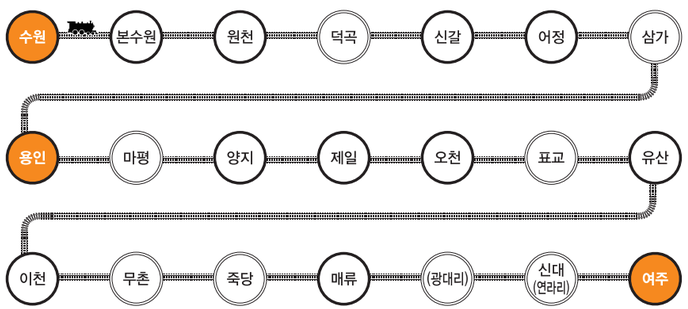
학교 설립안'과 조선인들의 일반 '고등보통학교 설립안'으로 대립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강력한 요청과 희망에 따라 우선 고등보통학교 설립안이 채택되어 설립운동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실업계학교인 농업학교가 채택되어 1936년 공립수원농업학교가 설치되었다.

3. 수려선 운행과 본수원역의 운영

일제시기 수인선과 수려선은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가 운영한 것이었다. 경동철도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내륙지방 철도운수업과 자동차운수업, 선박운수업, 창고업 등의 운수영업을 하던 회사였다. 경동철도는 1920년 3월 1일 수원에서 여주까지 협궤 증기철도선의 부설을 허가받았다. 수려선은 여주, 이천 지역의 질 좋은 쌀을 실어 나르는 목적이 가장 컸다. 그러나 수려선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바로 부설되지 못하고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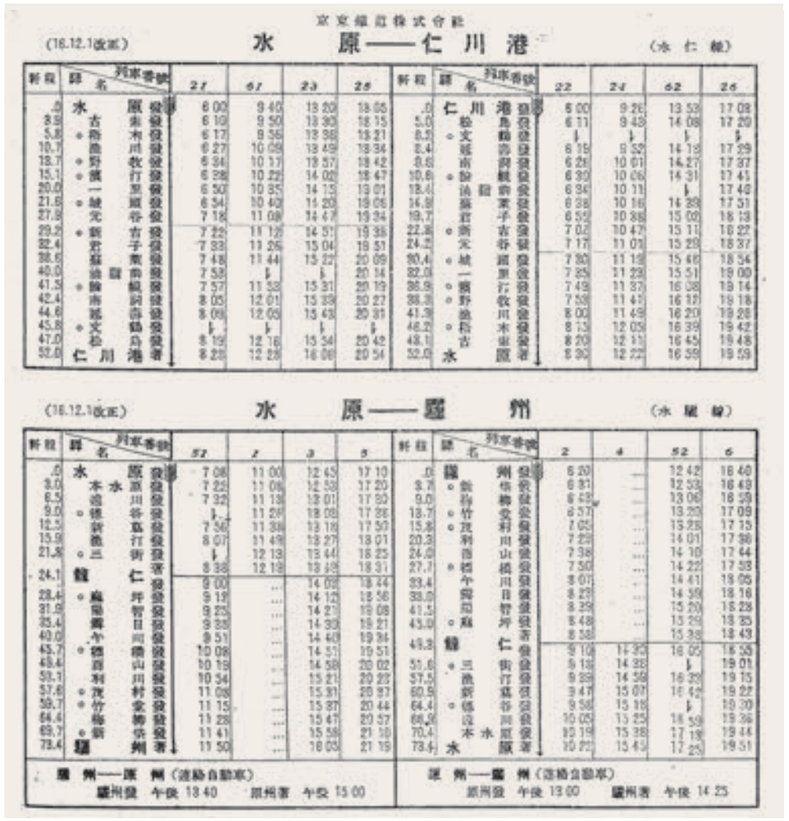
드디어 1930년 2월 2일 기공식을 갖고 8개월 만인 1930년 11월 30일에 겨우 개통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이에 1930년 12월 1일부터 개통된 수원-이천 구간(53.1㎞)이 개통되어 운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1년 12월 1일 이천-여주 구간(20.3㎞)이 개통됨으로써 수려선 전체가 완성되어 연결되었다.

정식 정거장은 수원역과 용인역 및 여주역 등 3개 역이었고, 간이역은 덕곡·삼가·마평·표교·무촌·죽당·신대 등 7개 역이었다.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전경(『수려선 사진첩』, 1942)

본수원역과 역무원(『수려선 사진첩』, 1942)


京東鐵道株式會社

(16.12.1改正) 水原——仁川港 (水仁線)

料程	驛名	列車番號	21	61	23	25	料程	驛名	列車番號	22	24	62	26
.0	水原	發	6 00	9 40	13 20	18 05	.0	仁川港	發	6 00	9 26	13 53	17 08
3.9	古里	發	6 10	9 50	13 30	18 15	5.0	松島	發	6 11	9 43	14 08	17 20
5.8	○梅木	發	6 17	9 56	13 36	18 21	8.2	○文鶴	發	↓	↓	↓	↓
10.7	漁川	發	6 27	10 09	13 49	18 34	8.4	延壽	發	6 19	9 52	14 18	17 29
13.7	○野牧	發	6 34	10 17	13 57	18 42	9.6	南洞	發	6 26	10 01	14 27	17 37
15.1	○漢行	發	6 38	10 22	14 02	18 47	10.6	○論峴	發	6 30	10 06	14 31	17 41
20.0	一里	發	6 50	10 35	14 15	19 01	13.4	論峴	發	6 34	10 11	↓	17 40
21.6	○城原	發	6 54	10 40	14 20	19 06	14.9	蘇葉	發	6 38	10 16	14 39	17 51
27.9	元谷	發	7 18	11 08	14 47	19 34	19.7	君子	發	6 55	10 38	15 02	18 13
29.2	○新吉	發	7 22	11 12	14 51	19 38	22.8	○所吉	發	7 02	10 47	15 11	18 22
32.4	君子	發	7 33	11 26	15 04	19 51	24.2	元谷	發	7 17	11 01	15 29	18 37
38.6	蘇葉	發	7 48	11 44	15 22	20 09	30.4	○城原	發	7 30	11 19	15 46	18 54
40.0	論峴	發	7 58	↓	↓	20 14	32.0	一里	發	7 35	11 23	15 51	19 00
41.5	○論峴	發	7 57	11 53	15 31	20 19	36.9	○漢行	發	7 49	11 37	16 08	19 14
42.4	南洞	發	8 05	12 01	15 39	20 27	38.3	○野牧	發	7 53	11 41	16 12	19 18
44.6	延壽	發	8 09	12 05	15 43	20 31	41.3	漁川	發	8 00	11 49	16 20	19 26
45.8	○文鶴	發	↓	↓	↓	↓	46.2	○梅木	發	8 13	12 05	16 39	19 42
47.0	松島	發	8 19	12 16	15 54	20 42	48.1	古里	發	8 20	12 11	16 45	19 48
52.0	仁川港	著	8 28	12 28	16 06	20 54	52.0	水原	著	8 30	12 22	16 59	19 59

(16.12.1改正) 水原——驪州 (水驪線)

料程	驛名	列車番號	51	1	3	5	料程	驛名	列車番號	2	4	52	6
.0	水原	發	7 08	11 00	12 45	17 10	.0	驪州	發	6 20	—	12 42	16 40
3.0	本水原	發	7 22	11 06	12 53	17 20	3.7	○新塔	發	6 31	—	12 53	16 49
6.5	遠川	發	7 32	11 13	13 01	17 30	9.0	梅峴	發	6 43	—	13 06	16 59
9.0	○德谷	發	↓	11 28	13 08	17 36	13.7	○竹堂	發	6 57	—	13 20	17 09
12.5	新嘉	發	7 56	11 38	13 18	17 50	15.8	○茂村	發	7 05	—	13 28	17 15
15.9	漁行	發	8 07	11 49	13 27	18 01	20.3	利川	發	7 23	—	14 01	17 36
21.8	○三街	發	↓	12 13	13 44	18 25	24.0	西山	發	7 38	—	14 10	17 44
24.1	龍仁	著	8 38	12 19	13 49	18 31	27.7	○德橋	發	7 50	—	14 22	17 53
		發	9 00	...	14 02	18 44	33.4	午川	發	8 07	—	14 41	18 05
28.4	○麻坪	發	9 12	...	14 12	18 56	38.0	舞日	發	8 23	—	14 59	18 16
31.9	陽智	發	9 25	...	14 21	19 08	41.5	陽智	發	8 39	—	15 20	18 28
35.4	舞日	發	9 38	...	14 30	19 21	45.0	○麻坪	發	8 48	—	15 29	18 35
40.0	午川	發	9 51	...	14 40	19 34	49.3	龍仁	著	8 58	—	15 38	18 43
45.7	○德橋	發	10 08	...	14 51	19 51			發	9 10	14 30	16 05	18 55
48.4	西山	發	10 19	...	14 58	20 02	51.6	○三街	發	9 18	14 38	↓	19 01
53.1	利川	發	10 34	...	15 21	20 23	57.5	漁行	發	9 39	14 59	16 39	19 15
57.6	○茂村	發	11 08	...	15 31	20 37	60.9	新嘉	發	9 47	15 07	16 42	19 22
59.7	○竹堂	發	11 15	...	15 37	20 44	64.4	○德谷	發	9 58	15 18	↓	19 30
64.4	梅峴	發	11 28	...	15 47	20 57	66.9	遠川	發	10 05	15 25	16 59	19 36
69.7	○新塔	發	11 41	...	15 58	21 10	70.4	本水原	發	10 19	15 38	17 18	19 44
73.4	驪州	著	11 50	...	16 05	21 19	73.4	水原	著	10 22	15 45	17 25	19 51

驪州——原州 (連絡自動車) 驪州發 午後 13 40 原州著 午後 15 00

原州——驪州 (連絡自動車) 原州發 午後 13 00 驪州著 午後 14 25

1941년 12월 1일 수인선과 수려선 철도시간표(수원박물관 제공)

수려선은 수원역과 여주역 사이 용인역이 공식 정거장이었고 본수원역은 이들 3개 역보다 규모가 작은 일반역으로 역무원이 근무하였다.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보다는 큰 기차역이었다. 경부선의 수원역에서 갈라진 수려선은 매교를 지나 기존의 남문 상권과 가장 근접한 인계동을 지나가면서 역명을 본래의 수원에 가깝다는 의미로 '본수원역(本水原驛)'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부선의 수원역은 이미 전국적 지명도를 얻은 번듯한 역사를 갖게 되었음에 비해 본수원역은 본래의 수원을 상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41년 경동철도주식회사 수원기관차 직공 임명장(수원박물관 제공)

개통 당시 수려선 73㎞ 구간에서 열차는 하루에 수원발 5편, 여주발 4편이 운행되다가 1938년부터 각각 4편씩 운행하였는데 수원에서 여주까지 4시간 40분이 소요되었다. 수원에서 출발하는 수려선은 첫차가 7시 8분을 시작으로 11시, 12시 45분, 막차가 17시 10분에 출발하였다. 이후 1941년 12월에 개정된 것에 따르면 4편 가운데 그나마 11시에 출발하는 기차는 용인까지만 운행하는 것이었다. 수려선은 1941년 12월부터 오전 2번, 오후 4번 운행되었다. 오전 6시 20분, 11시 50분, 오후 12시 42분, 16시 5분, 16시 40분, 21시 9분 등 하루에 6회 운행되었다.[15] 그러나 경동철도가 조선철도회사로 매각되어 운영주체가 변동되었다. 조선철도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1943년에는 운행횟수를 2회 더 늘렸다. 즉 오전 6시 40분, 8시 30분, 11시 20분, 오후 12시 18분, 15시 51분, 16시 40분, 18시 41분, 22시 49분 등 오전 3회, 오후 5회, 하루 총 8회 운행되었다.[16]

수려선 부설 계획 당시는 화물 수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 여객 수송의 비중이 높았다. 1932년 경우 총수입의 60%가 여객 수송이었다. 수려선은 수원 지역 학생들

표 1 1931년 본수원역 승하차 인원 및 화물

구분	경동선 본수원역 (1931년 1~10월)	경동선 원천역 (1931년 1~10월)	경부선 병점역 (1930년)
승차인원	6,780명	2,640명	42,893명
하차인원	7,252명	2,380명	44,238명
여객운임	3,624원	1,545원	16,089원
화물운임	1,326원	60원 80전	6,014원
발송화물 톤수			2,742톤
도착화물 톤수			1,611톤

수려선을 이용하는 승객(『코리아라이프』 68호, 1972)

의 수학여행을 위해 활용되었다. 여주 지역을 다녀오는 코스였는데, 수원역에서 7시 8분에 출발하는 첫 기차는 11시 50분에 여주에 도착하였다. 기차를 타고 여주에 내려서는 곧 점심때가 되었다. 그리고 여주 영릉과 신륵사 등지를 답사는 수학여행을 기억하는 수원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상 수원 사람보다 수려선의 이용은 여주와 이천, 그리고 용인 사람들이 수원장을 비롯하여 수원을 왕래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즉 수려선이 개통되면서 용인, 이천 지역의 학생들이 수원으로 통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용인 지역의 학생들은 본수원역(화성역)에서 내려 화성학원(수원상업학교)과 삼일학교로 통학이 보다 쉽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수려선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것은 수원과 여주가 아니라 용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본수원역의 여객이 원천역보다 3배가량 많지만 경부선의 병점역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한 상황이었다. 이는 수원이 서울에서 삼남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남북축선으로 도로망이 형성되고 발전되었던 경향성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남북축선을 활용한 경부선의 활용과 이용은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다. 남북축선의 강력한 영향력에 비해 수려선으로 대표되는 동서축의 활용과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용인, 이천, 여주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을 이어 주는 수려선은 이 지역의 쌀과 농산물의 운송이 활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객 운송이 오히려 많았다. 화물운송에 대한 통계가 없는 아쉬운 내용이지만 본수원역의 화물운임이 1,326원이라는 점에서 병점역을 통해 유추해 보면 발송화물은 604톤이 되는 셈이다.[17]

한편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이 경동철도주식회사가 1935년 9월 23일 인천-수원간 협궤선 부설허가권을 얻어 공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인 1937년 8월 6일 개통하였다. 이로써 수인선과 수려선이 수원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수려선이 더욱 활성화될 있는 조건이었다. 실상 수인선과 수려선은 일제 수탈의 상징이었다. 중일전쟁으로 한창 경기 호황을 누리던 인천의 일본 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상권을 경기 내륙 깊숙이 확대시키기 위해 철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일제는 열차를 이용해 여주·이천 일대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쌀을 신흥동 정미소 창고에 꽉 채웠다. 정미된 쌀은 일본으로 고스란히 반출되었다. 또한 소래와 남동쪽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해산물도 수인선에 실어 인천항에 닿았다. 반면에 인천 공업지역에서 생산되고 항구에 집산된 각종 생필품들이 열차를 타고 경기 내륙지방까지 퍼져 나가게 되었다. 당시 인천-수원, 수원-여주 간의 하루 열차 운행 횟수는 왕복 5차례였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던 때에 완성된 수인선이었던 탓에 수려선과 마찬가지로 점점 영업수익이 떨어지게 되었다. 경동철도주식회사는 1942년에 수려선을 수인선과 함께 조선철도주식회사에 양도되어 두 선을 합쳐 경동선(京東線)이라 하였다.

조선에서 사유철도 회사 설립의 붐은 1919~1920년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식민지 기업열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철회사는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발생한 공황으로 주가 폭락과 금융 경색에 직면하였고, 사철회사 해산운동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1920년 6월 조선사설철도령, 11월 담보부사채신탁법, 1921년 4월 조선사철보조법을 공포해서 사철 해산 운동의 저지와 함께 대대적인 사철 합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23년 4월 경영 위기에 처한 조선중앙철도(주)를 비롯한 서선식산철도(주), 남조선철도(주), 조선산업철도(주), 조선산림철도(주), 양강척림철도(주)의 6개 사철 합동으로 1923년 9월 조선철도(주)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려선과 수인선을 운영하게 되는 경동철도주식회사가 1920년대 말인 1928년 8월 27일 비로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려선 협궤열차(『코리아라이프』 68호, 1972)

그러나 1927년 이래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는 사철 매수 정책에 따라 1928년 전남선, 1929년 경동선, 1931년 경남선, 1940년 경북선과 함북선, 1944년 황해선, 개업선 연장 합계 712㎞를 매각하고, 1942년 경동철도(주)를 매수하였다. 조선철도(주)는 1928년부터는 자동차 운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다각화를 추진하였고, 1923~1944년에 걸쳐 합계 3,179만 7,000원에 달하는 사철 보조금을 받아 영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식민지기 조선철도(주)는 조선총독부의 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조선 최대의 사철 회사였고, 보조금 경영을 특징으로 하였다.

4. 화성역을 아시나요?

'본수원역'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해방 뒤인 1948년 1월 운수부(運輸部)에서 역명을 일부 개정할 때 수려선의 본수원역은 '화성역(華城驛)'으로 이름을 바꾸었다.[18] 역 이름이 일본식이거나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또는 번거로운 이름을 변경하였다. 예를 들면 용산선(龍山線)의 원정역(元町驛)을 효창역(孝昌驛)으로 바꾼 것은 일본식 지명을 바꾼 것이고, 경경선(京慶線)을 중앙본선(청량리-경주)으로 바꾼 것은 사람들의 인식의 혼란을 바로 잡은 셈이다. 또한 충북 단양역을 단양역으로 바꾼 것은 번거로움을 피한 것이다. 수려선의 '본수원역'을 '화성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본수원역의 명칭이 수원역과 헷갈린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원래 '본수원역'은 성 안과 가까운 본래 수원이라는 자부심이 반영되어 있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미 수원역은 경부본선이 지나면서 수려선과 수인선이 만나는 수원을 대표하는 역이었다. 수원역에 대한 지명도가 큰 현실을 반영하여 본수원역이라는 명칭을 변경하여 혼란을 피하고자 한 셈이다.

해방 후 수려선은 이천군 능서면의 매류역과 신대역 사이에 광대리역이 더 생겼고, 박정희 정부 때 구둔역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세워진 적이 있었으나, 1972년 3월 31일로 폐선되었다. 1930년 개통된 지 42년 만의 일이다. 1972년 3월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과 함께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이다. 영동고속도로는 1971년 3월에 기공하여 같은 해 12월 21일에 신갈-새말 간 104㎞가 준공되었다. 이후 새말-강릉 간 97㎞ 구간은 1974년 3월 기공하여 1975년 10월 14일에 준공되었다.

수려선 구간과 거의 일치하는 영동고속도로 구간이 완공됨에 따라 빠르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느리고 불편한 협궤열차는 종말을 맞이하즉 영동고속도

1950년대 화성역과 역무원(장교훈 제공)

1950년대 화성역 내부(장교훈 제공)

1969년 수려선 주변 개발시찰 중인 남봉진 경기도지사(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69년 수려선 주변 개발시찰을 위해 여주역에 도착한 남봉진 경기도지사(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수려선 철거를 반대하는 이천 부발 죽당리 주민들(『코리아라이프』 68호, 1972)

로가 개통되고 철도교통 중심에서 도로교통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수원과 여주 사이에 4시간 이상이 걸리는 느릿한 협궤열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수려선의 존재와 의미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여주와 수원 사이의 철도교통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려선은 폐선되었고 '화성역' 역시 폐쇄되었다. 이로써 화성역 인근 지역의 상업적 쇠퇴는 자명한 것이 되었다.

본수원역으로 시작하여 화성역으로 불리며 1972년까지 수려선이 폐선될 때까지 주요한 역으로 기능하였다. 해방 이후 약 4반세기 동안 수원의 동쪽 용인에서 오는 사람들은 화성역을 통해 수원으로 입성하였다. 현재는 버스정류장 이름에만 '화성역'이 남아 있을 뿐이다.

1) 「京東鐵道許可」『조선일보』 1920년 3월 9일; 「京東鐵道許可」『매일신보』 1920년 3월 9일.
2) 「京東鐵道速成盟同會」『매일신보』 1920년 4월 16일.
3) 「京東鐵道 促進運動」『조선일보』 1926년 2월 22일.
4) 「京東鐵道 工事延期出願」『조선일보』 1926년 2월 27일.
5) 「京東鐵道期成會, 成立과 方針」『매일신보』 1926년 10월 21일.
6) 「水原驪州間に京東鐵道布設計?」『釜山日報』 1928년 5월 19일.
7) 「水原驪州間 京東鐵道建設, 本年中一部起工實現?」『중외일보』 1928년 7월 7일.
8) 「경동철도문제로 시민대회개최?」『동아일보』 1929년 4월 29일.
9) 『동아일보』 1930년 2월 17일.
10) 『동아일보』 1930년 4월 13일.
11) 『동아일보』 1930년 11월 30일.
12) 「高普期成會 組織準備 水原同進會에서」『중외일보』 1930년 5월 25일.
13) 「京東鐵道 本水原驛, 現在의 豫定地는 變更せぬ」『朝鮮新聞』 1930년 4월 6일.
14) 「本水原驛位置 變更運動打切り, 當局の意嚮を酌み」『朝鮮新聞』 1930년 4월 23일.
15) 「수려선 열차시각 개정」『매일신보』 1941년 12월 11일.
16) 『매일신보』 1943년 1월 23일.
17) 수원박물관 『태장향토사』 2014, 15쪽; 台章公立普通學校 『台章鄕土史』 1932.
18) 「驛名改正」『獨立新報』 1948년 1월 23일.

수원시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 신·구시가지 간 격차 심화,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다양화, 무분별한 도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화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인 도시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였다. 이 법에 근거해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김현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장은경 경기지역사연구소 연구원

4장 | 인계동 구시가지의 변천

반듯하게 구획 정리된 공간 안에 고층 빌딩과 단지형 아파트, 공공기관, 상가 등이 자리 잡고 이들을 연결하는 직선의 도로가 놓인 시가지가 있다. 바로 옆에는 주택가 골목마다 10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온 흔적들이 녹아 붙은 동네가 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조화와 어색함이 공존하는 곳이 인계동의 모습이었다.

도심에 진입하지 못한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 살던 인계동은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시집도 안 보내고 장가도 안 든다고 할 정도로 살기 안 좋은 동네였다. 못된 놈들 사는 동네라고도 했다. 실제로 인계동에서 매탄동으로 가려면 지금은 복개된 장다리천을 건너야 했는데 그 길목에서 불량배들이 돈을 빼앗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수원우시장 장날은 더욱 그랬다. 없는 사람들이 만만하게 들어와 살다 보니 1964년에는 지동초등학교에서 분리되어 인계초등학교가 개교할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수원시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한 동수원 개발은 서민 동네 인계동의 정체성을 바꿔 버렸다. 임야와 농경지가 대부분이던 인계동 벌판에 도시 중산층의 상징 아파트가 대규모로 건설되고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고 상권이 형성되었다. 인계동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확연하게 구분되었고 더 이상 서민들만의 동네가 아니었다.

30여 년간 이어지던 공존의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구시가지 주거시설의 노후화, 신·구시가지 간 격차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어 이제 '없는 사람 살기 좋던' 인계동이 고층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골목이 사라지고 그 골목의 사람들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1. 인계동의 마을

1943년 수원읍지도에 나타난 인계정
장다리천 서쪽 수려선 화성역 일대의 인계본동은 1구이고
장다리천 동쪽 인도래 마을은 2구이다.

인계동은 길에서 시작한다. 인천에서 수원을 거쳐 광주로 연결되는 도로인 42번 국도(중부대로)에서 시작하여 도로 남쪽으로 마을이 확장되었다. 42번 국도 수원-이천 구간은 1908년에 개설된 신작로이다. 인계동은 이 신작로 남쪽에 자리 잡은 동네로, 수원 최고의 영동시장 상권이 형성되어 일찍부터 번화한 신작로 북쪽에 비해 한적하고 조용하였다. 도로변을 제외하곤 집들이 드문드문 몇 채가 있을 정도였던 인계동 풍경은 1930년대 수려선 화성역 설치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이한다. 화성역 주변으로 집들이 들어서서 마을의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1940년대 초반에는 화성역 남쪽으로 집들이 많이 들어섰고 인계동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마을은 점차 남쪽으로 확장되었다.

인계동 안의 풍경은 장다리천을 경계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일제시기에는 장다리천 서쪽은 인계정 1구, 동쪽은 인계정 2구로 구분하였다. 장다리천 서쪽은 신작로에서

1972년 인계동 마을 이름(수원박물관 제공)

인계동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어서 길을 따라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장다리천 동쪽은 대부분 논과 구릉지가 이어지는 허허벌판에 간간이 집들이 보이는 정도였다.

'본동'은 인계동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마을이다. 장다리천 서쪽에 형성된 마을로 1943년 수원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지도를 보면, 화성역 남쪽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인계본동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화성역에서 세류동 방면과 매탄동 방면으로 가는 두 길 사이의 평지와 낮은 구릉지에 마을이 위치한다. 1950년대에는 피난민, 1960년대부터는 이촌향도민처럼 경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인계동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언덕 아래로 제한되었던 인계본동의 범위가 언덕 너머로 확대되었다. 안디옥교회가 서 있는 언덕을 내려가면 대부분 논이었는데 매탄동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집들이 언덕을 넘어 망두산 앞까지 내려왔다. 집들이 끝나는 곳에 인계본동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용씨네 호박밭'이 있었다. 마을의 규모가 크고 도심 접근성이 좋아서였는지 인계본동은 인계동의 부촌이었다고 한다.

1960년대 42번 국도와 인계동 구시가지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42번 국도와 인계동 구시가지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1977년 인계동의 마을들(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본동, 샛골, 안터, 인도래, 새터, 인화촌이라는 마을 이름이 나타나 있다.

1972년 화성역 앞 인계본동(수원박물관 제공)

고개 근처에 팽나무가 있어서 이름 붙은 '팽나무고개'는 고개명이기도 하고 마을 이름이기도 하다. 매교를 건너 세류동과 오산으로 향하는 정조로의 왼쪽에 위치한다. 정조로의 왼쪽으로 난 좁은 샛길인 지금의 인계로4번길을 따라가면 팽나무고개를 만날 수 있었다. 팽나무는 근래에 마을 안쪽에서 인계로 옆으로 이전하였다. 팽나무고개 일대는 1950년대 이전만 해도 집이 거의 없는 곳이었으나 정조로 주변 매교동의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팽나무고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원중고등학교 뒤쪽으로 난 효원로 165번길은 성 안에서 태장면을 오가던 옛길로 매교동과 인계동의 경계가 되는데 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매교동과 인계동에 대한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인도래'는 지금의 KBS수원센터 남측에 있던 마을로, 일제시기 인계정 2구에 속하였으며, 연안 김씨 집성촌이었다. 42번 도로에서 인계본동을 지나서 장다리천을 건너 매탄동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는데 인도래 마을에는 개천이 없었다. 마을이름은 인도래인데 정작 마을에서는 인도래로 추측되는 장다리천도 보이지 않았다. 매향동의 삼일학

1972년 인계동 샛골 농로(마을안길) 확장공사(수원박물관 제공)

교로 통학했던 주민의 기억에 따르면 인도래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한다. 동수원 개발로 1980년대 중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인도래는 사라졌다.

인계동과 권선동의 경계에 있던 인화촌은 매교에서 태장고개를 넘어서 가다가 만나는 지금의 올림픽공원 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나뉘어 있었는데 윗마을은 인계동에, 아랫마을은 권선동에 속하였다. 170호 정도 규모의 인화촌의 경우 집성촌은 아니었지만 경주 김씨가 많은 편이었다고 한다. 인화촌 주민들은 마을 정미소에 인계동의 '인'자와 권선동의 '선'자를 따서 '인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1962년에 인화촌 옆으로 시립화장장이 건립되었다. 1980년대 초 산업도로가 놓이고 땅이 반듯하게 정리되는 개발에 밀려 인화촌 사람들은 마을을 넘겨 주고 떠났다. 마을 뒷산에 조성된 올림픽공원만이 과거 인화촌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수원시는 포화상태의 기존 시가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1970년대 말부터 동수원 일대를 신시가지로 개발하였다. 개발지구 안에 있던 인도래와 인화촌 등의 자연마을은 흔적

1972년 인계동사무소 앞에서 실시된 예방접종(수원박물관 제공)
1970년대 인계동은 인구 증가와 주거지 확대가 급격하게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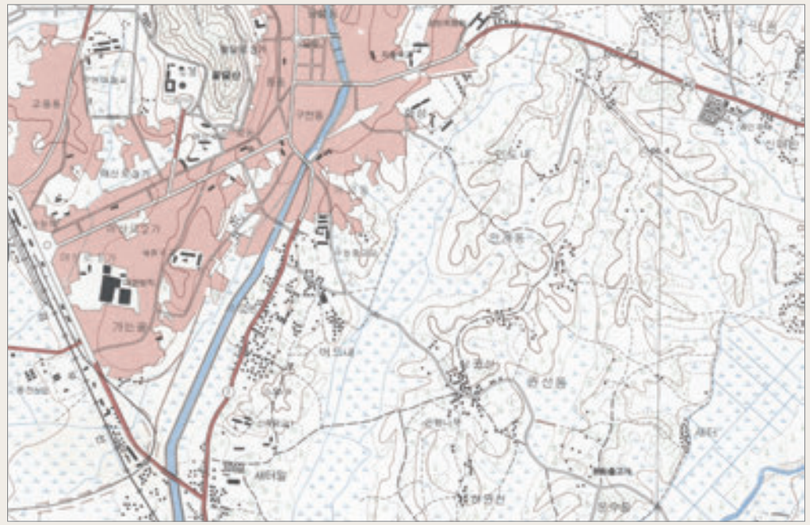
도 없이 사라지고 마을이 있던 자리에 1987년에 수원시청이 이전해 왔으며, 시청 앞쪽으로는 올림픽공원과 매탄공원 등이 조성되었다. KBS수원센터가 1991년 12월에 완공되었다.

2. 수려선과 도시화

1914~1936년에 인계동은 수원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으로 태장면에 속한 지역이었다. 평지는 논밭이었고 나지막한 구릉지는 일부가 과수원으로 이용될 뿐 대부분 임야였다. 간혹 집들이 보일 정도로 마을은 형성되지 않은 곳이었다. 그런데 1930년 수려선이 개통된 후 인계동의 경관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화성역 주변으로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936년에는 행정구역도 태장면 인계리에서 수원읍 인계정(仁溪町)으로 바뀌었고, 1930년대 후반부터 인계동과 지동 일대가

수려선 철로(1971년)



철거된 수려선 철로(1975년)

개발되면서 개량한옥 집단주거지가 조성되었다. 수원 시가지가 화성 밖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부선 수원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상권이 형성되고 발달하면서 수원의 중심이 성 안에서 수원역으로 옮겨진 것처럼 수려선 화성역 일대도 상권과 주거지가 확장되었다. 인계동의 도시화는 화성역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수려선 철길의 북쪽은 남문 상권과 접한 곳이기에 비교적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철길의 남쪽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일반 도로와 달리 철길은 넘어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가지의 수평적 팽창에 장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도시에서 철길을 기준으로 다른 성격의 시가지가 조성되기도 하는 이유이다.

인계초등학교가 지동초등학교에서 분리될 때도 수려선 철길을 기준으로 학군을 나누었다. 인계동 아이들은 1954년 지동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세류초등학교로 다녔다. 인계동에서는 학교까지 가는 큰 길이 없었고 철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수려선 철길은 학생들의 통학길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후에 피난민들이 세류동과 지동 일대에 정착하여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동초등학교가 개교하여 인계동 아이들은 지동초등학교로 통학하였다. 인계동의 도시화로 인구가 증가하자 철길을 기준으로 북쪽은 지동초등학교, 남쪽은 인계초등학교 학군이 되었다.

이용객의 수가 줄어들어 심각한 적자노선이 된 수려선은 1973년 3월까지 운행한 후 폐선되었다. 화성역 역사는 헐렸고, 직원들이 사용하던 관사와 매점 건물은 일반인에게 불하되었다. 철길은 방치되었다가 나중에 도로로 포장되었다. 화성역이 있던 자리에는 청과물시장이 들어왔다.

1975년 2월에 개장한 수원청과물도매시장은 수려선의 뒤를 이어 인계동을 복작거리게 했다. 경매가 시작되는 새벽부터 트럭들이 드나들었고 하루 종일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의 2001아울렛은 청과물시장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들이 대기하는 주차장이 있던 곳이다. 마차·삼륜용달차·트럭 등이 실고 갈 짐을 기다렸고, 아침저녁에는 통근버스도 다녀갔다. 1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는 공군 하사관들은 주차장 인근 식당에서 도시락을 받아서 버스에 오르고 퇴근하면서 빈 도시락을 식당에 갖다 주었다.

공군을 상대로 한 도시락 장사는 식당 매출에 효자 노릇을 했다. 수려선 철길 건너 청과물시장 맞은편에는 술집을 겸한 식당들이 들어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시장이 폐장해도 식당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1993년 2월 청과물시장이 권선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20년 남짓한 기간은 인계동이 가장 분주하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1970년대까지도 인계동은 도시 근교의 농촌이었다. 인계본동의 향원미용실 단골이었

1972년 인계동 북쪽에 놓여 있던 수려선(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수려선이 다니던 철교(수원박물관 제공)

1975년 화성역 부지에 설립된 수원청과물도매시장(수원박물관 제공)
인계동 수원청과물시장에서 1977년 실시된 지역민방위훈련 장면이다.

1974년 수원공고 앞 마을 보리밟기(수원박물관 제공)

1980년 수원공고 앞 주택가 풍경(수원박물관 제공)

던 '교육청사모님'은 별장용으로 인계동에 있는 주택을 구입했다고 할 정도였다. 42번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는 버스를 타고 용인·여주를 가면 비포장도로를 털털거리며 달리는 바람에 배가 고팠다고 한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와서 허허벌판이던 장다리천 건너편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3. 인계로의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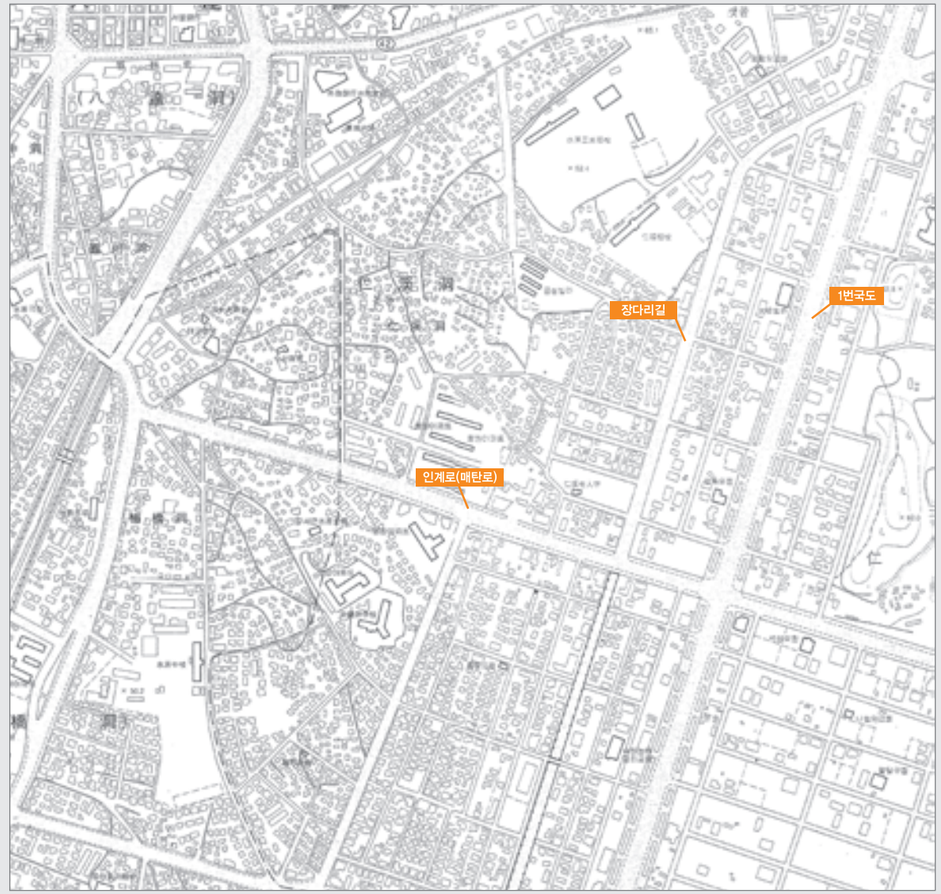
인계동의 구시가지는 42번 국도에서 수려선 철길을 건너 드나드는 길이 주요 출입로였다. 이곳으로 들어오면 매탄동 산드래미로 가는 지금의 세지로243번길과 세지로244번길이 있었다. 인계동 안에서는 가장 큰 길이었지만 우마차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매교동성당이 있는 높은 언덕을 올라오는 길도 있긴 했지만

①

②

③

① 1986년 인계동 구시가지 일대의 도로망(국토지리정보원 제공)
② 1977년 중앙로 포장공사 준공식(수원박물관 제공)
③ 1980년 인계동사무소 진입로 포장공사 기공식(수원박물관 제공)



①

②

① 1997년 인계로의 완공(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현 인계로29번길은 인계동과 매교동의 행정 경계가 되었다.
② 1990년 매탄로(현 인계로) 개통 사진

이곳은 1980년대 초반가지도 나무를 붙잡고서 오르내릴 정도로 가파른 비탈길이었다고 한다. 인화촌 사람들은 인계로4번길로 들어와서 수원고등학교 뒤편을 지나는 효원로165번길을 이용하였다. 인계로는 이 두 옛길 사이에 새로 생긴 길이다.

1981년에 1번 국도 수원 시내 통과 노선이 외곽으로 변경되어 인계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본래 화성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지나고 중동사거리와 교동사거리를 거쳐 수원천과 나란히 가던 1번 국도는 교통량의 증가와 수원 도심의 교통 혼잡이 맞물리면서 노선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국 동쪽으로 우회시켜 현재의 노선으로 변경되었다. 1번 국도의 노선 변경은 인계동 경관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논과 구릉지를 가로질러 직선으로 놓인 1번 국도를 중심으로 간선도로들이 생겼다. 장다리천도 1번 국도-인계로 구간은 복개되어 도로가 놓였다.

그러나 인계동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용하던 마을길은 여전히 비포장 소로였다. 세지로243번길은 1980년대 중반이 돼서야 포장이 되었다. 새마을금고가 있는 곳에서 인계동사무소까지 곧게 뻗은 인계로29번길은 1985년에 새로 만든 길이다. 이 길은 인계로 마지막 구간이 개통되면서 인계로와 연결되었다.

1990년 12월 29일 인계로의 매교-향원아파트 구간 개통식이 열렸다. 길이 610m, 폭 25m의 왕복 4차선 도로의 개통으로 팽나무고개삼거리부터 매탄동 삼성교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3㎞, 왕복 4~6차로의 인계로 전 구간이 이어졌다. 인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1985년에 이미 개설되어 있었다. 향원아파트 아래에서 중단되었다가 1990년 연말에 완공을 본 것이다. 개통 당시 이름은 매탄로였다. 인계로는 인계동의 중앙을 횡단하는 보조간선도로로 인계동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다. 인계동과 지동과 경계가 되는 42번 국도, 권선동과 경계가 되는 효원로와 달리 인계로는 인계동의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른다.

인계로의 마지막 공사구간은 인계동 구시가지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었다. 인계동 출입로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도로 공사 전까지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망두산을 깎고 들어선 향원아파트가 인계동의 가장 안쪽에 있었는데 인계로는 그 옆을 지난다. 인계로가 놓이기 10년쯤 전인 1981년에 도시계획에 따라 인계파출소가 인계로 예정지 바로 옆에 개소했는데 인계동에서 가장 한적한 곳에 파출소가 자리 잡은 셈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인계파출소를 점거하러 들어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간 일화가 있을 정도이다.

인계로가 개통되자 도로변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토지보상금으로 상가를 지었다.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외지인에게 이전보다 많이 오른 값에 땅을 팔았다. 인계동 구시가지에서 가장 조용하던 곳이 많은 유동인구로 번잡스러워졌다. 인계동 구시가지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더 이상 없었다.

4. 도시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주거지

1970년대 수원시 산업계는 섬유업종과 전자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통적으로 기업체수가 많았던 섬유업종에 1960년대 말부터 추진된 삼성의 전자공업 투자계획에 따른 전자업종 사업장 수원 이전이 가세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노동집약적인 전자업종과 섬유업종은 생산직 사원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을 위해 수원으로 몰려왔다. 특히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회

1976년 삼성코닝 통근버스(수원박물관 제공)

1970년 가발공장(수원박물관 제공)

사와 가깝고 집값이 싼 매탄동, 인계동, 지동, 세류동, 매교동 등 서민 주거지역에서 방을 구하였다. 셋방의 수요가 급증하자 주택 소유자들은 세를 놓기 위해 방을 만들었다.

'전기회사다리'라고 불리던 수원교와 매교에 삼성전자 통근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인계동은 이 두 곳의 정류장과 가까웠고 남문 상권과도 멀지 않은 위치여서 월세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이때를 놓칠세라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용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방을 들였다. 창고를 방으로 개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건물 벽에 방을 덧붙여서 만들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주택 한 채에 세입자가 10세대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다. 골목마다 주민들이 늘어났고 또 자주 바뀌었다.

한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서서히 같은 회사, 같은 고향 사람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는 방을 구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이 사는 집에 빈 방이 생기면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공장 다니는 사람이 들어오면 알음알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같

1981년 인계동 노동자 거주 주택가(수원박물관 제공)
노동자 거주 주택가라 사원모집 전단이 벽에 붙어 있다.

은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 다니는 친구였고, 청과물시장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집은 화물차 기사 세입자가 많아졌다.

인계동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를 비롯한 소규모의 하청업체들이 많았다. 지금의 2001아울렛 옆에 가발수출업체로 유명했던 씨벨산업 하청공장도 있었다. 이래저래 젊은이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 남녀 간의 연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도 피할 수 없었다.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화성역 뒤편에 있던 개천가에 영아를 유기하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다. 지금의 중부대로60번길과 수원천로220번길은 이 하천을 복개한 도로이다.

주먹구구식으로 방을 만들어서 세를 놓은 집에서는 겨울철이면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인기척이 없는 방은 주인이나 옆방 사는 사람이 문을 열어 확인을 했다. 일찍 발견되면 주인아주머니가 퍼다 준 동치미 한 사발 마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만 간혹 늦게 발견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세입자들에게는 금품을 훔쳐 가는 도둑보다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연탄가스가 더 무서웠을 것이다.

5. 팔달8구역과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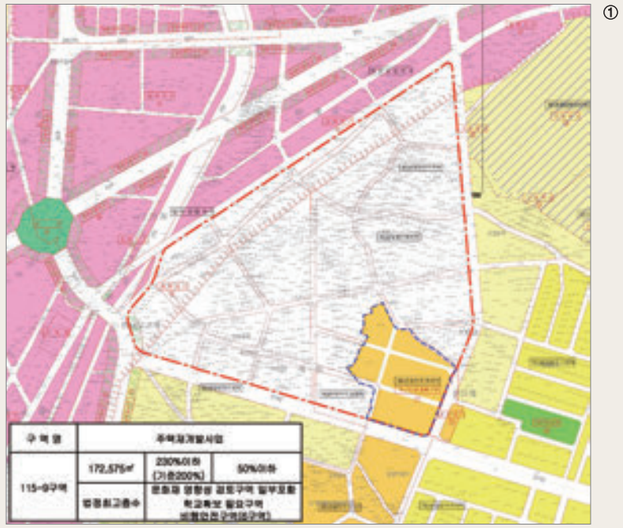
수원시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 신·구시가지 간 격차 심화,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다양화, 무분별한 도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화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인 도시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였다. 이 법에 근거해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원천과 세지로의 사이에 위치한 인계동 구시가지는 195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개발된 곳이다. 따라서 도로망은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건축연대가 오래된 저층의 건물이 대부분이다. 필요와 수요에 따라 조금씩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좁고 굴곡진 골목길을 따라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주거환경이나 도시경관 등이 동수원 개발로 형성된 신시가지와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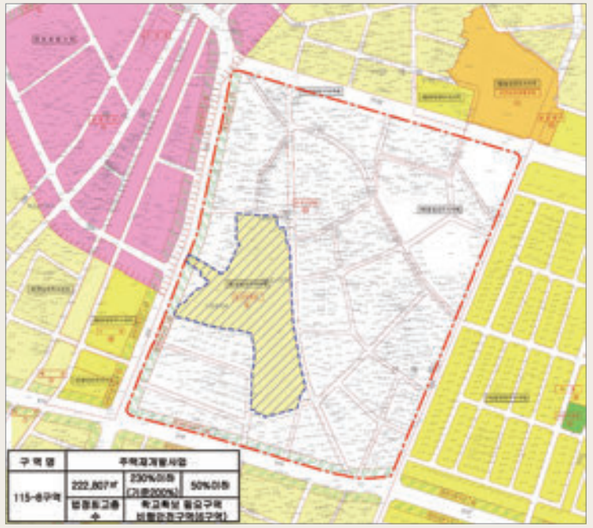
1980년대 동수원 개발이 시작되자 인계동 구시가지에서도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장다리천 건너 논밭과 과수원이 펼쳐져 있던 곳이 신시가지로 개발된다고 하니 찔끔찔끔 넓혀지는 인계동의 구시가지도 반듯하게 구획이 정리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재개발 논의는 한참 후인 2006년에야 실현되었다.

인계본동을 중심으로 하는 인계동 847-3번지 일원은 2006년 9월 수원시 고시 제2006-177호(2006.9.14.) 팔달115-9구역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었다. 팔달115-9구역은 2006년 11월 인계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팔달10구역으로 약칭하는 팔달115-9구역은 전체 거주세대 가운데 85% 정도가 세입자였다. 대지면적이 17만 1,537㎡로 수원시 재개발구역 중 두 번째로 큰 사업장이다. 2007년 2월 10일 안디옥교회에서 첫 주민총회를 실시하였다. 2008년 10월 정비구역지정(안) 주민공람을 거쳐 2009년 7월 10일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다.

2009년 11월 6일 인계초등학교 대강당에서 팔달115-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1월에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구성하고 조합원 1,328명으로 조합 설립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집행부가 여러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에 휘말리면서 조합원과의 불신으로 갈등을 빚었다. 26층 높이의 아파트 29개동 2,450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만 4,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



①



②

①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8년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다 보니 시공사 선정이 치열하였다. 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단체들의 보상문제도 해결되지 못하였다. 거듭되는 난항 끝에 2010년 5월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9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2012년과 2014년 2회에 걸쳐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등 오랜 진통 끝에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감정평가 고지와 분양신청 과정에서 분양신청 조합원과 현금 청산자로 구분된 조합원들은 2017년 11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자 재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조합원의 10%가 넘는 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였다. 절차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두 달간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 결과 70% 이상의 조합원이 재개발에 찬성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김승일 제공)

하므로 재개발 진행이 확정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2018년 2월 말까지 이주하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골목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살던 동네 분위기가 점점 변해 갔다. 조합이 결성되고부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뉘게 되었고 분양권 신청자와 현금 청산자로 나뉘게 되었다. 서로 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현금 청산자는 버텨서라도 보상을 더 받으려 했고 분양권 신청자는 버티는 현금 청산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였다. 분양권을 신청해도 2억~3억 원의 분담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었다.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파는 사람도 있었지만 큰 금액을 부를 수도 없을뿐더러 세금으로 2,000만 원을 내야 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둘 정든 마을을 떠났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김승일 제공)

재개발 시행은 되돌릴 수 없을 테지만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세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 주니 힘들게 장만한 내 집과 건물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가득하다.

인계로 남쪽과 세지로 서쪽에 해당하는 팽나무고개 일대와 영광·전원아파트를 포함한 인계동 구시가지는 팔달115-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팔달8구역으로 약칭되는 팔달115-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매교동 209-14번지 일원 22만 2,489㎡에 지하 2층, 지상 20층의 52개 동 3,60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원수는 수원시 재개발구역 가운데 가장 규모 큰 1800여 명이다. 2008년 7월 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았고, 2010년 7월 26일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다.

2010년 12월 17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013년에는 조합원 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조합장이 사고로 숨지는

2018년 재개발구역 내 철거 대상 가옥

2019년 철거가 진행되는 팔달10구역

일도 벌어졌다. 2016년 6월 29일에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 설립 후 6년이 지나서 분양을 추진하게 되면서 갑자기 인상된 공사비와 줄어든 감정가에 격분한 조합원들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팔달8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기존 재개발 동의서를 철회하고, 반대 동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수원시 정비구역해제기준안의 기준치인 50%에 육박하는 수준의 반대동의서가 접수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8월 25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11월부터 보상 및 이주절차에 착수하였다.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조합원들의 이주시기가 다를 경우 단전·단수 또는 수도·전기 사용료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영광아파트는 현금청산을 원한 세대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버티면서 이미 이주한 조합원 세대가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전기 사용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이 있었다. 아파트에 함께 살았던 정이 있어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2018년 12월까지 이주를 완료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3부
마을 I : 장다리천 서쪽 마을

1장

인계동 본토박이 마을,
인계본동

2장

팽나무와 정자가 있던
조용한 마을, 팽나무골

3장

어느 58년 개띠의 인계동 연가

인계동의 노인들은 토박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를 '인계본동'이라고 부르는데, '본토박이 동네'라는 뜻이다. 정식 행정 명칭이 아니고 노인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기에, 인계동의 상점이나 젊은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면 '인계본동'이 어느 곳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승연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1장 | 인계동 본토박이 마을, 인계본동

수원의 중부에 위치한 팔달구(八達區)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간직한 도시로, 수원팔경의 하나인 팔달산이 솟아 있고, 수원천이 도심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전통시장이 발달하여 있고, 경기도청, 수원시청, 수원세무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등 여러 관공서가 위치하여 여러모로 생활이 편리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연환경은 아름답지만 최근 개발되어 우뚝 솟은 새 건물들로 단장한 여타 지역에 비하면 다소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 팔달구는 구도심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으며, 다른 구에 비하여 인구도 적은 지역이다. 이들 구도심 지역은 상당수가 지역조합이나 재개발 지역의 형태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2019년 3월 현재 수원의 재개발은 팔달6·8·10구역, 권선6구역, 지동10구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 인계동은 팔달8구역과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해당하는 동네이다.

인계동은 팔달구의 남쪽, 권선구와의 경계에 인접한 곳인데 산골짜기에서 비롯된 작은 내가 있어서 '인도천', '인도래', '인도내' 등으로 불리던 것에서 '인계동(仁溪洞)'이란 명칭이 비롯되었다고 한다. 인계동은 교통은 편리하지만, 구도심으로 낡은 주택이 많고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주민들 다수가 보상을 받고 이사를 떠남으로써 인계동 골목골목은 빨간 엑스(×) 표와 군데군데 쌓인 쓰레기더미로 황량한 풍경이다. 수년

2017년 8월 인계본동 일대(김승일 제공)

2019년 재개발 추진으로 철거된 인계본동(김승일 제공)

후 이곳은 고층 아파트와 깔끔한 외관으로 재단장을 하지만, 기존 주민들은 떠나고 이주민들로 주로 채워질 공간이다. 재개발사업은 동네의 외관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마을공동체의 급속한 해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라지는 지역, 해체되는 기억과 풍경을 기록하는 것은 인계동의 역사일 뿐 아니라 주민 개개인의 역사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계본동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1. 인계동 본토박이가 사는 마을

인계동의 노인들은 토박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를 '인계본동'이라고 부르는데, '본토박이 동네'라는 뜻이다. 정식 행정 명칭이 아니고 노인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기에, 인계동의 상점이나 젊은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면 '인계본동'이 어느 곳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04년 인계동 816-7번지(팔달구 세지로243번길 30-6)에 경로당을 건립하며, '인계본동경로당'이라고 이름 지었기에 그나마 '인계본동'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남아 있다. 인계본동경로당이 지어지기 전, 토박이들은 서영준이라는 이의 방앗간 건물에 세를 들어 임시 경로당으로 사용하였다. 1998~2003년 정도였는데 이때부터 본동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인계동의 연세 지긋한 어른들은 '인계본동 출신'이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인계동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살고 인구도 제일 많은 편에 속했기 때문이다. 본동경로당 노인회 회장을 지낸 문찬웅에 따르면, 본동경로당 회원 중에는 지역 유지, 공무원 출신이 상당수 있으며 요즘도 부지런히 출입하고 있다.

1947년 인계본동 일대(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문찬웅　그때 이름 지을 때 우리는 본토박이가 많으니까 본동이라 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주로 인계동에서 공직생활 한 분도 계셨고, 지역 유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동경로당'이라 한 거죠.

인계동의 또 다른 재개발지역으로 팔달10구역에 해당하는 '팽나무골'이 있다. 팽나무골은 팽나무고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계본동은 주택가와 농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원주민이 많은 곳임에 비하여 팽나무골은 한국전쟁 이후 실향민들이 들어와 판잣집에서 생활하였다. 이들은 농토를 가진 사람이 드물기에 날품팔이 등 일용직으로 생계를 잇던 사람이 많았다. 1940년생인 올해로 80세인 문찬웅은 본동과 팽나무골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문찬웅　비교하면 그 당시는 본동 쪽에는 밭이 되었든, 논이 되었든, 농사짓는 분이 좀 많이 있었구요. 팽나무 쪽에는 하꼬방 집이 많았고, 농토 가진 사람이 흔치 않았어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일권이죠.

1943년생인 인계동에서 4대를 거주했던 77세의 임익상은 인계동의 중심지는 '원들개'라고 했다. 원들개는 지금의 인계파밀리에아파트 서북쪽에 있던 마을 이름이다.

임익상　본동은 사람 숫자도 많고, 팽나무골은 논밭, 과수원 사람 숫자가 적었어요. 내가 854번지 고 일대를 '원들개'라고 했어요. 원들개가 인계동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지금 파밀리에가 향원아파트였죠.

2. 보릿고개를 넘고, 역사의 굴곡을 헤치며

수원에서 인계동은 경제적으로 그리 풍족하지 않은 동네였지만 넉넉한 인심과 주민들 사이의 정이 돋보이던 동네였다. 1940~1950년대 모두가 어렵던 시절, 인계본동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주식은 보리밥이었다. 인근 광교산에 새벽 일찍 나가 지게에 나무를 지고 와 땔감으로 이용하곤 했다. 인계본동에서 걸어서 1㎞ 남짓 거리에 있는 수원 영동시장은 1919년 건립되었는데 포목, 커튼 등이 특화된 시장으로 현재까지도 거래가 활발하고 왕성한 곳이다. 인계동 주민들 중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영동시장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 오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가까이에 번화한 영동시장이 있어 시장을 보기에도, 버스를 타기에도 편리하였다. 수원의 부자로 꼽히던 영동시장 상인들은 팔달산 아래 행궁동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행궁동은 전통적인 부촌이었던 반면 인계동은 다소 낙후된 동네로 꼽혔다.

문찬웅　사실 수원에서 인계동 하면 그때 제일 낙후된 동네에 들었어요. 낙후되었다는 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부촌은 영동시장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인계본동의 지주 혹은 부자로 꼽힌 이는 누구였을까? 주민들은 인계동에서 4대를 거주했던 임익상의 집안을 꼽는다. 그의 가족은 윗집 360평, 아랫집 177평에 달하는 넓은

1950년대 인계본동(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오른쪽에 형성된 마을이 인계본동이다.

한국전쟁으로 파손된 장안문(수원박물관 제공)

주택 2곳에 나눠 살았다. 마당에는 소죽을 끓이는 큰 가마솥이 있었으며 감나무, 대추나무, 앵두나무 등 과수가 가득하였다. 머슴을 둔 유일한 집이기도 했다. 동네 중장년 여성들은 농번기에 그의 집에서 농사일을 도와준 대가로 식량을 얻어 가족들과 나눠 먹었다. 임익상의 조부와 부모는 가을이면 타작을 해서 근방에 떡을 돌리기도 했고, 보릿고개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죽을 나눠 주었다. 아이들은 널찍한 그 집 마당에서 깡통 차기, 술래잡기, 무등 타기 등을 하며 마음껏 뛰어놀았다. 경로당에 모인 인계동 노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의 집과 연결시켜 기억하곤 했다.

임익상　구정 정월보름달에 돌아다니면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깃발을 우리 집 마당에 두면 부잣집이라 쌀이든 뭐든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 오면 우리 아버지가 쌀도 퍼다 주고 그랬어요. 우리 집이 마당이 크거든, 저녁이면 나와서 깡통 차기 하고, 이 새끼로, 새끼로 공을 만들어서, 그것도 차고. 술래잡기, 깡통으로 하고, 그거하고. 또, 저거 알아? 이, 말뚝 박기라고, 여기다 죽 머리 박고, 가위바위보 해서 올라타고 그것도 하고.

모연환　자치기! 자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고무줄도 하구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1년 1월 7일 중공군에 의해 수원이 함락되었다. 수원비행장이 있어 전략적 요충지였던 수원은 화성 성곽 일대가 폭격으로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인근 지역인 동탄, 용인 등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고, 마을에 남기도 했다. 인민군들이 인계동에 들어왔는데 마당이 넓고, 소죽을 쑤는 큰 가마솥도 있던 임익상의 집을 식당으로 사용하였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동네에서 어린 소년들이 뛰어 놀고 주민들이 일손을 돕던 그의 집은 전쟁의 각축장이자 현대사의 상흔이 남은 공간이 되었다. 전쟁은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와 산업 시설의 파괴를 가져왔다. 인민군들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공무원, 군인, 경찰, 학자 등 인텔리 계층과 그의 가족들이 학살되었

1950년대 인계동 학생들이 다니던 세류초등학교(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다. 인계동에서 75년째 거주하며, 제5~6대 수원시의원을 지낸 모연환은 인민군들이 경찰 가족과 공무원 가족들을 수원고등학교 운동장 위 둑에서 총살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매교동에 위치한 수원고등학교는 인계본동에서 1㎞ 남짓 되는 거리로 본동 주민들에게는 거리로도 심리적으로도 같은 동네에 해당하는 가깝고 익숙한 곳이었다. 1941년생인 모연환은 당시 10살 남짓 되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날의 아픔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모연환　공산군들이 경찰 가족이나 공무원 가족 전부 다 붙들어다가, 이 수원고등학교 저기가, 운동장이 저 아래로 있지만, 이 위에 이런 둑이 있었어요. 둑에다가 쭉 세워 놓고 여기 땅을 파게 하는 거야, 땅을 전부 다. 토굴을 파 가지고, 사람들 세워 놓고, 총으로 따발총으로다가 쏴서 전부 다 죽여 갖고. 그냥 전부 다 사람들 죽으면. 저기다 묻어 버리고 그냥 갔는데. 나는 어려서 그걸 봤어요.

가까운 영동시장도 1950년 6월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1951년 4월 목조건물로 복구하였다.[1] 북한 실향민들이 인계동 팽나무고개 주변으로 모여들어 판잣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1940~1950년대 출생한 인계동 어린이들은 세류초등학교에 많이 다녔다.[2] 세류초등학교는 1937년 10월 8일 개교한 학교로, 전쟁이 끝난 후 학업을 중단했던 나이 많은 학생들과 어린 학생들이 같은 반에 배정되어 다양한 연령대가 수업하였다. 학생들은 화산농장, 원천저수지, 융건릉 등으로 소풍을 갔다.

모연환　그리고 소풍 가면, 저 화산농장이라고, 지금 가구거리 그 앞에 가보면 큰 저기, 벌판이 있죠?

임익상　원천저수지 근처에도 소풍들 많이 갔고.

보릿고개는 1960년대까지도 존재하다가 1970년대 들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본동 주민들은 잘사는 이들은 베풀고, 힘든 이들은 서로 의지하며 고난의 시기를 넘었다.

3. 추억을 공유하던 마을공동체

인계본동 주민들 사이에서 중심이 된 지역,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일까? 시의원을 지낸 모연환, 4대가 인계동에 거주한 임익상, 인계본동 노인회장 문찬웅 등을 비롯한 여러 노인들은 청송 심씨네 종중산을 꼽는다. 현재 인계동 서쪽 지역에 위치한 인계파미리에 아파트 일대가 바로 심씨네 종중산이 있던 곳이다.[3] 여름 달밤이면 동네 소년 소녀들은 이 산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거나 공을 차고 놀았다. 겨울에는 산 위에서 연을 날렸다. 10월 시향을 지낼 때면 제사 음식을 얻어먹기도 했다. 그때 산에 모이던 아이들 상당수가 인계본동경로당 회원들이다. 종중산을 '망두산'이라고도 불렀다. 당시에는 제법 크고 높은 산으로 보였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작은 동산에 불과하였다.

임익상　내가 854번지 고 일대를 원들개라고 했어요 원들개가 인계동의 중심지역이었어요 지금 파밀리에가 향원아파트, 그전에 심씨네 종중산이었어요. 10월 시향 지낼 때 시향 지낸 음식을 죽 줄서서 먹었어요. 동네 애들 다 모여서 20명 정도 될까? 그때 사람들이 본동경로당을 많이 이용들 해요.

1954년 인계본동(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모연환　망두산이 종중산이었는데 아파트 들어설 때 심씨들이 팔고 나갔어요. 어릴 때는 굉장히 멀고 높은 산으로 보였는데 커서 생각하니 그냥 동산이었나 봐요

인계동에 살던 심씨들이 종중산을 팔고 외지로 나가자, 그 자리에 향원아파트가 세워졌다. 향원아파트는 17평형 150가구, 24평형 260가구 등 총 410가구로 구성되었는데,[4] 1978년 6월 12일자 일간지에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라는 광고가 실려 있다.[5] 1979년 준공되어 30여 년간 인계동을 대표하는 오랜 아파트였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고 오래되자 재건축되어 2009년 6월 파밀리에라는 새 아파트로 준공되었다. 재개발이 추진되어 살던 집을 비우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몇몇 주민들은 주택에서 파밀리에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오랜 기간 거주하던 정든 인계동에서 멀리 떠나기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공을 차고 연을 날리며 보낸 놀이 공간은 20층짜리의 우뚝 솟은 고층 아파트가 되었다. 아파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수원역으로 가기도 편리하다며 본동 주민들은 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인계동 장다리 냇가에서 비온 후, 송사리, 붕어, 미꾸라지를 잡는 것도 즐거운 놀이였으며, '한데우물'이라고 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던 우물에서 이웃들이 만나는 것도 추억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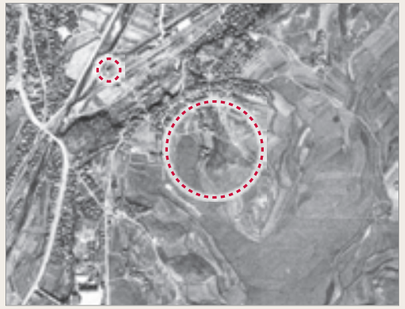
임익상　장다리에서 뜰채 가지고 미꾸라지 등 물고기 잡으러 다녔어요. 여름에 천렵하구요. 도로가 새로 나면서 없어졌어요.

1950~1960년대 무렵 인계동의 교육열, 향학열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성적과 가정 형편에 따라 학생들은 수원고, 수원농고, 삼일상고, 수원여고, 매향여고 등으로 진학하였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지만, 기술을 익히거나 공장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로였다. 남성들은 정비공장, 목공소, 양복점, 인쇄소 등에서 기술을 배우거나 가까운 영동시장의 배달원, 일용직 잡부 등으로 취업하였다. 여성들은 미용실, 양장점, 직물공장 등에 취직하였다.

모연환　하여튼 공부를 실력이 있는 애들은 그나마도 학교를 갔으면, 고등학교, 저, 저기까지 갔지만, 대학교 간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런데 그나마도 안 가고 그랬으면 기술 배운 애들은 전부다 또 기술자가 돼서 그냥 각 분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냥 뭐 그때는 노동으로 많이 하니까, 노가다들 많이 하고, 그런 거로 많이 퍼졌지만, 지금 그 당시에 공부했던 사람들, 그래도 웬만큼 다 풀렸어요. 잘됐어요.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으로 수원 사회에서 자리 잡았고, 기술직을 택한 이들도 가정을 꾸리고 기반을 잡았다. 70~80대로 접어든 본동의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자녀들도 수원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동, 서둔동, 광교신도시 등에 거주한다고 한다. 수원역에서 대중교통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2001아울렛, 영동시장, 각종 맛집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좋다고 한다.

1972년 인계본동 시가지(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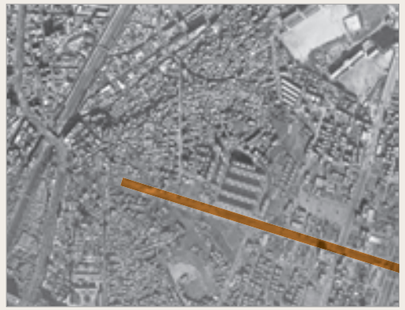
1947년 화성역과 망두산

1954년

1966년 인계초등학교

1974년 수원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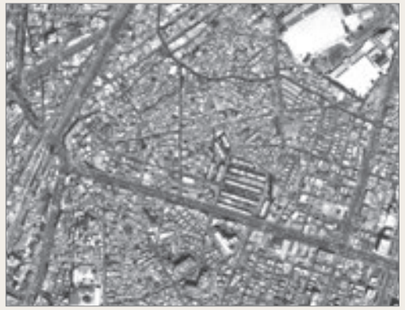
1985년 향원아파트와 장다리길, 1번 국도



1990년 인계로

1993년 전원아파트

1996년 영광아파트



2000년

2007년 향원아파트 재건축공사

2014년 인계파밀리에아파트

2018년

인계본동 일대의 변화(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4. 인계동의 발전과 변화

인계동은 편리한 입지에 비하여 낙후된 편이었다. 1970년대 중반 농촌 새마을운동 이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도박단이 근교도시로 이동하였는데 인계동도 이에 해당된 듯하다. 수원시 인계동 418번지에 거주하던 주부 김○○는 "새마을운동에 따라 대부분의 농촌에서 주민들이 화투를 불태워 버렸으나 도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선량한 농민들을 등쳐먹는 도시의 사기도박단 때문"이라고 말하고 "백해무익한 화투의 제조 및 판매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

임익상　낙후된 편이었고, 그 당시엔 인계동 남자한테 시집도 안 보낸다고 했어요. 못된 남자만 있어 가지고. (웃음)

인계동이 발전한 것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 진행되면서였다. 주민들은 1970년대 인계동

1972년 본동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된 하수구 개설(수원박물관 제공)

1981년 인계본동 주택가 풍경(수원박물관 제공)

1982년 인계본동 경관(수원박물관 제공)

1982년 인계본동 경관(수원박물관 제공)
왼쪽 상단에 보이는 아파트가 신반포아파트(한신아파트)이다.

에 수도가 들어왔다고 기억한다. 전기는 비교적 일찍 들어왔다.

임익상　도로가 넓혀지고 도시가 인제 발전되고, 그 다음에 그때 새마을로 해서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제 많이 됐고. 지금, 맨 끝에 와서는 전부 인계동에는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1980년대 접어들며 인계동에는 성빈센트병원 남쪽으로 신반포아파트(한신아파트)가 들어섰다. 당시 수원에 투기꾼이 몰려서 개발지역의 대지가 시가의 2~5배나 비싼 가격에 팔리거나 전매되었고, 인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대지가 투기대상이 되기도 하였다.[7] 1991년 6월 인계동 근린공원 터 1만 4,000여 평에 경기도문화의전당이 개관되었다. 대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갤러리 등이 있어 수원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2월에는 지하 4층 지상 12층, 연건평 9,000평 규모의 뉴코아수원점도 들어왔는데 의류, 잡화, 침구세트, 인테리어 소품 등의 매장이 입점한 종합쇼핑몰이다. 인계동도 차츰 발전했지만 주민들 중 외지로 떠난 이들이 많았다. 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소비가 많다는 계산에서 자영업자들, 사업을 하는 이들일수록 서울을 선호하였다.

모연환　외지 지방으로 갔어요. 수원서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 인구가 저기해 가지고 소비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돈 벌었다는 사람들, 수원 시내 갑부라는 사람들은 전부다 외지로 떠났어요. 서울이나, 어디로 그런 데로 떠나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고, 여기 동네 살던 사람들도 서울로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2000년대 들어서 팽나무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인계본동에서는 오래된 주택들을 공사하여 2층으로 올리는 것이 유행하였다. 인계본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토박이들은 직장을 은퇴하는 60~70대로 접어들었기에 살림에 보탬이 되는 방법들을 구상하였다. 1층에 점포를 차리고 집주인이 직접 장사를 하기도 했고,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기도 했다.

문찬웅　팽나무고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쪽으로 건물이 자꾸 슬라브집으로 변화되면서. 2층 올리고 뭐 하다 보니까, 주인이 점포 놓고 직접 하는데도 있지만, 대부분 세놓을려고 하잖아요. 점포들이 많이 생기면서 차이점이 있었죠. 여기는 지금 생각해 봐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해도 쉽게 적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 먹고살려면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힘은 있어도 줄이 없으면 못 가요 그 때문에라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지금에야 인력사무소니 뭐니 있지만 아는 사람끼리 했거든요. 업자들하고, 공사판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한식구 덩어리로.

인계본동에 들어온 세입자들과 토박이들 사이에 텃세는 없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인력사무소,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 업체 등이 성행하기 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주로 인맥을 통해서였다. 인계동에 들어온 사람들과 원주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했다. 이들은 서로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면서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5. 재개발과 이주, 사라지는 풍경

수원에는 2019년 상반기 현재 분당선 매교역 인근에 재개발 3개 구역이 모여 있다. 재개발은 기존의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꾸는 것이다. 팔달8구역에 3,603세대, 팔달10구

재개발반대 대책위사무실

역 3,432세대, 팔달 6구역 2,586세대, 권선6구역 2,178세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총 1만 1,799세대로 수원 구도심 동네가 미니 신도시 급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인계동은 팔달8구역,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에 해당하는데,[8] 인계본동은 팔달10구역에 해당한다. 좁은 골목과 오래된 주택이 모여 있던 곳은 불과 몇 년 후면 20여 층짜리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신규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재개발에 대하여는 어느 지역이나 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존재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집이 낡아서 신축해야 하거나 이사 계획이 있던 사람들, 집 규모가 큰 사람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을 환영하였다. 이들은 보상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다시금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담금을 내고 수년 후 번듯하게 바뀔 인계동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도 기약하였다. 반면 세입자들, 집 규모가 적은 이들, 여유가 없는 이들일수록 재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계동을 떠나도 이제껏 살던 정도의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정든 마을에서 내쫓긴다는 것이다. 인계동은 노후한 동네이지만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점이 많다. 영동시장,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전통시장이 가까워 시장을 보거나 소일거리 삼아 산책을 가기에 좋았다. 수원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좋았다. 주민들은 인계동을 떠나면 그동안 누려 왔던 만큼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여겼다. 70~80대 노인들은 재개발사업만 아니었다면 인계동에서 여생을 보냈을 거라고 말한다.

임익상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집이. 예를 들어 헐어 가지고 고치거나 다른 데로 이주 가야 될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나쁜 거고. 또, 집을 아주 2층, 3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개발했을 때 얼른 떠났어. 왜? 그거 받아 가지고, 다른 데서 충분히 집을 또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얼른 얼른 떠났다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지. 그러니까 영세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그런 그 여론이나 이런 것이 적어요. 없는 사람, 셋방 산다든가, 나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 나 재개발 아니라면,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죽어도.

재개발이 진행되며 기존 세입자와 주민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이다. 본동경로당을 드나드는 노인들과 토박이 주민들은 이주가 시작된 후 황폐해진 동네를 보면서 쓸쓸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고 한다. 정든 곳이 해체되고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큰 아쉬움이었다. 건물마다 붉은 엑스(×)자, 각종 낙서가 산만하게 표시되어 있고, 쓰레기더미로 가득한 공간을 보는 것은 '섬찟 섬찟한' 공포라고 표현하

①

②

③

① 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안내 문구
② 떠나는 주민
③ 철거가 확정된 주택

2004년 인계본동경로당 개관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회원의 지문이 나와 범인으로 의심받았다. 경로당 회원들은 그 사람이 도둑일리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였다. 다행히 얼마 후 진범이 잡혔는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46세의 남성이었다. 범인은 영창에 입소해 있으면서 경로당 회장인 문찬웅 앞으로 편지를 보내어 선처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회원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한다. 한 사람이 갱생하여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가, 법대로 처벌받도록 해야 할까의 문제였다. 결코 가볍지 않은 심각한 주제였다. 회원들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경로당, 구도심 골목에 위치한 작은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사용할 공금을 훔쳤다는 것에 공분하였다. 그래서 편지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찬웅　영창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편지가 왔어요. 경로당 회장 앞으로. 뜯어 봤더니 본인 범인이 나한테 자필로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모로 송구스럽다고.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오죽하면 경로당에 들어왔겠습니까?" 하는 투로 썼어요. 내가 편지를 써서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본인에겐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회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내가 단독으로 경로당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 원하는 대로 해야죠. 내 뜻대로 했다가. 추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경로당은 철거지역에 해당했기에 2018년 12월 말 보상비를 받고 비운 후, 인계동 822-28번지(장다리로 233번길 28-27)의 주택을 매입하여 새 경로당으로 만들었다. 새 경로당

문찬웅

임익상

회원의 지문이 나와 범인으로 의심받았다. 경로당 회원들은 그 사람이 도둑일리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였다. 다행히 얼마 후 진범이 잡혔는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46세의 남성이었다. 범인은 영창에 입소해 있으면서 경로당 회장인 문찬웅 앞으로 편지를 보내어 선처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회원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한다. 한 사람이 갱생하여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가, 법대로 처벌받도록 해야 할까의 문제였다. 결코 가볍지 않은 심각한 주제였다. 회원들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경로당, 구도심 골목에 위치한 작은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사용할 공금을 훔쳤다는 것에 공분하였다. 그래서 편지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찬웅　영창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편지가 왔어요. 경로당 회장 앞으로. 뜯어 봤더니 본인 범인이 나한테 자필로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모로 송구스럽다고.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오죽하면 경로당에 들어왔겠습니까?" 하는 투로 썼어요. 내가 편지를 써서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본인에겐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회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내가 단독으로 경로당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 원하는 대로 해야죠. 내 뜻대로 했다가. 추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인계본동경로당은 2004년 준공된 것으로 원래 인계동 816-17번지(세지로 243번길 30-6)에 위치하였다. 단층 건물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거실, 화장실이 있었고 활용도도 좋았기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꽤 컸다고 한다. 15년 가까이 사용하던 이 경로당에는 잊지 못할 사건, 사고도 있다. 도둑이 9번이나 들어와 사진기와 현금 등이 수시로 없어졌기에 방범망과 CCTV를 설치하는 등 소동이 있었다. 경찰에서 현금과 장부를 보관했던 캐비닛에 찍힌 지문 검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에 거주하며 가끔씩 경로당에 들르던 동네에서 혹시 사고나 범죄가 일어날까 봐 조마조마하였다.

문찬웅　지금은 그래도 (이주율이) 95% 넘어. 얼마 전만 해도 80 몇 % 됐을 때 빈집이 많고 드문드문 살잖아요. 골목에 들어가려면 섬찟 섬짓할 정도예요. 불이 꺼져 있으니까요. 재개발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빨리 해치워야지, 질질 끌면 끌수록 무슨 사고가 날는지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철거 직전 인계본동

은 넓었지만, 무릎이 아픈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층계가 있어 조금 불편하다고 한다.

문찬웅　경로당 어디를 가 봐도 우리 경로당 같은 시설이 없었어요. 단층으로 지었는데도 거실, 할머니방, 할아버지 방 따로, 화장실 따로. 활용도가 아주 좋았어요. 그때는 식사 점심도 같이 했어요.

인계본동경로당 회원 중에는 자택이 개발지역에 해당하는 이도 있고, 아닌 이도 있다. 철거를 앞두고 이주를 한 이들은 고등동·매교동·서둔동 등 수원 인근 지역에 머물기도 하고, 용인·동탄 등으로 멀리 떠나기도 했다. 주소지가 '인계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로당 임원(회장·총무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4대가 인계동에 거주하면서 일찍이 주민들의 경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왔기에 '인계동 옥편'이라 불린 임익상은 2019년 1월 서둔동으로 이주하였다. 본동경로당이 이주하던 2018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삿짐을 꾸리며 열심히 경로당 총무 일을 하던 그는 이주로 인해 총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자동 상실하였다. 인계본동에 대한 소속감을 잃게 된 주민들은 수십 년간 함께해 온 정든 이웃들과도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

인계동 원주민들 중에는 아직 이주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휑하고 흉흉한 분위기의 골목골목에 최후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보상 감정가가 시중 대비 50% 정도에 불과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철거 인력이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일어났다.[9]

사라진 인계동 풍경

모연환　재개발되기 전에는 땅 평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200만~300만 원 정도였어요. 재개발되면서 별안간 돈 700만, 800만~1,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실제 주민들은 원래 땅값으로 재산평가가 옛날로. 그래서 거의 2/3도 못 받고 절반이나 2/3 정도 보상받았어요 그래서 억울한 거죠. 이 집을 5억에 팔고 나가면 다른 동네 가서 이런 집을 10억 줘도 못 사요. 이런 똑같은 집을 사도.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억~2억 원 이면 집 사던 걸 요즘은 5억 줘도 못 사요.

인계본동 주민들은 젊은이들보다는 고령의 노인들이 더 많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은 인계동에 들어왔더라도 좀 더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찾아 일찌감치 떠났기 때문이다. 노후하고 불량한 단독주택과 빌라에 살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골목이 지저분해도, 마을에 정을 붙이고 동네에 남아 있던 이들은 상대적으로 나이 들고 쇠약해진 사람들이다. 재개발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남아 있는 이들은 몇 년간 진행될 아파

트 공사가 끝난 후,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곳이 될까 다소 불안해한다. 일부는 자신의 나이를 손꼽아 보며 살아생전에 천지개벽할 인계동의 모습을 볼 수 있겠냐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철거를 앞두고 자의로 혹은 타의로 떠난 이들은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재벌 건설사와 외지 투기꾼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 청송 심씨네 종중산, 한데우물, 임씨네 넓은 마당, 장다리 냇가, 인계동의 가파른 골목들이 이제 자신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할 거라며 안타까워한다. 가난, 전쟁, 개발과 발전,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했던 인계본동은 사라지고 새로운 미니 신도시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1) 수원 영동시장 홈페이지(http://suwonyd.com/) 참고.
2)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63번지에 위치한 학교이다. 1937년 10월 8일 개교하였으며, 1942년 제1회 졸업생(185명)을 배출하였다. 세류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eryu.es.kr/) 참고.
3) 수원시청—수원지명유래.
4) 「아파트 올핸 몇 동이나 짓나 업체별로 본 청사진(11) 정진건설」, 『매일경제』, 1978년 4월 24일
5) 「향원아파트 분양광고」, 『동아일보』, 1978년 6월 12일.
6) 「농민 등치는 사기도박」, 『경향신문』, 1975년 12월 13일.
7) 『동아일보』, 1983년 3월 18일.
8) 팔달8구역은 인계동, 매교동 일원이며 팔달10구역은 인계동 20010아울렛 뒤편 일원에 해당한다.
9) 「수원 인계동 재개발 대치」, 『인천일보』, 2019년 6월 11일.

인계동 서부 주택가 지역에는 '팽나무고개'가 있는데, 인계동과 매교동의 경계지역으로 구체적으로는 정조로와 인계로가 교차하는 곳(매교동 217-1)이다. 이 일대에는 과거 팽나무와 정자가 있었는데, 마을이 형성되면서 그 마을을 그냥 '팽나무고개' 또는 '팽나무골'이라 불렀다. 팽나무골에 위치한 경로당은 '팽나무고개경로당'이다. 지금은 원래의 팽나무 대신 작은 나무 두 그루와 심막이 하나 있고, 그 앞에 팽나무고개에 대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승연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2장 | 팽나무와 정자가 있던 조용한 마을, 팽나무골

1. 팽나무와 정자가 있던 마을

수원 중부 팔달구에 위치한 인계동은 고층의 세련된 빌딩 숲과 오래된 주택가가 공존하는 동네이다. 인계동은 2018년 10월 현재 2.91㎢의 면적에 64통 323반, 1만 8,527세대로 구성되었는데, 인구는 남성 2만 2,388명, 여성 2만 1,763명으로 총 4만 4,151명이다.[1] 크지 않은 규모의 동네라서 아직까지 분동되지 않고, 인계동 1개 동으로 존재한다.

외관상으로 인계동은 행정·상업·금융 밀집지역이자 문화의 중심지이다. 수원시청, 백화점, 증권사, 은행, 보험회사, 대형상가 등이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시야외음악당,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등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 있다. 삼성아파트, 선경아파트 등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많이 분포한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인계동의 동부 지역은 뉴코아아울렛, 갤러리아백화점, CGV 동수원점, 이비스엠배서더호텔, 라마다호텔 등이 있으며 수원의 주요 상권 중 한 군데이다. 화려한 동부에 비해 인계동 서부는 조용한 주택가이다. 장안아파트·영광아파트·전원아파트·은하아파트 등 오래된 아파트, 파밀리에아파트·인계베스트빌 등 비교적 최근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가 혼재해 있다. 인계동의 오래된 주택가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대

2017년 팽나무고개 일대(김승일 제공)

2018년 팽나무고개삼거리와 팽나무골 일대

팽나무고개삼거리

산업개발과 GS건설 등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 3~4년 후면 외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주민들이 대거 유입될 예정이다.

인계동 서부 주택가 지역에는 '팽나무고개'가 있는데, 인계동과 매교동의 경계지역으로 구체적으로는 정조로와 인계로가 교차하는 곳(매교동 217-1)이다. 이 일대에는 과거 팽나무와 정자가 있었는데, 마을이 형성되면서 그 마을을 그냥 '팽나무고개' 또는 '팽나무골'이라 불렀다. 팽나무골에 위치한 경로당은 '팽나무고개경로당'이다. 지금은 원래의 팽나무 대신 작은 나무 두 그루와 심막이 하나 있고, 그 앞에 팽나무고개에 대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팽나무골은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 해당되어 부분 철거에 들어갔으며, 석면 해체와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의 상당수가 자의 혹은 강제이주로 삶의 터전을 떠났으며, 마을공동체도 해체되고 있다. 토박이와 고령의 노인들은 정든 동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과 서글픔을 토로한다. 인계동 서부의

팽나무고개 부근(인계로에서 인계로10번길 진입로 입구)에 심겨져 있는 팽나무(Celtis sinensis)
느릅나무과의 교목낙엽. 키 20m, 지름 1.0m. 잎은 난형, 타원형, 긴 타원형으로 길이 4~11cm. 끝이 뾰족하고 비뚤어진 모양. 상반부에 잔 톱니가 있으며, 꽃은 5월에 피고 잡성화로 꽃자루가 있음. 옛날부터 방풍림 녹음을 위해 심었고, 목재는 가구재, 운동기구재로 이용되며 한국,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

작은 마을, 사라져 가는 팽나무골의 풍경과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을 수집하였다. 팽나무고개경로당 회장(모연환 1941년생)과 회원들(김영선 1938년생, 주연순 1939년생, 김광자 1945년생, 정금선 1947년생), 팽나무고개에서 잡화점을 운영했던 문찬웅(1940년생), 인계동 토박이 임익상(1943년생) 등 인계동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팽나무골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2. 인계동 주변부, 더디고 가난했지만 텃세 없던 마을

인계동에서 팽나무골은 어떤 곳인가? 인계동에서 몇 대를 거주한 토박이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주해 온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 팽나무골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인파로 북적한 곳은 아니었다. 인계동 사람들은 '본토박이'라 불리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를 '인계본동' 이라고 불렀다. 상대적으로 논밭이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주민이 거주한 곳이다. 정식 행정 명칭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붙인 이름으로,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인계본동 출신'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본동은 일반 주택가라서 조용하였고,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다. 인계동에서 78년간 거주한 토박이이자 인계본동 경로당 총무를 지낸 임익상은 팽나무골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임익상　고개를 넘어서 권선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서 팽나무고개라고 했다고. 본동은 주로 인계동 중심 지역에서 사시던 분들이 모였고, 팽나무고개는 모연환 (노인)회장이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나 조금 그런 분들이 모였죠. 본동은 사람 숫자도 많고, 팽나무골은 논밭, 과수원, 사람 숫자가 적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팽나무골에는 피난민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하꼬방'이라고 불리던 판잣집을 지어 거주했는데, 정확한 규모와 구체적인 고향에 대해서는 토박이 주민들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문찬웅은 고등동에서 살다가 34세가 되던 1973년 인계동에 들어와 팽나무고개 위치에 잡화점을 열었다. 당시 피난민들은 팽나무고개 하꼬방에 정착하여 고향 잃은 슬픔을 달래고, 수원 살이에 적응하여 살고 있었다. 팽나무골 주민 중에는 농토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고, '하루 벌어 먹고사는 일일권'에 해당되었다. 하꼬방 주변으로는 작은 규모의 과수원이 있어 사과, 배 등을 경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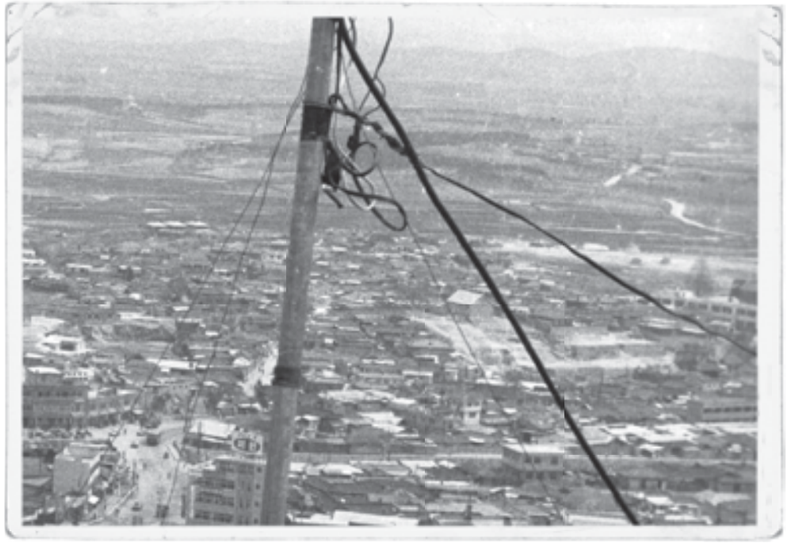
1950년대 팽나무고개 일대(수원화성박물관 제공)

문찬웅　　큰 차이는 팽나무고개 쪽에는 하꼬방들이 많았는데, 피난민들, 6·25 겪고 나서 수원에 정착한 분들이, 거기가 야산이었더라구요. 하꼬방 식으로 판자촌이에요, 완전히. 양쪽으로 큰 평수는 아니지만 과수원이 있었구요. 지금으로 보면 큰 게 아니죠. 사과, 배 위주.

1970년대 팽나무골의 발전 정도는 어떠했을까. 마을에 수도는 들어왔지만 전기랑 가스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도시가스 설치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골목 주택가 주민들은 오래도록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중교통은 남문시장으로 걸어가서 버스를 이용했다. 마을 가까이에 남문시장이 있다는 것은 인계동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생활상 편리했을 뿐만 아니라 남문시장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주민들은 영동시장, 지동시장, 못골시장 등의 도매상에서 자전거나 수레로 물건을 떼어 와 소매로 팔기도 했고, 직접 이들 시장에서 배달원으로도 일했다. 마을에서 지주라고 꼽을 만한 인물은 이보필이라는 사람으로, 논을 꽤 갖고 있었으며 KBS수원센터(인계동 283) 정문 쪽 임야를 갖고 있었다.

문찬웅　　34살에 들어왔어요. 인계동 팽나무고개로 이사 왔어요. 34세 이전에는 고등동에서 있었고, 중학교까지는 제가 북중을 다녔어요. …… 농업에 종사했어요. 전기는 안 들어오다시피 했어요. 수도는 들어왔구요. 가스는 늦게까지도 골목길은 안 들어왔어요. 돈을 줘야 공사를 시작해 주죠. 못 놓는 사람이 많았어요.

문찬웅은 팽나무고개에 작은 점포를 얻어 잡화점을 시작했다. 반장을 맡게 되면 주민들과 접촉이 빠르니 장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지인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이사 온 지 2개월 만에 반장을 맡았다. 가게를 운영하며 동네일까지 맡자 골목골목 사정에 훤해졌으며 단골도 생겼다. 전임 통장의 추천을 받아 반장이 된 지 6개월 만에 통장 직을 맡았다.



1972년 팽나무고개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동네마다 간간히 젊은 통반장들이 있었으나 이사 온 지 8개월 만에, 그것도 35세의 나이에 통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팽나무골 주민들 사이에 텃세가 별로 없고, 서로 쉽게 어울리는 분위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이들이 고단한 몸을 누이고 생계를 해결한 곳도 팽나무골이었다. 발전 속도도 느리고 빈곤한 동네였지만 어려운 시절 마을로 유입된 이들은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수원의 시민으로 자리 잡았다.

문찬웅　　여기는 지금 생각해 봐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해도 쉽게 적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 먹고살려면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힘은 있어도 줄이 없으면 못 가요 그 때문에라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지금에야 인력사무소니 뭐니 있지만 아는 사람끼리 했거든요. 업자들하고, 공사판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한 식구 덩어리로.

팽나무골이 늘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중후반 팽나무고개삼거

1975년 팽나무고개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리 근처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20대 청년 7~8명이 모여 아지트처럼 사용하던 곳이었다. 인계동 청년이 한 둘 포함되었고, 나머지는 수원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이다. 도둑, 사기 등 잡다한 범죄 전과 경력이 있던 이들로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은근히 위협이 되던 존재들이었다. 문찬웅의 잡화점에 와서도 밀린 외상값을 갚지 않고 그의 부인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단신이지만 운동을 해서 다부졌던 문찬웅은 한번 날을 잡아 이들을 땅에 메어꽂으며 혼을 냈다. 마을 청년은 잔뜩 혼이 난 후 한동안 부끄러워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였다. 문찬웅은 가게를 운영할 당시는 이들 때문에 꽤 속이 상했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팽나무고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남는다고 회고했다.

문찬웅　추억거리 하니까, (제가) 객지에서 들어왔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수원 초입에 초가집이 一(일)자로 있는데 저한테 인수한 친구가 하는 말이, 요 과수원 초입 초가집에 사는 친구가 7범이다, 6범이다, 이런 애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가게에서 외상도 많이 가져갈 거고, 불편하게 할 거라는 귀띔을 해 줬어요. 제가 주인이 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어디 사는 누군지 알아야 외상을 해 주잖아요, 처음에는 곧잘 이용을 해 주더라구요. 그러더니 낯이 익더니, 내가 반장하다 통장까지 보게 되니까, 그 구역이 내 동네 내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외상을 안 줄 수도 없죠. 제가 아침에 물건을 대 주면 우리 집사람이 그걸 팔고, 파는 쪽으론 신경을 덜 썼죠. 한 두어 번까지 참아 줬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남의 것을 먹으면 값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먹고 보는 거예요. 집어다가, 외상이에요. 동네가. 한 번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혼을 냈어요. 생떼를 써요. 말도 못 할 정도로, 콘크리트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제가 키는 이래도 조금 (운동을 했는데) 다치지 않을 정도로 혼을 냈어요. 화가 나니까 달리 봐야 되겠다. 고 옆에서 있던 놈이 바로 우리 뒷집에 있던 놈인데, 그 놈마저 혼을 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끌고 가서. 제가 통장 볼 때 반장을 봐주셨어요. 질질 끌고 가서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십시오! 이런 추태가 있어서 이웃 간에 되겠느냐?" 이 놈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없어야 그 초가집을 가는 거예요. 사내놈이 뭐 잘못해서 이웃 간에 술 한 잔 먹으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서로 용서하는 거 아니냐.

인계동 팽나무골은 위치상으로 크게 발전될 지역이 아니었고, 논밭이 많지도 않아 평범한 동네로 큰 변화 없이 1980년대를 맞이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개통되고 주택,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들어서며 1980년대 초부터 점차 인구가 유입됐다. 경험이 별로

1947년

1954년

1987년

1993년

1966년

1974년

2002년

2009년

팽나무골 취락과 시가지의 확대(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없는 건축업자들이 들어와서 지인들의 집을 지어 주거나 주변 밭을 매입해서 건물을 올렸다.

문찬웅　여기가 위치상으로 크게 발전될 위치도 아니고. 자꾸 쫓아 올라가면서 비슷해졌어요. 인구가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인계동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택도 짓고. 연립 빌라. 건축업이 서서히 바람이 불면서 빌라들, 다세대,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때는 경기가 또 좋았어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손을 대면서 짓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업자들을 봐도, 전혀 경험이 없는데 손을 대서 건축업 하는 사람만 알면 되죠. 지인들이 지어라고 하니까 동네 주변 밭 합세해서 사서 지어 주기도 하고.

모연환　여기가 발전된 거는 1975년도 이상, 1980년대 초에 별안간 발전했어요. 재개발되는 저쪽 너머는, 8구역 옆 동네는 도시계획이 되면서 도로도 새로 나고, 집집마다 몇 평씩 잘라 줘서 집을 짓게 만들었어요. 인계동이 아주 그냥 논밭 천지였어요. 장다리 냇가에서부터 전부 다 논밭 천지인데 사람들도 별로 안 다녔어요. 농사만 지었고.

인계동은 수원시청 이전을 계기로 신흥 업무지역으로 급부상했다. 보험·증권회사와 농수축협 등 제1~2금융권과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 관공서·신문사 사옥들이 대거 이전하거나 건립되었다. 향후 늘어날 사무실 수요를 겨냥한 대형 업무 빌딩과 주상복합빌딩, 대형 백화점들이 주변에 잇따라 건립되거나 출점하였다. 특히 서울-분당-동수원을 잇는 수도권 전철이 이곳을 통과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경수산업도로를 잇는 수원버스터미널 건립이 예정되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1995년까지 평당 700만~800만 원 수준이던 인계동 땅값은 대로변은 1년 만에 2배로 올라 서울 1급지 수준인 1,500만~2,000만 원에 호가되었다.[2] 인계동 중심가는 외관상 급속히 달라졌지만 주변부 주택가에 해당하는 팽나무골은 2000년대 들어서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주택이 증가하면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들어왔지만 조용하고 발전 속도도 더딘 편이었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토박이들로 이루어진 구도심 팽나무골은 팔달8구역 재개발 지정과 더불어 비로소 격변을 맞이한다.

3. 팽나무골 주민들의 추억 : 수려선, 검은 솔밭, 도축장, 화장장

인계동은 업무·행정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논, 밭, 과수원이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인구 증가가 더디어 아직까지 분동이 되지 않은 마을이다. 그리 크지 않은 동네에서 인계동의 어른과 아이들은 교류도 잦았고 추억을 공유했다. 인계동 팽나무골 주민들의 삶은 수원시의 역사·문화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려선 화성역에 대한 경험이다.

수려선은 수원-여주 간을 잇던 협궤철도 노선이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12월 경기도 내륙의 곡창지대와 경부철도를 연결하여 한국의 미곡을 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부설하였다. 1971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여주와 수원 사이의 철도 교통 수요가 급감하여 1972년 전 구간 폐선되었다.[3] 폐쇄된 수려선의 철도역 중 하나인 화성역은 원래 역명은 본수원역이었는데, 인근에 수원 화성도 있기에 1948년에 화성역으로 개칭되었다. 화성역의 위치는 인계동 754-10번지로,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일대 버스 정류장 이름은 '화성역·뉴코아백화점'이었다.

1960년 수려선 화성역(시사통신 수원지사, 『수원의 역정』, 1960)

1972년 수려선 철로가 놓여 있는 다리(수원박물관 제공)

1973년 철로가 철거된 다리(수원박물관 제공)

1960년대 수려선 통학생(홍순석 제공)

1972년 3월 수려선 운행이 폐지되었기에 화성역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이들은 인계동에서 오래 거주한 고령의 주민들이다. 토박이들은 어린 시절 수려선 협궤열차에 몰래 올라타 원천유원지에서 내리곤 했다. 지금 세태로는 무임승차에 해당하지만 어린이들이 타던 구간은 길어야 1㎞ 내외였다. 협궤열차는 열차의 운행 속도가 느렸고, 인계동을 지날 때면 더 천천히 지나갔기에 기차에 몰래 올라타고 내리는 것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에겐 별일 아니었다. 팽나무고개경로당 회장인 모연환도 어린 시절 기억으로 동네 아이들끼리 수려선을 타던 이야기를 하곤 한다. 화성역 자리에 청과물시장인 화성(인계종합)시장이 있었는데, 청과물시장은 권선동으로 이전하여 지금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었다. '2016 수원 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인계동에서는 수려선 기찻길 도색 작업이 펼쳐졌다.[4] 주민들은 과거 화성역과 수려선을 이용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소회에 젖었다고 한다.

모연환　화성역 수려선 지나갈 때 어린이들이 몰래 기차 탔다가 내렸어요. 기차가 천천히 달렸어요. 성빈센트병원 앞 고개가 졌어요. 거기 가면 기차가 잘 못 가요. 애들이 막 뛰어가서 그

1960년대 팽나무골에 자리한 검은 솔밭(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기차를 타고 갔어요. 속력 높아질 때 뛰어내렸어요. 보통 1㎞ 미만으로 탔어요. 다치는 학생은 없었어요.

팽나무경로당 회장이자 수원시의회 의원을 지낸 모연환은 기억에 남는 장소로 공동묘지 주변에 까맣게 펼쳐진 솔밭, 일명 '검은 솔밭'을 기억한다. 솔밭은 공동묘지였는데 빽빽하고 울창하여 햇빛이 들지 않아 검은 솔밭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전원아파트가 들어섰다.

모연환　공원이 아주 쑥 들어간 논이야. 이 아래 동네가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아래가 집이 하나도 없었고, 그 다 논밭이야. 다! 여기가, 다. 제가 어려서, 인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하는데, 저 위에, 거기가 몇 번지가 되나? 저 위에는 이게 까만 솔밭이 있었어. 검은 솔밭이 있어서, 낮에도 거기를 가질 못했어. 거기 그 밑에가 바로 공동묘지였었어요. 육이오(6·25) 전에는 그게, 우리가 어려서도 한참 장난을 노는데 그 길 무서워서 못 가던 거.

팔달새마을금고(인계동 807-3번지) 자리는 예전에 소를 도살하는 도축장이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은 동물을 살육하는 장소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혼자서 그 앞을 다니지 않고, 몇몇이 모여 다녔다고 한다.

임익상　도축장은 나 어렸을 때, 내가 여섯, 다섯 살에 있을 때, 지금 새마을금고 자리가 옛날에 동사무소였어. 그래, 동사무소 하기 전에, 거기 도축장이 그것이 세류인가 어디로 옮기기 전에, 거기에 소 도축장 했었지. 어렸을 때 생각이 소 도살장, 소를 잡는 데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혼자도 그걸 이렇게 못 내려왔어.

모연환　인계동 화성역 수려선 앞에 청과물시장과 인계종합시장이 있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사 갔어요.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됐어요. 장사가 그때 잘되었구요. 도축장이 있었는데, 인계동사무소가 되었어요. 인계동 현 동사무소를 옮겨 놓고 마을금고를 새로 짓게 되었어요.

인계예술공원 내 현충탑 자리는 예전에 수원시립화장장이 있던 곳이다. 수원시립화장장은 1986년부터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가,[5] 1995년이 되어 용인군 수지면과 경계지역이며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변인 팔달구 하동 20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되었다.[6]

이 밖에도 팽나무골 주민들에게 추억 어린 공간으로 청송 심씨네 종중산이 있다. 인계동의 소년소녀들은 심씨네 시향이 있을 때면 종중산에 올라 이를 지켜보다가 시향이 끝난 후 나눠 주는 모과채를 먹었다. 달이 환한 여름밤이면 돼지오줌보에 물을 받아 만든 축구공으로 산에서 늦게까지 공을 차고 운동을 했다. 겨울에는 산등성이에 모여 연을 날렸다. 이 산은 자리에 1979년 향원아파트가 들어섰다가, 파밀리에아파트(인계동 865-10)로 재건축되어 2009년 주민들이 입주하였다. 20층 규모의 파밀리에아파트 자리는 과거 인계동의 공식 놀이터였던 셈이다.

겨울이면 인계동에서 논을 가진 주인들이 논을 얼려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주부들은 이곳에서 아이에게 처음으로 스케이트화를 신겨 주고, 뒤뚱거리고 넘어지던 아이들을 잡아 주었다. 개천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에 얼려서 썰매장으로 사용했다. 인계동의 논과 개천은 어른들에게는 생업의 공간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스포츠를 접하며 성장기를 보낸 추억의 장소이다.

1950년대 인계동 203번지와 204번지에 있었던 수원시도축장(수원박물관 제공)
인계동 807번지에 있던 도축장 자리에는 1949년 인계동사무소가 들어섰다.

1988년 수원시립화장장(수원박물관 제공)

팽나무고개경로당 여자 회원들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는 논둑에다 스키장을 해 놓고 큰아들 스케이트 사 줬어요. 막내 들쳐업고 아들 스케이트 타는 거 보려고 그 길을 갔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놀 때가 없잖아요. 개천도 얼마 전까지 썰매장으로 썼어요. 썰매장은 몇 년째 안하고 있어요.

팽나무골 주민들은 논밭이 주택지가 되고, 주택가가 첨단의 업무·상업지로 변화하는 것, 유서 깊은 종중산이 고층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 것을 오롯이 지켜보았다. 수원의 역사적 변동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삶을 꾸려 나간 것이다.

4. 팔달8구역 재개발과 변화의 소용돌이

인계동 팽나무골은 수원에서 낙후된 구도심으로 오래된 주택이 많고 고령의 주민들이 상당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매교역 주변에 있는 노후 주택가 팔달6·8·10구역과 권선6구역은 재개발구역이다. 팽나무골은 팔달8구역(수원 팔달115-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해당하는데, 2016년 6월 29일 사업시행 인가를, 2017년 8월 2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팔달8구역은 지하3층~지상20층 아파트 52개 동과 상가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이다. 대우건설, SK건설 등이 시공할 예정이며 분양수는 총 3,603세대로 조합세대 1,666세대, 일반세대 1,797세대로 구성된다. 팽나무골은 주택가 구도심에서 미니 신도시급 주거타운으로의 변모를 앞두고 있다.[7]

팽나무골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보상을 받고 이사를 떠난 상태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집이 커서 보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 낡고 헐어 리모델링을 준비했던 이들은 빨리 이주했다. 인계동 주변의 인근 아파트로도 갔으며, 용인 수지, 화성 동탄 등 다양한 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 반면 소유주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과 세입자들은 쉽게 떠나지 못했다. 이들은 보상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는 이제까지 살던 곳 수준의 집을 구하여 비슷한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리기 어렵다고 한다. 수십 년간 거주한 정든 동네에서 강제로 떠나고, 오랜 이웃들과도 멀어지며, 입지와 교통이 상대적으로 못한 곳에 집을 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사와 번거로움보다는 그저 조용히 살던 대로 살고 싶다는 이들도 있다. 민과 노인들은 재개발사업에

철거를 앞둔 팔달8구역

수용재결이전 사전 안내문이 부착된 팔달8구역

등 떠밀려 나간다며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임익상　예를 들어서 집이 예를 들어 헐어 가지고 고치거나 다른 데로 이주 가야될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나쁜 거고. 또, 집을 아주 2층, 3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개발 했을 때 얼른 떠났어요. 왜? 그거 받아 가지고, 다른 데서 충분히 집을 또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얼른 얼른 떠났다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지. 그러니까 영세민만 남아 있는 거야. 수원시에서 여기 재개발 인허가해 줄 때, 어느, 어디든지 재개발하자면 은 몇 %는 그거 아주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앞으로 이거,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인허가를 해 줬느냐. 그러면 또 없다 해도 이런 사람들한테,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느냐, 복안이 있느냐.

팽나무골 주민들 사이에는 재개발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인상된 공사비와 줄어든 감정가에 분노한 일부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8] 재개발 덕분에 헌집을 내어주고 새집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각자 재산과 수입을 가늠하면 추가분담금에 대한 염려가 앞선다. 외부에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이가 1/3 수준이었다고 한다. 재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과 수익을 목적으로 서울에서 와서 집을 산 이들도 있었다.

모연환　재개발되기 전에는 땅 평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200만~300만 원 정도였어요. 재개발되면서 별안간 돈 700만~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실제 주민들은 원래 땅값으로 재산평가가 옛날로. 그래서 거의 2/3도 못 받고 절반이나 2/3 정도 보상받았어요. 그래서 억울한 거죠. 이 집을 5억에 팔고 나가면 다른 동네 가서 이런 집을 10억 줘도 못 사요. 이런 똑같은 집을 사도.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억~2억이면 집 사던 걸 요즘은 5억 줘도 못 사요. 외부에서 투기로 집을 산 사람 1/3, 젊은이들은 나갔어요. 기존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요. 외부에서 투기한 이들은 재개발이 되어야 돈을 버니까, 1/3이 넘었어요. 재개발이 된다고 소문나고도 계속 몇 년간 샀어요. 빨리 이사 간 사람들이 3/5 정도였어요. 동네에서 3/4은 이사 나갔어요. 서울 사람들도 와서 집을 샀어요. 투기장을 만들어 놨어요. 마지막까지, 2019년 5월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팽나무골 주민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철거를 앞둔 빈집이 많은 탓에 치안을 걱정하는

팔달8구역 재개발 반대시위(『인천일보』, 2016년 11월 14일)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빈집에는 노숙인, 가출청소년이 거주하기도 했는데, 외부인들이 출입하면서 범죄라도 생길까 봐 주민들은 두려워했다. 벽마다 그려져 있는 빨간 엑스(×)표, 군데군데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때문에 재개발구역은 한동안 황량하고 을씨년스런 풍경이었다.

2019년 5월 2일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 중 가장 먼저 팔달8구역이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갔다. 6월 초부터 바닥재·벽재·지붕재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졌다. 기존 건물 철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소음·분진, 교통 불편, 치안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도 터져 나왔다. 철거 작업 중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강제로 철거를 하려던 인력 간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법원 집행관과 철거 인력 30여 명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원주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은 4층짜리 건물 내부와 주변을 점거했다. 철거에 동원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른 차량으로 막기도 했고, 일부 주민은 옥상 난간에서 농성을 벌였다. 철거 인력이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일어났는데 양쪽은 대치를 이어가다 철수했다. 주민들은 보상 감정가가 시중 대비 50% 정도에 불과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9]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은 저마다 명암이 갈린다. 토지이용의 효율화,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능회복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원주민들이 쫓겨나듯 사라진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인계동에서 오랫동안 삶을 일궈 온 이들에게 사라지는 삶의 터전은 인생의 소중한 일부이기도 하다. 피난민, 일용직, 배달원 등 어려운 사람들끼리 다독이며 살던 고즈넉한 주택가는 없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후면 이곳은 고층빌딩이 들어서 상전벽해를 이룰 예정이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민들은 저마다의 시각으로 사라져 가는 동네를 바라보고 있다.

5. 멀리서 다시 찾아오는 곳, 옛정이 남아 있는 동네

팽나무고개경로당이 지어지기 전, 주민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를 즐길 마땅한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주변 학교에 가서 척사대회(윷놀이)를 열기도 했다. 새마을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회관이 생겼는데 별도의 경로당이 없었기에 마을회관을 노인정 겸용으로 사용하였다. 지금이야 수원 도심에 해당하지만 인계동은 얼마간의 논밭을 기반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서로 돕고 공동작업을 하는 전통적인 농촌문화가 존재했다. 팽나무골에는 두레패가 있어 풍물도 쳤다.

팽나무고개경로당 일대는 과거 호박밭이었는데, 경로당을 짓고 난 다음에도 두레 때 사용하던 북과 장구를 최근까지 경로당에 보관하였다. 과거 두레를 연행하던 주민들이 고령으로 작고하고 연로해지다 보니 이제는 마을에 풍물을 치고 놀 사람이 없다. 주민들은 한바탕 놀고 술 차려 먹고 쌀 퍼 주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한다.

팽나무고개경로당은 유독 외지에서 찾아오는 노인들이 많다. 재개발 때문에 이주한 원주민들은 더 이상 인계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기에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없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경로당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기 힘들다. 이사 간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지만 사람들은 팽나무골에 오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다고 말한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 날이 궂을 때에는 택시를 타고서라도 팽나무고개경로당에 출석하곤 한다. 2018년 12월 현재 팽나무고개경로당 회원은 총 25명인데 이 중 팽나무골에 거주하는 이는 2~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외지로 떠난 주인들, 세입자들로 다시 낮아오는 이들이다.

2017년 팔달8구역(김승일 제공)

모연환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이웃들과 대화하고 정답게 살았는데 재개발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가니까 이웃과 냉랭해요. 남과 남이에요. 사람이 죽어 나가도 몰라요. 내가 시의원을 했으니 이사 가도 아는 이를 몇 사람 만나죠. 안 그러면 절벽이에요. 세월이 지나가야 융화가 된다. 법원 판결로 어쩔 수 없이 이사 갑니다.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지만 여기로 매일 출근해요. 버스, 전철 타고들 다녀요. 실제 여기 살면서 경로당 나오는 이는 2~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로 이사 간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들 이사 갔어도 그리우니까 택시, 버스 타고 다들 오십니다.

주연순　저는 함경남도 출신이에요. 8살에 부모님이 북한에서 나오셨어요. 72년 전이네요. 해방된 이듬해에 나왔어요. 서울서 학교 다니다가 6·25 나면서, 대전, 천안, 수원으로 온 지 55년 되어 가요. 준토박이인 셈이에요. 지금 매교동에 살고 있는데 살던 동네이니 이 경로당으로 다녀요.

2019년 팔달8구역 철거지역(김승일 제공)

정금선　나도 매탄동에 사는데 여기로 매일 와요.

김영선　용인에서 옵니다. 전 수원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고향 찾아 와요.

인계동본동·팽나무고개·교동 경로당은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노인들의 쉼터이자 만남의 장소가 사라질 상황이었다. 다행히 인근의 단독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게 되었다.[10] 1990년 4월 26일 허가받아 인계동 564-20번지에서 30여 년간 노인복지시설로 소임을 다했던 팽나무고개경로당은 2019년 4월 2일 인계동 984-10번지로 이전 개소하였다.

모연환　인계동 984-10 가정집 골목주택. 시에서 보상받은 거예요. 옮겨도 갈 거예요. 여기

1998년 팽나무고개경로당 준공식(수원박물관 제공)

옛 팽나무고개경로당

서 그 쪽으로 가는 사람이 25명, 거기로 새로 입회한다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팽나무고개경로당 회원들

팽나무골에 애착을 느끼며 아직도 뭉치는 주민들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인계동을 떠나 매교동, 서둔동, 고등동, 용인 등 수원 각지 혹은 인근 경기도로 떠난 이들도 마음 속 고향은 팽나무골이라고 말한다. 인계동의 주변부, 가난하고 발전도 더딘 동네였지만 힘든 시절 함께 한 이웃들에 대한 정과 애착심은 어느 동네 못지않다. 몇 년 후 비용을 감당하면서 인계동에 재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주민들의 연결고리는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문찬웅　내 고향은 평택 청북면이 고향이에요. 고향보다도 내가 사는 인계동에 애착심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임익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여기서 낳아서 여태까지 자라왔는데, 재개발로 해서, 그러한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인계동에 사라지고 새로운 아파트촌이 된다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거를 추억으로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해요?

팽나무골은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젊은 부부들,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가격 상승을 바라는 투자자, 전문 중개업소 등이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이곳을 바라보고 있다. 보상금이 부족하고 살 길이 막막하다며 끝까지 버티다 강제 철거를 당하는 주민들도 있다. 팽나무와 정자가 있던 조용한 마을은 바야흐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2019년 재개발 추진으로 철거된 팽나무고개(김승일 제공)

1) 인계동(행정복지센터|https://paldal.suwon.go.kr/submain_view.asp?TopID=sub11&menuid=sub190201).
2) 「수원 인계동 신흥 업무지역 급부상」, 『매일경제』, 1996년 10월 1일(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0100099129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6-10-01&officeId=00009&pageNo=29&printNo=9563&publishType=00010).
3)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참고.
4) 「추억 속의 기찻길 수려선 되살아 난 인계동」, 『e수원뉴스』, 2016년 8월 9일.
5) 「지방도시 혐오시설 이전 고민」, 『동아일보』, 1991년 5월 26일.
6) 「수원 화장장 이전부지 팔달구 하동 최종결정」, 『매일경제』, 1995년 2월 10일.
7) 「구도심의 반격…수원 한복판에 미니신도시」, 『매일경제』, 2018년 6월 20일.
8) 「팔달 8구역 재개발 접어라」, 『인천일보』, 2016년 11월 15일.
9) 「동네에 먼지 풀풀… '민원 쌓이는' 수원 재개발 철거」, 『경인일보』, 2019년 6월 18일; 「수원 인계동 재개발 대치」, 『인천일보』, 2019년 6월 11일.
10) 「수원시 팔달구, 경로당 6개소 새 보금자리로 이전」, 『환경일보』, 2019년 4월 8일.

수원의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인계동만은 아니다. 하지만 인계동만큼 바뀐 동네도 그리 흔치는 않다. 과수원과 고구마밭이었던 자리에 수원시청이 자리 잡았고, 수원에서 유흥가로는 제일간다는 인계동 로데오거리도 생겼다. 인제는 인계동 토박이도 몇 남지를 않았다. 그러나 고향은 물리적 시공(時空)보다 가슴 속에 더 확연한 모습으로 자리 잡기 마련이다.

김준기 시인

3장 | 어느 58년 개띠의 인계동 연가

1. 장다리 냇가에는 붕어가 살았다

인계초등학교는 교문의 위치가 수상하다. 그 위치가 다른 학교나 관공서에 비해 확실히 특이하다. 보통은 정문이 큰길가로 나 있고 후문은 교사(校舍) 뒤로 빠끔히 열려 있는 게 상례인데 인계초등학교는 그 반대이다. 후문이 넓은 도로에 접해 있고, 정문은 오히려 큰길가 편의점이 보이는 자리에서 우회전을 한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야만 하는 골목 한 귀퉁이에 겨우 보인다. 그 이유는 이렇다. 지금 후문이 있는 큰길은 원래는 냇가였고 정문이 있는 골목길이 그 무렵에는 오히려 가장 넓은 길이었기 때문이다. '장다리 냇가'라고 불리던 하천을 덮어 차도를 냈지만 그 옛날에는 그 자리로 제법 물소리까지 내며 냇물이 흘렀다. 냇물 속에는 피라미나 송사리는 물론 제법 씨알 굵은 붕어들도 살았다. '얼게미'라고 부르던 체를 들고 나와 냇가 둑 아래 수초 밑을 한나절 발장구로 몰아대면 물고기들을 적잖이 잡을 수도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 어느 날이었다. 4교시가 끝나고 친구 하나와 남은 점심시간만 물고기를 잡다가 교실로 돌아간다는 셈속으로 장다리 냇가에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아마 고기가 안 잡혔으면 이내 시들해졌을 것이고 5교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교실로

어린 김준기의 세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인계초등학교 앞 장다리 냇가(1975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뛰어들어갔을지도 모른다. 냇물에 발을 담그고 물속에서 채 몇 걸음을 걷지도 않아서 발밑에서 뭔가 꿈틀하는 움직임이 느껴졌다. 지지리도 복이 없던 붕어 한 마리가 그만 내 발에 밟혔던 것이다. 그 후로 신기할 정도로 고기가 잘 잡혔다.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 보이는 대로 뜨는 게 고작인데도 뜨는 족족 고기가 잡혔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정신없이 잡다 보니 어느새 긴긴 여름해가 설핏해졌다. 아차다 싶어 교실로 뛰어들어갔을 때는 이미 수업도 다 끝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까지도 다 퇴근하시고 난 후였다. 땅거미가 창문으로 비스듬히 스며드는 교실에는 책가방 두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튿날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은 한 번씩 웃으며 쳐다보신 다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도 않으셨다.

그렇게, 인계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대부분의 학창시절 추억은 학교 앞으로 흐르던 장다리 냇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장다리 냇물을 경계로 인계동의 모습은 확 구분이 되었다. 학교에서 인계동사무소(현 새마을금고 자리)를 넘어가던 고개 쪽으로는 제법 빽빽

1967년 인계초등학교 7회 졸업생의 3학년 소풍(김준기 제공)
뒷줄 가운데는 오명희 선생님이다.

이 주택들이 자리 잡은 도시 변두리 주택가의 모습이었고 냇물 건너편은 바로 논이었다. 그 논 너머로 솔밭이 보였고, 그 솔밭 너머로 아이들이 흔히 방송국이라고 부르던 송신소 철탑이 우뚝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로는 고구마밭이거나 다시 또 논 혹은 과수원으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도시도, 그렇다고 농촌도 아닌 애매한 동네에 걸친 인계초등학교가 문을 연 해는 1964년이다. 1회부터 6회 졸업생까지는 거의 대부분 지동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인계초등학교로 옮겨와 졸업을 한 셈이고, 학교 문을 연 다음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졸업한 것은 7회 졸업생부터이다. 사실 2회 졸업생들이 인계초등학교에 다닌 것은 겨우 1년이고, 심지어 1회 졸업생은 지동초등학교 별관에서 6학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인계초등학교는 아예 다니지도 않았다. 졸업만 인계초등학교에 와서 했다. 그래도 이들의 애교심 하나만은 알아줘야 한다. 이미 칠십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총동문회 체육대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와 뛰는 노익장들도 있고, 학교행사는 물론 모교 발전을 위한 일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동문들도 꽤 있다. 7회 졸업생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58년 개띠답게 조금은 유난스럽기도 하다. 동문 모임이나 동문 산악회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모이면 항상 시끌벅적하다.

2. 망두산에 얽힌 슬픈 추억

196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만만치 않던 시절이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절대빈곤의 긴 터널을 지나던 때였으니 비단 배고픈 게 춘궁기만이 아니었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점심 도시락을 싸 오지 못했다. 점심시간이면, 원조품으로 들어온 구호식량인 옥수수 가루로 찐 빵을 학교에서 나눠 주었다. 그것도 넉넉지가 못했다. 매일 차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배급받은 빵을 반만 먹고 나머지는 책가방에 넣는 친구도 있었다. 집에 가면 아직 미처 학교에 다니지 않기에 점심을 굶고 형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어린 동생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못 얻어먹는 날의 점심시간이면 운동장 한쪽의 수돗가로 가서 물배를 채우는 경우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 때였다.

하근찬의 소설 「흰 종이 수염」을 보면 사친회비를 못 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나온 '동길'이라는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둑에서 만난 친구와 노는 장면이 있다. 인계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금 육십 전후의 세대들도 더러는 겪었던 일이다. 다만 그 장소가 강둑이 아니라 망두산이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사친회비라고 하지 않고 기성회비라고 했다. 매달 노란 봉투에 넣어 내야 하는 기성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의 환경 속에서 사는 아이들도 꽤 됐다. 납기일이 지나면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았다.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담임선생님이 기성회비를 독촉했고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되돌려 보내는 날도 있었다. 그때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간다. 교무실 한쪽 벽에 각 반의 기성회비 납부 상황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집에 가 보았자 어른들은 모두 일을 나갔을 게 뻔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침에 못 준 기성회비가 그 시간이라고 해서 나올 리가 만무다.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야단맞는 일 아니면 회초리이다. 기성회비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 온 자식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속을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가 있었던, 가난했기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들기도 했던 때였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지금 파밀리에아파트가 있는 자리는 망두산이 있던 곳이다.

망두산과 학교 뒷산(1966년, 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그 자리에 향원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아파트가 다시 재개발되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다. 본래는 청송 심씨 묘역이 있던 곳이었다는데 산을 깎아 편평하게 다져서 부지를 조성하더니, 10년 넘게 풀 한 포기 없는 황토 언덕인 채로 있었다. 학교 운동장보다도 훨씬 넓었다.

오전 10시 전후쯤 같은 처지의 아이들 몇몇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딱히 특별한 놀이도 없었다. 사내아이들은 기껏해야 자치기 아니면 '가이생' 놀이(대규모 병력들이 격돌하는 것을 일컫는 일본말 '가이센(會戰, かいせん)'에서 유래된 말이다. 남녀 구분 없이 많은 인원이 즐길 수 있는 놀이로 공격과 수비로 나누어 진행)를 하는 게 전부였다. 도구도 필요 없었다. 그저 막대기 하나로 땅바닥에 오징어 모양이나 십자 모양의 금을 그어 놀면 그만이다. 한쪽에서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대로 고무줄놀이나 공기놀이를 했다. 그렇게 선생님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다. 점심때가 지나면 슬슬 배가 고파 오기 시작하고 놀이도 시들해진다. 하긴 무슨 신명이 난다고 놀이가 재미가 있었겠는

가. 하나 둘 아이들이 언덕 아래 그늘진 곳으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도 으레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가 한둘은 있기 마련이다. 어제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았다며 만화영화 황금박쥐의 이야기를 신나게 해댄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도 귀에 안 들어온다.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간다. 교실에 두고 온 책가방은 가지고 와야 한다. 다른 친구한테 물어서라도 숙제는 해 가야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일도 숙제검사 받을 일도 없이 학교에 가자마자 쫓겨나와 또 하루해를 망두산에서 보낼지라도.

3. 이삭으로 캤던 고구마가 더 굵었다

수원의 도심에서 벗어나 조금만 변두리로 나가면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이기도 했지만, 인계동은 정말 애매한 동네가 많았다. 인계동사무소가 있던 자리나 화성역이 있던 동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나은 편이었다. 그 동네는 십여 분도 채 안 걸어서 수원 제일 번화가였던 남문이나 영동시장까지 갈 수 있는 괜찮은 주택가였지만, 인도래나 새터 혹은 팽나무고개 등의 대부분 동네는 그렇지가 못했다. 당연히 동네에 따라 빈부격차가 갈렸다. 지금도 인계초등학교 재학생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한다.

팽나무고개에서 지금은 인계동 전원아파트가 자리 잡은 복숭아과수원으로 가는 동네는 특히 애매한 곳이었다. 집집이 직업도 참으로 다양했다. 어느 집은 농사를 짓기도 했다. 영동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부모가 학교 선생님인 집도 한 집 있었다. 그 집들은 잘사는 집이었지만 그런 집은 몇 집 안 되었고 대부분은 막일로 그날그날의 생계를 잇는 집들이었다. 보릿고개를 겨우 넘긴다고 해도 농가가 아닌 집들에서는 먹을거리가 궁핍한 것은 별 차이가 없었다. 어른들이 일터로 돈 벌러 나가면 아이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식량 마련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일 중의 하나가 고구마 이삭 캐기였다. 밭주인이 캐기도 전에 고구마를 캐는 것은 분명 서리이거나 절도이지만 수확이 끝난 밭에서 고구마 이삭을 캐는 것은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팽나무고개 근처에는 고구마밭이 없었다. 고구마밭은 장다리 냇물을 건너 멀리 인도래 근처에 많았다. 인도래 아이들도 같이 인계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었기에 고구마 수확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누구네 밭에서 고구마를 캔다는 소식을 들으면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을 집에 던져 두고 멜빵에 자루를 챙기고 삽 한 자루를 들고 달려갔다. 그리고 멀찌감치 서서 고구마 캐

기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이때 중요한 일이 누가 고구마를 캐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주인이 혼자, 아니면 식구들과 함께 캐면 그 뒤의 이삭 캐기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나 품을 사서 수확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아무래도 일꾼들은 주인보다는 설렁설렁 캐기 마련이다. 그러면 정작 굵은 놈은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은 캐는 사람의 몫이다. 두어 시간이면 한 자루는 실히 캘 수 있었다. 그렇게 캔, 자기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이삭 자루를 메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힘든지도 몰랐다. 가난했다. 그렇기에 그악스러웠다. 그러나 그 그악스러움은 건강한 그악스러움이었다. 그런 강인한 생명력이 있었기에 그 어둡고 긴 가난의 터널을 지나올 수가 있었다.

몇 년 전에 인계초등학교 총동문회의 회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다. 그런 자리는 무슨 정치적 야심이 있다거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웬만큼 자리에 오른 친구들이 떠밀려 마지못해 맡는 경우가 상례이다. 그런데 가난한 시인에 불과한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았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였다. 내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기까지는 어린 시절 친구들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갚는 방법이 달리 없었다. 그저 아무 일이나 친구들을 대신해서 맡아 그 도움에 보답할 길이 있다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맡은 일이었다.

당시 교장 선생님은 김진랑 선생님이었다. 동문회에서 모교 발전을 위해 해 주었으면 하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답이 가슴 아팠다. 기타를 스무 대가량 사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정서 교육을 위해 기타 동아

인계동의 농경지(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1969년 인계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들과 오봉환 선생님(김준기 제공)
학교 중앙현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앞에서 두 번째 줄 좌측 2번째가 김준기이다.

리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게 그리 만만치 않다고 했다. 기타를 사 줄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되는 가정의 아이들은 굳이 그런 동아리가 아니어도 방과 후에 얼마든지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의 레슨을 받지만, 정작 그런 동아리 활동이 꼭 필요한 아이들의 가정은 기타를 사 줄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동문들의 십시일반으로 기타 스무 대와 그에 맞게 필요한 튜너 등을 구하여 기증하였다.

이삭으로 캤던 고구마가 더 굵었다. 가난한 아이들도 모두 우리 인계초등학교의 후배들이다. 더러는 그렇게 어려운 형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훗날 더 훌륭한 자양이 되기를 기대한다.

4. 동네를 다 태울 뻔했던 쥐불놀이

그 시절 겨울철 놀이래야 뻔했다. 썰매타기 아니면 연날리기 그리고 쥐불놀이가 거의 전부였다. 쥐불놀이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일도 있었다. 새마을사업의 열풍으로 거의 모든 집들이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기 전의 일이다. 그래도 인계동에 초가집은 드물었다. 대부분 시멘트 기와를 얹은 지붕이었고 그렇지 못하면 판자를 이어 만든 지붕이었다.

아이들의 쥐불놀이

그 판자로 이은 지붕이 문제였다. 방수 처리를 하지 못한 목재는 비바람에 쉬 삭고 그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방수를 위해 '루삥'이라고 부르던 콜타르를 바른 종이를 지붕 밑에 미리 깔고 판자를 그 위에 얹는 경우가 많았다. 루삥은 쥐불놀이의 밑불로는 최고였다. 종이라서 쉽게 불이 붙었고 아스팔트용 콜타르를 두껍게 바른 것이라 한 번 불이 붙으면 쉬 꺼지지도 않았다. 아이들의 그악스러움에 동네의 야트막한 지붕들의 루삥은 거의 남아나지 않을 정도였다.

쥐불놀이에 얽힌 사건 중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기억이 하나 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그 이삭뿐만 아니라 벼를 털고 남은 짚단도 다 거두어들이기 마련이다. 소를 키우는 집에서는 겨우내 요긴한 여물거리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급히 때는 군불의 땔감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 집이 있었다. 논농사는 제법 많았는데 소를 먹이지 않았고 아궁이도 전부 연탄아궁이로 바꾼 집이었다. 무엇보다 그 집 마당이나 뒤란이 옹색했고 그 집 근처에는 공터도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서인지 짚단을 소 키우는 집의 여물용으로 돈을 받고 판다고 했다.

어느 해 겨울, 임자를 못 만났는지 짚단이 그 집 논 한가운데 산같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아이들은 하필이면 그 집 논바닥에서 쥐불놀이를 했고, 한 친구가 돌리던 쥐불놀이 깡통이 쌓아 놓은 짚단 위로 정확히 날아갔다. 소리 지를 틈도 없이 삽시간에 짚더미에 불이 붙었다. 온 동네가 다 환했다. 누구 하나 도망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타오르는 불꽃을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보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짚단이라는 것이 불이 붙기도 쉽게 붙지만 꺼지기도 쉬이 꺼진다. 동네 어른들이 양동이와 함지박을 들고 뛰어왔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것처럼 타오르던 불길도 차차 잦아들기 시작할 때였다. 그래도 그날 밤에 바람이 불지 않아 천만다행이었다. 바람에 날리기 쉬운 지푸라기 불꽃이 동네 지붕에라도 날아갔더라면 온 동네가 다 탈 뻔했던 일이었다.

5. 잊지 못할 맛, 애배 할머니네 메밀묵

요즘은 한겨울에도 "메밀묵 사려, 찹쌀떡 사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긴긴 겨울밤의 야참을 꼽는다면 살얼음이 동동 뜬 동치미 국물을 퍼다 놓고 화로에 구워 먹는 군고구마가 으뜸이고, 김장김치를 송송 썰어 넣고 왜간장을 조금 섞은 다음 무쳐서 그 위에 깨소금을 뿌려 먹는 메밀묵의 맛 또한 그에 못지않은 별미였다. 그 시절 인계동에는 그 별미 중에서도 으뜸의 맛을 볼 수 있는 메밀묵집이 한 군데 있었다. 지금 전원아파트 자리의 복숭아과수원에서 수리조합 냇가로 비탈길을 내려가다 보면 과수원과 그 비탈의 가파름이 끝나는 고샅에 있는 집이었다. 그 집에는 말 못하는 농아인 부부가 살았다. 말을 할라치면 그저 '어버버' 소리를 내는 게 고작이었기 때문인지 동네에서는 애어른 할 것 없이 통칭으로 남편은 아배, 부인은 애배라고 했다. 그 애배 할머니의 메밀묵은 차진 묵에 더하여 묵을 무치는 솜씨가 남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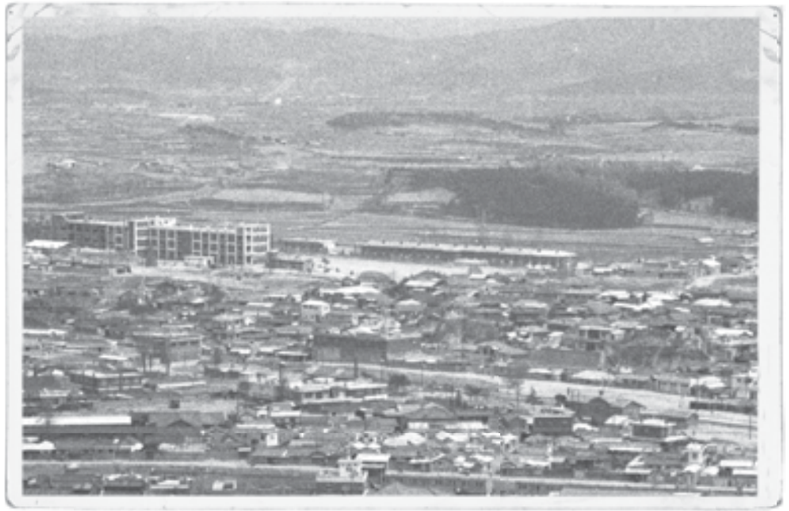
한겨울이면 농한기로 농부들은 할 일이 없던 때였다.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막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도 자연히 일감이 없어, 쉬는 날이 일하는 날보다 더 잦은 게 겨울이었다. 할 일을 잃고 손을 놓은 동네 어른들은 애배 할머니네로 모이기가 일쑤였다. 안방과 건넌방에 그리고 사랑방 할 것 없이 모인 어른들은 메밀묵 내기 민화투로 겨울을 넘겼다.

이런저런 잔심부름은 아이들 몫이었다. 그 집의 사립문 아래가 바로 파밭이었다. 김장철 파를 캐고 난 다음의, 눈이 하얗게 덮인 겨울 파밭은 그대로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한참 뛰어놀다 보면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때 그 메밀묵과 메밀묵을 얼추 먹은 다음 그릇에 비벼먹던 뜨끈한 흰 쌀밥의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해 겨울철이면 매해 한두 번은 그 흉내를 내보는데 영 그 맛이 나지를 않는다.

6. 사내아이들의 결투장 학교 뒷산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학교 폭력이라고 한다. 초등학교에서까지 왕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도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전에도 친구들 사이의 다툼은 있었다. 물론 요즘처럼 조직적인 왕따는 없었다. 조금이라도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친구가 있으면, 오히려 그들은 마땅히 도와주고 감싸 줘야 할 친구들이었다. 싸움은 으레 도토리 키 재기로 고만고만한 사이에서 자주 일어난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했던가. 보통은 교실에서 잠깐 아웅다웅 싸우다 그치지만 조금 길어지면 방과 후 학교 뒷산에서 이른바 맞장을 떴다. 지금 수원공업고등학교가 들어선 자리이다. 그 자리도 그 무렵에는 소나무 몇 그루만 서 있는 언덕이었다. 이때 구경꾼이 없으면 싸움은 흐지부지되고 만다. 제대로 한 판 붙는 경우일수록 구경꾼이 많기 마련이다.

싸움이 격해지면 코피가 터지는 놈이 나오는 일도 다반사이다.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긴다. 보통은 코피가 터진 놈이 싸움에 지기 마련이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었



인계초등학교(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공고 운동장 우측에 있는 단층건물이 인계초등학교이다.

다. 우리들 싸움의 규칙은 울거나 도망친 놈이 지는 것이다. 그래서 반전이 생긴다. 그 무렵 우리들 사이에서는 무슨 속신처럼 피를 바른 손에 흙을 묻혀서 때리면 맞은 자리가 퉁퉁 붓고 낫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그 산에는 유난히 마사토가 많았다. 싸우다가 코피가 터진 놈은 두 손에 일부러 코피를 묻힌 다음, 피 묻은 손바닥으로 탁탁 마사토를 묻히고서 덤벼들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코피를 터뜨린 놈이 겁에 질려 도망을 치기가 일쑤였다. 승자와 패자가 바뀌는 드라마틱한 반전의 순간이다. 그러나 그뿐, 싸움에는 뒤끝이 없다. 함께 어울려 내려와 동네 우물가나 수리조합 냇가에서 땀으로 혹은 피로 얼룩진 얼굴들을 씻고 코 한번 휑하고 풀어 버리면 말끔해지는 일이었다.

7. 못이 자석이 된다?

외지에서 수원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라면 흔히 한번쯤은 의심을 가져본 수원의 지명 중 하나가 화성역일 것이다. 기찻길도 없는데 어찌 동네 이름에 역(驛)자가 붙었을까. 예전에는 그 자리에 역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하루에 몇 번씩 수려선 철길로 기차가 다녔다. 칙칙폭폭 연기를 내뿜으며 협궤 위로 증기기관차가 달렸고 그 후로는 전동차도 다녔다. 일제가 여주평야에서 나오는 질 좋은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던 길로 택한 것이 수려선 철도였다. 그 수려선 철도가 지나가는 역 중에서 인계동에 있었던 것이 화성역이었다.

누가 퍼뜨린 소문인지는 모른다. 철길 위에 못을 놓고 달리는 기차가 그 못을 납작하게 만들면 그것이 자석이 된다는 말이 아주 비밀스레 퍼졌다. 어떤 친구는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자기가 직접 해 보았는데 정말 자석이 되었다고도 했다. 급기야 몇몇이서 내기를 걸었다. 과연 못이 자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매교다리나 화성역 근처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서 우리들의 거사를 실행하기에는 마땅치가 않았다. 방과 후에 학교 뒷산을 넘어서 지동초등학교 가는 쪽으로 모였다. 인계동과 지동의 경계선으로 철길이 지나가는 곳이었다. 그곳은 사람의 눈길도 거의 없는 제법 은밀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우리는 주머니 속에서 못 하나를 꺼내어 철길 위에 놓고 기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거의 한 시간을 넘게 기다린 후에야 화성역 쪽에서 드디어 기차가 출발했다. 숨을 죽이고 기차가 지나가기만 기다렸으나 그 누구의 못도 자석이 되지 않았다. 기차 바퀴가 펑크가 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깟 작은 못에 걸려 탈선이 될 만큼 기차의 관성이 형편없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 썩 권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수려선 철길에서 노는 아이(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어렸기 때문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없는 비과학적인 낭설도 그 무렵에는 꽤나 그럴 듯하여 믿고 실행에 옮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령 차돌을 땅에 묻고 매일 오줌을 누워 주면 그 돌이 곱돌로 바뀐다는 말에 정말 그대로 해 보기도 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곱돌은커녕 한겨울 얼어붙은 뒷마당에 지린내만 진동했다. 그렇다고 그런 황당한 낭설들이 전부 가치가 없다고 할 수만도 없다.

8. 신화가 사라지면 가슴 속의 고향도 사라진다

초등학교 시절의 재미있던 낭설 가운데 방송국에 얽힌 이야기도 있다. 지금은 KBS수

1960년대 송신소 진입로(국가기록원 제공)

도시화되어 가는 동네 풍경(1980년, 수원박물관 제공)

원센터가 들어섰지만 그때는 그냥 솔숲 한가운데 송신용 철탑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 탑 꼭대기에는 항공기의 야간 비행을 위한 항공 장애등이 있었다. 당연히 야간에는 쉬지 않고 불빛을 깜빡거렸다. 누군가 그것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고 했다. 군부독재 정권의 통치 이념과 맞물린 영웅사관에 바탕을 둔, 현충사가 성역화되고 이순신 장군을 갑자기 성웅으로 떠받드는 교육이 한창 열을 올리던 때였다. 아이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거의 하느님과 같은 반열이었다. 그런 이순신 장군이 철탑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깃불이 올라갈 수도 없는 높은 곳에서 저렇게 불빛을 낼 수가 없다고도 했다. 깜빡거리는 불빛은 이순신 장군의 신통력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다. 교실 창밖으로 이순신 장군을 매일 볼 수 있는 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도 은근히 있었다. 그렇게 우리들의 신화는 위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우리들을 비웃었다. 우리를 가리켜 바보들이라고도 했다. 꽤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의 말이었기에 우리들의 신앙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부잣집 막내아들인 그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의 주장을 보다 확고히 다지기 위해 학교에 망

원경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돌아가며 망원경으로 송신소 철탑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다. 우리들의 신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시인 정한모는 그의 시 「가을에」에서 "달에는/ 은도끼로 찍어 낼/ 계수나무가 박혀 있다는/ 할머니 말씀이/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임을/ 오늘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노래했다. 요즘은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만 되어도 달나라에 계수나무가 있고 옥토끼가 방아를 찧는다고 하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콧방귀를 뀐다. 똑똑하다는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은 계수나무나 옥토끼가 아니라 달에 있는 대형 분화구 때문에 생긴 그림자일 뿐이라고 어른을 가르치려 든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는 벌써 그만큼 순수한 동심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 계수나무와 토끼를 믿어야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했던 추억이라고 해도 그 추억 속에 동심이 있었고 그 동심 속에 고향이 있다.

어찌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이다. 물론 수원의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인계동만은 아니다. 하지만 인계동만큼 바뀐 동네도 그리 흔치는 않다. 과수원과 고구마밭이었던 자리에 수원시청이 자리 잡았고, 수원에서 유흥가로는 제일간다는 인계동 로데오거리도 생겼다. 인제는 인계동 토박이도 몇 남지를 않았다. 그러나 고향은 물리적 시공(時空)보다 가슴 속에 더 확연한 모습으로 자리 잡기 마련이다. 추억이 시들면 그 가슴 속에 자리 잡은 고향의 모습도 그 색이 바라기 마련이다. 그래도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직도 그 옛날 인계동 그 자리, 그 집에 그대로 사는 친구가 몇몇은 남아 있다.

4부
마을 II : 장다리천 동쪽 마을

1장

개천이 없던 마을, 인도래

2장

가난한 사람들의 따뜻한 삶이 모인 곳, 인화촌

3장

인도래에서 산 세월

인도래 마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마을 주변에 강이나 개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인도래의 논을 '하늘받이 논'이라고 하였다.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 마을에서 농수를 제공할 개천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인도래 마을은 농수가 부족하여 다른 마을에서 농사를 지을 때 모심기를 하지 못하고 보리를 벨 때인 하지 무렵에 장마가 시작되어야 모을 심을 수 있었다. 제때에 모심기를 하지 못하니 다른 지역보다 농사 수확량이 적어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겨야 했다.

유선영 이천학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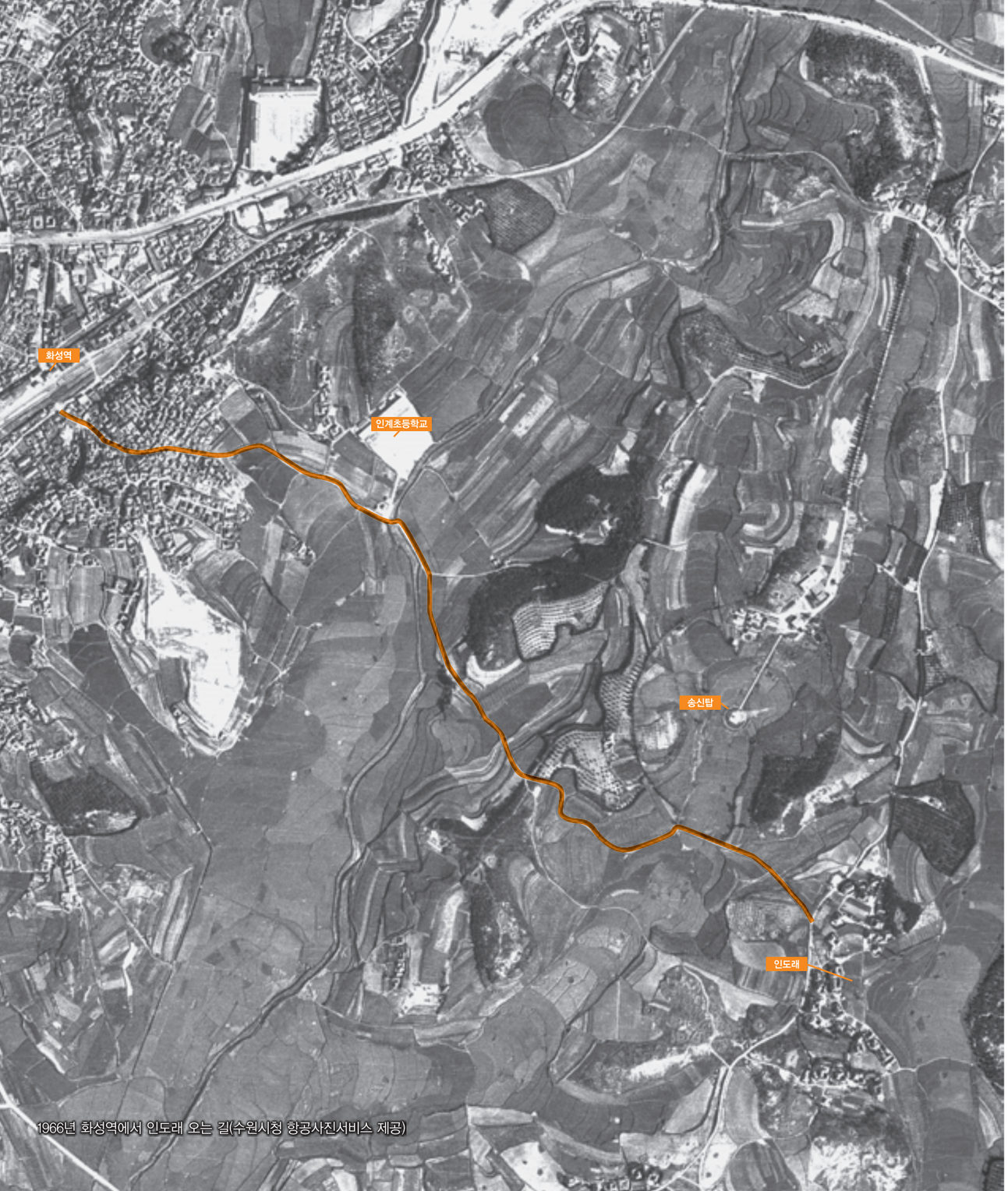
1장 | 개천이 없던 마을, 인도래

1. 외지고 조용한 시골 마을 인도래

인도래 마을은 수원 시내에서 볼 때 외지고 조용한 동네였다. 그래서 한국전쟁 시기에 수원 시내에서 인도래 마을로 피난 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 수원 시내에 살고 있던 집안 식구들이 인도래 마을로 들어와 묵었기 때문에 인도래 사람들이 피난을 갔던 시기에도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피난을 가지 않고 마을에 남았던 신장근(남, 1944년생)은 눈이 내려 하얗게 된 마당에서 중국군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 신장근은 아직도 과수원 자리가 폭격을 맞았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신장근의 집에서 뒷문을 열면 다 보일 정도의 거리에 과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무서워 어른들을 졸라 근처의 산드래미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왔다. 1950년에 김을주(남, 1945년생)는 6살이었다. 엄마에게 업혀 평택으로 피난을 떠났다. 함께 피난 간 형들이 논에서 짚불을 피워 놓고 썰매 타는 것을 구경하였다. 형들이 노는 것을 넋 놓고 구경하다가 솜으로 누빈 바지에 불이 붙었다. 엉덩이가 다 익을 정도로 데어서 허무하게 피난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수원에서 인도래 마을로 들어오려면 화성역에서 내려서 들어왔다. 영동시장에서 출발



1966년 화성역에서 인도래 오는 길(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68년 화성역 구멍가게에서 구입한 소주 한 병을 들고 인도래로 걸어 들어가던 중 송신탑(KBS수원센터) 앞 고갯길에서 김용주가 아들들과 찍은 사진(김용주 제공)

해 화성역으로 와서 인계초등학교를 지나 서울방송 수원송신소(현 KBS수원센터) 쪽으로 오는 게 인도래 마을에 들어오는 옛길이다. 지금은 도로를 편편하게 밀어서 걸어도 얼마 걸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언덕이 있어서 한참을 걸어야 했고, 길 주변으로 주택은 없고 논밭과 산, 과수원뿐이었다.

인도래 마을은 수원역보다는 화성역이 가까웠다. 어디를 다녀오더라도 화성역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가까웠다. 김장철이 되면 인도래 사람들은 수인선을 타고 소래포구를 조금 못 간 야목이나 군자에 가서 새우젓을 받아 왔다. 수려선 열차는 지금 기차처럼 빠르지 않았고 그나마도 언덕에서는 속도가 더 떨어져 아이들이 기차에 뛰어오를 수 있을 정도여서 동네 아이들이 기차에 올라타곤 했다.

1980년대 동수원이 개발되기 전까지 인도래 마을은 시골 마을이었다. 시내에서 멀어서 차를 타기 위해서도 한참을 나가야 했고, 택시도 잘 들어오려 하지 않는 동네였다. 또한 마을에는 이발소나 약국 등의 편의시설도 없었고, 마을 도로는 비포장이라 비가 오면

신발이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다. 1971년에 용인에서 시집을 온 김을주의 아내는 친정의 경우 시골이라도 마을 입구에서 버스를 탈 수 있어 편했는데 인도래는 버스정류장이 너무 멀어 힘들었다고 한다. 밤에 아이들이 아플 때도 약을 사러 시내까지 나와야 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마음고생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다.

교통편이 좋지 않고 시내와 떨어져 있어 1980년대 데모(demo)를 할 때 화염병을 던지거나 차를 두드려서 파손이 되는 것을 염려한 택시기사들이나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차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래 마을로 피난을 왔다고 한다.

2. '하늘받이' 인도래 마을의 농사짓기

인도래 마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마을 주변에 강이나 개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인도래의 논을 '하늘받이 논'이라고 하였다.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 마을에서 농수를 제공할 개천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인도래 마을은 농수가 부족하여 다른 마을에서 농사를 지을 때 모심기를 하지 못하고 보리를 벨 때인 하지 무렵에 장마가 시작되어야 모을 심을 수 있었다. 제때에 모심기를 하지 못하니 다른 지역보다 농사 수확량이 적어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겨야 했다.

인근 산드래미 마을은 방죽과 하천이 있어 농업용수 걱정이 없어 농사가 잘되는 부자동네였기 때문에 산드래미 마을에서 모심기를 할 때는 인도래 사람들이 품을 팔았다. 하지만 하지 무렵 장마가 시작되어 인도래 마을에서 한참 모심기가 시작되면 새터 마을 사람들이 품을 팔러 왔다. 인도래 마을은 농사 수확량은 적었지만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고, 집도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살아 인근에서 부자동네로 불렸다.

김을주의 아내는 시집 와서 인도래 사람들의 농사철 식습관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농사를 짓는 시기에 인도래 사람들은 하루에 일곱 번 밥을 먹어서 참을 해 나르기가 바빴다고 한다.

김을주　일하는 날은 그 집은 죙일 이구 댕기는 거야. 갔다 와서 또 술 내가야 되고. 먹던 습관이 있어서 안 오면 일도 안 해. 사람들이 그쪽만 쳐다보고. 그래도 할 거 다 했어.

김을주의 아내　한 배미 모 심고 나오면 그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때를 맞춰야 되는데 못

1980년 인도래 마을 전경(수원박물관 제공)

맞추면 우리는 그냥 집에서 해 대느냐구.

인도래 사람들이 먹었던 밥을 순서대로 보면 '아침–술–샛밥①–술–샛밥②–술–저녁'이다. 밥을 일곱 번 먹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밥은 아침–샛밥①–샛밥②–저녁으로 네 번이고, 그 사이 사이에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밥상으로 나갈 때는 밥과 김치를 비롯한 소박한 농촌 음식들로 차려내고 술을 마실 때는 막걸리와 겉절이 정도의 간단한 상차림이었다고 한다.

인도래 마을에서 논농사 수확량이 급증한 것은 새마을사업이 시행된 이후이다. 정부에서 지하수 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보조해 주면서 농업용수가 확보된 이후에는, 하늘받이 논이 '고논(濕田)'이 되어 수확이 많아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1980년 인도래 마을 앞 논(수원박물관 제공)

인도래에서 많이 수확했던 밭작물로는 고구마, 열무, 알타리, 배추 등이 있다. 김을주가 어렸을 때도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장사꾼들이 밭떼기로 고구마를 사 갈 정도였다. 고구마밭을 통째로 산 사람들은 일꾼을 데려와 고구마순을 따서 먼저 보낸 후에 고구마를 모두 거둬 갔다. 당시에는 장사꾼들이 수확하고 난 고구마순도 귀해 남은 고구마순을 얻으러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들었다.

고구마 이외에도 열무, 총각무, 배추, 시금치 등의 밭작물도 인도래 사람들에게 큰 수입원이었다. 집집마다 부녀자들이 재배한 채소를 영동시장에 내다파는 것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아주머니들이 짚으로 똬리를 만들어 받치고 광주리에 채소를 담아 머리에 이고 다니던 모습은 인도래에서는 흔한 일상적 풍경이었다. 팔아야 하는 물건의 양이 많을 때는 우마차나 리어카 등으로 실어 가기도 하였고, 개발이 되어 자전거가 나왔을 때는 자전거에 채소를 실어 날랐다.

인도래 마을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인분을 사용하였다. 과거 영동시장에 있는 공동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새벽마다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인분을 퍼가기 위해 똥지게를 지고 모였다고 한다. 김을주의 아버지도 영동시장에 가서 인분을 가져왔는데, "늦게 가면 똥 차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인분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인근에서는 보편적이었던 것이다. 화장실에서 길어 온 인분은 너무 되기 때문에 물과 1 대 1 비율로 섞어서 보리밭에 끼얹어 주었다. 신장근도 영동시장의 화장실에 가서 인분을 길어 왔다고 한다.

이후 정화조 차가 생겨 인근의 공동화장실이나 개인 화장실을 퍼 주었는데, 농사를 짓는 시골에서는 군데군데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인분을 샀다. 김을주는 1968년 군 제대 후 아버지의 권유로 집 뒤에 있는 야산을 개간해 과수원을 만들었다. 과수원에 거름을 주기 위해 인분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인분차가

1980년대 초 인도래 과수원(김을주 제공)

김을주가 키운 꿀복숭아(김을주 제공)

마을에 있는 웅덩이에 인분을 부어 놓고 가면 여기에 물을 섞어 지게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똥바가지로 과수원과 밭에 뿌려 주었다. 인도래 마을의 인분 사용은 마을이 없어지는 1984년까지 이어졌다.

김을주　이제 개발이 돼 갖고 낭중에는 지금 인분차 있죠. 재래식 화장실 지금도 빨아가잖아요. 정화시설이 없으니까. 수원시도 옛날에는 똥차가 빨아다가 시골에다 군데군데 웅뎅이를 파여. 그럼 거기 다 한 차씩 부어 주고 한 차에 얼마씩 받어.

신장근　퍼 갈 때도 돈 받아 가고 와서 버릴 때도 돈 받고. 과수원에는 그 거름이 들어가야 복숭아고 뭐고 달아.

김을주가 키운 복숭아는 꿀복숭아로 유명했는데 복숭아 수확철이 되면 광주리꾼들이

아침에 복숭아를 사러 모여들었다. 당시만 해도 인도래 마을 도로는 비포장도로로 비가 오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길이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도 통행이 어려워서 복숭아를 수확해 놓고도 복숭아를 제때 출하하지 못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애를 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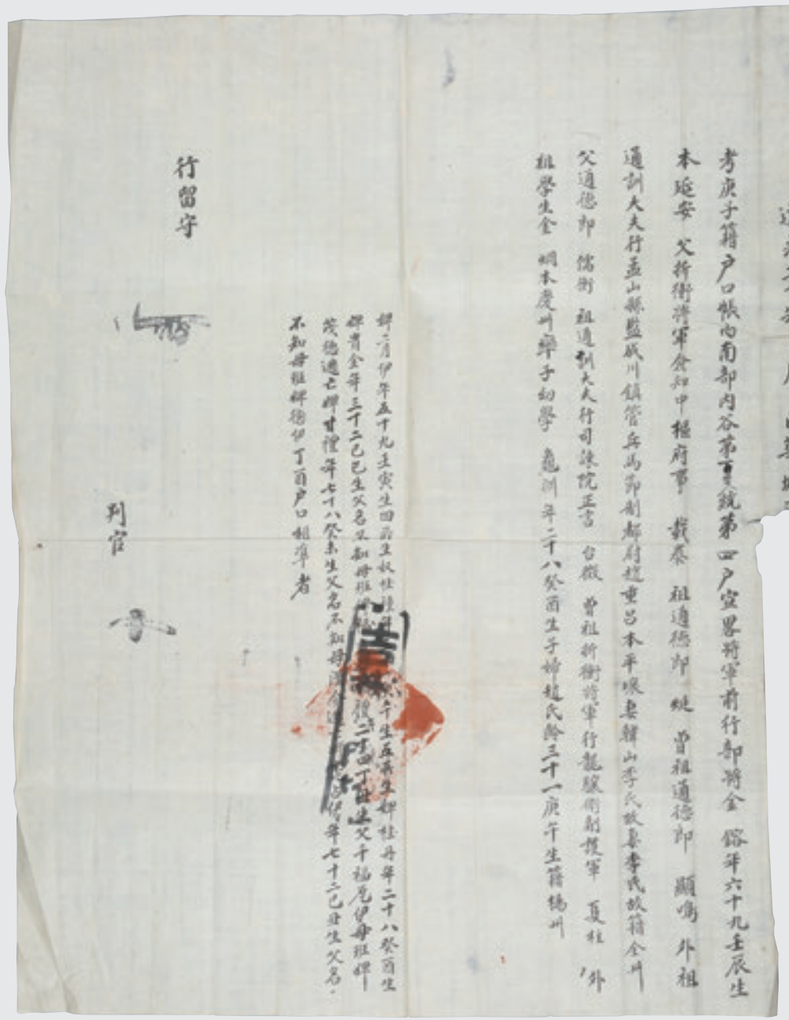
예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파라티온(parathion) 성분의 폴리돌(FOLIDOL)이라는 독한 농약을 많이 사용하였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농약을 주었기 때문에 농약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신장근은 12살 때 소독하기 위해 논에 약을 뿌리다가 쓰러져 도립병원에 실려 가 사흘 만에 깨어난 일이 있었다. 함께 실려 갔던 사람들 중에는 깨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신장근　점득이네 논인가 어디 해다 그런 건데 저기 화장터 있는 데 논에 소독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사흘 만에 깨어난 거야. 옛날에 무슨 마스크가 있어? 더울 때 약 끼얹다가 그렇게 된 건데. 도립병원에 실려 가서 자고 나올 동안 죽은 사람이 여간 많아.

3. 연안 김씨 집성촌이었던 인도래의 공동체 문화

인도래 마을은 연안 김씨가 모여 살던 집성촌이다. 연안 김씨가 언제부터 인도래 마을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안 김씨의 3~4대가 인도래 마을에서 살았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인도래 마을에는 양씨, 안씨, 신씨, 박씨 등의 각성바지들도 살았지만 주로 연안 김씨가 다수를 이루었고, 각성바지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정착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안 김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어도 마을에서 타 성씨들과 세력이 나눠 다툼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신장근은 인도래 마을에서 살던 때를 떠올리며 "거기 살 때는 재미났지. 30가구래도 한 가족하고 똑같앴어."라고 회고한다. 마을 어른 중 누가 생일이라도 맞은 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아침을 먹었다. 예전에는 마을에 방송이 없어서 생일상을 차린 집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아침 드시러 오라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술 한 병 또는 국수 한 관 등을 챙겨 생일을 맞은 어른이 계신 집에 모여 함께 아침을 먹었다. 30여 호 되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이니 상이 부족하여 집집마다 교자상을 챙겨 와야 했다.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방과 대청마루에서 식사를 하고 어린이와 젊은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아 자리를 마련하였다.


道光二十年 月 日華城府
考庚子籍戶口帳內南部內谷第[illegible]統第四戶
本延安 父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諱泰 祖
通訓大夫行孟山縣監成川鎮管兵馬節制都尉趙東巴本平壤妻韓山李氏 外
父通德郎 儒衆 祖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 白嶽 曾祖新衙將軍行龍驤衛副護軍 [illegible] 祖
學生員 嗣本慶州 [illegible] 子幼學 [illegible]
行留守
判官

도광 20년(1840년) 화성유수부 남부면 내곡에 사는 연안 김씨 김용의 준호구
내곡은 인도래 마을의 옛 지명으로 보인다.

1948년 인계동 43번지에 살던 김종천 배위인 문화 류씨의 환갑잔치(김용주 제공)

생신상이라고 해도 고기를 먹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고기는 일 년에 두 번 제사를 지내는 날이나 먹는 게 일반적이었고, 생일상에서 기억나는 음식으로는 콩나물잡채가 있었다. 인도래 마을이 있을 때까지 마을 어른들이 환갑을 맞으면 집에서 환갑잔치를 치렀다. 김을주는 1984년 부친의 환갑 때, 잔치는 하지 않고 자손들이 음식을 장만하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눠 먹었다. 예전에는 윗대 조상들이 환갑잔치를 하지 않아 상을 받지 않으면 자손들도 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김을주의 선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잔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른 환갑잔치처럼 음식을 켜켜이 괴고 화려하게 상을 차린 후 절을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을 음식만 준비하였다.

정월이나 8월 한가위에는 마을에서 돼지를 잡아 대동잔치를 벌였다. 전기가 들어오고 지하수가 콸콸 나와 마을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던 1970년대에는 소를 잡기도 하였다. 당시 마을에서는 농사 이외에도 돼지가 큰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는데,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돼지를 잡아 싼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남은

1960년 용주사에서 개최된 연안 김씨 수원문중 야유회(김용주 제공)

내포(內包, 내장)로 천렵국을 끓어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마을에서 돼지를 잡는 날이면 아이들은 돼지 오줌보를 가지고 보리밭에서 공처럼 차고 놀았다. 평소 지푸라기를 단단하게 감아서 가지고 놀던 아이들에게는 좋은 장난감이었다. 인도래 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척사대회를 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윷놀이를 하고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에서는 만둣국, 떡국 등을 끓여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정월에 모여 윷놀이를 하는 마을의 풍습은 마을이 개발되기 직전인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인도래 마을에는 서낭당이나 마을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곳이 없었다. 일반적인 시골 마을에서 많이 발견되는 장승, 솟대, 서낭당 등은 없었지만, 추수가 끝난 후 집집마다 가을고사는 지냈다.

인도래 마을에는 친목계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 전체가 참여하였다. 회비를 걷어 일 년에 한두 차례 여행을 다녔다. 김을주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세대 중심으로 친목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후손들을 중심으로 친목계가

1980년 인도래 마을 정월 윷놀이(김을주 제공)

이어졌다. 1985년 마을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30여 년간 유지되었으나 최근 3~4년 전에 해체되었다. 오랜 시간 한 마을에서 나고 자라 집안까지도 잘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마을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친목계가 유지되었으나, 친목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40~50대 청장년이 이제는 70~80대의 고령이 되어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김을주 마을 친목계가 있다가 우리 위에도 있고 우리 밑창(아래)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그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친목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야. 이런 식이 되니까 그냥 해체가 되지. 인도래라는 거를 자꾸 박아 주려고 해도 모여야지. 그래서 해체한 지가 3~4년 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추억이 있는 세대까지는 서로 그리워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1970년 김종천의 사랑채에 모인 인계동의 아이들(김용주 제공)

1987년 마을 친구들과 민속촌 근처로 간 소풍(김을주 제공)

하며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마을이 해체될 무렵에 태어나거나 마을이 해체된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과 같지 않았다. 억지로라도 한 마을 공동체라는 것을 심어주고자 하였으나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다.

4. 인도래 사람들의 일상생활

인도래 사람들은 광교산에서 땔나무를 구해 왔다. 해 뜨기 전에 보리밥 한 덩이를 싸 가지고 광교저수지 근처까지 가서 나무를 해 오는데, 김을주와 신장근도 어릴 적 나무를 해 온 경험이 있다. 보통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 동안 나무를 하러 광교산에 50번 정도 다녀왔다고 한다. 광교산에서 마련한 나무는 집에서 난방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동시장에 내다팔기도 했다. 영동시장에는 광주리꾼들이 쭉 늘어선 노점장이 섰는데, 밭작물을 가지고 나온 인도래 부녀자들이 많았고, 다리가 놓여 있던 곳에서는 땔나무를 많이 팔았다.

현재 KBS수원센터가 있는 팔달구 인계로 123번지 자리에는 송신소가 있었다. 서울방송 수원송신소는 1956년에 문을 열었는데, 송신소 주변으로는 안테나가 20~30개가 있고 가운데에 135m의 대형 송신탑이 있었다. 이 송신탑의 불빛으로 수원 시내 어디를 가도 인도래 마을을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대부분은 등잔불이나 호롱불을 사용하였는데 그을음이 심했다. 인도래 마을에서도 등잔불, 호롱불 등을 이용하여 불을 밝혔는데, 그마저도 비싸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송신탑에 철사로 줄을 연결하여 장대에 매, 높은 나무 위에 고정을 시키고 5촉 전구에 불을 켰다. 이것을 계기로 인도래 마을에서는 1950년대에 이미 전깃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을주　그때만 해도 등잔불로 사니까 깜깜하잖아. 근데 이 방송국 송신소가 들어와 갖고 누가 개발했는지, 아 누가 안테나를 만져 보니까 불이 튀더라는 거야. 그래서 철삿줄을 나무에다 길게 해서 집으로 끌어오는 거야. 멀리는 안 돼. 고 울타리 옆이니까 됐지만 새터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야. 인도래는 얼추 다 켰지. 다마는 큰데 촉수가 약해. 5촉짜리밖에 없어. 그게 소케트도 없지. 못을 이렇게 세 개를 박어. 천장에. 그리고 거기에 줄을 감아. 그래 거기 불이 들어오는 거야.

인계동에 설립된 서울방송국 수원송신소 송신탑(1956년, 국가기록원 제공)

1974년 송신소 아래에 자리한 인도래(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75년 인도래 마을 구조(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인근의 다른 마을에서는 197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전기로 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도래 마을에서 1950년대에 전기를 이용하여 불을 밝힌 것은 굉장히 이른 시기이다. 마을 주민들은 인도래 마을에 정식으로 전기가 들어온 것을 이병희 국회의원(1963~1980) 시절인 1971년으로 기억하고 있다.

인도래 사람들은 현재 광교 호수공원으로 바뀐 원천유원지로 소풍을 많이 다녔다. 수영장이 있던 자리는 새로 도로가 생기고 주택가들이 생겨 과거에 비해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원천유원지는 저수지를 둘러싼 방죽이 있고 방죽 위쪽으로는 소나무가 많은 산이 있어서 수원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각지에서 많이 오는 유명한 관광지였다.

민속촌 뒤에 있는 산도 인도래 사람들이 자주 가던 소풍 장소이다. 음식을 장만해 경운기에 싣고 마을 사람 몇몇이 함께 가서 놀다 오곤 하였다. 1970~1980년대는 사람들이 유원지나 산에 놀러 가면 음악을 틀어 놓고 춤을 추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인도래 사람들도 원천유원지나 뒷산에 놀러 가서 흥이 오르면 음악을 틀어 놓고 신나게 춤을 추었다고 한다. 김을주의 아내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어려웠기 때문에 소풍 가서 춤추고 놀지는 못했지만 당시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는 것은 자주 보았다고 한다.

인도래 마을은 개울이 없어 농업용수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마을 곳곳에 한 길 깊이의 방만한 큰 웅덩이를 만들고 빗물을 받아 그 물을 농사짓는 데 이용하였다. 물이 귀한 마을에서 논 한가운데에 있는 물웅덩이는 빨래터이기도 했다. 김을주가 어렸을 때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논 웅덩이에 와서 빨래를 하곤 하였는데, 겨울철이면 꽁꽁 언 웅덩이의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였다.

논 웅덩이는 한여름에 마을 사람들의 기력을 보해 주는 보양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인근의 마을에서는 한여름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더위를 식혔지만, 인도래 마을에서는 논 웅덩이에 모인 미꾸라지와 물고기들이 여름철 보양식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복 무렵에 대동천렵이라고 해서 산에 천막을 치고 큰 가마솥을 걸었다. 닭을 잡아서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웅덩이에서 잡은 물고기들로 천렵 국을 끓여 먹었는데, 이것을 '복달이'라고 하였다. 이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준비한 술과 음식을 먹고 흥이 나면 노래하고 춤을 추며 놀았다.

30여 호의 가구가 길쭉한 타원형으로 빙 둘러 살던 인도래 마을에는 2개의 우물이 있었다. 부면장 집 쪽으로 우물이 하나 있고, 마을 초입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30여 호 중 10여 호는 부면장 집 쪽에 있는 우물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20여 호의 사람들은 마을 초입에 있는 우물을 사용하였다. 개천이나 하천이 없어 물이 귀했던 인도래 마을에서는 식

1980년대 인계동 427번지 김사구 묘소에서 바라본 인도래(김용주 제공)

1980년대 인도래 마을 가옥(김용주 제공)

수와 생활용수를 두 개의 우물에서 모두 충당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을 길러 다녀야 했다. 여자들은 물을 길러 동이에 담아 머리에 이고 다녔고, 남자들은 물지게를 이용해 물을 길렀다.

마을 초입에 있는 우물 바로 앞이 김을주의 집이었기 때문에 김을주가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 우물에 고사 지내는 것을 보았다. 1년에 한 번씩 우물의 물을 모두 퍼내고 수리를 한 후 가마로 우물을 덮어 놓으면, 밤 11시쯤 어머니께서 우물에 고사를 지냈다. 김을주가 어린 시절에 인도래 마을에서는 가을 무렵 수확을 다 마치고 김장을 하기 전에 가을 고사를 지내는 집이 많았다. 시루떡을 해서 고사를 지낸 집에서는 이웃에 떡을 나눠 주었다. 김을주의 어머니는 가을고사를 지낸 후 우물에 가서 밥을 해서 우물의 네 귀퉁이에 얹고 막걸리를 한 잔씩 부어 놓고 우물고사를 지내고 밤 12시가 넘으면 우물을 개방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우물고사를 지내는 동안에 동네 사람들은 우물 근처에 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집집마다 마당에 펌프를 설치하였는데, 인도래 마을은 어디든 조금만 파도 물이 콸콸 잘 나왔다고 한다.

김을주 새마을운동 그거 했으니까 이렇게 먹고사는 거여 지금. 하늘밭이 논이라 비가 와야 모를 심지 뭐. 기계로 뚫으면 물이 펑펑, 그냥 꽂으면 나오는 녀석의 거를. 우리 동네는 400m, 500m 만 뚫으면 물이 나왔어. 그런 걸 미신 때문에, 파면 죽는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아니야.

1971년에 시집와 인도래 마을에서 살게 된 김을주의 아내는 우물에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고 한다. 김을주의 아내가 시집왔을 때는 이미 마을에 펌프가 설치되었고, 시집오고 난 후 바로 수도가 설치되었다.

5. 인도래에 분 변화의 바람

1980년대에 들어 인도래 주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인도래 마을 서쪽으로 1번국도(현 경수대로)가 놓였고, 교회도 들어섰다. 동수원교회는 1982년에 개척한 교회로 인도래 마을이 사라지기 전에 김영운의 집 외양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였다. 인도래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는 김영운, 김병란, 한상구, 신장근을 포함한

1982년 인도래에 세워진 동수원교회(김을주 제공)

일곱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 동수원교회의 창립 멤버로,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은 장로 등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김영운의 아들인 김태성도 장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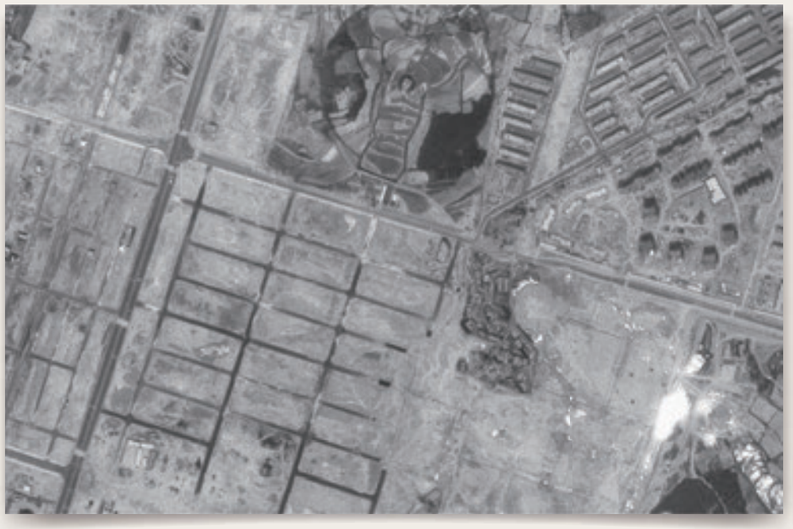
또한 1980년대 중반 인도래 마을에도 도시개발이 추진되었다. 당시에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방법도 잘 몰랐고 지급되는 보상이 적정한 것인지, 마을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고 국가가 하는 일이니 반대할 줄도 모르고 그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과 집에 따라 적은 보상금을 받고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김을주의 집은 인도래 마을의 초입에 위치해 있었으며, 동네에 2개밖에 없는 우물이 마당 끄트머리에 있었다. 김을주는 마을이 사라졌지만 자신이 예전에 살던 집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현재 동수원우체국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은행 자리가 인도래 마을이 사라지기 전에 김을주가 살던 집터이다. 기업은행의 정문이 김을주 집의 대문 위치와 동일하다고 한다.

마을이 수용되고 일부 마을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떠나고, 일부는 남아 있던 1984년 무렵 마을에는 부동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김을주의 집만 해도 4~5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집을 빌려 임시 영업을 했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앞다투어 마을로 들어와 외양간, 행랑채, 건넌방 등을 가리지 않고 빌려 간판을 달고 임시로 영업을 하였다.

김을주는 1989년에 인도래를 떠나 지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김을주는 인도래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인도래 마을이 사라지기 전까지 이곳에서 거주하였고, 개발이 되어 마을을 떠날 때도 수원을 벗어나지 않고 지동으로 거처를 옮겨 7년을 살았다. 인도래에 가서 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내다가 1992년에 마을이 있던 자리에 집을 지었다.

1985년 김을주 집을 빌려 영업을 하던 부동산중개업소(김을주 제공)

개발 직전 인도래 사람들(김을주 제공)



1985년 인도래 주변(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인도래 마을을 제외한 주변 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라져 버린 인도래 마을(수원박물관 제공)

인도래 마을의 현재 모습(김승일 제공)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시세보다 조금씩 더 보상을 받았어도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올 수는 없었다. 평당 5만 원 정도 하던 땅값이 몇 년 후 개발이 되었을 때는 급등해서 보상을 받은 돈으로는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전보다 형편이 어려워졌다. 물론 보상금으로 영통 쪽에 땅을 사 지금은 부자가 된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마을 주민들 중 한두 명에 불과하다.

그 시대에 도시를 끼고 있는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그렇듯이 인화촌도 농사를 본업으로 자리 잡고 있던 농가와 도시에서 밀려온 가난한 서민들, 그리고 소수의 피난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다. 원주민들의 생활은 농업을 중심으로 중농 정도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로 주거형태도 거의가 ㅡ(일)자 형태의 흙벽돌 움막집이었고, 특별한 직업이 아닌 단순노동으로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아낙들은 과수원이나 동네 농가의 밭일을 돕는 날품팔이였고, 남자들은 농번기에는 농사일도 했지만 거의가 도시의 건설현장 잡역부이거나 소수는 벽돌공이나 미장공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김석일 시인

2장 | 가난한 사람들의 따뜻한 삶이 모인 곳, 인화촌

1. '인화촌' 또는 '인선마을'

'인화촌'이라는 명칭은 사실 우리 세대에게는 많이 낯설다. 어떤 연유에서 인화촌이란 명칭이 생기고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며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 명칭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도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니 인화촌이라는 명칭으로 마을을 표기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인화촌 대신 인선마을이라고 불렀고 외부 사람들은 이곳을 권선리라 통칭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인계동과 권선동에서 한 글자씩 뽑아 '인선마을'이라고 불렀다. 이는 어떤 의미에선 양보와 협의정신의 산물인 것이다. 어질 인(仁)과 착할 선(善), 부르기도 좋고 의미도 좋았다. 대표적으로 인선이란 명칭을 사용한 곳은 정미소이다. 유일하게 있던 방앗간에 세로로 된 '인선정미소'라는 커다란 간판이 달린 것이다.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명칭은 '중앙4-H구락부'이다. 대부분의 4-H클럽이 행정구역 명칭을 붙이는 게 상례인데 인화촌은 두 곳 중 어느 한쪽의 명칭을 붙이지 않고, 어우러져 중앙이란 명칭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통합을 지향했던 것이다. 우리 윗세대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부정적인 것을 표현할 때, 흔히 '권선리 장날'이라는

1970년대 지도에 나타난 인계동 인화촌(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지도에 '인화촌'과 '인선'도정공장이 표시되어 있다. 도로 아래쪽은 권선동이다.

말을 앞에 붙이곤 했다. 예를 들어 "권선리 장날 만나자." "권선리 장날 나올려나." "권선리 장설 때까지만 살아라." 등의 표현을 우스갯소리 삼아 사용하곤 하였다. 장이 설 만큼 모든 게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장이 서도 될 것 같이 부산하고 다양한 마을 분위기를 빗댄 표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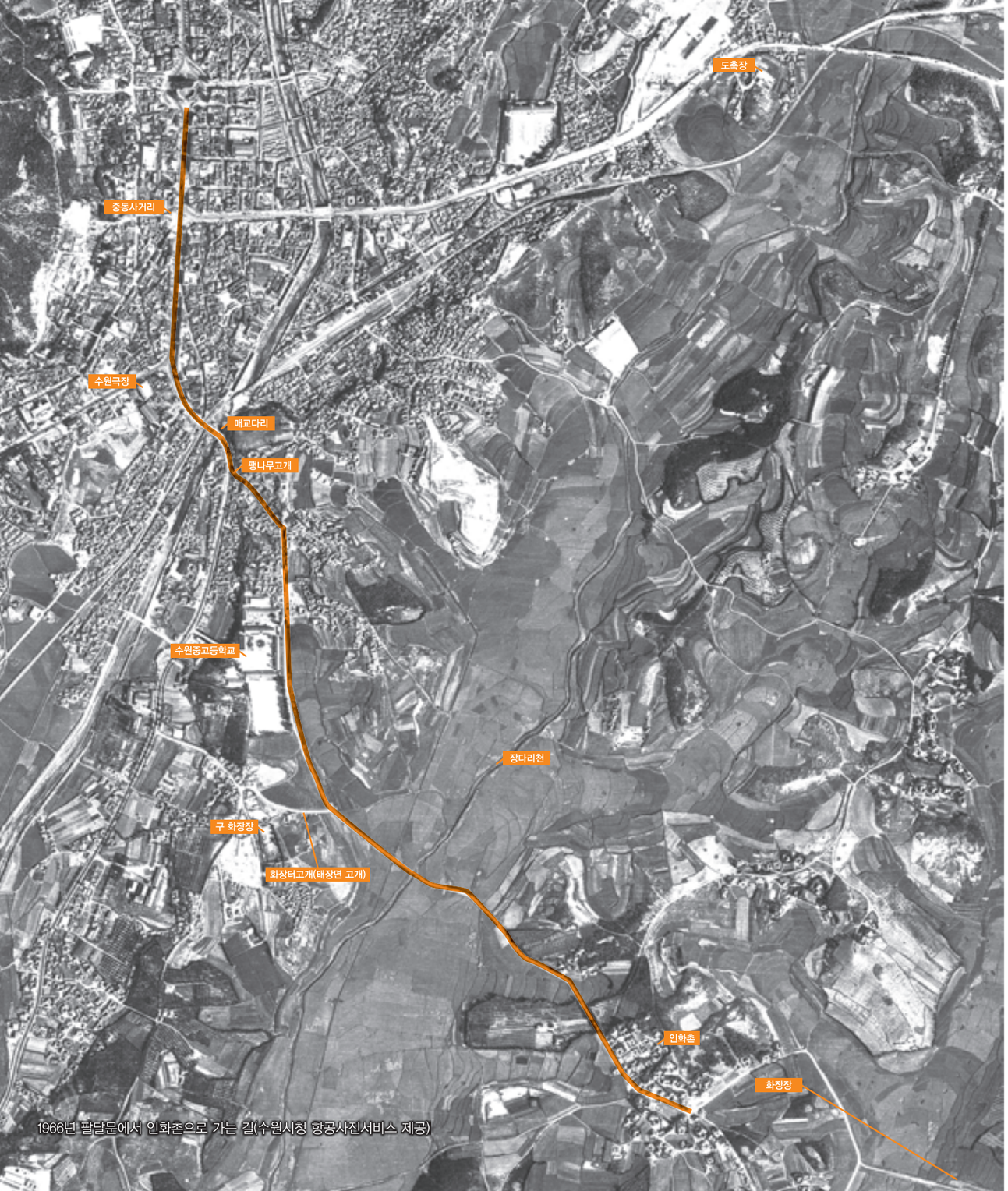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곳, 많지도 적지도 않은 농토와 임야, 많이 배우지도 못 배우지도 않은 교육환경, 큰 병 없이 무난히 일상을 살아가는 주거환경 등, 이렇듯 인화촌은 서민들 삶의 표본장 같은 곳이었지만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사라져 버렸다. 바랭이풀이 무성하던 논 골짜기엔 시청이 들어섰고, 우리들이 뛰어놀던 마당과 골목길은 가구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무의식 저변에 각인된 어질 인(仁)과 착할 선(善)의 의미를 품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2. 그 시절 인화촌 가는 길

수원의 중심가(팔달문)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 보면 중동사거리를 만나고, 조금 더 내려가면 수원극장이 있다고 해서 수원극장삼거리라고 부르는 삼거리(현 교동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지금도 수원극장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영업은 하지 않고 '왕과 비'라는 한복집이 들어서 있다. 이곳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수원역 방향이고 왼쪽으로 가면 수원비행장 방향인데, 왼쪽 길로 접어들면 바로 매교다리를 만난다. 다리 왼쪽으로는 화성역을 지나 종착역인 수원역으로 가는 수려선 협궤열차가 지나가는 철교가 있고, 다리 바로 앞에는 건널목을 지키는 차단기가 열차가 지날 적마다 통행을 제지하곤 하였다.

다리를 지나 인화촌으로 가는 길은 수원중고등학교 정문과 후문을 기준으로 양 팔을 벌리듯 두 갈래로 형성된다. 매교다리를 지나자마자 왼쪽으로 숨을 고를 정도로 가파르고 길게 늘어진 언덕길(팽나무고개)을 올라, 인화촌, 태장면, 반정리 쪽에서 수원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가는 대폿집을 끼고 우측으로 휘어 지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수원중학교 후문을 만나게 된다. 한참 내려가다 들판 건너 저만치 인화마을이 보일 때쯤엔 매교다리에서 갈라져 남쪽(비행장 방향)으로 가다가 수원중고등학교 정문을 지나 우측의 제지공장(지금의 매교상가) 맞은편에 새롭게 만들어진 고개(일명 태장면고개)를 올라 급하게 내려가면 팽나무고개에서 내려오던 길과 만나게 된다. 그다지 넓지 않은 들판이 좌우로 길게 이어져 있고, 농수로와 자연천이 흐르는 장다리천을 지나 비스듬히 우측으로 휘어지는 길을 가다 보면 인화촌에 들어서게 된다.

초입에 동떨어진 오두막집이 하나 나타나는데, 재지기 노릇으로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는 한 쪽이 불구인 홀아비가 살던 집이었다. 입구에 10여 호 정도의 一(일)자집이 좌측 나지막한 동산 아래 계단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곳은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살았다. 그곳을 지나면 좌우 양옆에 커다란 과수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좌측 과수원은 옛날 시청(지금의 가족여성회관) 앞에서 중앙인쇄소를 경영하던 고 임일수의 소유이고, 우측은 우리가 소장네(당시 논산훈련소장 소유) 과수원이라고 부르던 곳이었다.



1966년 팔달문에서 인화촌으로 가는 길(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그 길 양옆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좌측 윗마을은 행정구역상 인계동이고, 우측 아랫마을은 권선동이다(당초 태장면 권선리가 나중에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권선동이 된다). 규모는 대략 170호에 200여 가구로 구성되었고, 집성촌은 아니었지만 타 성씨에 비해 경주 김씨가 많은 편이었다.

마을 중심에 잡화상이 세 개 있었고, 독특하게도 담배는 가게가 아닌 박노을의 집 안에서 판매하였다. 입구에서부터 사분의 삼(3/4) 정도의 끄트막에는 인선정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고, 벼를 말리는 넓은 마당은 봄과 여름·겨울엔 어린이들의 운동장 역할을 하였다. 마당 끝쯤에서 태장면 쪽으로 가는 길이 다시 갈라지는데 오른쪽 길은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샛길이고, 왼쪽 길은 우마차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었다. 야트막한 언덕을 넘어가는 샛길을 가다 보면 오른쪽(아래쪽)으로 아랫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 중심에 함석지붕을 한 양조장과 굉장히 넓게 자리 잡은 공동우물, 그리고 멀리 아래쪽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마을을 올려다보는 형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길옆으로 오두막집이 이어져 있고 좌측 아래쪽으론 조그만 공동우물을 중심으로 20여 호의 집들이 옹기종기 머리를 맞대고 있다. 우마차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왼쪽 동산에 최신식 건물이 우뚝 서 있는데 그곳이 태장면고개에서 이전해 온 수원시립화장장이다(지금의 현충탑 자리). 조금 더 가다 보면 샛길과 만나게 되는데, 마치 무엇인가를 얼싸 안으며 마무리하듯 인화촌을 매듭짓는다.

2.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 시대에 도시를 끼고 있는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그렇듯이 인화촌도 농사를 본업으로 자리 잡고 있던 농가와 도시에서 밀려온 가난한 서민들, 그리고 소수의 피난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다. 원주민들의 생활은 농업을 중심으로 중농 정도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로 주거형태도 거의가 一(일)자 형태의 흙벽돌 움막집이었고, 특별한 직업이 아닌 단순노동으로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아낙들은 과수원이나 동네 농가의 밭일을 돕는 날품팔이였고, 남자들은 농번기에는 농사일도 했지만 거의가 도시의 건설현장 잡역부이거나 소수는 벽돌공이나 미장공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한 환경의 자식들은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직업

을 찾아 도시로 진출하였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기술은 하나쯤 있어야 먹고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던 시기인지라 대부분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였다. 남자들은 철공소나 목공소, 자동차정비공장, 인쇄소, 양복점 혹은 영동시장 점원이거나 배달원으로 갔고, 여자들은 양장점, 미용실, 직물공장이나 직물공장 실패를 만드는 지관공장 등으로 취직을 하였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원주민이나 이주민 간에 큰 갈등이 없었고 그렇기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 간에도 격의 없이 어울리곤 하였다.

재미있는 현상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아이들이 막 소녀티를 벗고 성숙해지자 태장면고개의 사내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지라, 질투 반 흑기사정신 반으로 동네 여자애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과의 시비가 빈번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군가와 이미 눈이 맞은 경우에는 동네 사내들의 관심이 싫고 부담스러워 오히려 짜증을 내는 일도 벌어지곤 하였다. 그러면 온갖 추측으로 소문을 만들어 퍼트림으로써 질투심을 합리화하였고, 그러면 그런 소문을 낸 사내애들은 여자의 부모에게 치도곤을 맞고 하였다.

그 시절 익숙한 가난에 허기진 일상이었기에 우리들의 관심사는 온통 먹거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양조장 술밥과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죽은 어린이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유혹이었다. 이것들을 얻는 방법은 양조장 술밥의 경우 몰래 양조장 앞마당으로 기어들어 가 멍석에 널어놓은 것을 훔쳐 나오는 것이고, 미군부대 꿀꿀이죽은 친구 아버지가 싣고 나오는 리어카 뒤를 밀며 따라다니다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니었다. 양조장 술밥은 열 번이면 여덟 번은 실패였다. 입구 사무실에 있는 아저씨는 이미 우리들의 방법을 알고 있었기에 창문에서 보이지 않게 몸을 낮추어 기어 들어가도 그 아저씨는 감시용 거울을 통하여 우리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야 어렴풋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두 번의 성공도 그 아저씨의 배려였던 것이다. 들키는 날엔 벌을 준다며 우리들에게 양조장 안과 밖 청소를 하게 하였고, 청소가 끝나면 술밥 한 덩어리씩을 쥐어 주곤 하셨다.

가난했지만 인정은 살아 있는 시절이었다. 미군부대 꿀꿀이죽이라는 게 미군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잔반통에 한데 모아 놓은 그야말로 음식물 쓰레기인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와 다시 한 번 끓여서 먹는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가격을 기억할 수 없지만 거저 얻어먹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특권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당시 친구 누나가 미군부대 세탁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친구 아버지가 싣고 나오는 특혜를 받았는데 훗날 어렴풋이 짐작하기로는 비릿한 뒷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친구 누나는

1975년 인계동 인화촌(국토정보지리원 제공)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계동과 권선동으로 나뉜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던 1960년대 인화촌의 할아버지와 손자(김석일 제공)

어느 날 미국으로 떠났다. 꿀꿀이죽을 끓일 때 나는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는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이 군침을 돌게 만들었으며, 재수가 좋은 날은 뜯다 버린 닭다리도 차지하는 행운(?)을 누릴 수가 있었다.

어쨌든 가난한 일상은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속출하곤 하였다. 기름진 꿀꿀이죽 덕에 설사병을 앓는 경우도 있었고, 영양실조에서 오는 부스럼을 달고 살거나 기형적인 배불뚝이 형상을 하기도 하였다. 겨울에는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을 거르고 짜고 남은 찌꺼기를 사다가 사카린을 넣고 끓인 멀건 죽을 마시곤 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조금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으로 술이 취한 우리들은 얼음판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져도 술에 취해 추운 줄도 모르고 놀다가 젖은 채 귀가해서 엄마한테 치도곤을 당하기도 하였다. 겨울밤에는 마을에서 떨어진 금덕상회 소유의 밭 울타리에 심어져 있는 돼지감자를 몰래 캐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곤 하였다. 가난에 아주 많이 익숙한 시절이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모습은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넓은 방앗간 마당에 모여 남자애들은 깡통 차기나 자치기, 술래잡기, 구슬치기, 또는 새끼를 뭉쳐서 만든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기도 하고 명절 때는 동네에서 도축한 돼지 오줌보를 얻어 그것에 바람을 넣고 공이라고 던지고 빼앗는 놀이를 하였다. 심지어는 인근 미군부대(지금의 버스터미널과 이마트 공군체력단련장 부근) 꿀꿀이죽에, 미군들이 사용 후 아무렇게나 버린 콘돔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람을 넣어 질기고 잘 터지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가지고 노는 웃지 못할 일도 빈번하였다. 여자아이들은 줄넘기나 공기놀이 혹은 남자애들과 어울려 같이 술래잡기도 하곤 하였다.

어른들은 추석이나 정월 명절이 되면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은 농악패를 만들어 동네를 돌며 술추렴을 하였고 아낙들은 그저 바라만 보며 즐기는 정도였다. 신이 나는 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꼬맹이들이었다. 1960년대 중반쯤엔 추석이 되면 방앗간 마당에 사륜마차를 몇 대 붙여 놓고 그 위에 멍석을 깔아 엉성하게 무대를 만들고 색종이로 울긋불긋하게 치장을 하곤 빌려 온 마이크를 설치하여 노래자랑을 열기도 하였다. 반주를 하는 악기라야 서투른 기타 솜씨를 가진 친구와 학교 브라스밴드부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알토 색소폰을 가지고 와 어설프게 반주를 하곤 하였는데 당시로서는 최고의 인기를 모았던 퍼포먼스였다. 출연자들에게는 티켓을 팔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하였고 남는 돈으론 주최를 한 청년들의 뒤풀이 경비로 사용하였다.

그 당시 행사의 모든 기획과 무대 사회는 필자의 몫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대단한 엔터테인먼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도 느낀다. 가장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기쁨을 준 것은 라디오 유선방송이 들어오면서부터이다. TV는커녕 라디오도 귀했던 시절이라 유선방송업자가 원하는 집, 원하는 장소에 흔히 피피선이라 불렀던 군대용 전화선으로 스피커를 설치해 주고 라디오를 틀어 주면 채널 선택권도 없이 청취하는 형태였다. 그렇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최신 유행가는 온 동네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특히 아낙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저녁이면 연속극을 듣느라 온 식구가 모여 앉곤 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한여름에 방송되었던 '뻐꾹새가 된 처녀'라는 납량특집 연속이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연속극이 끝나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여가생활도 1960년대 초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호사였다.

윗마을과 아래 마을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 마을로 불리던, 10여 호가 옹가종기 모여 있는 곳에 일명 뱀밭이라고 불리던 기다란 김동의 소유의 밭 자락 끝에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지금도 마을회관 앞 골목에 서 있다). 개인 소유가 아닌 대동 소유인지라 당해연도 은행 수확권을 어느 개인이 대동회 기금으로 일정액을 내놓으면

인화촌 전경(1980년, 수원박물관 제공)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은행을 수확해서 시장에 내다팔곤 하였다. 대충 일 년에 세 가마니 정도 수확할 수 있었으니 상당히 큰 나무였다. 특이한 것은 은행나무는 암·수가 마주보아야 결실을 맺는다는데 이 은행나무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울퉁불퉁하고 어른 팔서너 아름 정도의 암나무 가운데 매끈한 수나무가 마치 짝짓기를 하듯이 끼워져 있었다. 올라가기 편하게 나무가 서 있어 별다른 놀이기구가 없었던 1950~1960년대 어린이들에게는 꽤나 재미있고 스릴이 있는 놀이터였다.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이라 은행이 익어 떨어질 무렵이면 제절로 떨어진 은행을 주워 단단한 은행을 싸고 있는 노란 표피 과육을 빨아 먹곤 하였다. 어른들은 옻이 오른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먹었다. 그리고 냄새는 구린내를 연상시켰지만 맛은 상금하여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기에 무시로 주워 빨아 먹곤 하였지만 누구 하나 옻이 올라 고생한 친구도 없었다. 은행을 팔아 마련한 돈은 대동회에서 여름 호미씻기가 끝날 백중 즈음해서 날짜를 잡아 천렵을 하는 음식과 술값으로 사용되곤 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마을과 달리 마을 수호목(守護木)이라든지 하는 개념이 없고 단지 대동회 경비를 충당해 주는 고마운 나무 정도로 인식되었다.

한편 마을의 어느 집에 경조사가 생기면 지금과 같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개인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조직한 대동계라는 조직을 통해 계원 각자가 백미 한 말씩을 모아 혼주나 상주에게 전달하는 풍습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당시로서는 모두가 궁핍해서 돈이 많이 부족한 시절이라 환전가치가 가장 좋은 쌀을 모아서 전달해 주었던 것이다. 아침부터 시작하면 보통 새참 무렵이나 되어야 계주와 총무가 마무리해서 전달해 주게 되고 마무리가 되면 계원들은 혼주나 상주가 마련한 음식과 술을 대접 받으며 환담을 나누고 하는 꽤나 바람직한 공동체 조직이었다. 그러나 농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계원이 되기엔 많이 부족해 계원 자격은 없었지만,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는 마을 주민이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참석해 국수 한 그릇, 막걸리 한 사발은 마실 수 있게 해 살가운 인심이 모두를 편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동계는 부조행위 이외에도 어느 집에 초상이 나면 청년회원들이 문상객들이 밤샘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일을 치고 음식심부름을 하곤 하였다. 여름에는 마당에 모깃불을 피우고, 겨울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관리하곤 하였다. 그리고 출상을 할 때는 다 같이 협심하여 동네 공동 상여를 메고, 달공을 다지는 등 장례식의 마무리를 하곤 하였다. 잔치 집에서는 바깥마당에 차일을 치고 멍석을 까는 등 손님맞이 준비와 외지 손님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마을 대소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협동심을 발휘하였다.

3. 인화촌 아이들

인화촌의 가장 독특한 현상은 지금 60대 중반 이상의 연령층은 한 마을에 살면서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제각기 다른 학교에 취학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골 마을은 같은 마을 친구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상례인데 인화촌은 그게 아니었다. 부모의 뜻에 따라 태장초등학교, 안용초등학교, 세류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등 중구난방이었다. 인계초등학교는 지동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나중에 인계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전학을 하게 된 경우이다.

그러한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장초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역사가 깊은 학교라 그곳을 졸업한 부모나 삼촌·형이 있기 때문에 태장초등학교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보내고자 했던 집에서는 안용초등학교를, 시골보다 도시를 선호했던 집에서는 세류초등학교를, 공직이나 수원 시내에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부모를 둔 집은 매산초등학교를, 제대로 학군제도가 도입되는 시기의 아이들은 지동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인계초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는 식이었다. 아침이면 같이 뛰어놀던 방앗간 마당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등교를 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곤 했다. 지금도 고향의 또래들 친목회에 참석하다 보면 초등학교에 관한한 공유한 추억이 별로 없기에 화젯거리조차 없다.

별다른 놀이시설이 없던 시절이라 우리들의 놀이는 단순하고 자연적인 것이었지만 한편 위험하기도 하였다. 자동차 배기통에서 나는 휘발유 냄새가 좋다고 차만 지나가면 위험한 줄도 모르고 달리는 자동차 뒤꽁무니를 바짝 따라다녔으며, 일상적인 놀이는 깡통 차기의 경우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곤 하였다. 깡통 차기 놀이란 것이 술래가 조그만 원 안에 뒤집어 놓은 깡통을 지키며 숨어 있던 사람이 몰래 차서 멀리 보내려고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잡으면 술래가 바뀌는 놀이인데, 짓궂고 야비한 술래 아이가 몰래 깡통 속에 돌을 집어넣고 짐짓 모른 체하고 있으면 숨어 있던 아이가 나타나 그것도 모르고 힘껏 멀리 차다가 발을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도 그때의 후유증으로 발이 불편한 친구가 있다. 또 고생잡기라는 놀이는 편을 갈라 제각기 상대를 맡아 마치 지금의 프로레슬링 경기 같이 엉켜 싸우듯 겨루다 어느 한 편이 항복을 하면 끝나는 놀이인데, 끝나고 나면 코피가 터지고 귀가 찢어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더욱 위험했던 것은 공군탄약고(지금의 공군체력단련장 부근)에 몰래 들어가 전투기에 장착하는 삼발이 모양의 실탄을 훔쳐 가지고 나와 탄피로 엿을 사먹고자 뒷동산(현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 산소 날개 구석진 곳에 탄알이 하늘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늘어

1960년대 수원의 아이들(수원박물관 제공)

놓고 꽁지 부분에 마른 잔디를 모아 놓고 불을 지펴 발사가 되도록 하였다. 나중에 어른들이 알고 기겁을 하였지만 우리들은 몰래 숨어서 재미 삼아 이따금 그런 짓을 하곤 하였다. 당시 탄약고 경비가 왜 그리 허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곳 경비실 식당에 마음씨 좋은 동네 아주머니가 군인들 밥을 해 주고 있었기에 가끔씩 놀러가 누룽지도 얻어먹고 하면서 도둑질 계획을 세우곤 하였다.

그러던 중 일대 사건이 발생한 건 어느 해 정월 대보름이었다. 정월 보름이면 이웃 동네(샛터, 인도래)와 쥐불놀이 싸움을 하곤 하였는데, 마주 바라다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 불이 든 깡통을 힘껏 돌려 어느 쪽 불이 더 환한가 하는 싸움이었다. 그해, 형들이 우리에게 공군탄약고에 가서 막대같이 기다란 것을 훔쳐 오라 했고, 우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훔쳐 와 형들에게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조명탄이었다. 조명탄에 불을 붙여 터트리자 사방이 대낮같이 밝아 모두 놀라고 당황해서 도망치기 바빴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자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울면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각자 집으로

도망쳤는데, 나는 마침 동네 굿을 하는 집에 구경을 갔던 할머니한테로 가서 숨었지만 신발을 어디에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맨발로 도망을 쳤던 것이다. 동네 어른들도 놀라고, 송신소(지금의 KBS수원센터)를 지키던 경찰들이 와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갔다. 다행이 동네 어른들이 단체로 오셔서 철부지들 행동이니 용서해 달라고 빌고 읍소해서 풀려날 수 있었다. 이렇듯 일상이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시절이었다.

'중앙4-H구락부'는 인화촌의 유일한 청소년단체인 4-H클럽의 명칭이다. 마을 중간쯤 시내버스가 멈추는 길목 한 편에 초록색 크로버 잎에 흰색으로 H자를 써 넣은 커다란 표지석을 세로로 세워 놓았다. 그리고 저녁이면 누가 말을 안 해도 그곳으로 모여 놀았다. 특별한 놀이가 없던 시절이라, 누군가가 구해 온 유행가 가사집을 보면서 당시 유명했던 남일해, 오기택, 최희준, 이미자 등 가수들의 노래를 대충 손바닥이나 막대기로 돌을 두드리는 식으로 박자를 맞추며 밤늦게까지 부르다 어른들한테 시끄럽다고 야단을 맞곤 하였다.

그런가 하면 귀가하는 마을 아가씨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 실없는 농담을 건네곤 하였다. 원래 4-H라는 것이 머리와 가슴과 손과 건강의 영문 머리글자로 농촌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기계발운동인데 농토가 없이 수원 시내로 일을 나가는 젊은이들은 어정쩡하니 모임에 참석하곤 했지만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런 현상은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또래들끼리 모여서 떠들고 낄낄대며 연예인이나 여자들에 대한 호기심에 방점을 찍었다.

4. 실패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군상들

지역의 특성이랄까? 수원 시내가 가깝고(걸어서 30분 전후) 방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도시 또는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이 제법 많았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실패의 흔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의 자식들은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아주 반항적이고 호전적이거나 아니면 어울리지 못하고 숨듯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형태이다. 워낙 동네가 크고 원주민의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수적 열세에 눌려 감히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이따금씩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다.

기막힌 일도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조암 쪽에서 제법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숨어들 듯 인화촌으로 들어왔다는 얼굴이 약간 얽고 몸집이

1980년 인화촌 풍경(수원박물관 제공)

커다란 남자와 전형적인 한국 여인상을 가진 부부가 있었다. 그 부부 슬하에 남매가 있었는데 여동생은 지관공장에 다니고, 오빠는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지원병으로 해병대에 입대해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와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매일 술은 기본이고 술에 취하면 집안에 엄청난 폭력의 잔해를 남겨 놓곤 하였다. 더구나 우리 모두를 경악시킨 것은 부모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쟁터에서 졸병 다루듯 하였다. 차렷 열중쉬어는 기본이고 걷어차기도 하고, 도망가는 아버지에게 서라고 고함을 지르며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그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매달리며 말리려다 휘둘려서 한 구석에 처박히며 기절하곤 하였다. 아버지 때문에 풍비박산이 난 가정과 학교조차 그만두어야 했던 좌절에 대한 분노가 전쟁터라는 극한 상황을 겪은 트라우마가 겹치면서 그러한 미치광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웃통을 벗어젖힌 그의 가슴팍은 온통 예리한 칼로 그은 자해의 상처와 흔적으로 가득하였다. 어느 날 그는 바람처럼 사라졌고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묻지 못하였다. 자살을 했다는 풍문이 돌긴 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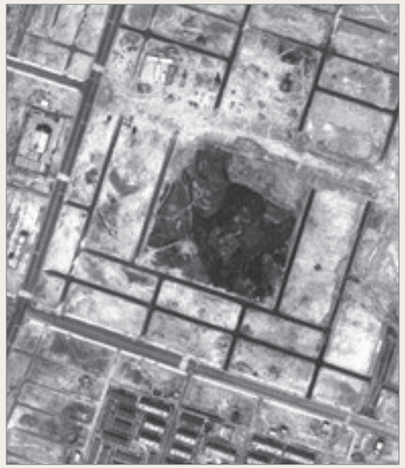
또 한 예는 동네 이발소를 새로 맡아 들어온 이발사 이야기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둘이 사는 너무나 조용한 사람이었기에 의미 없이 일상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상하리만치 그의 노모는 그의 곁을 맴돌며 모든 사람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안절부절못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가 탈영병이었기에 어머니의 일상이 늘 불안했던 것이다. 술에 취한 그가 탈영한 이유가 홀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또래의 젊은이들에게는 말 같지 않는 변명이었고, 그것은 술을 빼앗아 먹는 빌미가 되었다. 심지어 맘에 안 든다고 때리기까지 하였다. 탈영병이라는 약점 때문에 그는 대항도 못 하고 늘 당하기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것에 대한 앙심으로 그에게 이발을 하다가 면도칼이나 가위로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이다. 결국 그도 역시 어느 날 자취를 감추었다. 인화촌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은 배타성과 이기심이 낳은 결과였다.

우리 집에서도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우리 집 건넌방에 비행장 경비대에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는 젊은 내외가 갓난아기를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부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다니러 온 줄 알았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록 가지 않고 눌러앉는 형세가 되었다. 젊은 부부가 사는 단칸방이라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해서 나와 할머니·할아버지가 쓰는 사랑방에서 자도록 배려를 하였다. 그의 일상은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지내다가 어쩌다 우리 집 뒤란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역기를 들거나 하면서 운동을 하였다. 호기심에 따라가 지켜보는 나에게 싸움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창백한 얼굴에 언제나 충혈된 눈이 영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따라하곤 하였다. 어느 날 건장한 낯선 남자 둘이서 들이닥쳐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데려갔다. 동생이 울면서 우리 할머니 품에 안겨 하소연하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부산 남포동의 유명한 깡패로 허구한 날 식구들 속을 썩이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번에 징역 가면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거라며 서럽게 울었다. 비록 스쳐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인화촌에는 실패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군상들이 종종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였다.

5. 변화, 인화촌을 삼켜 버리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공교롭게도 당시로서는 최신식이라는 화장장 시설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화장장이 들어선 것은 마을에 상당한 변화의 단초를 제

1974년



1985년

1990년

1996년

인화촌의 변화(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건물이 우선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최신식 건물이었고, 소문에 따르면 기계 설비를 일본에서 온 기술자들이 했다는 등, 우리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한편, 이따금 차량이 지나다니던 신작로에 영구차가 자주 드나들면서 자동차에 대한 호기심이나 선망의 눈길을 둔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다. 한편 매장문화가 일반적이었던 당시에 화장이라는 새로운 장례문화가 어느새 우리 주변을 차지했다고 하는 현실은 어른들을 상당히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또 다른 엄청난 변화는 전기가 들어온 것이었다. 어둠침침한 등잔불 밑에서 밤을 보내야 했던 마을 주민들에게 전깃불이 주는 엄청남 변화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는 어른들의 말로 짐작할 수 있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가 없지만, 당시 개통식에 젊은 이병희 의원이 참석하여 자신의 공을 과시하는 축사를 하고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늦게까지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어른들은 침침한 등잔불이 아닌, 대낮같이 환하다는 표현으로 반색을 하던 백열등 밑에서 저녁밥을 먹고, 아낙들은 설거지를 할 수 있었고, 어린이들은 등잔불의 심지를 돋우는 일도 콧구멍에 그을음을 묻히는 일도 없이 방바닥에 엎드려 숙제를 할 수 있었으니 그 변화의 크기는 가히 획기적일 수밖에 없었다.

태장면고개는 인화촌의 변화를 이끈 큰 의미가 있는 곳이다. 지금의 분당선 매교역 1번 출구를 옆으로 두고 나지막하게 형성된 언덕길은 원래 화장터고개로 불리던 곳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화장터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던 차에 태장면 망포리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들어가기 위해 새롭게 길을 만들면서 태장면고개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지만 실상은 태장면이라는 지명과는 별 연고가 없이 임의대로 붙여진 이름이었다. 지금도 인화촌 출신의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그곳을 구 화장터고개라고 부르곤 하는 곳이다.

도로가 뚫리기 전의 그 언덕 남쪽 나지막한 곳엔 수원시 화장장과 도축장이 있던 곳이었다. 궁색했던 시절이라 1960년대 초에 수원중학교를 다니던 세대들에겐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학교에 제때에 납부금을 내지 못하면 담임 선생님은 아주 괴롭고 어려운 표정으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졸라 납부금을 가져오라고 수업도 못 듣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곤 하였다. 그러나 집에 간들 뾰족한 수가 없었던 시절이라 우리들은 우우 몰려서 도축장 안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소 돼지를 도축하는 모습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다 귀가하곤 하였다.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일종의 혐오시설인 화장장과 도축장이 있던 그곳 주변에 점차 주택이 들어서면서 도축장은 수원의 서쪽 끝 평동 지역으

2019년 인화촌 일대(김승일 제공)

인화촌 사람들(김석일 제공)

로, 화장장은 수원의 동쪽 끝인 인화촌 끝으로 이전되었다.

곡선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82년 무렵이다. 굽어진 골목길과 논두렁과 따비밭 비탈과 흙먼지 날리던 신작로의 아날로그 감성을 짓누르고 디지털의 개념인 직선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다소 불편해도 익숙하고 정겨웠던 모든 것이 일거에 철거되고 메워지며 바둑판 모양의 택지로 변모되었고, 구불대던 논두렁 밭두렁이 산업도로 개설이라는 명분하에 먹줄을 튕기듯 불도저에 의해 직선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지금의 동수원사거리에서 시작된 직선은 풍성했던 들녘과 우리가 뛰놀던 야산을 뭉개 트리며 수원10전투비행단 비상 활주로로 연결되었다. 우리가 물놀이하고 송사리를 잡던 개울은 콘크리트로 뒤덮이고, 순식간에 가늠하기 어려운 모양새를 만들었다.

허전하고 심란한 마음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멈칫멈칫 고향을 떠남을 망설이다가 이내 가까운 곳으로(매교동, 세류동, 인계동 등) 이사를 했고, 세태를 잘 읽은 일부 주민들은 원주민들이 대토로 받은 땅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지라, 아예 부동산중개인이나 서울 투기꾼들을 앞장세워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며 나름 쏠쏠한 재미를 보기도 하였다. 결국 은행나무와 뒷동산(올림픽공원)만이 마을의 옛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게 되었다. 일순간 부자가 된 친구들은 자연스레 향락에 젖기도 하고, 전문 도박꾼들의 표적이 되어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어 생을 마감하거나 멀리 잠적한 사람도 있었다. 본인은 농사꾼이라 달리 할 일이 없다는 사람들은 멀리 동탄면, 정남면, 태안면 등으로 농토를 마련해 떠났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금 상당한 재산가가 되었다. 이진법으로 상징되는 디지털의 개념이 심장박동 소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디지털시대로의 변화는 숨 가쁘게 진행되었고, 모든 이들의 감정도 메말라지기 시작했다. 경운기를 몰던 친구들이 승용차를 몰게 되었고, 안채와 사랑채, 외양간과 텃밭이 있던 집들이 자취를 감추고 나니 콘크리트처럼 감성이 딱딱해 지며, 형제간 부모 자식 간에 재산 싸움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하였다. 구부러지는 길목에 흐드러지게 피던 코스모스가 자취를 감추고 길가에 흔하던 민들레도 사라졌다. 고개를 돌려야 바라볼 수 있던 세상 풍경이 사라지고, 각진 풍광이 인화촌을 삼켜 버렸다.

어릴 때 봤던 인도래는 작은 마을이었다. 집이 열 채 정도 있었고 사람은 아이까지 30명 정도 되었다. 이웃이 한집안 식구 같이 생일 때에는 죄다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다. 어른들은 낮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밤에는 마실을 가서 사랑방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나이 많은 분은 옛날이야기를 해 주셨다.

박설희 시인

3장 | 인도래에서 산 세월

1. 인도래에서 살아온 보람 있는 시간들, 김승주

1) 인도래에서 유복자로 태어나다

"유복자라 어머니 손에 자랐어요. 누이가 있는데 3살 위예요.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아버지는 기찻길에서 돌아가셨어요." 김승주는 1937년 12월 12일 인계정 446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태어난 유복자이다. 아버지는 광목 등 옷감을 등에 메고 팔러 다녔는데 장을 보고 약주를 한잔하고 귀가하다가 기찻길에서 기차에 치어서 돌아가셨다. 당시 인계정 1구에는 기찻길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기찻길에서 돌아가셨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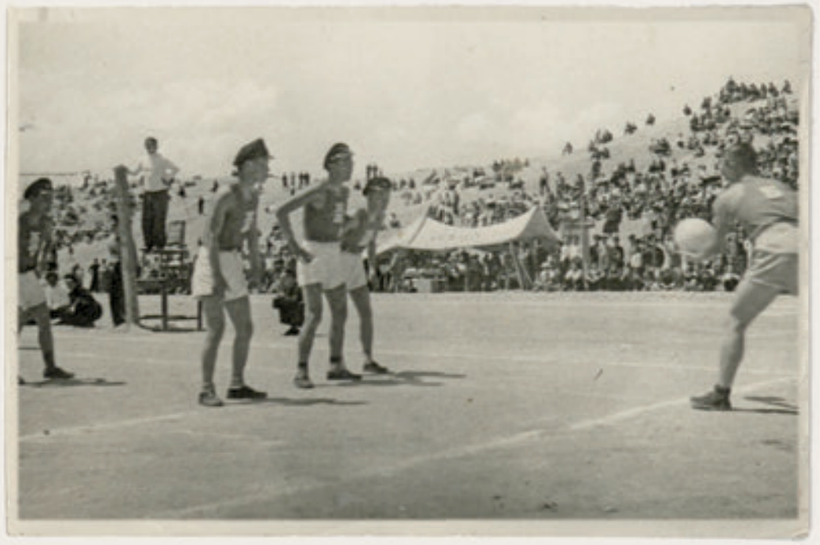
아버지 김지영에게는 김덕영이라는 동생이 있었다. 작은아버지인 김덕영은 농사를 조금 지었고 아버지는 장사를 했던 것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김승주랑 3살 손위인 누이, 그리고 어머니까지 세 식구가 작은아버지 댁에서 같이 살았다.

"어머니는 콩나물을 길러서 팔고 두부나 떡 등을 만들어 팔았어요. 인도래에서 남문시장까지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가서 장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김승주가 고등학교를 졸업

김승주의 백일사진(김승주 제공)

색동옷을 입은 똘망똘망한 사내아이가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다. 곱게 가르마를 가른 채 흰 한복을 입고 오른팔로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도 보인다. 유복자인 김승주와 청상과부가 된 어머니의 모습이 80년 세월을 이기고 선명하게 남아 있다. 1938년에 사진관에서 찍었을 것이다. 이 사진을 찍을 때 김승주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열려진 무한한 가능성만이 펼쳐져 있었을 뿐이었다. 한 장의 사진의 무게가 새삼 눈물겹고 묵직하게 다가왔다.

1951년 삼일학교 졸업사진(김승주 제공)



수원고등학교 시절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 배구 시합(김승주 제공)

할 때까지 장사를 하며 뒷바라지를 하다가 그 후로는 편찮으셔서 쉬셨다. 그 후 가장의 역할은 당연히 김승주의 몫이었다. 함께 살던 작은아버지는 그 이전에 결혼해서 분가했다.

김승주가 태어났을 당시에 인도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20세대쯤 들어서 있었다. "친하게 지낸 사람으로는 수원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재봉 씨가 있어요. 나보다 1년 후배지요. 내가 수원소방서장을 지냈으니 인도래 마을에서는 우리 둘의 명성이 가장 높지요." 나직한 어조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가 다닌 삼일학교는 매향동에 있어서 약 20리 되는 통학길을 혼자서 걸어 다녔다. 가는 데 1시간 반, 돌아오는 데 1시간 반, 도합 3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였다. 길가에 건물은 없었고 함지박을 이고 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삼일학교에서 개천을 따라 버드나무와 느티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비가 많이 오면 개천이 넘쳐서 조그만 가게 안에 있던 물건들이 물에 잠겨서 그걸 말리느라 길가에 꺼내 놓은 것을 종종 보기도 했다.

"인도래 마을은 논과 야산이 많고 개울은 없었어요. 인계정은 1구와 2구로 나뉘는데 1구는 시내였어요. 인계정 1구는 아이들이 떼 지어 놀았어요. 혼자 통학하다가 1구 아이들이 떼로 달려들어 얻어맞아 울면서 집에 가기도 했지요." 삼일학교를 혼자 통학했듯이 삼일중학교 역시 혼자 통학을 했다. 수원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비로소 김재봉이랑 같이 다니게 되었다.

김승주는 고등학교 때에 배구선수였는데, 체육의 날에 학교끼리 시합을 했다. 당시에 수원에는 고등학교라고는 수원고등학교와 수원농고밖에 없었다. 1년에 한 번 가을에 공설운동장에서 배구와 축구 시합을 했다. 축구는 두 학교가 대체로 실력이 비슷했고 배구는 수원고등학교가 수원농고에 늘 이겼다. 이긴 날에는 선배들이 요릿집에서 저녁식사로 한 턱을 냈다. 배구선수 시절을 회상하면서 김승주의 얼굴에 생기가 돈다. 지금도 그때의 배구 모임을 이어 가고 있다. 2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데 열두어 사람쯤 된다. 수원고등학교 5회, 6회, 7회 배구 동문들만 모여 회비 2만 원씩 내고 식사를 같이 한다. 이제는 다들 80이 넘었다.

2) 어릴 때 본 인도래 풍경

김승주가 어릴 때 봤던 인도래는 작은 마을이었다. 집이 열 채 정도 있었고 사람은 아이까지 30명 정도 되었다. 이웃이 한집안 식구 같이 생일 때에는 죄다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다. 어른들은 낮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밤에는 마실을 가서 사랑방에서 대화를 나누

연안 김씨 집안 친목회(김승주 제공)

인도래 집 신축(김승주 제공)

었다. 나이 많은 분은 옛날이야기를 해 주셨다. 한문이 밝은 할아버지 한 분이 학교 못 간 아이들 몇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다. 김종영 할아버지였는데 농사를 짓지 않았고 직업이 없었다. 할머니가 남 일을 해 주고 생계를 꾸려 나갔다. 학부모들이 고맙다고 수업료 대신 보리쌀을 가져다주었다.

김재봉 네 사랑방은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곳인데, 어르신들에게는 마실 장소였고 애들에게는 공부방이었다. 김재봉의 집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김승주의 집과 나란히 있었다. 김재봉의 집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여유가 있었다. 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김재봉네 집도 인도래의 다른 집들처럼 초가집이었다. 벽도 흙과 볏짚이 주재료였다. 당시 인도래에는 자기 논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남의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 어쨌든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였다. 가을이 되면 서로 도와가면서 지붕에 이엉을 새로 지어 올렸다.

국민학교는 전기가 안 들어왔고 등잔불에 석유를 부어 불을 밝혔다. 해방 때 김승주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다. 마을 공터에서 같이 만세 부르고 좋다고 한 기억이 남아 있다. 한국전쟁 때 만 13세였던 김승주는 누님 김옥주와 함께 용인으로 피난을 갔다. 작은어머니의 친정집이 용인에 있어 그곳으로 간 것인데, 사돈댁이라 서로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어머니는 집을 지켰는데 그 이유는 수원 시내에 살던 어머니 친구 한 분이 아들 둘을 데리고 김승주 네 집에 피난을 왔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돼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에는 새벽에 새마을노래를 틀면 다 함께 길과 도로 청소를 했다. 젊은이들은 길가에 코스모스를 심었다. 이때까지도 인도래는 온통 초가집이었다. 인도래에 전기가 들어온 때는 1970년대가 지나서였다. 인도래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동우물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공동 청소를 했다. 그 우물물을 쓰다가 수돗물을 먹었고, 빨래는 물을 길어다 집에서 했다.

3) 소방서에서 평생을 재직하다

김승주는 1965년 10월 29세 때 유재열을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다. 유재열은 1942년 9월 28일생으로, 발 넓은 동네 아주머니가 충남 온양시 배방면 여자라며 소개했다. 유재열과 선을 한 번 보고는 마음에 끌렸는데 그때에는 직업이 없었다. 소방서 시험에 합격한 후에 배방면에 다시 가서 이야기를 나눈 후 혼인 날짜를 정해서 수원에 올라왔다. 즉 결혼 직전에 소방관이 된 것이다. 당시 팔달구에 있었던 현대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1965년 김승주와 유재열의 결혼식(김승주 제공)

우수 소방관 표창(김승주 제공)

이병희 국회의원이 주례를 섰다. 국회의원 선거 때 청년당원으로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 주례까지 해 주었다. 학교 다닐 때 꿈인 정치를 해 보고 싶었으나 국회의원실에서 잠깐 일해 보니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포기하고 소방관을 지원했다.

"불 끄고 하는 걸 보니 멋있게 보였어요. 지금도 그 직업을 권하고 싶어요. 내 사촌동생도 내가 권해서 소방관으로 재직했고 소방과장까지 했지요." 소방관을 하면서 화재 현장을 많이 다녔다. 가장 기억나는 화재 사건은 용인에 가구점 밀집한 곳에서 불이 나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한 일이다. 당시 수원소방서는 용인, 오산, 수원 등을 다 관할했는데 담벼락이 무너져서 부하 직원이 순직하였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했는데 마음이 무척 아팠다.

1960년대 수원소방서에서 근무할 때에는 매탄동 삼성전자 공장 화재로 담이 무너져 동료 직원이 숨졌다. 그 부인이 남매를 데리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3,000만 원을 해줬다. 그때에는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없어서 삼성전자에서 보상을 해 주었다. 대학교까지 다 공부시켜 주고 취업까지 해 주었다.

김승주는 경리계장을 오래 하다가 소방령으로 진급했다. 그리고 경기도청소방본부로 발령이 나서 3년을 다녔고 송탄소방서장으로 2년, 다시 강원도청 방화과장으로 1년을 근무했다. 그 후 수원소방서장으로 발령이 나서 8년을 근무했고 안산소방서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했다. 수원남부소방서가 새로 개소하면서 1년 6개월을 근무했고 거기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4) 인도래를 떠나다

"53~54세까지 인도래에서 살았어요. 인도래는 한동네로 다들 한집안같이 서로 협조하면서 살았어요. 연안 김씨 집성촌이었지요. 그때 같이 살던 사람들이 종중회의에도 나오고 있어요." 김승주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연안 김씨 경시서령공파 수원종중 종친회에 나간다. 연안 김씨 종친회는 우만동 연안빌딩에서 월 1,300만 원 임대료가 나오는데다가 은행에 세 준 건물 임대료와 보상비 이자수익 등을 바탕으로 종친회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중 산이 용인 백암에 있어 일 년에 한 번 시제를 지내고 문중 이사회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며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연다. 수원에서는 만 19세 이상이 돼야 종친회에 가입하는데 약 150명이 된다. 꼭 수원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산,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살기도

김승주

한다. 연안 김씨 종친회는 김승주가 인도래와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인도래 마을이 개발되면서 차차 건물들이 들어섰고, 주민들은 마을을 떠났다. 김승주는 권선구 풍림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받아 1990년에 입주했다. 슬하에 아들 셋, 딸 하나 이렇게 사남매를 두었는데 그의 아내와 어머니까지 일곱 식구가 입주를 했다. 거기에서 큰딸을 시집보내고 아들을 장가보냈다. 그가 소방서를 퇴직할 무렵인 1995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지가 올해로 23년이 되었다. 그 후로도 계속 권선구 풍림아파트에 살다가 두 내외가 살기에 너무 넓고 청소하기가 힘들어 지금의 우만3단지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다. 첫째 아들과 셋째 딸은 권선동에 살고 있다. 둘째 아들만 대전에서 살고 있다. 자식들이 자주 와서 시간을 함께하고 식사도 같이한다.

2. 우물 집 맏며느리의 삶, 윤순애

1) 송산 처자, 인도래로 시집가다

윤순애는 1940년 12월 27일생으로,경기도 화성군 용주사 부근 송산2리에서 윤석동과 이오목 사이에서 2남 3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나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다. 부모님은 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경제적 형편은 그냥저냥 생활은 할 정도였다. 한국전쟁 때 피난을 갔다 왔지만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 송산초등학교를 졸업했으나 가정 형편상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다. 장래희망이 간호사였고 배움에 대한 갈망 때문에 대학생들에게서 야학으로 한문 등을 몇 달 배웠다. 소설책 읽는 걸 좋아해 이불 뒤집어쓰고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 옆집 애가 중학교를 다녀서 그 애가 빌려온 책을 다시 빌리는 것이다.

결혼 전 친구들과 용주사 소풍(맨 오른쪽이 윤순애)

1962년 윤순애와 김준영의 결혼식(윤순애 제공)

그때 읽었던 작품 중에 펄벅의『대지』가 있다. “결혼 전에 나를 짝사랑했던 총각이 있었어요. 언니한테 자신의 마음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언니가 얘기를 안 해 줘서 나는 몰랐어요. 한참 지나서야 언니가 이야기해 줘서 그제야 알았지요.” 동네에서 다들 아버지를 어려워했다. 집안이 엄해 보여 차마 직접 고백하지 못했던 것 같다.

윤순애는 1961년 여름에 김준영과 선을 보고 그 이듬해인 1962년 3월 4일에 결혼했다. 6촌 언니가 자신의 시누이 아들을 중매한 것이다. 시어머니 될 분이 먼저 보시고 마음에 들어 아들에게 권했던 것이다. 서호, 수원극장, 중앙극장 등에서 서너 번 데이트를 한 후, 윤순애의 나이 만 22살에 1934년 6월 24일생인 김준영과 남문 약국거리에 있는 평화예식장에서 한복에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을 올렸다.

2) 시댁식구들 그리고 시집살이

결혼해서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셋(넷 중에서 하나는 결혼), 시동생 등과 같이 살았다. 당시에 시어머니는 50세였는데, 43세 때 늦둥이를 낳아서 그 늦둥이 시동생이 여덟 살이었다. 막내시누이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위의 둘은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였다. 김준영은 6남매의 맏이였으니 맏며느리로 들어간 것이다.

시아버지 김종환(1915년생)은 징병을 면제받으려고 우체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청송 심씨로 200석 지주의 딸이었는데, 일제시기에 시어머니 친정에서 재봉틀을 보내 줘서 시어머니가 재봉틀로 수입을 얻기도 했다.

윤순애는 결혼 후 시댁 여덟 식구의 살림을 맡아 했다. 집에서 밥 해 나르느라 농사일을 할 겨를이 없었다. 집안에 일꾼이 여러 명이 있었다. 밥하고 반찬하고 빨래하고 그 외 일이 너무 많았다. 잡곡 섞은 쌀밥은 논으로 나르고 집에서 먹을 때에는 보리를 더 섞어 먹었다.

살림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시집을 와서 살림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친정과 다른 풍속이 조금 있어 적응을 해야 했다.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상차림의 괴임새를 친정에서는 아버지나 오빠가 다 했는데 시댁에서는 남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들만 일했다. 친정아버지가 솜씨가 좋으셨는데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윤순애도 눈썰미와 손재주가 있어서 보고 배운 데로 상차림의 괴임새라든지, 송편을 빚는다든지 할 때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았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헌 바지저고리와 두루마기를 뜯어서 다시 만들라고 내놓았는데 바지저고리는 전에 만들어 본 적이 있었지만 두루마기는 처음이어서 시

아버지 두루마기를 견본으로 한 번 보고 그대로 지었더니 눈썰미가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었다. 장을 볼 때면 30분 정도 걸어서 남문시장까지 갔다. 향원아파트 주변에 논이었는데 그곳을 지나서 갔다. 명절이면 향원아파트 밑에 떡방앗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떡을 지어 먹었다.

막내 시동생 삼일상고 졸업식 두 명의 시누이와 함께 (윤순애 제공)

시누이 넷이 다 수원에 살았다. 둘은 성격이 온순했으나 나머지 둘은 성격이 괄괄했다. 그리고 남편 김준영 역시 성격이 괄괄했다. 김준영이 옆에 있을 때에도 시누이들이 윤순애를 대하는 언행이 별 다르지 않았다. 특히 둘째 시누이가 괴팍해서 김준영은 평소에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듣고 속으로 괘씸하게 여겼다. 벼르고 벼르다가 둘째 시누이가
말을 함부로 하는 순간 뺨을 때렸더니
시누이가 수면제를 먹고 죽는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다. 큰시누이는 처음엔 안 그러더니 둘째를 좇아 윤순애를 힘들게 했다. 밤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 한창 힘들 때에는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시누이는 고추보다 맵다.”는 속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둘째 시누이도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고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두었다. 지금은 파킨슨병에 걸려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윤순애는 워낙 작고 호리호리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잘 대해 주셨고 잘 감싸 주었다. 시어머니는 김준영를 가리키며 “내가 재 성질 아니까 네가 접어라.”고 달래 주기도 했다. 반면 시아버지는 무척 무섭고 어려웠다. 가부장적 성격이었다. “네가 아니어도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는 식이었다. 그래도 아들 김준영에게는 무조건 내리누르지 않았다. 아들에게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논리적으로 말하였다. 시아버지는 91세까지 살다 돌아가셨다. 시아버지가 68세 때에 70세인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 6남매의 맏며느리로 윤순애는 마음고생이 심했을 뿐 경제적 어려움은 별로 없었다.

3) 인도래 연애사

신랑 김준영(윤순애 제공)

두 사람이 선을 봤을 때 김준영은 처음에 윤순애가 마음에 안 들었다. 면장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였다. 어머니가 먼저 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규수를 선보게 해 준다고 하였다.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어서 몇 번 선을 더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었다. 어머니의 강요로, 심지어 나중에 소실을 들이더라도 어머니의 한이 될까 봐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윤순애와 데이트를 하며 정이 들었고 결혼을 했다. 사실 김준영은 면장 딸 말고도 그 이전 고등학교 때 수여고 졸업한 여자를 좋아한 적이 있다. 그 여자는 교수가 된, 김준영의 친구와 결혼을 했다. 남편이나 아내의 연애사는 서로 상대방에게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지기 마련인데 김준영의 연애사는 비밀이 없나 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누이들이 나에게 '오빠가 누구를 좋아했는데' 하며 고자질했어요." 면장 딸은 시누이와 친구였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흘렀어." 하며 면장 딸을 안 좋아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착한 게 중요하다고 여겼다. 면장 딸은 큰시누이랑 동갑으로 황해도 피난민이었다. 한국전쟁 때 김준영 네 방 하나를 빌려서 살았다. 면장 네 가족은 다섯 명이었는데 면장 딸이 예뻐서 젊은 남자들이 눈독을 들이곤 했다. 동네에 사는 김준영의 친구가 방 하나를 내줘서 면장 딸이 그리로 건너가 살았고 둘이 곧 결혼을 했다.

그런데 면장 딸과 결혼한 김준영의 친구는 초등학교만 나와서 신문기자 행세를 하거나 소독방제 일을 했다. 언젠가 김준영은 윤순애에게 면장 딸이 "지금도 어렵게 사는데 쌀이라도 한 가마니 팔아 줬으면 좋겠어."라고 했다. 모친상을 당해서 가서 보니 힘들게 살고 있더라며 도와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는 윤순애는 당연히 기분이 나빴다. 면장 딸에게 가져다준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김순애는 돈을 주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신랑에게 오해받을까 봐, 가정 파탄날까 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김준영은 서울에 출장 갈 때에는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알아서 그 동네를 배회하기도 했다고 한다.

면장 딸은 윤순애가 결혼한 후에도 시어머니를 뵈러 집에 찾아오기도 했다. 두 번 왔는데 윤순애가 보기에도 키가 크고 늘씬하고 예뻤다. 시어머니는 윤순애에게 면장 딸에 대해 언급했는데 "얼굴이 흘렀다."고, 그래서 반대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 갔는데 시아버지까지도 면장 딸을 가리키며 "저 애하고 아들이 결혼할 뻔했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면장 딸도 김준영을 좋아했던 것 같다고 윤순애는 그 시절을 되짚어 본다. '인도래에서 가장 요란했던 연애사가 아닐까?' 이야기를 죽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새댁의 가슴은 인두로 지지듯이 뜨겁고 아팠을 것이다.

4) 우물 집 맏며느리, 부녀회장이 되다

결혼해서 인도래(인계동 64번지)에서 살았는데, 인도래에는 집이 몇 채 없었다. 인도래 주민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다. "수원시라서 시인 줄 알았는데 초라해서 의외였어요. 시집오니까 등잔불(남포등)을 쓰고 있었어요. 당시 친정에는 전깃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친정 부근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랬나 봐요."

이웃집과 왕래가 거의 없어서 딱히 친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었지만 윤순애는 집 안에 우물이 있어서 공동우물에 나갈 일이 없었다. 두레박으로 물 떠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 집 안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다는 사실을 말해 주기도 한다. 우물

1978년 연무동 원호주택 친구들과 현충사 온양온천 관광(윤순애 제공)

1978년 원천저수지로 간 부녀회 단체야유회(윤순애 제공)

물을 계속 먹다가 펌프는 1970년쯤 사용했던 것 같다. 집은 초가집으로 ㄷ자 형태였다. 안방과 건넌방 마루 부엌이 있었다. 사랑채와 헛간도 있었는데 규모가 컸다.

원래 시댁은 김준영의 할아버지 때부터 잘살았다. 집 안에 있던 우물은 할아버지가 1900년쯤 팠다. 그런데 150년 전 할아버지가 지은 집이 한국전쟁 때 폭격을 맞았다. 그래서 김준영의 부친 때부터는 남의 집 방을 빌려 살았다. 1970년대에 폭격으로 망가진 집터에 새로 기와집을 지어서 살기까지 죽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윤순애는 신혼 때 인도래에 자리 잡은 이후 여러 번 이사를 하게 되었다. 시부모님이 매산동에 셋방을 마련해 살림을 따로 내주신 건 1966년이었다. 그때는 시누이 둘이 출가를 아직 안 했을 때였다. 이후 인도래를 여러 번 들락거리며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역정리를 하는 바람에 1982년도에 영화동으로 이사했는데 그때까지 인도래에 수도는 안 들어왔다.

윤순애는 살림만 한 전업주부지만 인도래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직전에 인도래 부녀회장을 맡았다. 부녀회장은 서로 돌아가면서 맡곤 했는데 윤순애 차례가 되었던 것이

다.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젊은 시절 윤순애를 엿보게 해 준다. 1978년 4월 부녀회에서 원천저수지로 단체야유회를 가서 찍은 사진이다. 26명인데 대부분 파마머리에 한복을 입었다. 뒷줄에 머리를 뒤로 묶은, 젊은 윤순애가 있다. "그때에는 무슨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는 한복을 입었어요. 그게 차려입은 옷차림새였어요." 말하자면 그때의 한복은 지금의 정장 같은 거랄까. 윤순애만 생머리에 양장 차림이다. 다른 부녀회원들에 비해 젊어 보인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셨다.

부녀회장이 되어서 한 일 중에 기억나는 일은 김치를 담가서 회의나 모임에서 같이 먹을 수 있게 하거나 회비나 쌀을 걷어서 떡을 하기도 했다. 살림이 바빠서 동사무소에 갈 때에도 뛰어가곤 했다. 남편은 애들이 어리고 손도 많이 가는데 부녀회 일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부녀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부녀회 단체여행에 못 간 적도 있다.

1979년 큰딸 영복여고 생활관 실습 당시 모습
(윤순애 제공)

5) 인도래에서의 생활은 꼭 거쳐야 할 통과의례

현재 85세(2018년)인 김준영은 인도래가 고향이고 35세까지 인도래에서 살았다. 김준영은 수원농고를 나와서 결혼 직전인 28~29세 때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작물연구소 소속으로 밭에서 난 농작물을 관리했고 그 후 서울농대 서무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59세에 정년퇴임을 했다. 김준영은 연암 김씨 종친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고문을 맡고 있다. 정적인 윤순애와 달리 남편 김준영은 오후엔 체육관에서 주로 지낸다. 과거엔 수영과 기계체조를 했으나 지금은 유산소운동과 헬스 등 근력운동을 매일 하며 자기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윤순애의 도자기 그림

자녀들이 만들어진 윤순애 한지공예 작품집

윤순애에게 80년 가까이 살아온 소회가 어떠한가 물으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서 뿌듯하고 행복해요." 어려서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63세부터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다. 영어와 사군자 그림을 배웠다. 그리고 서예를 4년 정도 배웠다. 72세 때는 도자기를 만드는 걸 배웠고 73세 때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76세 때는 한지공예에 도전해 일 년 만에 3층장을 만들어 방에 들여놓았다.

식당과 거실과 방 등 집안 곳곳에 윤순애가 만든, 서예, 도자기 그림, 수채화, 한지공예 등 작품들이 보인다. 그게 다 취미 생활이라는데 솜씨가 전문가 못지않다. 원래 남다른 손재주를 타고 난 것 같다. 집안이 그대로 생활공예 전시장이다.

한지공예를 배울 때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저도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지공예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해도 돼요."라는 대답을 듣고 용기를 내어 시작했다. 어떤 작품이든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옛날 신혼 초에 시어머니께 칭찬을 들은 것이 다 이유가 있어서였던 것이다. 손재주랄까, 재능이 엿보인다. "이런 거 하면 모든 걸 다 잊게 돼요. 정서에 좋고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어요. 애들이 팔순에 앨범식으로 만든다고 작품들을 다 찍어 갔어요. 영상 작품으로 만든대요."

윤순애는 슬하에 4남매를 두었다. 딸 둘, 아들 둘에 손주가 열 명이다. 1962년생인 딸은 영복여중과 영복여고를 버스 타고 다녔고 동남보건대를 나와 병원에서 임상병리 실험을 하다가 결혼 후 직장에 안 다니고 있다. 1964년생인 둘째 딸 역시 동남보건대를 나와 안양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 셋째인 아들은 수원공고와 부산 동아대를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1969년생인 막내아들은 수성고를 거쳐 연대를 나와 아시아나항공에 재직하고 있다. 이사남매는 주로 생신 때 전부 모인다.

자식들도 다 잘되고 손주들 역시 잘 자라고 있다. 79세 윤순애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인다. 얼굴에서 잔잔한 여유와 행복감이 배어나온다. 오늘의 이 풍요로운 시간이 있기까지 인도래에서의 생활은 꼭 거쳐야 할 통과의례였을 것이다.

윤순애

5부
도시화와 도시공동체

1장
인계동에 세워진
농수산물도매시장

2장
인계동 최초의 아파트,
향원아파트

3장
인계동 언덕에 우뚝 선
구세군 수원교회

4장
다 함께 한울타리, '다울'공동체

5장
인계동 장다리길의 꿈

1970년대 중반에 수려선의 화성역 부지에 청과물도매시장이, 42번국도 주변에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이 설립되었다. 이 지역은 교통망이 발달되어 접근성이 좋았으며 재래시장과 상점들이 밀집된 상업 중심지로서 도매시장과 같은 대규모 유통시설이 설립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인계동에 설립된 청과물도매시장과 수산물도매시장은 성장의 기폭제였던 수려선 화성역이 사라진 인계동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였으며, 1993년 권선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농수산물 유통에 기여하였다.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장은경 경기지역사연구소 연구원

1장 | 인계동에 세워진 농수산물도매시장

1970년대에 수원시는 제조업과 상업 등 도시적 산업이 구축되었고, 대도시를 소비시장으로 확보하면서 근교농업이 발달하였다. 수원시의 인구는 1960년에 9만 명 선이었다가 1970년에 16만 명을 넘어섰고 1975년에 22만 명에 이르렀다. 도시적 산업을 기반으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구와 주택 수요가 증가되었다. 즉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인구 유입을 창출하여 인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면서 수원시 도시 발달을 견인하였다.

이처럼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수원으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필요한 대량의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되었다. 수원 지역은 팔달산 우측에 자리한 정조로와 수원역에서 동수원사거리에 이르는 42번국도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였는데, 1970년대 중반에 수려선의 화성역 부지에 청과물도매시장이, 42번국도 주변에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이 설립되었다. 이 지역은 교통망이 발달되어 접근성이 좋았으며 재래시장과 상점들이 밀집된 상업 중심지로서 도매시장과 같은 대규모 유통시설이 설립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인계동에 설립된 청과물도매시장과 수산물도매시장은 성장의 기폭제였던 수려선 화성역이 사라진 인계동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였으며, 1993년 권선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농수산물 유통에 기여하였다.

수원청과물도매시장 개장식(수원박물관 제공)

1975년 개장된 수원청과물도매시장(수원박물관 제공)

1. 수원청과물도매시장의 설립

수원시는 1974년 12월 2일 인계동 754-10번지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의 개설을 허가받았으며, 허가된 거래품목은 채소류와 과실류, 서류, 버섯류였다. 또한 1975년 1월 6일 수원지구원예협동조합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행운영 계약을 체결[1]한 데 이어 1975년 2월 22일 부지면적이 3,618㎡에 건평이 1,935.55㎡, 점포수가 21개소인 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부)을 개장하였다.[2] 이렇게 조성된 시장은 흔히 '수원청과물시장' 또는 '원예시장', '화성시장'이라고 불렸는데, 수원시의 유일한 도매시장으로서 수원 시민의 식생활과 직결된 채소와 과일류를 대규모로 판매하는 유통시설이었다.

수원청과물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수려선의 화성역사 자리였는데, 이 일대는 수려선이 폐선된 이후 1972년 8월 11일 건설부고시 제339호로 도매시장 시설로 결정되었으나 한동안 잡상인이 운집하여 상행위를 하였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불결하여 주민들의 위생 문제와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던 지역이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 수원지구원예협동조합은 원래 1962년 1월 31일 영동시장 부근에 설립되었다가 1968년 4월 10일에 북수동 274번지 중앙시장 안으로 이전하였다. 그 후 1974년 4월 10일 인계동 754-10번지 대지 485평에 건평 388평의 시설을 갖추고 12월 30일 이전하였다.[3] 수원지구원예조합은 조합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청과물도매시장 운영에 참여하였다. 이에 1974년 철도청 부지 1,762평을 매수한 후 농산물의 판매를 확장하고 가격을 보호하며, 생산과 판매를 일원화하여 유통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대식 원예시장을 신축하고 인근 구거를 복개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원지구원예조합은 1975년 5월 17일 청과물도매시장 세부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는데,[4] 당시 신청서에는 이 시장을 원예시장으로 지칭하였다.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따르면 2억 805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1,762평의 토지 이외에 개인 또는 국가 소유의

수려선 화성역 자리에 세워진 수원청과물시장
(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75년 수원청과도매시장 투시도(수원시청 기록관 제공)

토지 978평을 수용·매수하여 총 2,839평의 부지에 점포 259동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장 시설로는 청과물시장(590평), 농협 공판장(336평), 야채시장(270.6평), 종합시장(389.4평), 각종 도매시장(184.8평)의 건립을 계획하였고, 구거 복개와 하수도 설치 등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구거 복개공사는 길이 47m, 폭 3m의 도로부지(면적 42.3평)를 조합 도매시장 부지로 사용하되 조합 입구에 있는 길이 51.5m, 폭 6.4m의 구거(99.8평)를 복개하여 도로와 주차장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었다. 원예시장 신축계획은 1975년 8월 21일자로 당국의 시행승인을 받아 공사가 추진되었다.

청과물도매시장이 개장된 직후 한동안 운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수원시는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원의 여러 상설시장에 흩어져 있는 도매업자들의 유사 도매행위를 엄금하고자, 1975년 4월 6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섰다. 그러자 다음 날 영동, 중앙, 종로, 매산 등 5개 시장의 청과물 소매상인 100여 명이 수원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는데, 도매시장 청과부 개설로 생계의 발판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도매시장의 물건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예전 유사업자들은 외상으로 물건을

표 1 1975년 원예(화성)시장 실시계획 지적조서

동명	지번	지목	지적(평)	소유자 주소	소유자명	비고
인계동	754–10	대지	485	인계동 754–10	원예조합	
인계동	754–14	철도	150	인계동 754–10	원예조합	
인계동	754–15	철도	214	인계동 754–10	원예조합	
인계동	754–16	철도	213	인계동 754–10	원예조합	
인계동	754–20	철도	100	인계동 754–10	원예조합	
인계동	760–13	철도	11	인계동 754–10	원예조합	
인계동	760–15	철도	230	인계동 754–10	원예조합	
인계동	761–7	철도	29	인계동 754–10	원예조합	
인계동	774–22	철도	207	인계동 754–10	원예조합	
인계동	808–9	철도	123	인계동 754–10	원예조합	
인계동	754–13	철도	43	인천 동구 북성동1가 10	개인	매수
인계동	754–17	철도	200	영동 21	개인	매수
인계동	754–18	철도	100	인계동 747–4	개인	매수
인계동	754–19	철도	100	지동 309–22	개인	매수
인계동	754–21	철도	119	지동 363	개인	매수
인계동	758–12	철도	119	인계동 760–1	화성산업(주)	매수
인계동	760–1	철도	261	용인 기흥면 영덕리 603	개인	매수
인계동	808–1	철도	36		국유지	매수
인계동	754–2	구거	99.8		국유지	수용
계			2,839.8			

표 2 1975년 원예(화성)시장 시설 개요

시설명	평수	동수	예산액(천원)
청과물시장	590.0평	2동	27,700
농협 공판장	336.0평	1동	12,450
야채시장	270.6평	82동	41,139
종합시장	389.4평	118동	63,413
각종 도매시장	184.8평	56동	30,593
구거 복개	99.8평	1개소	5,500
하수도 설치	669.0㎡	1개소	7,700
용지 매수	978.0평	8필지	19,560
계	2,848.6평, 669.0㎡	259동, 2개소, 8필지	208,055

1977년 수원청과물도매시장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주었는데 도매시장은 현금이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장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5] 또한 1977년 4월에는 청과물도매시장을 위탁 경영하고 있는 수원원예협동조합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이명희 등 13명의 중매인이 종로에 따로 도매시장을 개설하겠다고 선언, 분가함으로써 1도시 1시장의 원칙을 깨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그 후 1977년 7월 28일 수원청과주식회사가 청과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 허가를 얻게 되어 본격적인 도매시장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2. 수원청과물도매시장의 현대화 [6]

1970년대 후반 수원의 시세가 확장되고 인계동 주변으로 향원아파트, 세대아파트, 매탄주공아파트 등이 설립되면서 시장 일대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도매시장 면적이 협소하여 청과물 유통을 원활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정된 면적에 판매장을 늘리고자 가건물로 만들어진 화성상가 부분을 입체화시켜 현대화된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즉 노후화된 건물을 재정비하여 현대화함으로써 쾌적한 유통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면모로 일신하고자 하였다.

수원원예조합은 1980년 4월 수원도시계획사업 시장용지 시설사업의 변경결정 및 시행변경을 신청하였고 6월 27일 승인을 얻었다. 승인 내용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수원원예조합은 사업기간 1980년 7월 10일에서 1981년 7월 30일까지 인계동 754-10번지 외 42필지에 화성시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즉 사유지의 매수가 어려워 매장을 확장할 수 없어 입체로 고층화시키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피호로 사용할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립하여 매장의 확장과 품목의 다양화, 상품의 계열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장을 관통하여 인계동사무소 측으로 통과하는 토지를 도로화하고(인계동 754-11, 761-4, 760-10, 761-8), 시장 부지 내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도로(인계동 931-1) 일부분을 시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84년 1월 18일자로 변경(2차)되었다. 사업 시행지도 인계동 754-10번지 외 42필지에서 인계동 754-10번지 외 23필지로 축소되었고, 결정 면적과 시행승인 면적도 줄어들었다. 건축 면적은 3,693.715㎡에서 3,717.715㎡로, 건축 연면적은 7,705.08㎡에서 7,729.58㎡로 각각 늘어났으며 사업기간은 1984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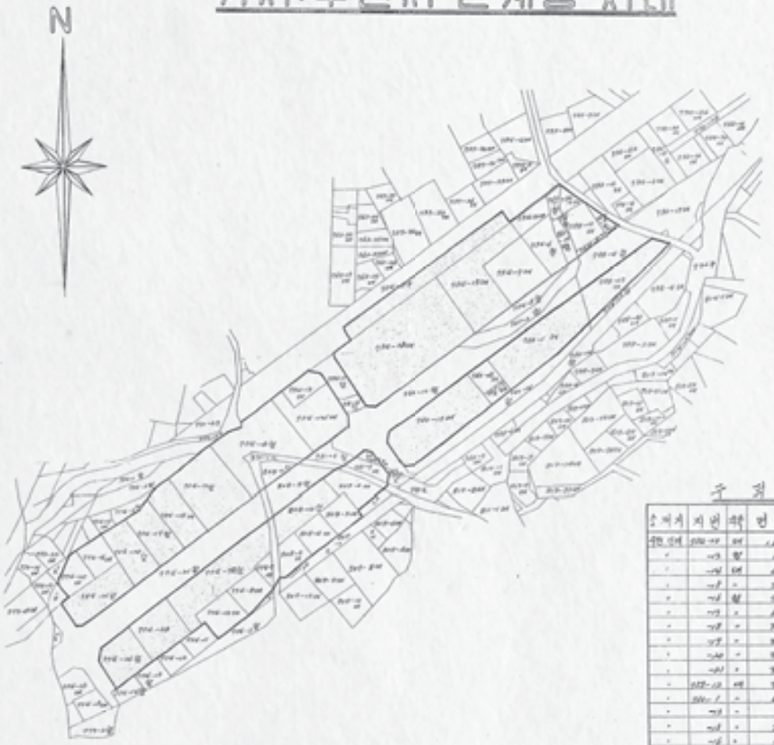
그 후 1984년 10월 23일 다시 계획 변경(3차)이 허가되었는데, 시행승인 면적은 1만

1980년 신축 대상인 야채시장 건물(수원시청 기록관 제공)

1980년 신축 대상인 야채시장 건물(수원시청 기록관 제공)

(시행허가) 지 적 도 scale = 1:1.200

위치: 수원시 인계동 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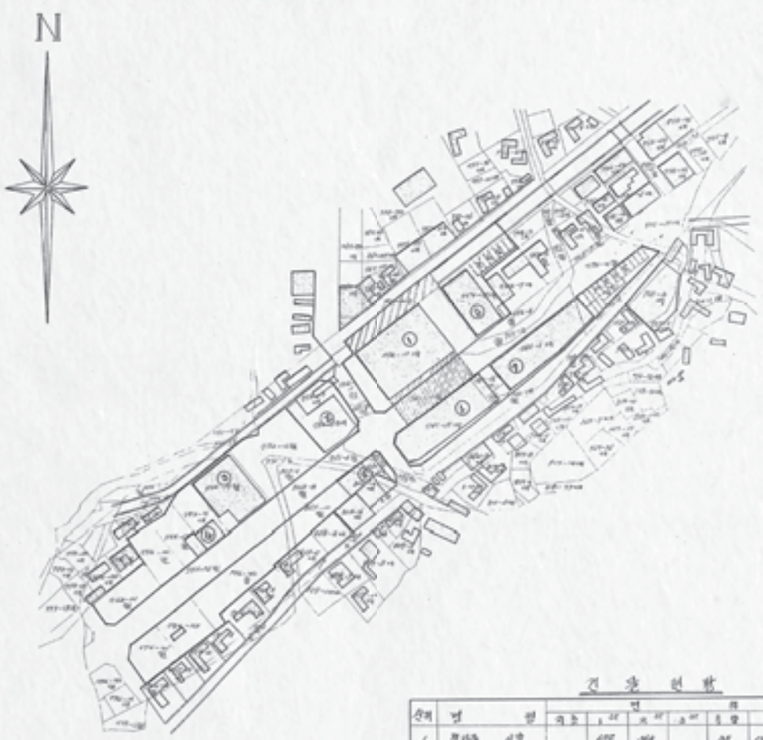


수 지 도

소재지	지번	축척	면적	비고
인계 인계	산96-19	임	1,813	
"	산73	밭	1168	
"	산74	임	6015	
"	산75	"	3743	
"	산76	밭	2946	
"	산77	"	821	
"	산78	"	331	
"	산79	"	3,81	
"	산80	"	9731	
"	산81	"	3,93	
"	산82-12	대	3,93	
"	산82-1	"	3,97	
"	산73	"	32	
"	산74	"	324	
"	산75	"	1145	
"	산77	밭	25	
"	산82-3	"	32	
"	산96-20	"	2,98	
"	산97	"	3,69	
"	산98	"	391	
"	산98-1	"	1178	
"	산99	"	391	
"	산99	"	843	
"	산99-1	도	1,74	
"	산94-2	임	2,94	
계			42,811	

1980년 화성시장 시설 결정구역과 변경구역(수원시청 기록관 제공)

계 획 평 면 도 S = 1:1.200



도시미용현황

용도	명 칭	현 황		비 고
		면 적	비 율	
1	건축 면적	3,693㎡	8.6%	
2	도로 면적	-	-	
3	나 지 상	6,313.38㎡	14.7%	
4	측 구 상	2,144.00	5.0%	
계		42,811㎡	100%	

건 물 현 황

순위	명 칭	층수	면적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4층	면적 계	비 고
1	점포동 시장		4392	3814		315	11521.00	지하 점포
2	"		4882.50㎡	1,411.00			6293.50	"
3	인계 상회 2층		354.00	1128			1482.00	"
4	창 고		1482.00				1482.00	"
5	상 가		1788.00				1788.00	"
6	"		1,815.00				1,815.00	"
7	"		2,112.00	2,112.00	2,112.00	2,112.00	8,448.00	"
8	"		2,112.00	2,112.00	2,112.00	2,112.00	8,448.00	"
계			19,050.50㎡	10,679.00㎡	4,224.00㎡	2,427.00㎡	36,380.50	

1980년 화성시장 시설 계획 평면도(수원시청 기록관 제공)

1980년 1월 수원청과물도매시장(수원박물관 제공)

242㎡로 증가하였다. 원예협동조합 건물 2층을 증축하는 것과 점포(B)를 신축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사업기간도 1984년 12월 30일로 한 달 연장되었다.

표 3 화성시장 시설 변경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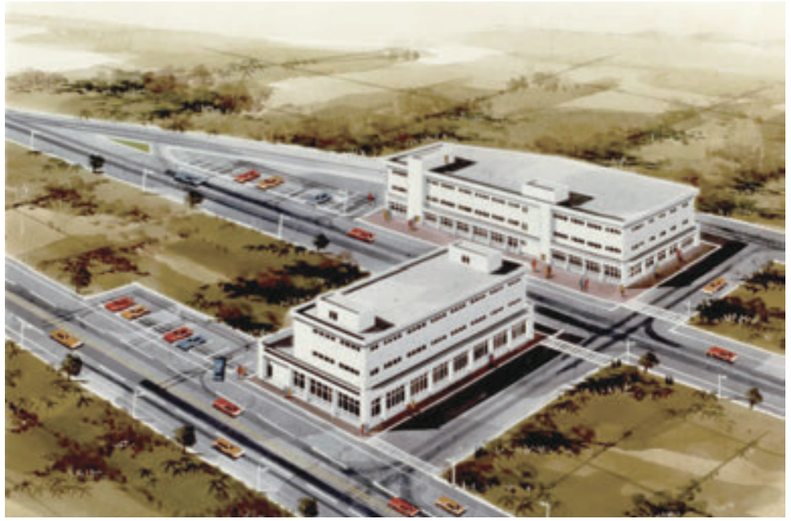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당초(1975년)	1차 변경(1980)	2차 변경(1984)	3차 변경(1984)
결정 면적	12,911.11	13,383	12,541	12,541
시행승인 면적	9,837.00	10,511	9,917	10,242

표 4 화성시장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분	당초(1975년)	1차 변경(1980)	2차 변경(1984)	3차 변경(1984)
건축 부지	4,940.570	3,693.215	3,717.715	4,042.715
야적장	4,116.130	6,213.785	5,172.735	5,172.735
주차장	330.000	604.000	1,026.550	1,026.550
계	9,837.000	10,511.000	9,917.000	10,242.000



1980년 화성시장 조감도(수원시청 기록관 제공)

표 5 1980년 변경 전후 시설 개요

(단위 : ㎡)

시설명	당초(1975년)		1차 변경(1980)	
	동수	면적	면적	비고
청과물시장	2	1,950.00	1,271.00	1~2층 및 옥탑
농협공판장	1	1,225.70	438.95	1~2층
원예협동조합			518.40	1층
창고			158.25	1층
상점			198.75	1층
야채시장	82	895.00	655.47	1층
종합시장	118	1,287.00	2,968.50	지하 및 1~3층, 옥탑
각종 도매시장	56	611.00	1,495.26	지하 및 1~3층, 옥탑
구거부지	1	330.00		
계	260	6,298.70	7,704.58	

표 6 1980년(1차 변경) 화성시장 건축 계획

(단위 : ㎡)

명칭	지층	1층	2층	3층	옥탑	계	비고
청과물시장		672.000	564.000		35	1,271.000	기존
원예협동조합		422.750	16.200			438.950	기존
창고		392.400	126.000			518.400	기존
상가		158.250				158.250	기존
점포		198.750				198.750	기존
점포		655.470				655.470	기존
점포	721.215	758.895	712.215	712.215	63.960	2,968.500	건축예정
점포	411.340	434.700	301.300	301.300	46.620	1,495.260	건축예정
계	1,132.555	3,693.215	1,719.715	1,013.515	145.580	7,704.580	

표 7 1984년(3차 변경) 화성시장 건축 계획

(단위 : ㎡)

명칭	지층	1층	2층	3층	옥탑	계	비고
청과물시장		672.000	564.000		35	1,271.000	기존
원예협동조합		422.750	335.480			758.230	2층 증축
양곡판매장		392.400	126.000			518.400	기존
창고		158.250				158.250	기존
점포(A)		198.750				198.750	기존
야채시장		655.470				655.470	기존
각종 소매시장	721.215	783.395	712.215	712.215	63.960	2,993.000	기존
각종 소매시장	411.340	434.700	301.300	301.300	46.620	1,495.260	기존
점포(B)		88.560				88.560	신축
계	1,132.555	3,806.275	2,038.995	1,013.515	145.580	8,136.920	

3. 수원청과물도매시장의 운영 : 중매인 이상훈의 구술을 중심으로

청과물도매시장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 첫째는 시장 시설을 제공하고 경영하는 개설자, 둘째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매수인(買受人)에게 판매하는 도매인(都賣人), 셋째는 도매인으로부터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매상 또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전매하는 중매인(仲買人), 넷째는 시장에서 구입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매출인(賣出人)으로 구성된다.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을 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시장을 운영 관리하게 하며, 이를 지휘 감독한다. 지정도매인은 법정기준의 보증금을 개설자에게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자격조건을 갖춘 경매사를 임명하여 수탁한 농수산물을 공개경매의 방법으로 상장한 후 대량의 물량을 단시간에 위생적으로 판매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경매사는 상장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순위 결정과 가격의 형성 경락자(競落者)의 결정을 맡는다. 중매인은 주로 평가 및 세분판매에 집중하고 시장의 물품을 도매인을 통하여 경매, 입찰 등의 방법으로 사서 이를 매출인에게 판매한다. 즉 중매인은 생산자와 출하자의 대행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매인과 매출인의 중간에서 대량으로 매매를 행하는 업자이다. 매출인은 주로 소매상과 기타 요식업 등의 영업자인데 시장에서 중매인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신선식료품을 판매하는 자를 가리킨다. 특히 시장이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경매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매매참가인이라 한다. 매매참가인은 대량수요자로서 지정된 도매시장의 경매에 참가하여 자기가 필요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수원청과주식회사는 1977년부터 수원청과물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시장 운영을 맡았는데, 세류동에서 배 과수원을 운영하던 이창수가 설립한 회사이다. 이창수는 세류동 개발로 과수원이 수용되면서 여유자금이 조성되자 이를 투자하여 수원청과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청과물시장 운영이 원활해지면서 시장 내 점포가 50~6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원예조합 건물 뒤로 땅을 임대하여 가게를 넓혔다.

종로청과물시장에서 대한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훈은 1977년 수원청과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한상회를 개업하였고, 1993년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할 때까지 인계동 청과물시장에서 중매인으로 일을 하였다. 중매인은 도매시장 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생산자의 판매가격은 이 중매인의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여 정해지고, 매출인의 구입가격도 중매인의 계산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중매인은 자기 계산

수원지구원예협동조합 공판장

수원청과물주식회사

에 의하여 매매업무를 수행하고 시장 시세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상훈이 처음 대한상회를 개업할 당시에 수원청과주식회사는 과일류만 경매를 통해 거래되었고, 채소류는 경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매를 하려면 농산물이 정량으로 규격화되어야 하는데,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 야채는 상품의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매를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이상훈은 수원청과주식회사의 경매를 통해 과일류의 판매물량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채소류는 본인의 영업력으로 생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였다. 따라서 채소류의 경우 중매인이기보다 위탁상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업 초기에는 이상훈에게 생산물을 위탁하는 출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용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받아다 팔기도 하였다. 용산도매시장은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김장철과 같은 때에는 중매인들이 이를 다 소화할 수 없어 차상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즉 판매권한도 영업장소도 없는 '앞자리(앞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하역도 하지 않은 물건을 차량째 넘겼으며, 이들은 차량 위에서 즉시 물건을 판매하였다.

이상훈은 그의 판매능력을 인정하는 출하자가 많아지면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도 점차 늘어났다. 판매물건은 전국 각지에서 차량을 통해 왔는데 2.5톤 또는 4.5톤 트럭이 주로 이용되었다. 여름야채는 강원도 태백과 정선 등에서 왔고 오이와 상추, 열무 등 신선도가 중요한 야채는 근교에서 받아 왔다. 이상훈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개별 농민 또는 생산자 모임인 작목반과 연결하여 판매물건을 확보하였다. 또한 포전(圃田, 채소를 심고 가꾸는 밭) 상인들의 물건도 받았는데 이들은 사전에 생산자와 계약을 해서 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사두었다가 전국의 도매시장으로 보내는 밭떼기 거래를 하였다.

이상훈은 물건 판매액에서 7~8% 정도의 수수료와 하역비·청소비를 제한 후 생산자에게 물건 값을 주었다. 좋은 가격에 물건을 빨리 팔아서 물건 값을 보내 줘야 생산자들도 계속 물건을 보냈다. 판매할 때는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정가를 정해야 한다. 높은 가격에 팔면 생산자들에게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소매상들에게 불리하여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거래대금이 회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이상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생산자에게 물건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소매상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소매상에게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면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소매상들이 이상훈에게 외상값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사채를 통해 자금을 운영하던 이상훈은 큰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이상훈은 새벽 2시경 시장에 나온 농산물의 물량과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하역반이 물건을 받아 각 가게에 하차해 두었는데, 하차된 물량과 상품의 상태

1991년 12월 김장 배추와 재료들(수원박물관 제공)

1991년 12월 수원청과물도매시장 풍경(수원박물관 제공)

를 확인한 후 중매인으로서의 경험과 연륜을 토대로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였다. 즉 '오늘 두 차밖에 안 들어왔으니 가격은 얼마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방과 서울 도매시장의 시세도 감안하여 정해야 했다. 당시에는 각 지역의 청과물 시세를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중매인을 통해 다른 지역 도매시장의 시세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친분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된 영업기밀인 시세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자체의 신빙성도 따져 가며 판단해야 했다. 이렇듯 370종이 넘는 야채의 상품적 가치를 판단하고 거래가격을 정하는 일은 장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본격적인 장사는 보통 3시부터 시작되었다. 8시경이면 전체 물량의 3분의 2 정도가 판매되었으며, 이때까지 팔리지 않은 물건은 잔품으로 처리되었다. 대체로 9시경이면 장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때쯤에 아침식사를 하였다. 12시경에는 새벽장사로 못 잔 잠을 보충하기 위해 낮잠을 잤다. 오후 4~5시부터는 다시 내일 장사를 준비하였다. 하주를 만

현재도 종로청과물시장에서 대한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훈

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물건을 보냈는지를 확인하고 외상값을 수금하기 위해 여러 상설시장의 소매상들을 방문하였다. 이상훈이 운영하던 대한상회에서 청과물을 구매하는 이들은 화서시장, 역전시장, 매교시장, 지동시장, 영동시장 등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조업체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신진상사(삼성전자 납품)와 태유상사, 김치공장과 식당 경영자, 일반 소매상, 잔치 등의 이유로 대규모 재료가 필요한 개인 등이었다. 이렇게 물량 확보나 수금 등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점검하다 보면 늦은 밤이 되어야 일과가 마무리되었다. 그는 "내 몸과 돈을 바꾼 거야."라며 중매인의 고단한 삶을 말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농산물을 거래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훈은 인계동 청과물도매시장과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쳐 종로청과물시장으로 장소를 바꾸었을 뿐 오늘도 채소·과일과 함께 하루의 새벽을 맞고 있다.

1993년 수원청과물도매시장(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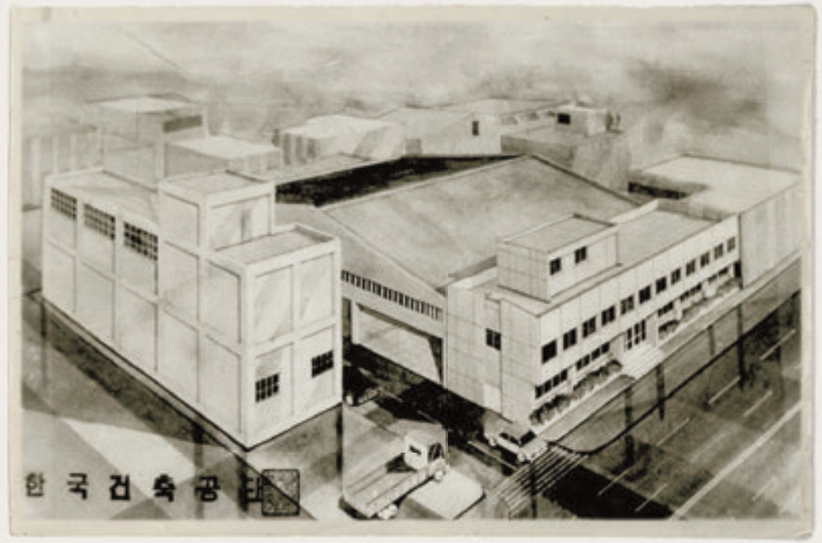
수원청과물도매시장 건물의 현재 모습

4.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내륙지 수산물 공판장[7)]

경기남부수협(당시 화성군어업협동조합)은 소속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의 최종 소비도시인 수원시에 1974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내륙지 수산물 공판장을 신설하였다. 경기남부수협은 1943년에 발족한 수원어업조합에 기원을 둔 조직으로, 수원어업조합은 1962년 해제되었다가 1962년 4월 1일 수협법에 따라 화성어업협동조합으로 새롭게 발족되었다. 화성어업협동조합은 1973년 1월 화성군어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경기남부수협으로 불리고 있다.

1970년대 초반에 수원시에는 수산물도매시장이 없었고 여러 상업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수산물이 거래되었다. 어업협동조합은 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으로 유통체계를 일원화하여 유통경로를 단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저온 유통시설의 설치로 저렴한 우량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화성군어업협동조합(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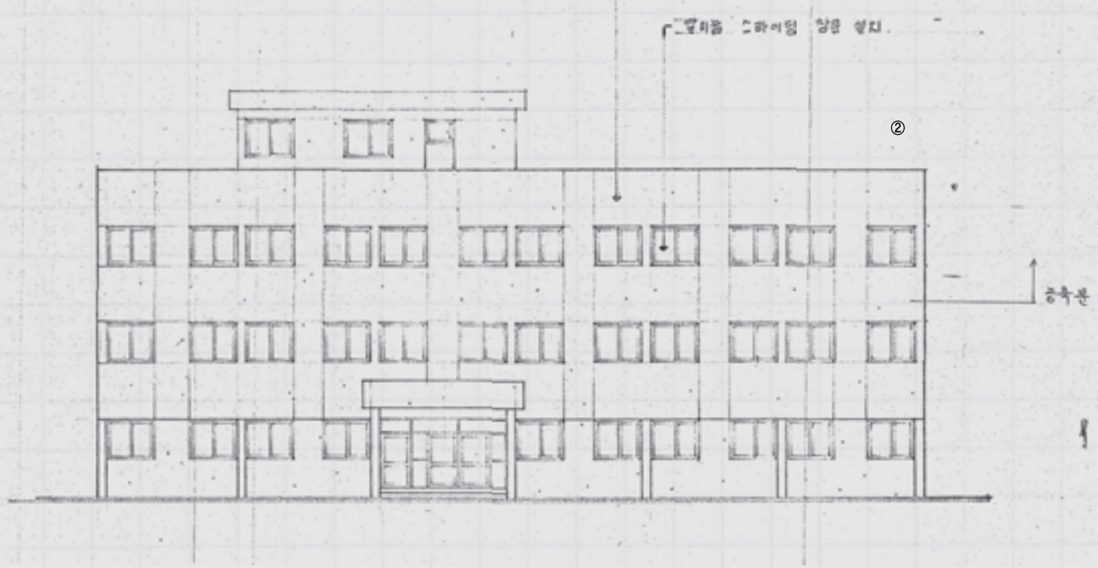
수협의 공판장이 설립되는 42번국도 연변(수원시청 기록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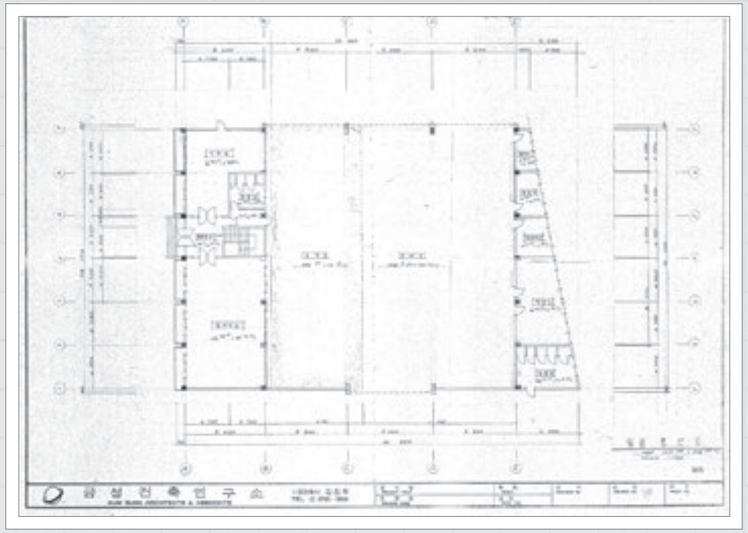
수산물 공판장 조감도(수원시청 기록관 제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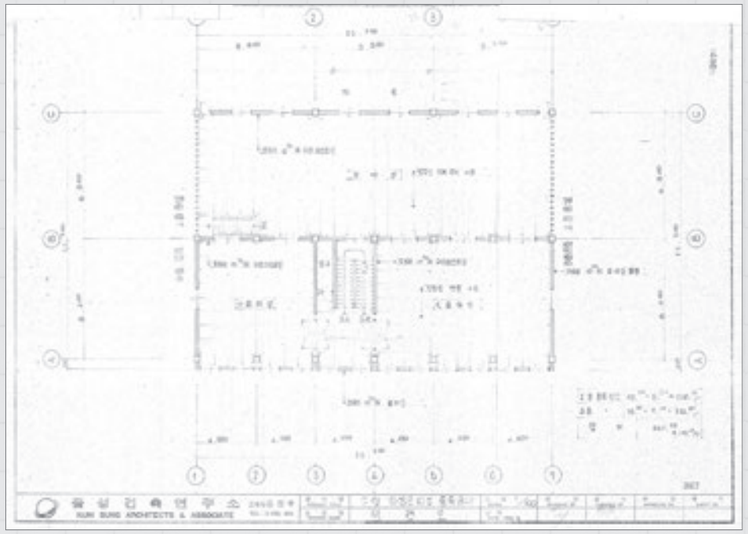
②



③



④



① 평면도(수원시청 기록관 제공)
② 정면도(수원시청 기록관 제공)
③ 1층 평면도(수원시청 기록관 제공)
④ 증축공사 평면도(수원시청 기록관 제공)

이희석 조합장)은 1974년 11월에 도매시장의 성격을 지닌 공판장을 건립하고자 화성어업협동조합시설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즉 인계동 740-5번지에 대지 562평, 건평 538평 규모의 공판장을 시설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장결정을 신청하였으며 1974년 12월 20일 준공하였다. 서울 소재 한국건축공단(김영덕)의 설계로 철근콘크리트조의 공판장과 냉동시설을 신설하였는데,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197㎡의 1개 동으로 총건평 1,288.1㎡이었다.

수원시 공판장 개설 목적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① 산지 위판장과 수원시 공판장의 유통체계를 일원화하여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마진을 경감시킨다. ② 저온 유통시설 설치로 선도 우량식품 공급과 적정 어가(魚價) 유지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 ③ 내륙지 공판사업 실시로 시장 교섭력과 어가 수취가격을 제고시킨다. ④ 수산물의 유사도매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⑤ 신규 사업 개발로 조합의 경영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자립화 기반을 조기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수원시는 1976년 4월 23일 인계동 740-5번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 개설을 허가받았고 화성군어업협동조합에 업무대행이 승인되었으며 거래품목으로는 생선어개류(生鮮魚介類), 생해조류, 어란류, 염장어개류가 허가되었다. 그 후 1976년 7월 10일 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었다.

한편 1981년 4월 7일 수산물시장 변경 결정 및 변경시행이 승인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산물도매시장 지번은 당초 인계동 740-5번지였으나 계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지번이 740-10번지로 변경되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분할 확정으로 시행지가 다소 증가되었으며 건물면적도 변경되었다.

표 8 **1981년 준공 계획**

구분	주소	결정면적	시행면적	건평	시행자
변경전	인계동 740-5	521평	521평	538	이희석
변경후	인계동 740-10	533평	533평	685.95	한기수

표 9 **1981년 시설계획**

시설		계획규모(㎡)
관리동	사무실	216
	조합장실 및 금고실	33
	중매인사무실(지하)	132
	하주휴게실	49.5
	위생시설(화장실)	40
	복도계단홀	59
	옥상탱크	33
	계	529.5
경매동	경매장	663.06
	저장실	40
	염장실	10
	염장	3
	어물처리장	10
	변소	27
	계	753.06
냉동설비 (제빙공장)	냉장실	100
	동결	3
	제빙	10
	저빙	100

5. 수산물 유통관행과 공판장 운영[8)]

일반적으로 어류 등 수산물은 계절과 날씨 등에 따라 생산량의 격차가 심하고 오랫동안 원상대로 보관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중간상인들이나 가공업자들의 농간이 끼어들 소지가 많은 상품이다. 화성군어업협동조합 소속 어촌계에서는 1970년대 초반까지 중간상인, 즉 객주상인이 수산물을 전담하여 판매하였다. 이때 생산자인 어민은 60%, 상인은 40%를 수익으로 배분하였다.

1976년 수원시 수산물도매시장 개장식(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 수산물도매시장 경매 현장(수원박물관 제공)

객주상인은 어촌계장 개인에게 저울을 잘 계량해 주면 어대금 외에 별도로 1㎏당 20원씩 커미션을 주기로 묵계하고, 들저울로 계량할 때 13㎏ 정도 나가는 바지락을 저울추가 올라가면 붙잡아 10㎏으로 기록하여 3㎏ 정도의 추가 근수를 상인에게 혜택을 주고 계장은 ㎏당 20원씩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객주상인은 수산물 위탁상인에게 부탁하여 실제의 판매계산서를 사실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발행하여 어민을 수탁하였으며, 어촌계장과 상호 결탁하여 어민들의 불평불만을 독선적으로 억압하여 감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또한 경찰에 기소되면 300만 원을 횡령하여도 100만 원만 무마조로 사용하면 잘 해결된다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았다.

1970년대 수산물의 유통과정은 다른 상품보다 복잡하고 중간상인들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일반적인 수산물의 유통과정은 생산자인 어민–수집상–어업협동조합 위판장–중매인–반출상–도매시장–중매인–도산매상–산매상–소비자 등 8~9단계를 거칠 때마다 5~10%의 유통마진이 붙어 어민들이 애써 잡아 헐값에 팔아넘긴 수산물은 소비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공급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물의 합리적인 유통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냉동연쇄조직을 강화하는 등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부심하였다. 이에 대구와 서울, 수원, 광주 등에 내륙지 공판장을 설치하였다. 즉 어민–어협공판장–내륙지공판장–직매장–소비자 등으로 유통단계를 줄여 어민들에게 적정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많이 잡히는 꽁치, 고등어, 갈치 등 7개 어종의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이 수산물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는 보상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화성군어업협동조합은 1976년 공판장을 개장하여 운영하였으나 12월 31일 결산을 해보니 3,094만 원이 결손되었다. 이에 직원의 인건비와 제반 관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운영자금을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시설 차입금 연체조합이라고 하여 차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조합은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 1977년 3,000만 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회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적자 예산을 승인할 경우 중앙회가 보전(補塡)의 책

수원시수산물도매시장 경매 현장(수원박물관 제공)

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경영진단에 따라 중앙회에서 차입금 1억 6,000만 원의 이자 중단과 향후 5년간 원금을 균등 상환하고 인건비를 2년간 1,000만 원씩 지원받기로 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1976년 8월 25일에 취임한 한기수 조합장과 장봉훈 상무는 어촌계로 나가 어민들에게 조합을 믿고 수산물 공동출하와 자체 자금 조성을 위한 증자를 부탁하였다. 어민들은 수산물을 조합 공판장으로 출하하게 되면 채권단이 어대금을 차압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을 이용하여 객주들은 조합을 수수료나 착취하는 기관으로 몰아가기도 하였다. 더구나 어촌계장과 결탁하여 수산물을 현지에서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염가에 불법 수매하여 서울, 인천, 수원 등지의 개인 상회에 판매하였다. 또한 그 상회와 묵계하여 실제보다 판매가격을 낮게 가장기(假帳記)를 발행하고, 어민에게 정당한 계산서인 것처럼 속였다. 이에 비해 조합은 현지에서 현금을 줄 수 없었고 수산물을 판매한 뒤 3~5일이나 소요된 뒤 대금을 지급하므로 어민들은 상인에게 파는 것이 너무 헐값인 줄 알면서도 현장에서 현금 판매라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은 어민들의 대표인 어촌계장과 월례회를 개최하여 이들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1977년 1월 10일 첫 어촌계장 월례회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합의하였다. ①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수산물을 어촌계장 책임하에 전량 공동 출하한다. ② 시설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자체자금을 조성한다. ③ 제반 수산자금은 어촌계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어촌계장이 공동출하 지도요원이 되어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수집하여 전량 공동 출하하고, 중간상인이 마진을 없애고 그 차익분을 어민에게 환원한다.

수산물의 제값을 받아 주어야 수산물이 공판장에 집하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판매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어민들의 공동출하는 무의미하였으며 어가만 폭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취약한 중매인을 보강하였다. 내륙지 도시인 수원에는 유능한 중매인이 없어서 서울에서 중매인을 모집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제 서울 상인들은 객주들에게 수산물을 수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여겨 중매인 가입을 기피하였고 이에 공동출하가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지역별로 중매인수를 안배하고 노량진 2명, 용산 2명, 청량리 2명, 왕십리 1명, 수원 5명, 인천 2명의 중매인을 가입시켜 이들만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수원굴, 바지락, 가무락, 게, 새우 등을 취급한 중매인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자 여타 상인들이 중매인에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중매인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수원에서도 서울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어민들에게 95%의 어대금을 통장에 자동 이체시켜 각지에서는 신용점포

1978년 내륙지 수산물 유통분포(부산공동어시장, 『어시장의 동향』, 1979, 22쪽)

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유통단계를 축소시켰다.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을 6단계에서 3단계 및 5단계로 단축시키면서 유통마진의 폭이 모두 어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물의 포장 개선을 위해 포장용기를 통일하고 현지에서 철저히 계량하여 뚜껑을 완전히 막아 감량을 없앴다. 어민들은 포장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포장 개선에 따른 가격의 인상요인이 상당하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정부는 이 규격을 근거로 표준규격으로 결정하였다.

어민들은 종전에 객주에게 착취당하던 것이 공판장 활성화로 판매수수로 5%를 차감한 95%를 차지하게 되니 늘어난 수입에 급급하게 되어 조개의 종패까지 판매하였다. 이에 생산 과잉으로 서울의 시장에 균형 공급량인 1일 50톤을 초과한 100톤씩을 출하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여 결국 50톤 값밖에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고 어장까지 황폐화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촌계장 회의를 개최하고 어촌을 순회 방문하면서 적정량 출하로 제대로 된 어가를 받고 철저한 어장 관리로 황금어장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매일 새벽 2~4시 서울과 인천의 시장 시세를 조사하여 적정량을 결정한 뒤 전 어촌계에 물량을 배정하여 제한 생산을 실시하였다. 치패(稚貝, 어린 것)는 자원이 희소한 광활한 지역에 다시 살포시키고 매년 윤채(輪採)를 철저히 실시하며 어가 상승폭에 따라 선별적으로 생산 출하가 가능하게 하였다.

1) 수원시,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안)」, 1975(국가기록원 제공).
2) 수원시, 『수원시 통계연보』, 1976.
3)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247쪽.
4) 「실시계획(청과물도매시장) 인가신청」(1975년 5월 28일), 『수원도시계획원예시장시행(3-1)』.
5)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사』, 1986, 246쪽.
6) 『화성시장변경 시행허가(5-1)』(1980); 『화성시장변경 시행허가(5-2)』(1980); 『화성시장변경 시행허가(5-3)』(1980); 『화성시장변경 시행허가(5-4)』(1980); 『화성시장변경 시행허가(5-5)』(1980); 『수원도시계획화성시장변경시행』(1984).
7) 『화성시장수산물도매시장결정-시행변경결정 및 변경시행허가(4-1)』(1974); 『화성시장수산물도매시장결정-시행변경결정 및 변경시행허가(4-2)』(1974); 『화성시장수산물도매시장결정-시행변경결정 및 변경시행허가(4-4)』(1974); 『화성시장수산물도매시장결정-시행변경결정 및 변경시행허가(4-4)』(1974).
8) 장봉훈, 「수협의 어촌조직화성화-화성수협사례」, 『한국협동조합연구』 제7집 제1호, 37~45쪽 참조.

인계동에서 주변보다 높은 지형적인 위치에 자리한 향원아파트는 2007년 재건축을 통해 파밀리에아파트로 탈바꿈하였다. 향원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 중 대다수가 재입주해 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파트이지만 단지 내 사람들이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하러 방문한 파밀리에아파트는 여느 아파트와 다르게 훈훈한 동네 주민들의 정서가 느껴졌다.

송주희 서울시 지역상권활력센터 주무관

2장 | 인계동 최초의 아파트, 향원아파트

2018년 11월 인계동주민센터 주변의 주택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붉은색으로 '공가'라는 글씨가 여기저기 휘갈겨져 있었다. 인적이 드문 거리는 차가운 공기 때문인지, 텅 빈 건물이 주는 공허함 때문인지 골목길에서 느껴지는 정겨움이나 따스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 회색빛 그림자가 드리운 어두운 골목길 사이에 높게 자리한 멀끔한 아파트가 눈에 띄었다. 10년 전에 재건축된 인계파밀리에아파트였다. 1979년에 완공된 향원아파트가 재건축을 거쳐 깔끔한 현대식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한 것이다. 40년 전 인계동 최초의 아파트라는 수식어를 가진 향원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 그들이 살았던 아파트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향원아파트는 인계동 최초의 아파트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수원 최초의 아파트는 아니다. 수원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아파트는 1972년에 건축된 서문아파트로 현재는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5개의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팔달문과 인접해 있는 인계동은 주택과 농지가 많았다. 1970년대 향원아파트가 건축되기 전 인계동 향원아파트 인근 땅은 작은 언덕이 많아서 사람이 살기 좋은 지형이 아니었다. 향원아파트가 건축된 부지는 작은 구릉이었는데 묘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1976년에 촬영한 사진 자료에서 인계동 향원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그 주변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다.

1976년 향원아파트 모델하우스(수원박물관 제공)

인계동에서 주변보다 높은 지형적인 위치에 자리한 향원아파트는 2007년 재건축을 통해 파밀리에아파트로 탈바꿈하였다. 향원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 중 대다수가 재입주해 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파트이지만 단지 내 사람들이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하러 방문한 파밀리에아파트는 여느 아파트와 다르게 훈훈한 동네 주민들의 정서가 느껴졌다.

1. "아이를 키우기에 아파트가 참 좋아"

매서운 추위가 시작된 11월 중순의 어느 날 인계동주민센터를 찾았다. 인계동주민센터는 향원아파트 부지를 재건축한 인계파밀리에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향원아파트에 살다가 파밀리에아파트로 재건축 후에 다시 입주한 주민을 소개받아 인계동주민자치센터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 인계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

향원아파트 분양광고(「동아일보」, 1978년 6월 12일)

이 있었는데 그때 주민센터에서 신옥현 팀장을 만난 적이 있었다. 인계동 향원아파트에 살았던 주민을 찾아 그들의 기억을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이 여러 차례 불발된 이후에 신옥현 팀장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사건에 대해 기억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그 기억과 관련된 새로운 인물들이 이야기에 등장하였다. 자연스럽게 그 인물에게 연락해서 이야기와 관련된 기억을 다른 시각에서 풀어냈다. 여러 사람의 기억을 연결해 보니 재건축으로 형체가 없어진 향원아파트와 주민들의 일상이 다시 이야기로 재현될 수 있었다.

매서운 바람이 느껴지는 밖과는 달리 따뜻한 햇살이 드리운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얼어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주민센터 2층 카페의 자원봉사 바리스타가 내려준 핸드드립 커피의 향이 코끝에 와 닿을 때 신옥현 팀장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신옥현 팀장은 1997년부터 인계동 새마을문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계동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 왔다.

신옥현 1991년에 막내인 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더 나은 주거공간으로 이사하기위해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만동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던 아는 친구가 일반 주택이든 아파트이든 아이를 키우려면 뛰어놀려 하는 아이들 때문에 층간소음이 문제가 여간 큰 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으려면 1층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다고 권했어요. 이미 아이가 둘이 있어서 아파트 위층에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1층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아파트를 염두해 두고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입주 당시에 인계동 주변

1981년 인계동 노인회관 준공식 사진에 보이는 향원아파트(수원박물관 제공)

에 있는 아파트는 우만 주공아파트, 문화맨션 정도였어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지 않았어요. 한참 더운 여름이었는데 집을 구하러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중 시동생이 아는 부동산중개인을 소개해 줬어요. 그곳에서 향원아파트 5층과 1층이 매물로 나왔다고 했고 무더위를 피해 가지고 선선한 저녁쯤 집 구경을 나섰어요. 향원아파트 입구를 지나 8동에서부터 양쪽으로 너무나 푸르게 멋진 가로수나무가 쭉 나란히 있는데 그 가로수를 처음 보자마자 너무 멋있어서 반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향원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로수 때문에 하게 되었답니다. 향원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는 세류동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기에 향원아파트가 참 좋을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해서 향원아파트로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사는 1991년 8월쯤에 했고 24평형을 6,100만 원 정도로 구입했어요.

향원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요청하자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미안해 했다. 인터뷰를 하기 전 인계동 향원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수원시 선경도서관 3층에 있는 수원학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다행이도 향원아파트에 대한 오래된 자료를 몇 개 찾을 수 있었다. 이미 오래전 철거되고 파밀리에로 재건축된 향원아파트의 흔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말문이 막히면 수원학 도서관에서 어렵게 찾은 향원아파트의 옛 사진들을 보여 주며 향원아파트에 대해 다시 물었다. 조심스럽게 흐릿한 옛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신옥현　향원아파트는 5층짜리 10동이 있었어요. 아, 여기에 가로수가 있었어요(손을 사진에 놓으며). 아까 제가 말한 가로수요. 여름에는 정말 좋았어요. 얼마나 푸르렀는지. 가을에도 운치가 있었고요. 아파트 사이에 가로수들이 정말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향원아파트 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가로수네요(웃음). 향원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진 사촌 시누이도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 가족 수는 6명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24평형에 살았지만 향원아파트가 실평수보다 좀 크게 지어져서 꽤 넓은 편이었어요. 6명이나 되는 온 가족이 함께 사는 동안 큰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향원아파트 주민들은 남문의 여러 시장 중에 주로 못골시장으로 걸어서 장을 보러 다녔다. 못골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현재 2001아울렛 수원점(구 뉴코아백화점)이 자리한 곳 주변을 지나야 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어느 정도 향원아파트 주변이 개발된 상태여서 살기 좋았지만, 그 이전에 살던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꽤나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파트 앞쪽에 상가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슈퍼마켓, 과일가게, 식품점 등이 있었다. 식품점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김치, 야채, 채소 등 많이 사먹곤 했다고 한다.

향원아파트가 지어진 부지는 지대도 높고 물이 마를 날이 없는 땅이었다. 이런

향원아파트(송유섭 제공)

자리가 못자리로는 좋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파트 뒤편에는 농수산물시장(청과물시장)이 위치해 있었는데 농수산물시장은 항상 바닥이 물에 젖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포장도 되어 있지 않는 흙길은 늘 물에 젖어 질척거려 아파트 통행에 문제가 많았다. 시내에서 볼일을 보고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기사들은 젖은 흙길 때문에 향원아파트로 가려 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했던 부분이었고 이와 관련한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장 이하 여러 주민들이 힘을 모았다. 수원시에 건의해서 아파트 앞에 있는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바꾸는 것을 다함께 이루어낸 경험이 있다. 그 뒤로 주민들의 삶은 한결 편안해졌고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

첫 번째 인터뷰를 마치며 향원아파트에 대해 많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처음부터 향원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왔을 것 같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신옥현은 바로 금혜섭을 떠올렸다. 금혜섭은 현재 인계동 파밀리에아파트 노인회장이며 향원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다. 인터뷰 날짜를 정하고 일주일 뒤 파밀리에아파트 노인정을 찾아갔다. 인계동 파밀리에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면 첫 번째로 103동이 보인다. 그 옆에는 체력단련실이 있고 계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관리실과 노인정이 위치해 있다. 노인정 안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노인정 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다. 따뜻한 차를 대접받은 후에 함께 담소를 나누던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금혜섭의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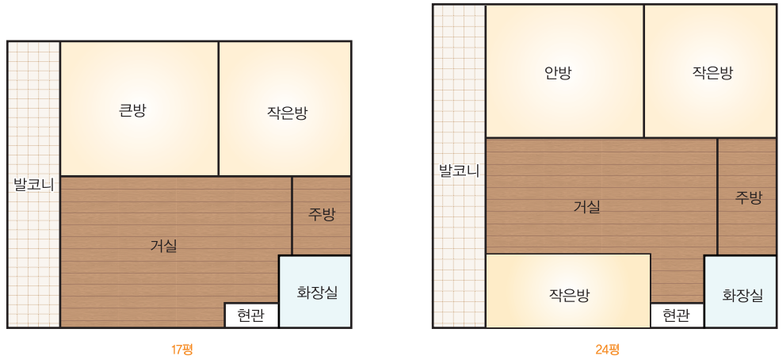
금혜섭　향원아파트 지어졌을 때가 1979년도였고 향원아파트는 인계동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아파트였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에(향원아파트) 변호사들만 산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죠. 아파트에 살면 잘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나는 세류동의 백조아파트에서 살다가 딸이 6살 때(유치원에 들어가면서) 향원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쭉 인계동에서 살고 있어요. 향원아파트는 튼튼하고 다 좋았는데 아파트에 차들이 들어오면 바퀴가 풍덩 빠져 못 나가서 너무 불편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편했지만 역전에서 장을 보고 아파트로 올 때도 택시가 향원아파트를 오려고 하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옆에 앉아 계시던 노인정 어르신들이 인터뷰에 동참하였다. 향원아파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던 정수진은 아파트를 지을 때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동네 사람들이 있

1985년 향원아파트 주변 경관(수원박물관 제공)

었다고 했다. 당시 향원아파트는 5층으로 건물을 올리고 있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며 흙과 벽돌을 날라 돈을 벌었다. 그렇게 하루를 일하면 일당을 주었다. 이렇게 하루 벌어 그날 먹을 반찬과 아이들 간식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 향원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 주변은 허허벌판이었고 주택만 몇 채 있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사 서비스를 해 주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향원아파트 입주 당시에는 동네에서 이사 일을 거들고 일당 2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인근 거주자에게는 특별한 아르바이트였던 셈이다. 금혜섭은 당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격을 설명하며 경기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랐다고 하였다.

금혜섭　1984년에는 아파트 한 채에 4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 당시 2층 단독주택을 매매하면 1,200만 원이었는데 단독집이 아파트보다 더 비쌌죠. 향원아파트를 2채를 사라고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해서 버스 타고 와 봤는데 아파트 벽면에 금이 가 있고 지하에 물이 고여 있



향원아파트의 평형별 구조

었어요. 그래서 부서지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 고민했죠. 그래도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살기 편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아는 분과 함께 매매로 나온 24평과 17평을 다 둘러봤어요. 24평은 방이 3개, 17평은 방이 2개에 거실 겸 주방이 있었는데 24평의 구조가 마음에 들어서 24평 7동 4층을 매입했어요. 아파트를 사고 나서 바로 입주하지 않고 월세를 줬었는데 20만 원을 하던 월세가 IMF 때 경기가 좋지 않아 12만 원으로 내렸는데도 세를 얻으려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금혜섭에게 아파트 구조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물었지만 이사하면서 가지고 있던 오래된 짐은 다 정리해서 없다고 했다. 향원아파트의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자 아파트 구조를 종이에 그려 주며 설명해 주었다.

1980년에는 수원에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았다. 수원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지구단위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1986년부터 개발된 매탄1~2지구와 원천지구 정도였다. 1990년부터는 동수원 개발지구의 연장선으로 영통과 영덕지구가 신흥주거단지로 개발되었다.

2. “아파트도 작은 마을, 반상회가 활발”

향원아파트에 살다가 파밀리에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재입주한 이병선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본인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인계동 마을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은 후에 마음이 놓였는지 옛날 추억들을 더듬으며 이야기보따리를 술술 풀어냈다. 향원아파트는 1979년에 분양한 것으로 기억하였고 1984년에 오산에서 살다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수원이어서 101동 103호에 이사를 왔다고 한다. 지인이 1982년에 향원아파트 근처 언덕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인근에서는 잘 지어진 아파트로 향원아파트가 인기가 좋다며 소개해 주었다.

이병선 1984년에 이사를 와서 부녀회, 동대표, 재건축대의원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향원아파트는 한 번 부도가 났다가 다른 건설사에서 다시 건축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열쇠 수리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다른 아파트는 벽이 금이 가서 현관문이 틀어지

향원아파트 전경

고 해서 열쇠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향원아파트는 그런 문제로 벽 외관 때문에 현관문 수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골격 자체는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향원아파트는 특수관을 묻어서 전기와 수도가 안전하고 공급이 잘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살기 편했어요.

집을 구하러 다닐 당시는 날씨가 추운 정월이라 집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화장품 방문판매원 아주머니가 향원아파트 경비실에 가 보면 경비아저씨가 매물정보를 좀 알 것이라며 알려 주었다. 아파트 경비아저씨를 찾아가서 매물이 나온 집이 있냐고 물어보니 101동 103호 집이 딱 하나 있다고 했다. 주택에서 살다 보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매물이 나온 아파트 현관이 열리고 햇볕에 들어오는 거실을 보고는 반해서 그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퇴근 후 신랑과 그 집을 방문하여 집안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가족사진을 보게 되었다. 낯이 익은 사람이다 싶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라고 했다. 참 재미있는 인연이었다. 17평에 매매가는 1,05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금액을 조정해서 970만 원에 거래하였다.

아파트로 이사 온 후 모든 것이 좋았다. 하지만 시내에 나갔다가 택시를 타고 집에 오려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향원아파트에 가려는 것을 기피하였다. 2001아울렛 뒤편에는 그때 당시에 청과물을 판매하는 시장이 있었다. 청과물을 판매하니 길은 항상 물이 젖어 있어 차들이 꺼려했던 것이다. 그래서 교통편 개선을 위해 향원아파트 부녀회에서 궐기대회까지 하여 길을 만들어냈다. 아파트로 이사 오자마자 반장을 하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사연이 숨어 있다.

이병선　향원아파트는 동마다 반상회를 했었는데 내가 1984년 4월 이사를 오자마자 기존 통장님이었던 송유섭 씨가 이사 오는 사람이 반상회 반장을 해야 한다며 대뜸 반장을 권유했어요. 얼떨결에 반장이 됐는데 그 뒤부터 반상회, 부녀회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어요. 아파트 자치와 관련된 일도 지금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당시 새마을 운동회가 있었어요. 녹색점퍼와 모자를 쓰고 뉴코아 앞에서 궐기대회도 했었죠. 그때만 해도 부녀회 활동은 무보수였어요. 일을 하고 외려 회비를 냈었죠. 요즘은 월 활동비를 받으며 일을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할 만하죠.

한편 초창기부터 향원아파트에 살았던 송유섭은 화성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

함께 커가는 향원아파트 아이들(1988년, 송유섭 제공)

고 축협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두환 정권 때 국가의 비상대책과 관련해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하였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많았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서 눈앞이 캄캄하였다. 이런저런 새로운 일을 알아보던 중 아는 친구 한 명이 서울에서 가스배달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 처음엔 가스 배달 일을 배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스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하게 알게 되었다. 가스 배달보다는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단 가스공급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때가 1978년이었다.

예전에는 아파트마다 가스를 저장해서 공급하는 저장공간이 따로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있었다. 향원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스를 저장해서 공급하였다. 향원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할 당시에 가스는 취사용으로만 사용하였다. 가스로 난방을 한 것은 2000년 이후였다. 향원아파트의 17평형이 입주한 세대인 1~4동은 연탄보일러로 난방을 하였고, 24평이 입주한 세대인 5~10동은 벙커식 중앙난방이었다. 벙커식 중앙난

1990년 향원아파트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방은 기름을 따로 저장하고 기름을 태워서 각 세대별로 정해진 시간에 난방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벙커식 중앙난방을 위해 향원아파트에는 큰 굴뚝이 있었는데 기름을 정제하고 난 찌꺼기로 만든 연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름보일러 굴뚝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기름난방에 따라 발생한 연기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자 정부는 2000년 초에 가스난방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사업이 잘되었고 1979년 향원아파트에 집단 가스공급사업을 직접 맡아 하면서 향원아파트로 아예 이사를 왔다.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입주 당시 아파트 17평형이 500만~600만 원에, 24평형이 900만~1,000만 원에 매매되었다. 향원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에는 인계동 최초 아파트였기 때문이었는지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주로 살았다.

처음 향원아파트에 입주할 당시는 미혼이었지만 1981년에 결혼을 했다. 바로 다음 해인 1982년에 딸을 낳았고 아들은 1983년에 태어났다. 가족이 늘면서 17평보다 넓은 집이 필요하였다. 향원아파트에 사는 것이 편해서 향원아파트 내에서 이사를 했다. 17평에서 24평으로 옮기면서 남향 쪽으로 이사하였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지 않고 향원아파트 내에서만 계속 이사를 할 정도로 향원아파트에 애착이 있었다.

송유섭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을 당시 향원아파트의 통장이었던 김완숙은 새로 이사 온 젊은이가 통장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웃어른이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28살(1984년)에 처음 통장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통장을 통해 전출입 도장을 찍어 주며 신고하였다. 이렇게 전출입 신고를 하며 아파트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아파트 자치활동을 하면서 좋은 추억이 많이 쌓였다. 전입하면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해 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전출을 하는 가족에게는 그동안 고마웠던 점을 이야기해 주고 그 가정에 행복을 기원해 주었다. 이렇게 아파트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이었다.

통장은 아파트 동대표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가를 바라고 이런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예전에는 통장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이 거의 없었는데 현재는 통장에게 월 20만~3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한다. 정기적으로 반상회가 개최되었고 반상회에서는 정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아파트에 총괄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환경미화와 관련된 부분을 세세하게 의논하고 합의하기도 있었다. 주민들과 반상회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서로 정도 두터워졌다. 가족적인 분위기로 운영되는 반상회는 좋았지만 반상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없어지게 된 점은 아쉽다. 반상회를 통해서 명절 때마다 단합의 의미로 한마당 잔치를 열어 동별로 대회도 진행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서로 나눠 먹기도 했다. 재건축을 하기 전에는 아파트가 가족적인 분위기여서 참 좋았다. 반상회도 아주 잘 이루어지고 척사대회 같은 행사도 자주 했었다.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이런 추억이 없어져 많이 아쉬웠다.

이병선은 지금도 파밀리에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자치활동을 하고 있다. 향원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할 때는 아파트에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금은 반상회가 없고 부녀회 활동이 주가 된다. 옛날에 반상회를 운영할 때는 개인이 3,000원씩 회비를 냈고 이것은 회의할 때 다과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시에서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반상회 반장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교통비 차원으로 매달 5만 원씩 받았다.

1970~1980년대 아파트 반상회는 주민들끼리 정을 나누고 이웃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듣기 위한 자치활동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1980년대 아파트 투기 광풍 이후 아파트 반상회가 집값 담합 등 이익집단화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이유 때문에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은 반상회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아파트 투기 광풍으로 아파트 반상회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3.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재건축이 필요"

향원아파트 재개발조합은 1997년 2월에 최초로 승인되었으나, IMF금융위기로 해당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건설사에서 사업을 보류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조합장이 변경되었고 바뀐 후 바로 1차 총회가 열렸다. 당시 조합은 용적률 280%로 설계해 신동아건설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건설사 선정을 보류시켰다. 2003년 1월에 다시 열린 2차 총회에서는 조합에서 제시한 신동아건설이 건설사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2002년 9월 28일에 작성된 '향원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약정서' 제6조(시공사 선정)를 보면,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과 토다건설은 협의하여 대한건설협회 지정 2002년도 시공순위 1~30위 내 또는 1군이나 우수한 건설회사를 선정해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확정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토다건설은 이 약정서에서 인정한 공동시행자이다). 또 2002년 12월 6일 제작된 '재건축사업 시공자 입찰서 작성 지침'의 내용을 보면, "향원아파트 사업 참여 시 조합과 공동시행자(토다건설)가 체결한 공동시행 약정서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향원아파트 철거(「주거환경신문」, 2004년 11월 29일; 2006년 11월 30일)

향원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 6,300여 평 중 700여 평에 해당하는 개인 소유 부지를 시에서 확보하기 위해 걸었던 소송도 문제가 됐다. 조합은 이 땅을 포기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이 땅을 사서 부지를 넓힌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만 했다. 소송으로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2002년 12월과 2003년 7월에,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단지 내에 학교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근거법안(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과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입안권자는 시장으로,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로 변경한 근거법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각각 신설 적용됨에 따라 재개발 확정이 더 늦춰졌다.

신옥현은 기존에 아파트에서 봉사활동을 잘했던 점을 인정받아 향원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될 당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이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조합의 임원이었지만 당시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루머 때문에 힘들었다. 재건축이 확정되고 2006년부터 재건축한 아파트에 입주 전까지 향원아파트 앞쪽에 있는 상가건물 4층으로 이사를 했다. 이때 이사하면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다.

신옥현 재건축이 확정되고 퇴거를 하면서 3년 동안 살아야 할 집을 가까운 곳에 얻어야 할 것 같아 향원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건물로 계약을 했어요. 3년만 좀 고생하자 마음먹었지요. 막상 이사하려니 생각보다 집이 좁아서 기존의 가지고 있던 가구는 모두 버려야겠더라구요. 결혼하면서 혼수로 해 온 가구였는데, 그렇다고 잠깐 살집에 새 가구를 들일 수가 없어서 엄청 고민이 됐어요. 그때 마침 우리처럼 이사 가는 옆 동 아는 언니가 자기 딸이 쓰던 장롱이 새것처럼 깨끗한데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하기 전까지 그거 가져다 쓰라고 해서 그걸 이사하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그 집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한쪽 다리만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마비가 온 거예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병명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 2007년도에 새마을문고 회장이 되었어요. 시의원님, 동장님, 단체장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새마을문고 회장 취임식을 하라며 의원님이 권유 하셨어요. 제가 남편이 아파서 취임식을 못 한다고 했어요. 이런저런 설명도 하고 병원가도 병명이 안 나온다고 했지요. 이야기를 듣고는 옆에 계시던 부녀회장님이 자기네 옆집 할머니가 아들하고 사는데 박카스를 엄청 좋아한다면서 박카스 사들고 그 할머니 댁에 찾아가면 그런 거 잘 봐주신다고 가보라고 했어요. 밑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박카스 한 박스를 사들고 그 할머니 댁에 찾아갔죠. 남편하고 제 생년월일을 할머니께 알려 드리니 대뜸 할머니가 "너 남의 장롱 가지고 들어갔지?"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롱 때문에 남편이 아픈 거야." 남편이 나을 수 있다며 방법을 알려 줄 테니 그대로 따라하라고 했어요.

먼저, 집안 방문은 다 열어 놓고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좁쌀을 새까맣게 탈 때까지 볶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나리를 삶아서 남편 머리 맡에 두고 칼로 자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미나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손에 자가풍이 일어나서 미나리가 안 잘라지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다른 쪽 손으로 힘들게 쓸어 담아서 태우고 끓여서 머 맡에 두고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신랑을 깨워서 속옷을 가지고 내려가서 태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불난다고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 창피했지만 신랑이 나을 수 있다는 방법인데 아무렴 어때 하면서 이것만 태우고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할머니가 알려 준 방법대로 했더니 며칠 내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남편의 한쪽 발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멀쩡해졌어요. 미신이라 하지만, 어쩌면 일시적 마비로 잠시 아팠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 재미나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평수가 작은 집이어서 가지고 있던 세간이 다 들어가지 못해서 많이 버려야 했다. 월세로 3년간 그 건물에서 사는 동안 집도 좁고 방음 방한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너무 힘들었지만 새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을 하면서 참아냈다.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웃으면서 재미있는 추억이라고 기억한다.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까지 3년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림을 하며 고생을 많이 해서 새 아파트로 입주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다. 향원아파트에 살다가 새 아파트에 다시 입주하면서 가지고 있던 오래된 사진이나 집기들은 대부분 버렸다.

1981년

1990년

2007년

2014년

향원아파트에서 파밀리에아파트로(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신옥현　결혼하고 남의 집 세살이를 하다 향원아파트를 사서 이사 갔지만 헌 아파트였잖아요. 아파트라 좋기는 했지만 새집이 아니라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너무 좋았어요. 재건축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 간다고 하니 우리 가족 모두 새 아파트는 처음 살아 본 거라 너무 행복했었죠. 파밀리에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자주 와서 청소를 수차례 했어요. 가족들은 넓고 반듯한 집이 너무 좋다며 힘들어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인계동 파밀리에로 이사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아파트 생활이 너무 쾌적하고 좋아요.

향원아파트 앞 토지의 소유주가 은행이었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 은행이 땅을 매입해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향원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고 아파트가 지어질 때 부도가 났었다. 신동아가 재건축을 계획하면서 그 빚을 떠안으면서 향원아파트에서 파밀리에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데 4년이나 걸렸다. 재건축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트를 떠났다. 아파트 주민들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가족과의 오랜 추억이 있는 향원아파트에 대한 애착이 많이 떨어지게 됐다고 한다.

송유섭　향원아파트는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서 여름엔 비가 오면 5층은 빗물이 많이 세고 벽도 갈라지고 했어요. 제가 통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비가 세는 집에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아파트 옥상에 여러 방수 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물이 계속 새었어요. 방수페인트를 몇 번을 발라도 의미 없어 심지어 시멘트가루를 사다 발랐는데 시멘트를 바른 곳은 방수가 되더니 또 다른 곳에서 물이 세더라구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잘못 지었구나 싶었어요. 여기 사람이 살려면 집을 다시 만들어야하는구나 생각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향원아파트가 지어질 때 처음에는 정진건설에서 건축을 하였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서 마무리를 부실하게 됐어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재건축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과의 대립 때문이었죠. 너무 힘들어 도중에 그만두었어요.

인계동은 지금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떠나는 이웃들이 남겨 놓은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 재건축을 경험한 파밀리에아파트 주민은 정들었던 마을을 떠나 있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고 말한다.

2008년 신동아건설의 인계파밀리에아파트 건설(수원시청 포토뱅크 제공)

2017년 인계파밀리에아파트(김승일 제공)

이병선　인계동 8구역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주변에 상가들이 문이 닫혀 있는 곳이 많아요. 낮이나 밤이나 썰렁하고 무서워요. 앞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소음과 공기오염도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향원아파트를 재건축할 당시, 2006년 8월에 이사를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록했던 회의록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사 가면서 모두 버렸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록물들을 버린 것이 후회되네요.

아파트와 관련된 단어 중에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는 '프리미엄'이라는 외래어이다. 아파트를 구매한 후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흔히 '웃돈'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주거보다 투자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웃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향원아파트에서 살았던 주민들도 주거를 목적으로 매매했는지 혹은 투자를 염두에 두었는지에 따라 향원아파트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주거를 목적으로 매매하여 아파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파트가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다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세를 놓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포장해야 했기 때문에 좋은 점을 위주로 기억하고 있었다. 혹은 아파트 공동체에서 부녀회장이나 통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거나 그 역할의 경중에 따라 향원아파트의 안전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재건축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아파트의 안전에 대해 서로 다른 기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다른 입장과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모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아파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는 사뭇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20년 전 향원아파트의 모습은 공동체라고 불릴 만한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마을이었다.

2018년 6월 구세군 수원영문은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역대 담임사관들과 수원영문을 거쳐 간 교인들도 참석하였다. 6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고 수원교회는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팔달 115-8구역 주택재개발지구에 영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수원영문은 재개발지구의 영문 부지에 신축한 새 건물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현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김정환 아주대학교 박사과정

3장 | # 인계동 언덕에 우뚝 선 구세군 수원교회

1.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 구세군의 한국 선교

해마다 12월이면 도심의 거리에는 빨간색의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한다. 자비심이 움직여서 냄비 안에 기부금을 넣는 사람이나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나 모금의 주체인 구세군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구세군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개신교 교단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10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구세군 교인 외에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구세군은 영국 감리교의 개혁파 전도자였던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와 캐서린 부스부부가 창립한 개신교 교단이다. 런던 동부의 빈민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부스 부부는 전도자들을 연합하여 1865년에 '동부런던 기독교 부흥협회(The East London Christian Revival Society)'라는 전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세군의 모태가 된 이 단체는 1869년에 영국 전역을 선교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선교회(Christian Mission)'로 발전하였고, 1878년에 개신교의 교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의 '구세군(The Salvation Army)'을 창립하였다.

군대식 조직과 운영체계는 구세군이 다른 교단과 구별되는 점이다. 구세군 창립세력들

구세군 연혁

1865
윌리엄 부스
기독교선교회 설립

1878
구세군
(Salvation Army)
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됨

1879
- 첫 번째 영문(교회)이 Scotland에서 개영
- 사관들이 처음으로 훈련 받음 제복이 도입 됨
- Consett에서 첫 영문 밴드가 생김

1880
- 미국에 구세군 장교 파견대가 처음 도착
- 아일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로 사역이 확장

1884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사회사업 시작

1886
런던 Walworth에 첫
빈민 영문이 개영

1890
- 캐서린 부스 승천
- '최암흑의 영국과 그 출로' 출판

1891
구세군 사회복지사업
시작

1896
자선냄비 시작

1904
윌리엄 부스 대장의
자동차 순방 시작

1907
- 브람웰 부스 대장 부인에 의해 가정단이 창설
- 구세군 한국군국 기반 조성

구세군한국군국 기반 조성

1908
한국에서 사역이 시작
(42번째 사역지)

1912
- 창립자 윌리엄 부스 서거
- 브램웰 부스가 대장으로 선출

1916
구세군 한국군국 여자
실업관 설립

1919
서울후생학원 개소

1924
구세군 유지재단법인 설립인가(제1호)

1928
한국 최초의 자선냄비
운동

1941~1947
구세군 환원시기

1947
- 구세군 영동종합병원 의료사업 전개
- 구세군 한국군국 구호 활동 본격화

구세군 한국군국 구호 활동 본격화

1950
한국전쟁 기간 및 전후 영국과 미국 구세군의 도움으로 16개 무료 급식소 운영

1955
- 구세군 한국군국 과천 양로원 개원으로 사회 복지시설 운영 시작
- 구세군가 발행

1956
사회사업 중앙봉사회관
개관(신문로)

1958
구세군 한국개전 50주년
기념총회

1959
구세군 중앙회관 개관

1965
국제구세군 100주년
(75개 군국 사역)

1975
첫 간호사 친교회 개시
(의료선교회)

구세군한국군국 발전 및 도약

1977
- 구세군 한국군국 사회복지 법인 구세군복지재단 설립
-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법정 시설 위주 사회 복지활동 본격화

1987
구세군 장학회 발족

1997
블라디보스토크 개척

2000
구세군 한국군국 새천년
선교대회

2000~2010
- 구세군 한국군국 노숙인 응급보호센터 설립
- 국내외 난민 구호활동 북한구호

2008
구세군 한국군국
선교100주년기념대회

2010
몽골 개척

2011~2018
일본 지진 구호,
세월호 기금지원, 위기
상담센터 개소, 네팔
지진 구호

2012
캄보디아 개척

2013
자선냄비본부 출범

2018
- 구세군 한국군국 개전 110주년기념
- 구세군대장 한국방문

은 신속한 선교와 효율적인 구제활동을 하려면 군대의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구세군은 영국 런던에 국제 본영을 두고 국가별로 하나의 군국을 구성하여 국제 본영의 지휘에 따르는 형태로 운영된다. 국제 구세군의 최고지도자는 '대장'이라고 하며 군국의 최고지도자는 '사령관'이라고 한다. 군국은 군국 본영과 지방 영으로 구성되고, 지방 영은 다시 지방 본영과 지방 영으로 구성된다. 구세군 조직의 최하부인 지방 영은 '영문'이라고 하는데 교회와 같은 개념이다.

구세군의 성직자는 '사관'이라고 부르며 제복을 착용한다. 사관의 명칭과 제복은 군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국 구세군은 전래 당시인 대한제국 군대 명칭을 적용하여 신임사관은 부위(副尉), 임관한 지 5년이 되면 정위(正尉), 15년이 되면 참령(參領)으로 진급한다. 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병사로서 선발과정을 거쳐 구세군사관학교에 입교한 후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구세군사관학교는 부부 동반 입교를 원칙으로 하며 임관 후에 부부사관으로 활동한다.

구세군 교인은 '병사'라고 부른다.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병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영문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예배에 잘 참석하면 예비병이 되고 다시 병사교육을 받은 후에 입대식을 치러야 병사가 될 수 있다. 구세군의 병사는 세례교인과 같은 의미이다. 병사 가운데 영문의 여러 부서에서 책임을 맡아 일하는 병사를 '하사관'이라고 하는데 한국 구세군은 부교(副校), 정교(正校)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부교는 안수집사, 정교는 장로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볼 수 있다.

구세군은 1880년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하였다. 전 세계에 구세군 군국이 세워지면서 한국도 1908년에 개척사령관이 파견되었다. 1907년에 윌리엄 부스가 일본에서 순회 집회를 열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한국계 유학생들이 부스 일행에게 한국 선교를 요청하면서 구세군이 전파된 것이다. 개척사령관으로 파송된 로버트 호가드(Robert Hoggard) 사관 부부는 1908년 10월 1일 서울에 도착하여 서대문구 평동에 거처를 정하고 사택에서 첫 집회를 열었다. 적극적인 가로전도를 통해 집회 참석자들이 늘어나자 11월 22일에 한국 구세군의 첫 번째 교회인 서울 제1영(현 서대문 영문)을 당주동에 개영하고 본격적으로 선교와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구세군이 급성장세를 보이자 호가드 사령관은 1909년에 문서선교를 위해 한국 구세군의 기관지인 『구세신문』을 창간하고 기부금을 모금하였다. 1910년에는 한국인 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성경대학(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의 전신)을 설립하였다. 호가드 사령관이 재임한 8년 동안 전국에 70여 곳의 영문이 세워졌다. 19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시작하여 극빈자 급식소 설치, 아동·미혼모 복지시설 개소, 이동 진료소 설치 등의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1928년에는 자선냄비 모금을 시작하였다.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던 한국 구세군은 1939년부터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관들이 경찰에 구금되고, 외국인 선교사관들이 국외로 추방되었다. 1940년에는 구세군이 구세단(求世團)으로 개편되었고 1944년에는 모든 기독교 교단이 '합동교단'으로 편입되는 등의 위기를 맞았으나 1945년 광복 후 재건되어 국제 구세군으로 복귀하였다. 한국 구세군은 활발한 전도운동을 통해 교세 확장에 힘썼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대한본영을 부산으로 옮겼고 사령관을 비롯한 다수의 사관들이 강제 납북되거나 순교하였다. 부산 피난시절에도 피난민을 위한 급식사업, 구호사업 같은 구세군의 사회봉사는 꾸준히 전개되었고 서울로 복귀한 후에는 국제 구세군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전쟁난민 구제사업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한국 구세군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처음으로 한국인 사령관이 취임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국제 본영에서 외국인 사령관을 한국 구세군의 사령관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한국 구세군의 교세가 안정기에 들어선 1970년대부터는 한국인 사령관이 임명되었다. 한국인 사령관들은 한국 상황에 맞는 선교정책을 시도하고 한국인 스스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개척 운동과 자급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77년에 사회복지법인인 구세군복지재단 설립이 인가되어 본격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지역 사회의 종합적 복지 지원을 위해 복지관이 개관되기 시작했으며, 영문마다 자선봉사단을 창단하여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봉사를 확대하였다. 구세군의 창립 정신에 부합하는, 선교와 복지사업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이뤄지는 복합 선교를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심장병 수술 지원이나, 에이즈 예방과 대책 등의 사회사업을 통해서도 구세군 정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였다.또한 다문화 가정이나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지원사업, 국내외의 구호사업 등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구세군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한국 구세군은 전국에 251개 교회와 145개 사회복지시설을 세워 선교와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구세군 대한본영 홈페이지(www.salvationarmy.or.kr) 참고).

2. 구세군 수원영문 개척[1]

1958년 6월 12일 수원의 남수동에 구세군 영문이 세워졌다. 사회의 낮은 곳이자 어두운 곳을 찾았던 창립자의 선교정신에 근거하여 한국 구세군은 낙후된 농촌지역부터 영문 개척을 시작하였다. 구세군이 한국 개전을 시작한 지 50년이 지나서야 수원에 구세군 영문이 세워진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원영 개척사관 도창현은 남수동 121번지 수원수리조합 건물을 180만 환에 매입해서 영문을 세웠다. 도창현 사관이 왜 남수동에 영문을 세웠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남수동이 인접한 연무동, 지동과 더불어 대표적인 피난민 거주지였다는 점에서 영문 개척지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수원 최대 상권인 남문상권에 인접해 있어 가로(街路)전도에 유리한 지역이기도 했을 것이다. 피난민 밀집지역에서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을 찾은 것이 남수동 121번지였던 것 같다.

남수동 121번지는 108평 대지에 35평짜리 한옥과 20여 평 되는 주택이 들어선 구조였다. 대문을 들어서면 입구를 따라 오른쪽으로 길게 주택이 서 있고 주택이 끝나는 곳부터 안마당이 시작되어 마당을 지나야 담 쪽으로 서 있는 한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 울타리 안에 예배당과 사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작은 마당도 있어서 영문을 세우기에 적합한 공간이었다. 7개의 들보, 커다란 서까래, 5푼짜리 마루 등을 갖춘 강당 형태의 한옥은 1930년대에 '화성 권번(券番)'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2] 일반 가정집이 아닌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수원수리조합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커다란 창문이 많아서였는지 야간에 예배 도중 박쥐가 들어오기도 했다고 한다. 현관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두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 사용하였고 예배를 드릴 때도 남자와 여자가 양쪽으로 구분해서 앉았다고 한다.

도창현 사관은 구세군을 홍보하고 전도하기 위해 부임하자마자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1958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 부흥회는 오전에 사경회(査經會), 오후에 청소년 구령회(救靈會), 야간에 장년 구령회 등 매일 3회씩 진행되었다. 매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 교회 안이 꽉 찰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고 한다. 부흥회 기간에는 구세군 순회 복음전도대의 지원을 받아 수원 시내를 행진하면서 구세군을 홍보하는 가로전도를 했다. 당시 부흥회를 통해 100여 명의 청소년이 회개하였고 50여 명의 장년이 예비병으로 등록하였다. 1958년에 등록한 예비병 가운데 병사가 된 이들은 절반 남짓이었다. 도창현 사관 가족을 제외하고 30여 명의 병사가 영문명부에 등록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이미 다른 지역

1958년 6월 23~30일에 개최된 수원 개척 부흥회(구세군 수원교회 제공)

남수동 시기 구세군 수원영문 교인(구세군 수원교회 제공)

남수동 121번지에 설립된 구세군 수원영문 내부(1972년, 구세군 수원교회 제공)
이 건물은 1940년대 화성권번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후 수원수리조합 사무실로 이용되었다.

에서 병사입대식을 치른 사람들도 있었다. 개영 초기에 활동한 하사관들도 한국전쟁 이전에 하사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창현 사관은 영문에서 가까운 연무동 피난민촌 거주자들에게 죽을 쒀서 주고 구세군의 구호물품을 나눠 주는 등 구제사업을 하면서 구세군 선교도 병행하였다. 그래서였는지 수원영문이 남수동에 있는 동안 교인 가운데 연무동 거주자들이 가장 많았다.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도창현 초대사관이 다른 영문으로 옮긴 후 부임한 2, 3, 4대 담임사관들이 대부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나면서 수원교회는 개척기의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였다.[3)]

수원영문의 기록을 보면 1960년대까지 매년 15~20명의 예비병이 등록하였고 이들의 70% 이상이 병사로 승급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 예비병 등록이 연간 5명 내외로 급감하였다. 예비병 등록자가 계속 줄어들자 8대 담임사관으로 부임한 안정호 사

1970년대 자급선언을 한 구세군 수원영문(구세군 수원교회 제공)

관은 기존의 일괄구역제를 1974년도부터 5개 구역으로 나누고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에 박차를 가하였다. 1구는 남수동·팔달로 전역, 2구는 매향동·동문 밖 전역, 3구는 북수동·영화동 전역, 4구는 연무동 전역, 5구는 지동·매탄동·매교동·기타 동 전역이었다. 각 구의 장은 부교들이 맡았다. 예비병 등록자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1975년 5월 10일 사무검사 결과 수원교회는 1년간 인적·재정적으로 많이 성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문에서 가까운 매향동에 매향여중·고교와 삼일중·고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에 다니는 수원영문 학생들이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였다. 학생들에게는 교회가 예배의 공간이자 친교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중·고등학생수가 증가가면서 1973년에 학생회가 조직되었고 뒤를 이어 1975년에는 청년회도 조직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수원영문은 자급선언을 하였다. 본영이나 다른 영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재정 독립을 한 것이다. 한국인 사령관시대에 들어선 1970년대 한국 구세군은 개

1970년대 남수동에 있었던 구세군 수원영문(구세군 수원교회 제공)

1980년 구세군 수원영문의 불우이웃돕기(수원박물관 제공)

척운동과 자급화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수원영문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급 선언 후에는 건물의 보수와 환경미화, 전화 개통, 피아노 구입 등 영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하였다.

3. 인계동에 터를 잡은 구세군 영문

도창현 사관이 수원영문을 개영한 1950년대 후반은 한옥 예배당이 낯설지 않은 시절이었다. 그러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1970년대 수원 시내에서는 낯선 풍경이 되었다. 영문 주변으로 4~5층의 건물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영문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영문 주변이 혼잡해져서 교인들이 좁은 영문 입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다. 여러 차례 건물을 보수하고 단장했지만 단층 한옥은 사찰 분위기가 나서 선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대지도 'ㄱ' 형태여서 전체적인 영문의 모습이 정돈되지 않은 듯이 보였다. 역대 수원영문 담임사관들은 물론이고 본영에서 방문한 사관들도 모두 수원영문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영문 이전에 필요한 경비와 노력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1978년 6월에 부임한 김기덕 사관은 곧바로 열악한 영문 시설 보수를 시작하였다. 흙바닥이라서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영문 진입로에 보도블록을 깔고 배수로를 만들고 화단을 조성해서 영문 입구의 분위기를 개선하였다. 옛날 건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사택도 구조를 보다 편리하게 변경하였다. 부엌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배수구를 만들어서 부엌 안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나란히 붙어 있던 작은 방 2개를 큰 방 하나로 만들어서 교인들 모임장소로 사용하기 좋게 했다. 교인들을 독려해서 예배당의 방석도 의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내부 수리나 단장은 미봉책일 뿐이었기에 김기덕 사관은 영문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30대 후반의 담임사관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영문을 건축하고 이전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1980년 1월 하사관회의에서 영문 이전을 결의하고 적당한 이전 부지를 찾기 시작하였다. 남수동 영문 주변은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영문을 찾아오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상업지역이고 땅값이 비쌌기 때문에 김기덕 사관과 하사관들은 도심 외곽으로 시야를 돌려 동수원사거리 근처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 그러나 동수원 개발이 시작된 상황이라 땅값이 올라서 확보된 예산으로는 매입이 불가능하였다. 최종적으로 낙점된 곳은 인계동 팽나무고개 근처였다. 남문에서 세류동 방향으로 가다가 매교를 건너면 왼쪽으로 언덕이 나오는데 이곳이 팽나무고개이다. 팽나무고개 일대는 지대가 높아서 수원시내가 시야에 들어오는 곳이었고, 수원영문을 세운다면 사방 어디에서든 영문이 보이는 곳이기도 했다. 김기덕 사관은 수원시를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을 영문부지로 결정했다고 한다.

영문 이전과 건축에 드는 비용은 남수동 영문을 매도하고 건축헌금을 작정해서 충당하기로 하였다. 교인들은 1980년 1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건축을 위한 철야기도회를 시작했고, 주일 점심 금식을 하면서 식비를 건축비에 보탰다. 가정단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영문을 다니면서 베갯잇을 판매하거나 구역별로 할당을 해서 떡을 파는 등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 본영에서 남수동 영문 매도액 9,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새성남영문 개척 비용으로 지원하고 수원영문은 규모를 축소하여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원영문

인계동 팽나무고개 부근으로 이전하여 건립된 구세군 수원교회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구세군 수원교회 일대(김승일 제공)

교인들은 본영의 제안에 반발하였지만 결국 본영의 조건을 수락하고 교회 이전 및 건축 승인을 받았다. 1981년 4월에 남수동 영문 매매계약을 했다. 남수동의 대지는 네모난 형태가 아니고 '⌐' 자형의 대지여서 매도가 쉽지 않은 조건이었으나 바로 옆에 있던 이용기외과에서 매입하는 바람에 수월하게 매도할 수 있었다. 1981년 5월 17일 인계동 905-30번지에서 기공식예배를 드렸다. 기공식예배에는 한국 구세군 사령관이 참석하여 인도하였다.

인계동 영문은 비탈면에 세워졌으므로 정면에서 보면 3층이고 옆에서 보면 2층 건물이었다. 가장 아래층인 지하는 전체 면적의 1/2가량을 파서 큰 방을 만들었다. 이 방은 소예배실로 사용하면서 다용도실의 기능을 겸했는데 식당으로도 사용하였다. 나중에 사찰(査察)을 둘 계획으로 입구 쪽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교인 가운데 임시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잠깐씩 거주하기도 했다. 1층에는 선교원 운영을 염두에 두고 꾸민 교육실과 사택을 두었고, 2층에 예배당을 만들었다. 건물의 정면 쪽으로 정문을 내고 싶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토지 매입을 하지 못했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아서 좁은 골목길에 접한 건물 뒤쪽으로 정문을 냈다. 당시 정문 바로 앞에 거주하던 한 노인이 자신의 집 앞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인계동에 터를 잡고 목회를 해야 하는데 자칫 지역 주민들의 인심을 잃게 될까 봐 영문을 건축하면서 그 노인의 집도 새로 지어 주었다.

공사기간에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영문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워낙 빠듯한 일정이었으므로 완공되기도 전에 입당예배를 드려야 했다. 헌당예배는 이사한 지 거의 1년이 지나서 1982년 10월 10일에 드렸다. 헌당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교인들은 강대상을 비롯한 성물과 사무용 비품, 예배의자 등을 헌물하면서 새 영문을 단장하였다. 선경합섬에 근무하던 한 교인은 회사에서 상으로 받은 금메달을 팔아서 십자가 네온 철탑을 세우기도 했다.

2018년 6월 구세군 수원영문은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역대 담임사관들과 수원영문을 거쳐 간 교인들도 참석하였다. 6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고 수원교회는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팔달 115-8구역 주택재개발지구에 영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수원영문은 재개발지구의 영문 부지에 신축한 새 건물로 돌아올 예정이다.

4. 낮고 어두운 곳을 향한 구세군의 손길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Heart to God, Hand to Man)

이 구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가난과 불행에서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세군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구제와 사회봉사를 통한 하나님 복음의 전파는 구세군의 선교전략이기도 하다.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거리에서 종소리와 함께 만나는 구세군 자선냄비는 이와 같은 구세군의 선교정신을 잘 보여 주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선냄비는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 당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난민과 빈민에게 성탄절을 맞아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던 구세군 사관이 오클랜드 부두에 주방용 큰 냄비를 걸고 '이 냄비를 끓게 합시다.'라고 써서 붙였더니 1,000여 명을 먹이기에 충분한 돈이 모금되었다고 한다. 한국은 1928년 12월 15일 서울 명동에서 자선냄비 모금이 시작되었다.

수원영문은 1978년부터 자선냄비 모금을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담임사관과 하사관들이 다른 영문의 자선냄비 모금을 지원하러 다녔는데 수원영문의 학생회가 부흥하면서 자체적으로 자선냄비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열흘간 장년 2명과 학생 2명이 한 조가 되어 남문백화점 앞에서 모금을 하였는데 총 80만 5,270원의 기부금이 담겼다. 1983년부터는 자선냄비 모금 장소를 남문백화점과 중앙극장 두 곳으로 늘렸다. 수원의 번화가가 이동함에 따라 현재는 수원역과 영통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모금을 하며 자원봉사자나 다른 교단 소속 교회들과 연합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세군 영문의 담임사관은 목회와 사회사업을 동등한 임무로 부여받는다. 영문이 위치한 지역에 필요하고 적절한 사회사업을 병설로 운영하는 것이 목회와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이다. 수원영문은 장애인, 독거노인, 실직자, 노숙자, 결식아동 등을 위한 보호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1984년에 수원영문 부설 바울선교원을 개원하였다. 선교원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1995년 12월 15일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수원박물관 제공)

구세군 수원교회 활동(구세군 수원교회 제공)

구세군 수원교회 활동(구세군 수원교회 제공)

양육하기 위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아교육시설이다. 바울선교원은 성전 건축으로 교회 재정이 여의치 않아 원장은 담임사관이 맡고 운영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인에게 위탁하였다. 그러나 영문 병설시설은 영문이 지역 선교와 봉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영문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본영의 지시가 있어 1987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였다. 3명의 교사가 5세, 6세, 7세반을 담당했고 교회 차량을 통학차량으로 사용하였다. 교육비가 저렴하여 한 반 평균 20명 이상의 원아들은 대부분 서민층 자녀였다. 바울선교원은 시설 미비와 원아 부족 등을 이유로 1996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잠시 중단하였으나 다시 개원하지 못하였다.

1997년에는 자선봉사단을 창단하였다. 자선봉사단은 영문이 속한 지역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세군의 봉사단체이다. 병원, 노인·어린이·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물질적·정서적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자선봉사단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의 영혼 구원이다. 수원영문 자선봉사단은 2002년부터 가정단과 함께 '지역 어르신 섬김의 날'을 시작하였다. 영문이 위치한 인계동의 경로당 노인들에게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대접하고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 이·미용·수지침 봉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수원영문이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2006년 11월에는 매교동에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주간 보호를 위해 '구세군 장애인 지원센터'를 열었다. 일반 주택과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장애인 지원센터는 주간 보호실, 직업 재활 작업장, 교육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수원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수원영문에서는 장애인의 재활훈련과 분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선교를 위해 예배시설도 갖추었는데 2017년에 서수원영문 교인 일부가 합류하면서 밀알영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수원영문은 12대 담임사관이었던 최동근 참령 부부가 은퇴하면서 영화동에 개척하였다. 수원시가 경기도 도청소재지인 만큼 영문을 두 곳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의 동부 지역은 수원영문이 있으니 서부 지역에 서수원영문을 세우고자 했고 영화동의 한 건물에 영문을 세웠다. 수원영문 교인 가운데 석씨 집안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수원영문을 개척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17년에 교인들이 수원영문과 밀알영문으로 옮겼고, 병설로 운영하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구운동의 한 주택을 임대해서 유지하고 있다.

2007년 11월에는 국가 보조와 대한본영·지방본영의 보조를 받아 수원영문 1층 전체를 노유자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은빛사랑채'를 개소하였다. 노인 주간 보호시설로 승인을 받은 은빛사랑채는 10년 정도 치매·중풍 노인들을 돌보다가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영문 주변 환경이 나빠지게 되어 2017년 5월 31일 폐원하였다.

병설 복지시설 운영 외에도 수원영문은 매년 설과 추석에 수원보호관찰소를 찾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주거환경 개선이나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2014년에는 수원영문이 수원보호관찰소장에게 감사패를 받았고, 2015년에는 담임사관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5. 구세군 수원영문 사람들

구세군은 제복이나 용어 등의 군대식 특성 때문에 선교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인계동에 들어선 수원영문의 번듯한 외관을 보고 인근 향원아파트 거주 교인들이 왔다가 사관의 제복을 보고 돌아간 일화도 있다. 수원영문의 교인 구성을 보더라도 전체의 50% 정도는 개척기부터 대를 이어 출석하는 경우이고 다른 지역에서 수원으로 이사 온 교인과 새신자가 각각 20~30%를 차지한다. 개척기에 등록한 교인들은 고인이 되었거나 고령화로 거동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자녀 세대가 현재 수원영문의 중직 하사관을 맡고 있으며, 학생부와 청년부도 2대 또는 3대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수원영문이 60년의 역사를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담임사관과 교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몇몇의 사관과 하사관들은 수원영문의 기틀을 세우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 지금의 수원영문이 있기까지 기여한 바가 크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듯하다.

수원영문을 개척한 도창현 사관은 1936년 구세군 사관으로 임명된 후 1967년에 은퇴할 때까지 전국 8곳에 영문을 개척하여 한국 구세군 '영문 개척의 왕'으로 불리고 있다. 수원영문 개척 이듬해인 1959년에는 안양 냉천동에 있는 다른 교단의 목회자를 특무[4]로 만들어서 수원영문 안양분영을 열기도 했다. 안양분영은 1961년 2월에 안양영문으로 개영하였고 초대담임사관 이공신 부위는 수원영문에서 1959년에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졸업 후에 안양영문으로 부임한 것으로 보인다.

10대 김기덕 사관은 1978년 부임해서 1985년에 떠나기까지 7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원영문의 숙원사업이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던 영문 이전을 단행하였다. 남수동에서 인계동으로 영문을 이전하여 신축하였다. 또한 규모에 관계없이 영문당 1명의 정교를 두도록 한 구세군 규정을, 교인 수가 많은 영문은 여러 명의 정교를 둘 수 있도록 본영에 건의하여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그 결과 1979년 수원영문은 선교정교 최관일, 재무정교 최병기, 부인정교 김순녀가 임명되었다.

16대 최성환 사관은 역대 담임사관 가운데 최장기인 8년간 수원영문을 이끌었다. 영문악대를 조직하여 예배는 물론 구세군사업에도 큰 도움을 주었고, 장애인 지원센터와 노인 주간 보호시설을 개소하는 등 영문의 사회사업도 확대하였다.

1965년부터 1997년 소천하기까지 40여 년간 정교로 봉사한 최관일을 수원영문 60년 역사에서 으뜸병사로 손꼽는 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동의할 것이다. 개척기인 1960년부터

박금준과 안정호 사관(구세군 수원교회 제공)

최관일 정교, 안정호 사관, 박승조 정교(구세군 수원교회 제공)

수원영문의 담임사관과 하사관들

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영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3년 9월 1일자 『구세공보』에 그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 최정교에게서는 대륙적 기질, 끈질긴 성격이 엿보이는데 일찍이 11세 때 평남 평원군 평원면 송석리에서 의모를 따라 만주 사평성 해룡현 산성전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금 마산 문창교회에서 원로목사가 되신 김석찬 목사의 교회에서 연단을 받고 25세 청년 때까지 감화가 컸었다. 해방 후 평양서 지내다가 1·4후퇴 때 도보로 서울을 거쳐 인천서 배로 부산까지 갔다. 파란 많은 인생 50이 넘은 오늘 세상에 남길 것은 주님사업밖에 없기에 앞으로 부흥과 성전건축에 더욱 힘쓰려 한다. 공무원 같은 생활에 안식일을 성수하며 매달 만 여원을 바치고 약한 영문교회에 몸담아 십자가를 도맡아 지는 그의 끈질긴 봉사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고 보답하실 것이다. 주의 종을 받드는 정성 지극하면서도 가족적인 분위기인 구세군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 크다.

1970년대 수원영문 교인 가운데 10대 후반의 삼우직물 여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다. 이들은 당시 삼우직물 기숙사 사감이던 박승조 정교의 전도로 구세군 병사가 되었다. 박승조는 다른 영문에 출석하다가 1967년 수원으로 이주하면서 수원영문 교인으로 등록한 후 1972년에 하사관이 되었다. 1975년 가정단장으로 임명된 후 오랫동안 수원영문의 신실한 일꾼으로 봉사하였다. 수원영문 영문일지에는 박승조 정교가 삼우직물 직원 송순자의 친부모를 찾아 준 미담이 기록되어 있다.

19세의 송순자(1958년생)는 시흥군 의왕면 오전리에 있는 삼우직물회사 직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가난한 부모는 7살의 송순자를 황씨네 수양딸로 보냈는데, 황씨가 첩을 들이자 황씨 부인이 송순자를 데리고 서울로 상경하면서 소식이 끊어지게 되었다. 서울 살이가 녹록치 않았던 황씨 부인은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송순자를 남의 집 식모로 일하게 했다. 송순자의 이름도 황순희로 바꿔 버렸다. 황씨 부인은 무학으로 10년 정도 식모살이하던 송순자를 공장에 취직시키려고 같은 마을에 살던 삼우직물 기숙사 사감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감이 박승조 정교였다. 박승조 정교는 송순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서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하는 그녀를 돕기 위해 경북 영덕과 영양 지역의 경찰서에 수소문하여 친부모를 만나게 해 주었다.

1958년 수원영문이 개척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원영문을 떠나지 않은 김정봉 부교는 1918년생으로 수원영문 최고령 교인이자 최장기 출석자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가정단장으로 심방부교로 헌신하였고 역대 담임사관들의 조력자로서 수원영문에 기여하였다.

구세군 교회는 다른 교단에 비해 교세가 작고 사회적 인지도도 낮은 편이다. 교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교회의 봉사 사역을 감당하려면 개인적 헌신이 따라야 하고, 때로는 불편한 사회적 시선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군 병사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구세군 정신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임한 예수의 가르침에 부합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걷겠다고 말한다.

> 저는 구세군의 역사와 정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게 많아서 좋아요. 영통으로 이사하면 교회를 큰 교회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구세군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구세군이 세가 너무 열악해서 실망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사회복지 이론에도 윌리엄 부스가 세웠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해요. 신도시가 생기면 모든 교단이 다 들어가지만 구세군은 복음 불모지로 간다는 데 자부심이 있어요.

1) 구세군 수원영문 관련 내용은 『영문일지』와 교인, 담임사관들의 구술자료를 참고하였다.
2) 『구세공보』, 1973년 9월 1일.
3) 구세군은 중앙에서 인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순환근무제가 원칙이다.
4) 사관의 수가 부족하던 시절에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사관의 역할을 하던 병사이다.

인계동 848-11번지 언덕, 예전 향원아파트였던 인계파밀리에아파트 부근의 공간을 쓰기로 결정한 것은 그곳이 다른 빈집들보다 주민자치센터와 가장 가깝기도 했거니와 화성역사를 중심으로 일제 때 형성된 구도심권 길과 인계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소방도로로 처음 뚫린 통학길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었다. 인계동 주민자치센터 부근 동네는 1970년대 도시화되면서 형성되었다.

이진희 시인

4장 | 다 함께 한울타리, '다울'공동체

1. 시작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팀에서

인계동 다울공동체 이야기를 하려면 인계동 주민자치센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울공동체 현 대표인 송은정을 인터뷰한 곳도 인계동 주민자치센터 2층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공동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2층을 약속장소로 잡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인계동주민자치센터는 인계동에서 벌어지는 마을행사와 사업의 중요한 지점이자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 이곳 2층의 봉사센터와 찻집 역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자치센터나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2000년부터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되었고,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각종 동 행사를 통합하여 자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주민자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일정한 봉사시간이 할당되어 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각 행사의 구체적인 과정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물론 25명 정도의 자치위원은 행사 당일에는 참석하지만 사전 실무에 모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자치위원회 직속 운영팀이다. 이 운영팀 소속 봉사

경기민요

댄스스포츠

생활요가

한국무용

인계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계동 주민자치센터 제공)

자들은 상근은 아니지만 와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행사 준비를 했다. 운영팀은 인계동 내의 14개 단체와 인계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인원은 12~13명 정도였다.

상황에 따라 인계동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공간을 오가며 일을 했지만 처음에는 이 운영팀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은 없었다. 업무나 조직이 차차 체계화되면서 2009년에서 2010년 정도에 '온시민인계봉사센터'라는 명칭으로 자치센터 2층에 접수대가 만들어졌다. 2000년대 초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서예교실과 노래 부르기 교실 정도였고, 방학에는 아이들을 모아서 환경정화 활동하는 정도만 있었다. 그렇게 하다가 운영팀 활동이 체계화·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갔다. 2018년 초 재개발에 따른 이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은 많았다.

전통문화 분야의 경기민요, 서예교실, 한국무용부터 생활건강 분야의 요가, 댄스스포츠, 라인댄스와 하모니카, 오카리나 교실, 캘리그래피, 연필인물과 교실, 중국어와 일본어 교실까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설했으며, 수업 진행 강사들을 인계동 및 인근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여 주민들과의 친밀도와 연대감을 높이고, 수업의 지속성까지 꾀하였다. 그 결과 초급반에서 기초부터 시작하여 상당한 수준까지 수업의 내용을 습득한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인계동 재개발로 주민센터도 KBS수원센터가 위치한 부근에 장소를 3년이란 기간을 임대하여 이전한다. 그래서 2018년 11월 현재는 이번 달 접수를 끝으로 12월까지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 회의실이나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할 테지만 주민자치센터가 3년간 임대한 공간이 그다지 넓지 않아서, 내년부터 당분간은 프로그램 진행이 지금처럼 다양하거나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 듯싶다.

인계동 주민자치센터 2층은 현재, 로비 복도에는 캘리그래피와 연필초상화, 한지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로비는 온시민인계봉사센터 접수대와 커피봉사단인 '여우천사'가 비영리로 운영하는 찻집 공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다목적실과 공예실, 마을문고가 별도의 공간으로 각각 자리하고 있다. 3층은 서예실과 강당 형태로 된 대회의실이 있다. 2층의 다목적실은 이전에는 헬스장이었는데 다목적실로 바뀐 것이다. 현재의 프로그램 외에도 노래 부르기, 한지 공예, POP, 난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시청이나 구청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예전에 한 2년 정도 시에서 자치센터 지원비를 지급한 적도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니 각 프로그램에 배분되는 지원비가 줄어들어서 프로그램을 유료화했고 공모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자치위원회에서는 강사의 시간이나 그 외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유료 프로그램은 한 달에 5,000원 정도 받다가 지금은 조례 기준에 따라 1만 원 선에서 비용을 받는다. 즉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시나 군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 사람과 공간이 필요했다

다울공동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는 별개의 활동 단체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인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울공동체가 형성된 중요한 배경이자 구심점이다. 다울공동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기초적인 활동이나 수업을 매달 혹은 매분기 반복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초 과정이 끝나더라도 주민들이 여가활동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수업과 활동들을 통해 주민들 간에 자연스럽게 친목 동아리가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될수록 동아리도 많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데서 생겼다. 먼저 형성된 동아리들과 후발 동아리들이 공간 사용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이다. 그래서 자치센터 안에서의 동아리 활동이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에 2011년 10월에 우만동에 평생학습관이 개관했고, 동아리 활동을 유지하려면 그곳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었다. 마을 안에 동아리들이 유지가 되었을 때는 마을 행사가 있으면 동아리들과 자연스럽게 일을 분담할 수 있었기에 마을 안에서 순환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동아리들이 평생학습관으로 가자 소속감이 달라졌는지 동아리와 마을의 관계가 느슨해져 버렸다. 동아리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공간이라는 하드웨어가 적절히 받쳐 못해 생긴 결과였다.

마을 행사를 진행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온시민인계봉사센터'였다. 이곳이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지소 역할을 했다. 자원봉사를 하기는 하되,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를 하게끔 만든 것이다.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수원시 전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포괄하고 관리하기 버거우니, 온시민인계봉사센터가 그곳과 시스템을 연결하여 일감과 인적자원 관리를 비롯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교육과 활동보고 등을 진행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인계동의 마을 활동과 행사를 해결해 나간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산하 운영팀 소속 팀원이었던 사람들이 온시민인계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되어 동아리의 자원봉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마을 행사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민들 개개인이 무작정 행사에 참여하여 일을 돕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온시민인계봉사센터가 주민들과 마을 활동이나 행사의 가교 역할을 한다. 즉,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인 소통을 통한 희망 찾기 들차회 활동(송은정 제공)

자원봉사 활동(2016년, 송은정 제공)

받으면서 마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것인데,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언제 어떤 행사가 있으니 어느 정도 규모의 주민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을 봉사센터에 의뢰한다. 학생들은 입시에 봉사시간을 활용하고 일반 주민들은 봉사시간을 포인트로 받아 수원시와 제휴한 문화복지 쪽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이 봉사시간은 동아리 활동을 지원받는 데도 쓰인다. 물론 이런 혜택도 혜택이지만 봉사센터는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의 목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자원봉사가 단순한 노동이나 사소한 도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능을 나눔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다. 마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다함께 즐거운 형식을 만드는 것, 마을 축제에 마을의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이든 무엇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곳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다. 좀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3. 빈집을 활용해 보자

그러한 와중에 수원시에서 2010년부터 공동체 활동, 즉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미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송은정은 사업과 관련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교

육을 누구보다 먼저 받았다. 교육은 이전 활동들의 연장이었다. 평생학습과 자원봉사 등과 마찬가지로 마을 르네상스사업은 마을 안에서 사람들끼리 관계를 갖는 활동이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것이 마을 르네사스사업의 목적인데, 커피봉사단인 '여우천사' 사업도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그들이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커피봉사를 했다. 그런데 커피봉사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확장하여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나 해서 만든 것이 현재의 여우천사 '카페'라는 공간이고 이 공간 운영 수익금을 매년 연말에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도 진행하였다. 인계동 팔달10구역은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도로 포장은 물론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지원이 안 되었다. "재개발을 할 동네에 뭐 하러 투자를 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공모를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지원을 해 주었다. 아무리 재개발을 한다지만 주민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내 집안을 정돈하고 내 집 앞을 가꾸고 나아가 골목을 단장해야 할 것이었다. 마을이 깨끗해지면 안전까지도 담보된다. 그래서 마을 가꾸기, 골목 살리기를 위해 벽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마을의 역사 찾기도 진행하였다. 역사 찾기 사업 결과를 다시 스토리텔링화하여 마을을 찾아오는 외부인에게 마을 안내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비롯하여 소소하고 모임과 다양한 마을 르네상스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주민자치센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였다. 그런데 마을 곳곳을 다니다 보니 빈집들이 많았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행궁동의 레지던시와 같은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마을 르네상스 활동에서도 주도적이었던 송은정은 개인 활동으로 한지공예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과 아이들이 살던 건물 1층을 작업 공방으로 쓰고 있었다. 단체 활동이며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니 공방과 집이 붙어 있는 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송은정은 행궁동 쪽에 공간을 알아보던 참에 당시 주민자치센터 팀장이 인계동에서도 빈집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렇게 해서 알아본 공간 중 하나가 다울공동체 공간이 되었다.

인계동 848-11번지 언덕, 예전 향원아파트였던 파밀리에아파트 부근의 공간을 쓰기로 결정한 것은 그곳이 다른 빈집들보다 주민자치센터와 가장 가깝기도 했거니와 화성역사를 중심으로 일제 때 형성된 구도심권 길과 인계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소방도로로 처음 뚫린 통학길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었다. 인계동 주민자치센터 부근 동네는 1970년대

인계동 848-11번지 언덕에 있던 빈집(송은정 제공)

도시화되면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시청 방면으로 난 길, '인계로'는 그보다 더 이후 매탄동 일대가 개발되고 시청이 들어오면서 개통되었는데 이전에 그 일대는 논밭이거나 과수원, 호박밭이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계동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매교다리 부근과 지동에서 들어오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언덕 위의 향원아파트만 해도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가 아니라 벽돌을 쌓아올려 지은 5층짜리 아파트였다.

4. 인계동 848-11번지

2013년에 공간을 발견한 뒤, 사업을 하려니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체를 만들었어야 했다. 초기에는 '다울'이라는 이름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한 인원들을 주체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옥탑방이 있는 34평짜리 2층 양옥집은 전기나 수도가

다울공동체 공간 조성(송은정 제공)

다 끊긴 상태로 10년 이상 폐가로 버려져 있어서 범죄나 화재 등에 취약한 장소였다. 아무나 들어와서 취식하고 살기도 해서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다. 인근에서 가장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었지만 입지 조건이 좋았고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주민자치센터와 가깝고 통학로에 위치해 있었으며 인계파밀리에아파트 후문 쪽이기도 해서 그곳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많은 이웃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즉 여러 모로 가장 취약한 곳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을 내의 관계성 면에서 보자면 가장 공동체를 만들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다.

공간 조성사업 첫해에 4,000만 원을 받았지만 다들 그 비용으로는 어림없다고 했다. 쓰레기 철거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안전 검사비용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다른 설비는 거의 하지 않았다. 기존의 창문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라진 문을 달고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넣고 대문을 다는 정도로만 정비하였다. 대신에 주체에 참여한 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쓰레기를 치우거나 사포질, 페인트칠을 하거나 도배를 해 주었다. 그야말로 품앗이로 공간을 조성한 셈이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절약되었고, 어지간한 비품들도 여러 사람이 기증을 해 주거나 직접 제작하여 주었다. 모두들 우렁각시, 우렁신랑이 되어 공간 조성에 함께하였다.

자치위원장 주관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산하 운영팀이 실무를 맡았고 운영팀장이던 송은정을 비롯한 운영팀이 다울공동체 조성에 주로 개입하게 되었다. 이어 송은정이 공동체의 간사를 맡는 동시에 공간 2층을 공방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다울공동체의 전체적인 일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다울공동체의 시작이다. 공간 조성 이후 2013년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개소식을 했다. 염태영 시장도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개소식 이후 아이들과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쫀쫀하게 프로그램을 짰다. 사업비도 받은 터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쌓인 노하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간 자치센터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 볼 욕심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2013년 다울마을(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3년 9월 24일 인계동 다울마을 개소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않았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고 왔지만 공동체는 우선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었다.

홍보를 한다고 현수막을 걸고 안내도 했지만 사람들은 공동체 공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1층에 아나바다 장터도 만들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았다. 헌집을 정성들여 고치고 꾸몄지만 결정적으로 그 건물은 냉난방이 안 되는 열악한 건물이었다. 첫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다. 대신에 자치센터에서 진행하던 아이들 프로그램을 공동체 공간으로 가져가서 진행하였다. 그 당시에는 테이블조차 없어서 부녀회에서 쓰던 앉은뱅이 탁자를 빌려다가 썼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마을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바깥 활동에 주력하였다. 공원에 가서 전통놀이를 한다든지, 나무 심기를 한다든지, 아이들과 쓰레기가 많이 쌓인 곳을 청소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쓰레기가 쌓이지 않을까 고민해서 그곳을 화단으로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었다.

인계동 다울마을 안내(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5. 실패를 거듭한 후 찾아온 성과

2013~2014년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 다울공동체 건너편 폐가 앞에 간이점방이 생겼다. 그곳에 어르신들이 나와 앉아서 나물을 다듬고 마늘을 까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파트 후문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분이 점방을 만든 것인데 그분이 어르신들에게 밥과 간식을 댔다. 다울이라는 공간이 살아나니 어르신들이 굳이 경로당 가지 않더라도 아침부터 나와서 소일거리를 하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공동체였다. 처음에 송은정이 다울공동체에 자리했을 때 주변 동네 사람들은 송은정을 부동산 투기를 하러 온 외부 사람으로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대문을 활짝 열어 놓거나 밤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하자 이웃집 인테리어 하는 남자분이 찾아와 얼마 주고 여기에 들어왔느냐고 물은 적도 있다.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그걸 어떻게 믿는냐 해서 지켜보시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은 소소한 것들이었다. 바느질, 화분 만들기, 묘목 심어 나누기, 과일청 만들기, 머그잔에 그림 그리기, 염색 등등. 이렇게 배운 것들로 주민들은 생활과 마을 활동에 활용하였다.

소소하지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인계동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다울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참여하고 더불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1년에 한 번 연말에 사진들을 모아서 평가회를 가지지만 자료들은 정리되어 모이지 않고 사업이 바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다시 처음부터 자료를 찾아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행사 때마다 사진을 저장하기도 했으나 그 또한 매번 자료를 새로 찾아야 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영상기록이었다. 행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편집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그래서 2014년에 다울공동체에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초반에는 그 계획도 실패하였다. 의도는 좋았으나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각자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다고는 했지만 간단한 편집조차 할 수 없었다. 실습 없이 강의로만 실행될 일이 아니었다. 교육 대상을 단체나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각 팀의 대표로 잡은 것도 실패의 원인이었다. 그들이 기록과 편집 기술을 습득하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너무 바빠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대여섯 명의 사람이 수업을 시작하여, 강사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4개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할머니들이 모이는 다울공동체 앞 간이점방(송은정 제공)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2014년)

다울영상제작단 마을 촬영(2017년)

수원 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2017년)

마을 영화제 상영회(2018년)

다울공동체 미디어 활동(송은정 제공)

다울공동체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한 이야기, 염색에 대한 작업 과정, 여우천사 활동 등 2~3분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어 텅 빈 다울공동체의 벽에 켄트지를 붙이고 상영회도 열었다. 상영회를 연 건 한겨울이었다. 난로 2개 피우고 빔을 틀었는데, 전기 차단기가 내려갔다. 그래서 난로를 다 끄고 영상을 본 후에 난로를 켰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상영회가 자극이 되어 영상제작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던 차에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수원미디어센터가 생겼다. 그래서 다울공동체가 그곳으로 찾아갔다. 마을 르네상스센터에서도 마을에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마을미디어 교육을 시켰다. 라디오 교육과 영상교육을 받은 후 홍종희, 하재희, 유소이, 송은정 4명이 영상팀을 구성하였다.

이후 이들이 매년 많게는 네 작품, 평균 2작품 내외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6. 문화의 흐름을 읽어야

2014년에 수원문화재단에서 제주도에서 문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송은정은 그 워크숍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마을 활동을 해 나가려면 정보를 알아야 하고 문화 활동의 흐름도 알아야 한다. 문화재단 외에도 서울에 소재한 문예진흥원, 수원문화원,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등에도 꼭 참석한다. 각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메일 수신을 통해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각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 문화재단, 마을 르네상스센터 등 각 단체나 기관이 연말부터 연초까지 띄우는 사업 공고도 꼼꼼히 확인한다. 그런 다음 마을공동체가 매년마다 세우는 목표에 부합하는 공모가 있으면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는 것이다. 2014년 제주도 워크숍에 갔다가 그곳에서 마을에 상주하는 작가가 1인 라디오를 하는 것을 보고 왔다.

버스정류장에 노트북 하나를 놓고 노트북에 딸린 스피커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을 위해 라디오방송을 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정류장에 와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직접 얘기도 하는 오픈 라디오 형식이었다. 어딘가로 널리 송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녹음된 정류장의 상황은 그대로 그 마을의 소식통이 되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장날이나 주말에 맞춰서 일주일 동안의 마을 이야기와 마을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방송이 마을 전체를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나혜석거리에서 프리마켓을 하던 다울공동체도 라디오교육을 받고 나자마자 2014년 10월에 진행자 둘이서 버스킹 공연처럼 오픈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정례화되어서 나혜석거리에 있는 간이무대에서 매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회,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프닝 멘트하고 준비한 곡을 틀고 이런저런 소식을 잠깐 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장소에 온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연과 신청곡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2시간이 금방 흘러간다. 2018년 10월에는 영상팀이 찍은 영상 상영회와 라디오방송을 같이 진행하였다.

다울공동체의 활동은 청소년활동, 성인 대상 프로그램, 미디어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울공동체의 활동은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센터 등과 긴밀히 연결되고 엮여 있다. 자치위원회와 공동체의 주체들이 모인 마을협의회는 민간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주고, 인계

나혜석거리에서 실시한 오픈라디오

국제교류 다울마을 다도체험

바느질 교실

반달공원 전통놀이 프로그램 운영

다울공동체 활동(송은정 제공)

동 주민자치센터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평생학습관이나 자원봉사센터, 마을 르네상스센터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그 안에서 '여우천사'나 '다울공동체'가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다울공동체는 자치위원회에서 비롯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자치위원장이 공동체 대표를 겸임하지 못하게 되었다. 엄밀히 따지면 자치위원회는 시에서 만든 조례가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렇게 해서 송은정이 다울공동체의 대표를 맡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운영팀과 관계를 갖고 같이 일하기는 하되, 맡고 있던 운영팀장은 다른 사람이 맡게 되었다. 마을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치위원회와 행정 등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소모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마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단위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도우면 보다 효율적인 활동과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마을 축제에 나혜석거리 프리마켓 판매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판매자들은 수공예품을 만드는 '작가단'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혜석거리에서 처음에 장터를 시작할 때는 아나바다팀, 자원봉사팀, 나눔팀이 다함께 했었다. 초반에는 팀이 많지 않아 문제가 없었는데 두 해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어느새 수원 시내 전체에서 아나바다장터를 열고 있어서 나혜석거리 장터의 특색이 없어져 버렸다. 또한 상인회와의 공존도 고려해야 했다.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되, 작가로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오는 사람들로 프리마켓 판매자를 한정했고 그 안에서도 사전 검증 작업을 거쳤다. 이 프리마켓은 다울공동체와 운영팀 내에 있는 별도의 관리자가 관리한다. 이 프리마켓도 온시민자원봉사센터에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하나의 주체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민간이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갖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공동체와 단체, 기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행사를 준비할 때는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 회의를 통해서 일을 분담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점검, 해결할 수 있다. 인계동의 경우 일을 진행할 때 맨 처음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연 다음 산하 운영팀 회의, 그리고 다울공동체 회의 순으로 연결되는데, 공동체 내의 팀별 회의도 다시 진행된다. 이 회의의 내용들은 순환, 공유된다.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아진다.

7. 다울공동체와 아이들

다울공동체 내에는 다울팀, 영상팀, 청소년봉사팀이 있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청소년들은 모집하지 못하였다. 건물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봉사팀의 경우 2013년에는 수원 시내 전체 청소년들이 다 왔었다.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 한 번 오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2015년부터 마을 아이들 위주로 봉사단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마을에 사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동아리를 모집해 오도록 한 것이다. 그 아이들은 토요일마다 활동을 했고, 다울공동체에서는 1년 동안 아이들의 활동을

다울마을 청소년 체험(2014년)

다울청소년봉사단(2015년)

청소년 조경활동(2015년)

청소년 방학특강(2015년)

다울청소년봉사단 라디오교육(2017년)

다울청소년봉사단(2017년)

다울공동체 청소년 활동(송은정 제공)

관리해 주었다. 아이들의 활동을 모두 기록하고 발표하게 했고 입학사정관제나 포상 등을 통해 참여 요인을 높였다.

초반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의 일이 있다. 농생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해서 토요일 저녁이 되어야 외출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기대를 안고 온 아이들이 와서 3월 한 달 동안 마을 돌아보기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참 얘기를 하고 일을 결정했는데, 알고 보니 농생고는 특수고등학교라서 입학사정관제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은 갈등을 했다. 그러던 중 아이들과 5월에 환경의 날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 행사에서 상을 받았다. 그 포상이 봉사활동에 의미가 된 부여된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이 입학사정관제와 상관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도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활동 공모에 응모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토요일에 봉사를 하러 못 올 때는 일요일에라도 와서 자기 몫을 하고 갔다. 시험기간에는 학교 친구들에게 다울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홍보를 하고 보고서를 내게 했다. 일회성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원봉사에 대한 확실한 경험한 하게 한 것이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자신 있게 풀어놓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다음 해에는 수원여고에 다니는 마을 아이가 다울공동체에 왔고 다시 다음에는 그 아이의 남동생과 후배들이 공동체에 찾아와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2019년도에 이사가 완료되면 그 장소에서 다시 아이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다울'은 다 함께 한울타리라는, 공동체의 순우리말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차영주 당시 행정팀장이 제안한 이름이다. 차영주 팀장은 송은정과 함께 다울공동체 공간을 찾아낸 사람이기도 하다. 빈집을 열고 들어가서 살피고 찾아내는 일은 민간 자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울공동체 활동 중 청소년활동은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았고, 영상라디오는 미디어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공간 내에서 진행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은 마을 르네상스센터의 지원비를 받아서 운영하였다. 다울공동체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한다면 청소년팀, 영상팀, 라디오팀이 꾸려지고 활동하는 것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다울공동체 및 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말이다. 2015년에 활동했던 마을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 공동체를 드나들고, 그 아이를 통해 부모들과도 관계가 맺어지고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도우러 오는 상황이 되었다. 2016년도에 활동했던 수원여고 학생은 대학 동아리에서 공간이 필요하면 다울공동체에 공간 사용 가

능 여부를 물어오기도 한다.

8. 공동체의 역할은 사람을 모으는 것

처음에 공간을 조성할 때는 2층에 화장실을 하나만 뒀었는데, 1층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두다 보니 화장실 사용 문제 때문에라도 사람이 상주해야 하는 소비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2016년에 다울공동체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수리비용을 받아서 1층에 화장실을 만들고 지나치게 좁고 가팔랐던 계단도 고쳤다. 거기에 열쇠키를 번호키로 바꾸는 작업과 전기 승압 공사 등도 했다. 그렇게 들였던 공과 비용, 손길들이 재개발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아깝지만 그만큼의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간판부터 사람들의 손길이 하나하나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곳이 다울공동체이다.

장소는 그냥 공간이 아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오가고 머물면 이야기와 추억이 만들어진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 혹은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울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고 연결되었다. 다울공동체는 2016년도부터 스토리텔링 작업을 해서 '마을 안내'를 하기 시작하였다. 공동체 공간에서부터 '여우천사'가 있는 주민자치센터, 벽화길로 이어지는 마을 올레길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인계동 10구역에는 다울공동체 말고도 도예공방과 레지던시가 하나 더 있고, 2001아울렛 앞쪽에 '인도래창작소'가 있다. 이러한 공간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길로 만들어서 외부 단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나 도시재생 관련 단체나 학생들, 마을공동체 등에서 오면 마을을 탐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간을 만드는 데 첫해에 4,000만 원, 이후로 한해에 몇 백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그만큼의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에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관계한다. 하지만 그들과 자치센터 사람들의 관계는 안면을 익히는 정도의 단순한, 이를테면 점과 점이 잠시 마주쳤다 각자의 길을 가는 관계라면 다울공동체에서의 관계는 직접 활동에 참여하고 오래 이야기를 주고받고 삶을 나누는 선과 선이 엮이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송은정은 마을에서 이전에 30년 살았을 때보다 5~6년 동안 다울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깊이 있고 친밀해졌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오목천동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도

인계동 올레길(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인계동 올레길(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인계동 올레길(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마을 안내 마주넷(송은정 제공)

인계동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처럼 여기고 있다. 유년기를 보냈던 친정보다 인계동에서의 관계가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다울공동체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마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나름의 삶들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다울공동체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관계, 유대가 생긴 셈이다. 다울공동체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기도 했으며 이전의 관계들을 새로이 정립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내가 알던 사람이 나의 어머니와 친한 사람이었고, 그는 다시 나와 연결된 누군가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나'의 시선에서만 바라보고 '나'의 입장에서만 맺어 온 관계라는 것이 실은 보이지 않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설켜 있다는 것을 공공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마을 안에서의 내 역할, 몫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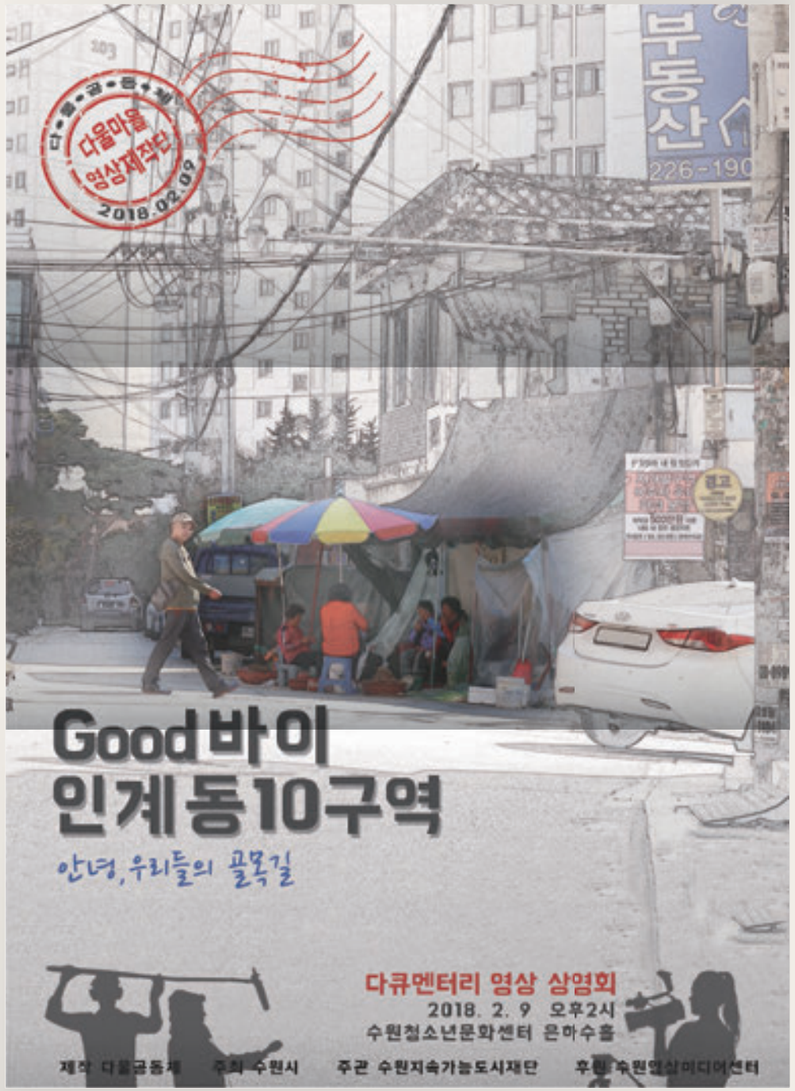
각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마을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하는 듯하다. 다울공동체 송은정 대표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얘기한다. 예전에는 노년을 대비하여 물질적인 것을 준비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관계'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을이 관계로서 좋게 유지되고, 마을에서 사람들의 활동이 좋게 유지되면 나이를 먹어도 그 안에 자연스럽게 섞여 활동하고 소통하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리라.

9. 새로워지는 지형, 새로운 시도

그런데 마을의 지형이 바뀌면 삶의 지형도 바뀌지 않을까. 재개발 이후, 기존 거주민들이 제법 많이 되돌아온다고는 해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새로운 사람들도 유입될 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택이나 단층에서 살아갈 때와는 몹시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송은정 대표는 새로운 시도들을 기획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의 다울공동체의 활동도 실은 마을 환경을 조사하여 마을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마을의 조건에 맞춰서 마을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한다. 마을이 달라지면 달라진 마을에 맞는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요새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 공간을 아파트 관리소가 아니라 공동체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는 데도 주민자치로 운영을 할 것이니 주민들이 운영하기 좋은 공간으로 지어 달라는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고 있다. 송은정 대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모델하우스의 재활용이다. 모델하우스는 분양 후 몇 년을 빈 채로 유지되다가 철거가 되는 형편이다. 물론 건설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겠고, 그러려면 관도 적절히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열심히 대화를 해서 협조와 양해를 구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도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을 것이다. 지나간 시대처럼 상명하복의 관계, 외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도시와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편안하게 유지될 수 없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다. 공동체 활동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공방을 운영하면서 관련 수업을 할 때는 수입이 생겼지만 공동체 활동에 주력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모였고, 팀이 만들어졌다. 초창기만큼 송은정 대표가 하



'good바이 인계동10구역' 상영회 포스터

나에서부터 열까지 주관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된 것이다.

공동체 활동으로 공을 들인 마을 재개발이 확정되었을 초반에는 공동체의 문을 닫고 활동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사라지는 마을에 대한 기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마을이고, 노년의 삶을 생각한다면 관계들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곳에서의 활동을 이어 나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몫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마을 활동으로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였을 뿐이던 내가 나의 이름을 당당하게 회복하였다. 이전의 문화 활동, 공예 활동 등 개인적인 활동은 이제 취미로 하는 활동이 되었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으로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송은정은 현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내의 마을 르네상스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공모사업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바뀔 예정이다. 마을에서 시행되는 사업들과 관련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 옛날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동네의 일들을 의논하듯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일을 공고하고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하여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주민의 관리, 감독 하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이 분명 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을 이해시키고 협의를 할지 하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부딪쳐 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계각층,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직업 불문하고 마을의 구성원이라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일정 시간과 내용의 교육을 이수한 이후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마을을 만들어 가는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물이 흐르던 장다리천은 우만동이 재개발됨에 따라 여우골이 끊기면서 건천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1989년 장다리천을 복개하고 그 위로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었다. 주로 요식업들이 들어섰고, 건축업, 제조업, 전기 등 타 업종들까지 점차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장다리길 근처에 살고 있는 수원 원주민 분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사업 외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주를 이룬다.

정민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박성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5장 | 인계동 장다리길의 꿈

1. 길 위의 사람들

인류는 언제나 '길'과 함께해 왔다. 수많은 민족과 그들의 문명은 길 위에서 마주치고 혼재되며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길은 문화의 교류가 일어나는 통로이자, 소통의 공간이었다. 이처럼 길은 이동의 가시적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류와 변화의 현상이 관찰되는 현상 공간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길은 그 자체가 지닌 물리적 장소로서의 특징보다는, 공동체와 문화가 뒤섞이며 숨 쉬는 일종의 과정이자 현상이 발현되는 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인계동에는 수원시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장다리길이 있다. 인계사거리에서 평화전기조명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왼쪽에는 푸른 반달공원이 있고 앞으로는 각양각색의 상점들이 즐비하다. 장다리길 아래로는 자동차용품 전문점, 위로는 수원의 대표 갈비집 가보정, 경양식집 로마경양식 등 음식점들이 밀집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있다. 주변은 주택과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며, 인계초등학교와 수원공업고등학교가 인접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며 상업 활동이 이루어진다.

장다리길(김승일 제공)

이 글에서는 살아 숨 쉬는 장다리길 전반의 모습을 포착하고자 다양한 구술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제2의 고향으로 터전을 잡고 일하는 상인들, 도시경관사업 주민협의체 구성원, 도시재생활동가 등이 그 대상이었다. 서로 다른 삶을 꾸리는 장다리길 지역민들을 통해, 그들을 담아내고 있는 장다리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구술자 명단**

구술자	출생연도	성별	비 고
도은숙	1965년생	여	수원시 소통활동가
김영안	1976년생	여	인계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오선희	1984년생	여	인계초등학교 학부모회 구성원
이헌호	1965년생	남	중식당 옥동이 운영, 인계장다리길상인회 6대 회장
안장근	1953년생	남	에너지사업가, 인계장다리길상인회 초대 회장
이용택	1954년생	남	주민협의체 위원장, 전 수원시의원

2. 꿈의 정착지와 발원지, 장다리길

처음부터 장다리길에 상권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장다리길은 원래 장다리천이 흐르는 자리를 복개하여 생긴 길이다. 장다리천은 봉녕사 부근의 발원지를 두고 우만동 월드컵경기장부터 세류동–수원버스터미널까지 길이 4,491m, 폭 20~25m로 흐르던 하천이었다. 원래 이름은 인도내였으나 하천을 가로지르는 가느다랗고 긴 다리가 있어 장다리천이라고도 불렀다. 1989년에 복개하여 현재 4차선의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복개 전 장다리천 주변은 온통 논밭이었다고 한다.

장다리길, 즉 복개 전 장다리천 주변에 대한 기억은 주로 수원공업고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고등학교 등 근처의 학교와 관련된 것이었다. 1970년대 후반 장다리천 주변은 가옥이 몇 채가 들어서 있었을 뿐 상권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향수하기에는 그 장소성이 미약했다고 한다.

안장근 내가 처음에 왔을 때[1979년]는 여기가 개천이었어요. 그리고 여길 인도래라고 그랬

1954년 장다리천과 1986년 복개되어 만들어진 장다리길

는데, 인도래길이라고. 인도래라는 동네가 여기 전부 농사짓는 데였지, 집이 옛날 집들밖에 없었어요. 상권이 형성이 안 됐었어요. (……) 옛날에는 이 주변이 다 논밭이었으니까. 내가 수원에 왔을 때도 여긴 전혀 개발이 안 됐던 거니까. 인계동 수원공고 있는 쪽, 인계초등학교 거기 옛날 집만 있었어요.

이헌호　인계초등학교, 수원공고, 또 수원고등학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큰 전통 있는 학교들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저기 수원고등학교만 해도 역사가 꽤 깊죠. 이 지역에 계시는 한 5% 내외분들 보면 예전에 향수를 여기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원래 물이 흐르던 장다리천은 우만동이 재개발됨에 따라 여우골이 끊기면서 건천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1989년 장다리천을 복개하고 그 위로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었다. 주로 요식업들이 들어섰고, 건축업, 제조업, 전기 등 타 업종들까지 점차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장다리길 근처에 살고 있는 수원 원주민 분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사업 외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도 분들이 많고, 전라도와 경상도 분들이 조금 있다고 한다.

1981년 인계초등학교 앞으로 흐르는 장다리천(수원박물관 제공)

1985년 장다리천(수원박물관 제공)

1990년 장다리천 복개 후 상가 건축(수원박물관 제공)

이헌호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방, 전라도, 충청도 그 쪽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고. 또 청년 때, 30대 때 이쪽에 오셔서 인계동이라는 이 지역에서 평균 한 20년, 30년 가까이 제2의 고향으로 여기를 터전으로 잡아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봉사회에서도 위원장님 회장님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토속적으로 계셨던 분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요. 저도 경기도 화성 사람이지만.

이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터를 잡기 시작할 무렵인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장다리길은 구도심에 속하는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합심해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이웃 간의 정이 남달랐다고 한다. 수원 원주민이라고 해서 외지인을 배척하지 않았고, 외지인일지라도 열심히 일해서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 각종 지역 모임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복개 이후 상권이 이미 형성된 시점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먹거리, 자동차용품 등으로 특화되어 있어 상업 활동과 더불어 이웃과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었다.

수십 년 전 20대 혹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주해 온 타지 청년들은 이곳 장다리길에서 자기 가게를 열며 제2의 고향을 만들어 나갔다.

안장근　참 여기가 묘한 매력이 있는 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점이 골목 하나

상인회장 안장근

중식당 옥동이 이헌호

에, 좁다란 골목 하나에 네다섯 개씩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 여긴 그런 게 있어요. 아 여기서는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노력을 하면 여기서 진짜 무에서 유를, 전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와서 시작해서 조그만 가게로 시작해서 그게 커졌다는 건, 그건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백청우칼국수가 지금 아주 뒷골목에 있어요. 대한생명 뒷골목에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5층짜리 건물을 신축을 다 했어요.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어. 큰 길에다가 크게 건물을 지어서. 올해 안에는 그게 완공이 될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조그만 데서 시작을 해서, 30평 미만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업소들이 네다섯 군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길에.

이곳 상인들은 젊은 시절 땀 흘려 가꾼 제2의 고향인 인계동 장다리길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장다리길에 가게를 열고 터전을 꾸리던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1990년대 후반에 상인들을 중심으로 '초석회'라는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다. 강보석(이두형), 평화전기(이귀석), 우성건철(심후진), 옥동이·육홍(이헌호), 에너지사업(안장근), 슈퍼마켓, 수원닭발 등 각기 다른 업종에 종사하던 7명이 한뜻으로 모여 시작되었다. 당시 먼저 장다리길에 정착한 선배 상인들을 중심으로 지역봉사를 시작했고, 뒤이어 유입되는 후배 상인들과 함께 도모하여 작게는 길거리 청소부터, 크게는 불우이웃돕기와 인접한 인계초등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교복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이어 나갔다고 한다. 이때 그 과정에서 인계동 복지 담당 공무원과 연계하여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았고,

월마다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의 회비를 각출해 한 계좌로 돈을 모았다. 그리고 6개월마다 불우이웃이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였다. 골고루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 대상도 6개월마다 바꾸었다.

이헌호 선배들이 아동들, 학생들, 1년에 5명 정도 해서 장학금도 전달하고. 또 교복. 인계초등학교 애들, 졸업생들 교복도 몇 명씩 전달해 주고.

안장근 한 학생한테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한 7명 정도 해서 추천받아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독거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좌를 만들어요. 그래서 6개월씩, 돌아가면서 6개월 하고 또 그 다음에 6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인원을 바꿔 가면서 그렇게 했죠.

처음에는 친목 위주로 모여 조그맣게 지역봉사를 실천하는 수준이었으나, 이윽고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자 상인회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려왔다. 회원의 대부분이 상인이거나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상인회를 발족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을 꾸려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이 같은 제안을 초석회 멤버들이 수긍하여, 2008년 6월 20일 안장근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며 인계초석상인회를 발족하게 된다. 회원은 초창기 7명에서 상당히 늘어나서 이제 120여 명에 이른다. 이후 한 번 더 명칭을 변경해 현재의 인계장다리길상인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상인회로 거듭난 이후에도 김장 봉사, 동사무소 식사 봉사, 수봉재활원 식사 봉사, 동네 미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3. 재개발과 장다리길의 변화

구도심지역이었던 장다리길 근처에 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그 지형도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수원시는 지난 2006년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동, 매탄동, 인계동, 서둔동, 고등동 등 10여 개의 재개발사업지구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이다. 그 중 장다리길과 인접한 재개발사업지구 팔달10구역과 팔달8구역 등은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주민들의 이주율도 매우 높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계동(김승일 제공)

2015년 장다리길 화합·소통 한마당 축제(수원시청 포토뱅크 제공)

재개발사업 추진 이후 장다리길 주변의 큰 변화로는 우선 상권 침체를 들 수 있다. 13년 동안 이곳에서 중식당 '옥동이'를 운영하는 이현호는 인접 지역이 재개발되고 장다리길의 주요 이용층이었던 지역 주민들의 이주가 본격화되자 상권이 침체되기 시작했다고 회고하였다. 40년 전 수원으로 이사 온 후 인계동 장다리길 근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장다리길상인회 6대 안장근 회장도 이는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 설명한다.

안장근　다 나가니까 매출이 10~15%, 많게는 20%까지 줄었어요. 이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희망은 있죠. 한 5~6년 지난 다음에는 입주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입주가 된다 그러면 그 인원이 어디로 가겠어요. 상권이 잘 되어있으면 여기로 오겠지. 그 때는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한편으로는 장다리길에 터전을 잡고 있는 한 명의 주민으로서 피치 못해 고향을 떠나게 된 이들의 상실감과 슬픔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다리길은 수원 원주민보다 오래전 이주해서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외지인들이 대다수다. 이 때문에 겨우 정 붙여 사는 이웃들을 떠나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 섭섭하고 낯설다. 선선한 여름밤을 지새우던 자그맣고 푸르른 반달공원, 밤의 등대였던 사거리 앞 조명가게, 낮은 구옥들이 굽이굽이 채운 골목들은 이제 나의 시간을 담던 우리 동네가 아니라, 타인의 미래를 담아 갈 지역이 되었다.

김영안　연세가 많은데 또 여기서 정들어서 40년 살았는데 어디로 이주를 하냐, 이러면서. 친구들도 다 헤어지고. 그런 우울증이 있죠. 아시는 분들 다 헤어지고.

매년 장다리길에서는 주민 화합을 위해 척사대회, 마을 축제 등이 열리곤 했다. 2015년에는 인계장다리길상인회에서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다리길 화합·소통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당시 주민 400여 명이 참여하여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 퍼포먼스 등을 체험하였다. 재개발지역 거주민들의 이주가 거의 완료된 지금, 마을 행사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라졌다.

이헌호　지금 세대수로 보면 한 1,500~1,600세대가 이사 가셨을 거예요. 한 6,000명에서 7,000명이 떠난 거예요. (……) 올해도 마을 행사하고 그러면 오래 계셨던 분들이, 어르신들이 눈물도 흘리시고. 제2의 고향이 없어지잖아, 지금. 또 기대에 찬 사람들은 있겠지만, 피치 못해서 30년, 40년씩 사신 분들은 슬픔을 안고 다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향을 등지고 왔는데 제2의 고향을 또 등지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분들은 막 슬픔에 겨워 있죠.

어른들을 따라 아이들도 타 지역으로 떠나갔다. 인계초등학교에 꼭 남아야겠다는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화성이나 북수원 쪽으로 멀리멀리 떠났다. 남은 아이들은 재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된 파밀리에아파트 아이들과 함께 인계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이 이주하며 비어 버린 집들이 학부모들의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관리되지 않는 공가에는 얼굴 모를 노숙인들이 들어와 술판을 벌이기도 했고,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은 더욱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원래도 장다리길 주변은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다문화공간이었지만, 학부모들은 재개발 이후 체감상 외국인의 비율이 더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동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흉흉해지고, 우리 동네가 우범지역으로 변화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특히 인계초등학교는 1964년에 설립되어 시설이 노후한 초등학교이다. 인계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추후 정문 쪽 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수원시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정작 아이들은 학부모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익숙하고 지름길인 그 길을 이용하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인계초등학교까지 이르는 거리, 2001아울렛과 새마을금고가 위치한 거리 등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하굣길이다.

김영안　저희 울타리도 망가졌어요. 공사한다고 뭘 떨어뜨려서 찌그러졌어요. 근데 울타리가 울타리가 아니고 그냥 나무를 한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로 막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시골 밭과 밭 사이 가르듯이 말이 안 되게 해 놨어요 지금. (……) 복개천 대로변, 인계초등학교 후문 쪽. 도로가 문제거든요. 바로 보이는 이쪽에 차사고가 엄청나요.

그러던 지난 2016년 수원시의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7년 신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장다리길에는 새로운 바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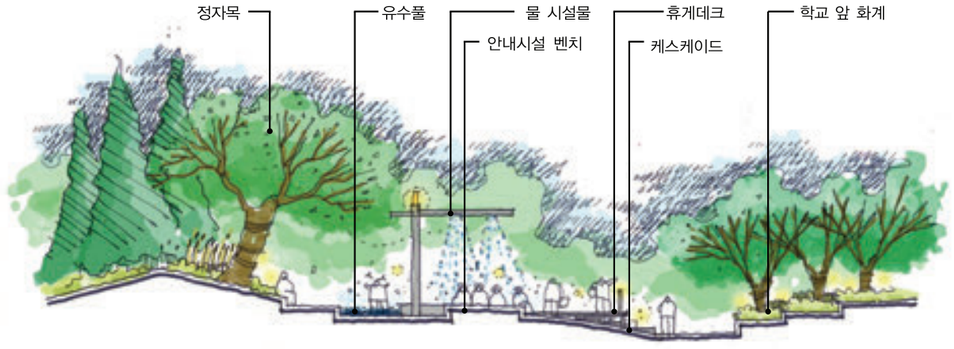
① 인계초등학교 전경
② 인계초등학교 후문
③ 인계초등학교 학부모회 오선희와 김영안

장다리길 경관협정지구(수원시 장다리길 경관협정 추진위원회, 『장다리길 경관협정 기본계획』, 2015)

람이 불고 있다. 인계장다리길상인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였다.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낙후된 구도심지역이 경관협정사업을 통해 아름답게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아졌다.

장다리길 경관협정사업 초기에는 인계초등학교 후문이 장다리길 쪽으로 밀접해 있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후문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터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으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여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하지 못한 채로 협의회가 끝났다. 인계초등학교 학부모회 김영안 회장은 교육청 소유의 인계초등학교 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회고하였다.

2015년 장다리길 경관 현황(수원시 장다리길 경관협정 추진위원회, 『장다리길 경관협정 기본계획』, 2015)



인계초 후문 한우물 쉼터(수원시 장다리길 경관협정 추진위원회, 『장다리길 경관협정 기본계획』, 2015)

김영안 "물놀이터가 생기면 지저분하다." "모기가 많이 생기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수원시 분수대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만한 분수대 해서 예쁘게 조성을 할 거라고 해서 저도 좋다고. 뭐냐면 후문이 너무 지저분하고 후문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근데 땅이 교육청 땅이다, 누구 땅이다, 수원시 땅이 아니다 이러면서 의견이 분분해지니까. 그리고 엄마들은 또 분수대 물놀이터 별로 안 좋다고 얘기 나오고. 협의점을 아예 못 찾았어요. (……) 이건 교육청이랑 해야 되는 거지 우리랑 할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사업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 부지는 교육청 건데.

오히려 물놀이터보다는 경관사업을 통해 열악한 인계초등학교 후문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문 쪽은 재개발로 통학생들이 이사 간 이후 사용률이 줄었지만, 후문은 한신아파트, 한라시그마아파트, 희성연인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통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현재 인계초등학교의 후문은 일반적인 학교 후문과 달리 철문 한 쪽에 조그마한 문을 내서 아이들이 지나다니게끔 조성되어 있다. 정문처럼 아이들의 진입을 위한 너른 공간도 없고, 주변엔 나무로 만든 울타리와 철조망이 전부이다. 후문 바로 옆에 설치된 2011년도 수원안전학교 지정 현판이 무색할 정도이다.

김영안 보시면 후문 쪽이에요. 여기가 후문이에요. 문을 열어 놔요 아침에는. 후문 쪽이 이렇게 열악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복개천 도로변만 휘황찬란해 봤자 옥에 티고 미관상 안 좋은데.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경관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방치해 둔 거거든요. 이건 학교랑 잘 해서 해 주면 좋은데.

이처럼 재개발사업 이후 썰렁해진 장다리길이 경관사업에 선정되면서 상인들과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다. 안전문제 외에도 주민들은 도보 이용이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는 것을 원했고, 상인들은 4차선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랐다. 도로가 좁아지면 차량통행이 줄어들고 주차공간이 축소되어 오히려 손님들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갈등을 빚었으나 현재는 주차장을 다른 공간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태이다.

장다리길은 비단 재개발사업과 경관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공간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필요와 바람을 드러내고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격동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우리 동네, 지역 상권, 아이들의 학군 등 다양한 배경에서 비롯된 의견들을 종횡무진하며 엮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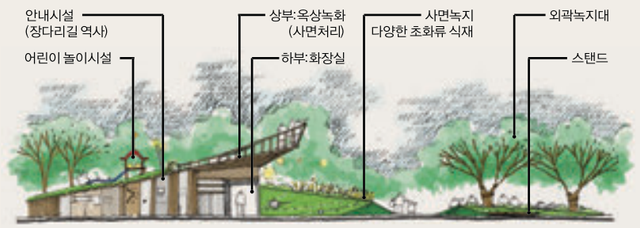
4. 장다리길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과 경관사업

수원시는 2017년부터 4년간 60억 원(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장다리마을 특화공간 조성, 가로경관 개선 등 물리적 도시환경 개선, 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 환경에 비해 노후된 건물, 침체된 상권, 재개발에 따른 지역민의 이주 등으로 새로운 활력이 필요했던 장다리길 일원을 되살려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특히 사업의 주된 골자는 인계초등학교 앞길부터 반달공원으로 이어지는 800m 구간의 장다리길 왕복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이다. 사업비 총 60억 원 중 47억 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1] 10여 년 동안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장다리길 상인회를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개발사업에 선정된 것은 희망찬 미래를 품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업에 선정되고도 어려움은 많았다. 먼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여 개 상점들과 인접한 127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갈등이 빚어졌다. 상인들은 생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고, 제대로 된 소통 없이 행해진 졸속행정이라 비난하였다.[2] 주민들은 장다리길 큰 도로만 좋아지는 것뿐, 장다리길 뒤쪽

장다리길 경관사업 기본구상(안)(수원시 장다리길 경관협정 추진위원회, 『장다리길 경관협정 기본계획』, 2015)

반달공원 리모델링



KBS 가는 길

에 위치한 골목까지 그 혜택이 과연 올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내 세금으로 남 좋은 일만 시켜 주는 것 아니냐.”며 역정을 내는 분도 있었다.

소통이 부족한 채 진행된 사업 때문에 상인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다. 장다리길을 특화시키겠다는 움직임에 기존에 장다리길에서 요식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사업을 했던 상인분들의 반대가 거셌다. 특히 차로가 좁아지면서 거래처 차량의 이동이 불편해짐에 따라 생업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안장근　여기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면 다른, 전혀 관계없는 건축 계통이라든지 이런 계통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불편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차 다니는 것도 좀 안 좋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반대가 심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이렇게 결정이 나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수긍을 해요.

이러한 주민, 상인들 간의 갈등, 시민과 행정 간의 갈등들을 조율하고 소통 창구가 되어 줄 사람들이 필요하였다. 주민협의체 이용택 회장과 소통활동가 도은숙은 이를 위해 가장 선두에서 발로 뛰고 있는 활동가이다.

1) 주민협의체 위원장 이용택의 꿈

이용택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계획서를 쓸 당시부터 사무총장을 맡아 정관 작업 등을 해 왔으나, 처음 주민협의체 회장직 제안을 받았을 때는 계속 거절했다고 한다. 본인의 가게가 장다리길에 위치해 있지 않아 장다리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상인회 측에서 상인이 회장을 맡다 보면 본인 가게 이익만을 내세우게 되어 의견 조율이 어렵고, 수원시의원직을 지냈던 경험이 있는 이용택이 회장을 맡아 행정과의 다리 역할을 해 줄 것을 청했다고 한다. 이용택은 그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회장직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이후에는 제3자적 입장에서 주민, 상인 모두의 의견을 포용하고, 수원시의원을 지냈던 경험을 살려 행정과 주민협의체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자 애썼다.

이용택　전에 시의원도 지냈으니까 수원시청하고 주민들하고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역대회장들, 또 옥동이 이헌호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찾아왔어요. 맡아 달라. 그래서 몇 번 고사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인계동을 위해서, 장다리길을 위해서 상인들도 위하고 또 우리 인계동 주민들도 좀 같이 누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주민들 간에 화합도 되고. (……) 경관사업은 관에서 하는 거니까, 쉬쉬하면서 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오픈해 가면서 예산부터 계획부터 또 착수해 가는 과정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지, 충분하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용택 장다리길주민협의체 위원장

이용택은 2002년 수원시의원 당선 이후 수원역테마거리를 조성한 경험을 십분 살려 행정과 소통하고 있다. 오늘날 일명 로데오거리라고 불리는 수원역테마거리는 2002년 당시만 해도 나무로 만든 전봇대가 있을 정도로 시설이 낙후하고, 비가 오면 역 밑으로 흐르는 하수도가 역류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상태였다고 한다. 수원시는 수원역 일대의 환경개선을 원했으나, 주민 및 상인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여 갈등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이용택이 중간에서 시와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절충함으로써 오늘날의 수원역테마거리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이용택　수원시에서는 여기에 뭘 원합니까. 자기네는 좀 깨끗한 도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깨끗한 도시만 하면 장사꾼들은 자기들 원하는 걸 해달라 그럴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간판이에요. 상인들은 간판을 자기들 멋대로 다 크게 하려고 하니까 간판이 간판을 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높이까지, 쳐다도 안 보는 데도 하니까. 간판사업을 여기서 적극 수용할 테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테마거리를 조성을 해 주십쇼. 그래서 서로가 요구조건을 합의체를 만들어 낸 거죠.

이때 이용택은 절충안을 찾은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상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안들을 더 모색했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수원역테마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필요 없어진 건물 지하주차장 자리에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를 더 받아서 좋고, 주민과 상인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장사할 자리가 생기게 되어 좋았다. 주민과 상인들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만큼 수원시에서도 간판사업을 하면서 오래된 전봇대 등 낙후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여타 시설을 기준화하는 등 수원역 전반을 바꿀 수 있게 되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되었다.

역세권에 위치해 이미 두터운 상권이 형성된 수원역테마거리와 달리 장다리길은 좀 더 강력한 상권 형성을 위해 현재 주차장 문제가 해결 1순위로 손꼽힌다. 장다리길은 대로변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사잇길에 위치한 것이라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고객들 또한 중요하다. 이 때문에 주차타운 개발, 동사무소 주차장 활용, 공영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수원시와 상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인계초등학교와 수원공고 등 학교들이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택은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장다리길에 재방문할 수 있도록 축제 및 문화행사들을 유치시킬 꿈을 꾸고 있다. 지역별로 배정된 문화예산을 활용해 작은 음악회, 전시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장다리길을 단순한 유흥거리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 그의 최종목표이다. 특히 인접한 KBS수원센터와 협업한다면 보다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용택　단순하게 북문에 가면 거북시장 같이 야시장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나혜석거리 같이 맥주 이렇게 팔고 그런 것보다는 문화가 살아있는, 작은 음악회도 열고, 큰 음악회도 열어 주고. 또 거기에 KBS가 가까워요. KBS에 오는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러서 식사도 하고 사인도 해 주고, 팬 사인하는 것도 해 주면 그래도 거리가 좀 콘셉트에 맞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넓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2) 소통활동가 도은숙의 활약

도은숙은 2017년 당시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채용된 도시재생활동가였다. 그러나 200명 이상의 주민 대상으로 활동가 1명이 주민들 모두와 원활히 소통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관에서 체계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도모했다기보다는, 투입된 활동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실정이었다. 도은숙은 사무실 없이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주민들과 시와의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한다.

소통활동가 도은숙

도은숙　집집마다 특별한 팸플릿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설명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해서 그냥 맨땅에 헤딩 하듯이 이집 식당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장다리 경관사업을 이제 한다는데 국비 30, 시비 30 해서 60억의 장다리 경관사업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는 상황이었고. 불만 있는 분들도 있고.

도은숙은 먼저 지역민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각 상점들과 경로당 등의 문을 두드렸다. 그 지역을 인식할 때는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그려나가는 방법도 있는 반면, 우물을 짓듯이 그 지역에서 자신과 공명했던 특정 사물과 존재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도은숙의 경우 각 장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스며들었고, 장다리길을 떠올릴 때 본인도 같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도록 끊임없이 활동해 나갔다. 설문을 위해서만 가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 없이 가게에 들어가 상인 분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다. 차근차근 다가가야 상인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들, 불만과 희망사항 등을 모두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도은숙은 신발가게에 들어가 본인 구두를 맞추며 가게 사장님과 대화하고, 간판가게 사장님의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지역민들의 가까운 이웃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면도 있었다. 2017년 당시 행궁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는 2~3명의 코디네이터가 활동한 반면에, 장다리길 쪽은 현장지원센터도 없는 상황이었다. 2018년 소통활동가로 채용된 이후에는 수원시에서 2018년 3월 장다리길 반달공원에 개점한 소통박스를 사무실로 활용했으나, 이마저도 7월에 폐점되어 또다

시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 놓였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 관을 연결해야만 하는 도은숙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었다. 특히 무거운 노트북을 메고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하는 것이 곤욕스러웠는데, 결국 그 활동이 무리가 되어 어깨수술까지 받았다. 사무실이 사라지고 처음에는 인도래도서관 2층에서 업무를 처리했지만 여전히 노트북을 들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몹시 힘들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인과 주민 분들과 인사하고 관계를 쌓아 오다 보니 먼저 나서서 도은숙을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생겼다. 각 상점 상인들은 가게 한편에 빈자리와 책상 등을 마련해 노트북만이라도 두고 다니라고 먼저 권했고, 나중에는 빈 가게를 사무실처럼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계약 종료에 따라 활동이 끝날 때도 한 분 한 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 만큼, 도은숙은 단순한 도시재생활동가가 아니라 지역민으로서 점차 위치해 나갔다.

도은숙은 꼭 도시재생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활동뿐만 아니라 대민 지원 업무까지 자진해서 맡았다.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왔고, 집을 급하게 구해야하는 주민이 있으면 부동산과 연결해 주는 등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런 것이 더 보람 있었다고 한다.

도은숙　우리 수원시에 경로당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순서를 기다리는데 너무 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도 눈이 침침하고 안 보여. 그래서 직접적으로 민원 신청을 해서, 여기 지금 나와 보시면 급합니다. 순서가 있겠지만 나와 보십시오 해서, 바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꼭 활동 설문만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다 보면 대민 지원도 할 수 있고. 거기는 외국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 뒤쪽으로. 중국인이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 정착이 덜 된 분들은, 집이 없거나 전세 이런 걸 얻을 때 좀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고민이 있다고 와요. 다 들어주고 하다 보면, 내가 아는 부동산이 세 군데 있으니 내가 전화를 해 드릴게요 해서, 내가 어제 오주섭 사장님도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거기도 전화해 보고. 요 밑에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가 세 군데거든요, 장다리 쪽에. 그래서 해 봐서 2,000만 원 짜리에 얼마짜리는 연락을 주세요, 해서 이분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 주고 그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사업이 진행된 이후의 월세 상승 또한 임차인들의 주된 걱정으로 떠올랐다.

장다리길도 도로 경관이 깨끗해지면 월세가 급격하게 오를 것이고, 그러면 원래 터를 잡고 있던 지역 상인들이 떠나야 될 것 아니냐는 걱정이었다. 이 때문에 도은숙은 먼저 임대인 모임을 만들었다. 사업회의 때마다 임대인 모임을 주선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등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활동은 활동가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장다리길에서 관계 맺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다.

도은숙　지금 현재는 그 임대료가 아주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아마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임대료에 대한 걱정. '아 이거 하면 건물주만 좋지 뭐.'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서 행해졌던 둥지 내몰림이라고. 실컷 다 해 놨더니 좋아지니까 내몰아 버리고. 그런 것들을 상인들은 걱정을 하시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게, 건물주 임대인 모임을 해야 되는 게, 임대인들의 마음가짐을 좋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작년에 만날 때도 모이신 건물주 분들이 "아 당연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사장님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했다고 해서 막 올리면 이거야말로 폐단이다." 임대인들도 그런 걸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다 같이 잘살자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도은숙의 노력과는 별개로 사업 진척이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었다. 수원시는 2018년 6월에서야 지역 주민과 상인, 학부모 등 53명의 신청을 받아 장다리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또 예산 확보의 문제로 장다리길 경관사업의 주된 골자인 '도로 다이어트' 사업 진행이 뒤로 늦춰졌다. 설상가상으로 시 사업 담당부서가 계속 변경되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일정을 공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초기 난항을 겪었던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 담당부서가 최종적으로 변경되고, 담당 주무관이 의욕적으로 나서면서 현재는 정상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간판개선정비사업이 먼저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 다이어트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불안 섞인 질문에 곤란해 하던 도은숙의 얼굴에도 한시름 놓은 미소가 번졌다.

도은숙　3월 달에 다시 새-일 공공 일자리 다시 공고가 나와서 이번에는 도시재생 안 한다, 소통활동가를 해야 되겠다. 소통박스에서 의견수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서 소통기획관 소속으로 [지원했어요.] 이제 전혀 도시재생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올해[2018년]도 소통활동가로 3월 27일부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장다리의 경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장다리예요..

5. 함께, 다시 또 장다리길

지역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한 수많은 장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장소는 실제 거주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들이 모여 있는 곳이자, 항상 그것이 위치한 다른 장소들과 회합하고 연결되어 그 지역 전체를 이룬다.[3] 이 때문에 장소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장소의 물리적 형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장소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파악한다는 것과 동의어다. 개인의 기억과 정체성은 언제나 장소와 지역에 직결되기 때문이다.[4]

장다리길은 기존의 거주자들의 기억과는 다른 장소가 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제2의 고향, 오랜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 포진한 곳, 낙후된 재개발지역, 구도심 상권 등 장다리길을 둘러싸고 형성된 기억들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기억들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억들은 재개발로 떠난 원주민들의 빈자리를 채울 이주민들을 통해 계승될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지역과 이웃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상대방과 협의하고, 때로는 부딪히며 우리 지역을 위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다. 불안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장다리길이 조성될 때 이들 장다리길 사람들의 얼굴만은 변하지 않고 함께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장다리길의 과거와 미래를 온전히 기억할 것이다.

1) 「수원 장다리마을 내년 '도로 다이어트' 물거품 위기」, 『경기신문』, 2017년 6월 6일.
2) 「"노상주차장 없애면 상권 초토화" 수원 장다리길 환경개선 강력 반발」, 『경기신문』, 2017년 6월 4일.
3) 김명식, 『철학적으로 도시 읽기』, 스페이스타임, 2014, 59쪽.
4) 제프 말파스, 『장소와 경험 : 철학적 지형학』, 김지혜 옮김, 에코리브르, 2014, 242쪽.

6부
도시개발과 도시문화

1장
동수원 개발의 전개와 특성

2장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주거문화와 주민생활

3장
인계동 상업지역의 소비경관

4장
인계동의 문화거리

수원은 인천과 더불어 생산활동이 자족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서울의 기능분산을 강조하였다. 서울시에서 출퇴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제기반의 내실화와 서울시 분산 인구의 수용을 위한 기존 도시의 계획적 개발 유도, 서울시에서 이전하는 중추 관리기능을 수용하고 기존 지역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 발전을 지향, 신갈의 유통기능을 배경으로 소비재 산업과 병합된 도시형 공업 배치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로 집중된 인구 및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장 | 동수원 개발의 전개와 특성

1. 동수원 개발의 배경과 도시계획

1980년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현재의 동수원 도시형태 및 기능을 제시한 첫 계획이다. 이 계획은 기능적으로 현 수원시청이 위치한 인계동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전의 주거지역 중심의 계획과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이는 수원시가 두 개의 중심지(수원 화성 및 수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구시가지와 인계동 일대의 신시가지)를 지니는 다핵도시로 발전하는 기점이 되는 계획이었다. 또한 1980년 계획은 형태적으로 동수원의 도시형태를 제시한 최초의 계획이기도 하다. 이 계획에서는 경수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동서의 도로를 직교하도록 도시형태를 조정하였고, 이는 1984년 도시기본계획과 1986년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현재의 동수원 가로망의 형태적 기반이 되었다.

수원시 도시개발에서 1980년대는 동수원 지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1965년 계획에서부터 구상되었던 동수원 개발이 마침내 구현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를 가능케 한 수단은 경수산업도로 건설사업의 수원 시내 구간 개통과 이와 병행하여 추진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다.[1)]

1980년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평가보고회(수원박물관 제공)

1983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수원박물관 제공)

표 1 **경수산업도로 건설사업과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수산업도로 건설사업							경수산업도로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구	공사시간	기종점	사업비(백만원)				지구명	사업기간
			도비	시비	구획정리 사업	합계		
제1공구	1979	한일합섬 –창룡문	1,000 (38.9%)	774 (30.1%)	800 (31.1%)	2,574 (100.0%)	파송	1977~1990
							파송2	1981~1990
제2공구	1980	창룡문 –인계동	500 (9.1%)	348 (6.3%)	4,673 (84.7%)	5,519 (100.0%)	지만~인계	1981~1989
제3공구	1981 ~1982	인계동 –세류동			5,565 (78.3%)	7,111 (100%)	권선	1981~1989

자료 : 수원시정연구원, 「70년, 수원시 도시공간의 역사–데이터북」, 2019.

동수원 개발은 수원시 도시 확장 과정의 중요한 계기였다. 성곽 도시로 성립된 수원은 오랫동안 도시기능이 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원시는 더 이상 성곽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수원의 도시 확장 과정을 대표하는 인구 성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수원 인구는 1950년대 중반 7만 명 선을 유지하다 1960년대 들어 10만 명을 넘어선 다음 1970년대에는 20만 명, 다시 1980년대에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즉 10년 단위로 10만 명가량씩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90년 인구는 64만 명을 넘어 불과 10년 만에 30만 명 증가하여 두 배 이상 폭증하였다.

이렇게 1980년대 인구 증가는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급증하였다. 갑작스러운 인구 폭증은 서울의 인구 폭발과 수도권 비대화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서울의 인구는 1980년대 초반 800만 명 선을 넘을 때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그 이후 완만한 증가로 돌아서 1,000만 명대에서 고착된다. 즉 1980년대는 서울 인구 증가의 마지막 시기였으며 그 이후로는 서울 대신 수도권 지역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수원 인구가 1980년대에 폭증한 것은 곧 서울 인구 팽창이 한계에 도달한 다음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였다. 폭발적 인구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시 규모 확대가 불가피했고 그 일차적 대상으로 동수원 지역이 선택된 것이다.

1982년 경수산업도로 연장개설공사 준공(수원박물관 제공)

1984년 인계지구 개발현장(수원박물관 제공)

표 2 1960년대 이후 수원 인구 변화

(단위 : 명)

연도	1962	1974	1980	1990	2002	2017
인구	113,910	210,258	319,757	644,968	1,023,875	1,240,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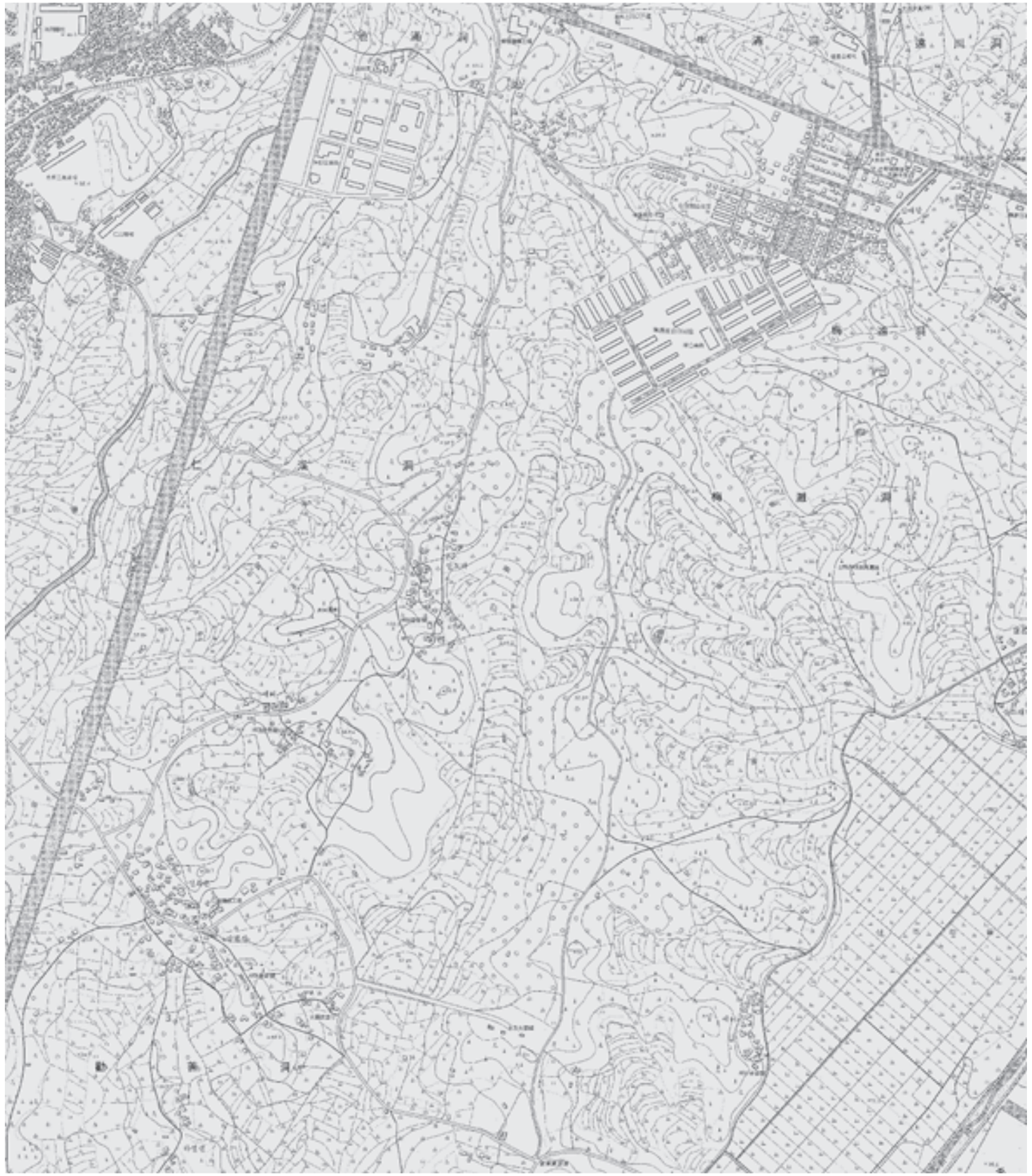
자료 :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사』, 16쪽;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각 연도.

이러한 폭발적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 1984년에 입안된 '수원도시계획 재정비'였다. 물론 수원의 도시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1963년 행정구역 확장은 해방 이후 중요한 도시 팽창의 계기였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구역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며 이후 거의 매년 도시구역이 확장되거나 재정비 도시계획이 작성되는 등 도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계획이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2)]

그러나 1984년에 작성된 계획은 통상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 비대화된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이라는 점에서 남달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199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의 발전 잠재력과 제약 요인 등을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이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계획은 국가의 경제적 신장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경제 발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 성장의 형태 및 기능의 강화와 토지수요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인구의 적정 배치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시민생활 수준 향상과 사회복지시설의 증대, 공공시설의 정비 확충 등을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3)]

한 마디로 경제개발로 표현된 산업화로 이촌향도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함으로써 나타난 도시지역 인구 팽창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임을 천명한 것이다. 수원시의 계획은 그 상위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경기도종합개발계획 등에 부합하는 계획이어야 함도 서술되었다. 요컨대 중앙정부 차원의 국토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에 조응하여 지역 단위의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계획에 따르면 목표연도인 1991년 수원의 인구는 46만 명으로 설정되었고 1인당 지역



1983년 개발 전 동수원(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총생산액은 3,150달러였다. 계획은 1단계(1984~1986년)와 2단계(1987~1991년)로 구분되었다. 수원시의 도시구역은 1967년 7월 83.67㎢, 1974년 8월 20만 2,994㎢로 확대되었다가 1976년 12만 394㎢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이 면적은 수원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용인군, 화성군, 시흥군이 포함된 구역이었다. 수원시는 9만 6,670㎢만 해당되었다. 즉 경기도 서남권 일대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작성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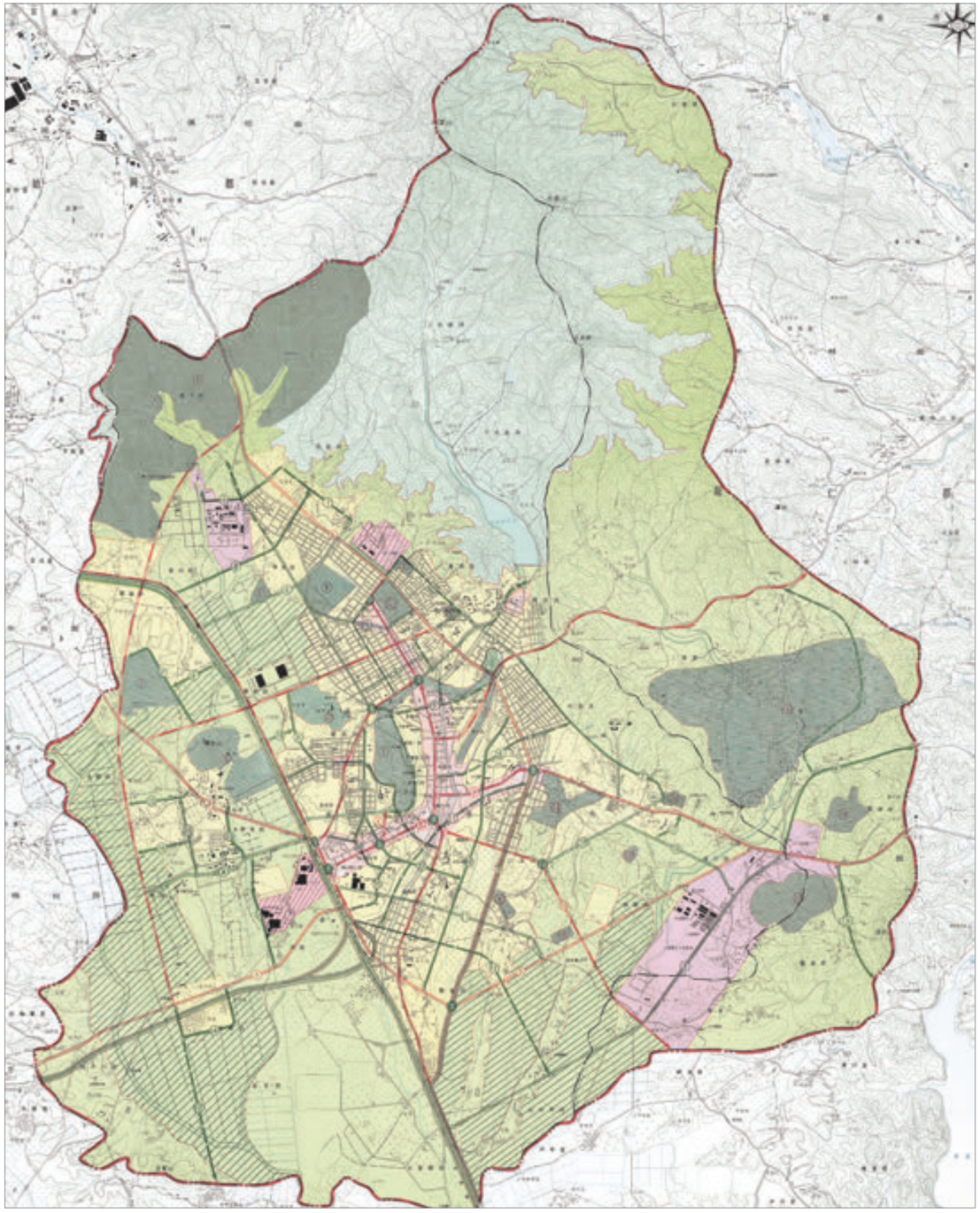
이 계획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였는데, 기존 시가지 정비와 확장을 계획적으로 하고 공업지역의 불필요한 확장을 규제하고 서울시 이전공장 이외에는 신축을 억제하며 공장 증축은 제한적으로 허가해야 함을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었다. 즉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비대화에 따라 가급적 시가지와 공장의 확대를 제한하고자 한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원은 개발억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1982년에서 1991년까지 10년간의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수원의 도시계획을 규정하였다. 이 계획도 공업지역 규모를 축소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였다. 특히 수원은 인천과 더불어 생산활동이 자족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서울의 기능분산을 강조하였다. 서울시에서 출퇴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제기반의 내실화와 서울시 분산 인구의 수용을 위한 기존 도시의 계획적 개발 유도, 서울시에서 이전하는 중추 관리기능을 수용하고 기존 지역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 발전을 지향, 신갈의 유통기능을 배경으로 소비재 산업과 병합된 도시형 공업 배치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로 집중된 인구 및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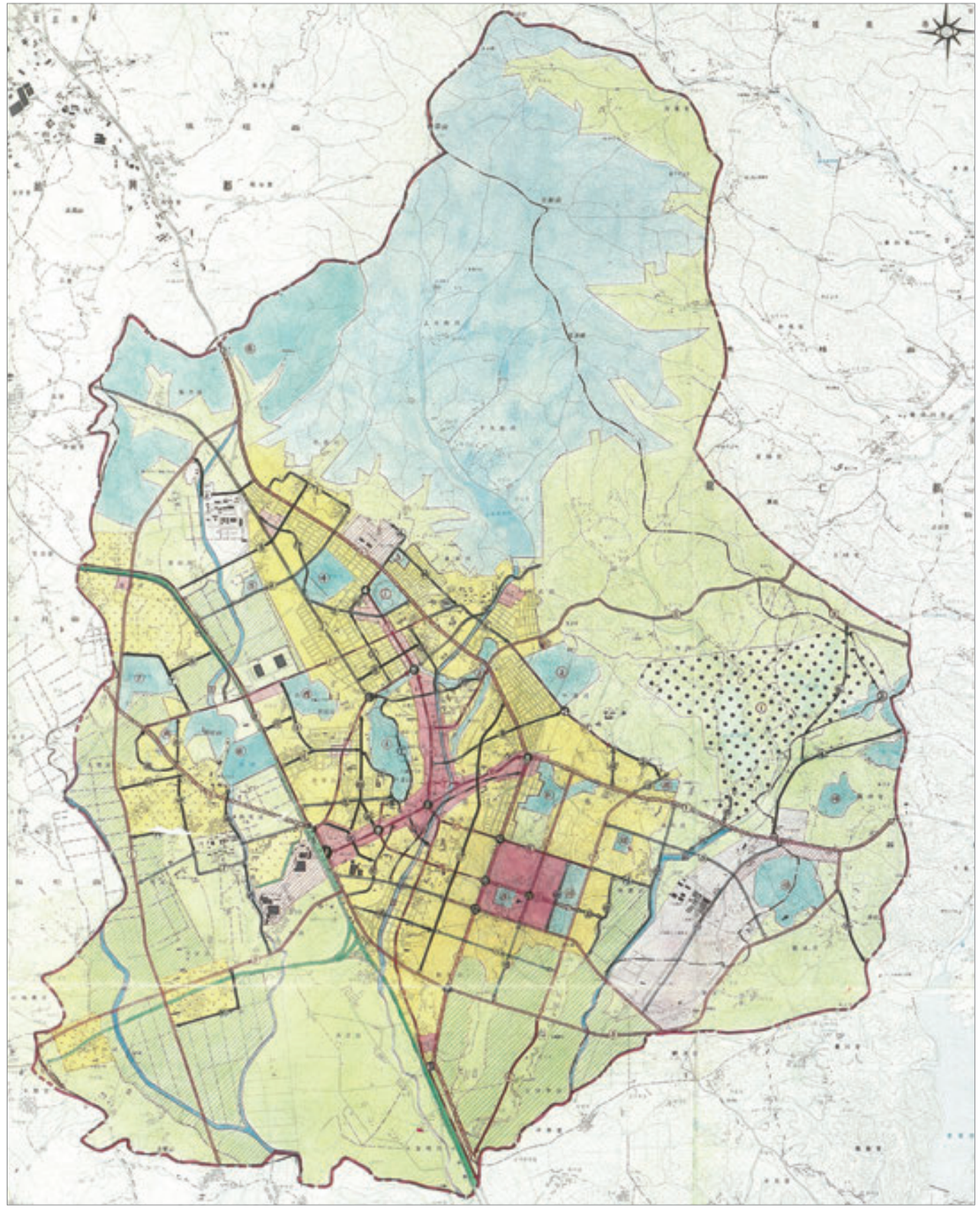
이러한 상위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원시는 구체적 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의 사회·문화·교육 중심 거점 도시, 수도권 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 공단보다 훈련기관, 기술학교, 각종 연구기관 유치,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간선도로 확장, 철도 확충, 상수도 확충 등을 골자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1년의 계획 인구 수용을 위해 대규모의 신시가지를 조성하되 크게 두 개의 생활권을 조성하고자 했다. 하나는 신시가지로 조성될 동부생활권이고 다른 하나는 구시가지를 서부생활권으로 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업무 상업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후자는 중심상업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신시가지 내에 중심상업·업무지를 조성하여 기존 구시가지의 중심상업기능과 상호 연계된 2개의 핵으로 수원시의 도시 형성을 구축하고자 했음이 눈에 띈다. 또한 수도권 개발제한에 따라 공장 증설이 곤란하기에 관광자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5)]

이에 따라 동부생활권은 매향동, 우만동, 연무동, 지동, 원천동, 매탄동, 권선동 등에



1981년 12월 1일 고시된(건설부고시 제432호) 도시개발계획도



1984년 수원도시계획재정비총괄도

지만인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결정 고시(국가기록원 제공)

서 기존의 자연녹지구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등 모두 126만㎡ 이상이 새로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연무동, 매탄동, 인계동, 세류동 등에 모두 100만㎡ 이상이 상업지구로 설정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매탄동이 42만㎡였고 인계동이 가장 많은 56만㎡였다. 인계동의 상업지역은 서부생활권을 포함해 수원시 전체에서 가장 넓은 지구였다. 공업지역은 수원시가 수도권정비기본계획상 제한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었기에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동부생활권에서는 원천동의 26만㎡가 준공업지역으로 계획되는 정도였다.[6]

서울 과밀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개발계획은 민간 영역으로까지 그 관심이 확대되었다. 수원상공회의소는 1988년 수원을 5대 생활권으로 구분한 개발계획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북부, 남부, 중부, 서부와 함께 동수원 대생활권이 5대 생활권을 이루도록 하였다.[7]

이렇게 1980년대 이후 수원의 도시계획은 산업화와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원의 도시계획은 인구 증가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기도 했다. 즉 동수원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급속한 인구 유입 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이 아니라 먼저 주택 공급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에 의해 막대한 인구가 유입되게 된 것이다.

이는 도시 확대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도시는 인구와 공간에 대한 관리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고 고안될 수 있는 인공물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구성된 도시의 제반 문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정책적 노력에 의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인간의 정책이나 계획이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기에 일정한 시행착오와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정책적 기획에 산물인 도시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현상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동수원 개발에 따른 수원의 땅값과 집값 상승 기사(『매일신보』, 1983년 1월 7일)

이러한 점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이른바 부동산 투기문제이다. 한국의 개발 과정은 부동산 투기 등 수많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동수원 개발도 실수요자들과 함께 수다한 부동산 투기가 결합됨으로써 개발이 곧 돈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애초 계획자들의 의도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렬하였다. 예컨대 계획에 따르면 수원시 인구는 1991년 46만 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미 1990년에 수원시 인구는 60만 명을 훌쩍 상회하게 되었다. 이는 곧 개발에 따른 이익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렇듯 도시개발은 구체적인 생활환경의 변화이자 화폐가치 축적을 둘러싼 거대한 경쟁의 무대이기도 했다.

여기서 부동산 투기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의 결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애당초 자연상태와 같은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시장은 자연이 아니라 사회적 시공간인 것이며 사회적 통제와 정책적 개입을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한 대상이다. 신자유주의의 태두로 인정받고 있는 하이에크(Friedrich Hayek)조차 시장 외부의 개입과 조절 없이 온전한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즉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장 외부의 개입과 조절 그리고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장의 자율은 곧 시장의 무정부성을 드러내거나 사자와 토끼의 경쟁처럼 공정할 수 없는 경쟁을 만연시켜 결국은 시장 자체의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동수원 개발과 투기문제 역시 시장의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가 시장 속에 관철되게끔 조장된 것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적인 개발계획이 모든 사적 이익이 아니라 특정한 사적 이익에 복무하게끔 계획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동수원 개발 과정

수원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동수원은 주거지역은 물론 상업과 업무지구로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되었다. 1987년 수원시청이 동수원으로 이전한 것은 개발이 불가역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즉 시 행정의 중심인 시청이 옮겨 옴에 따라 여타 행정기관은 물론 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각종 업체들도 동반 이주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시청 이전은 개발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컸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시청 소재지역이 시 전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속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각종 개발이 추진될 것임도 모두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도청 이전이 수원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시청 이전은 인계동을 포함한 동수원 개발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수원의 중심 시가지가 동수원으로 옮겨진다는 분석이 나타났다. 동수원 개발지역은 수원시 행정구역의 10%에 해당하는 339만 평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였으며 1980년대에 권선, 지만·인계, 파송 지구 등의 구획정리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어 매탄1·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대부분의 관공서도 시청을 중심으로 이전할 계획이었기에 동수원이 수원의 중심권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었다. 동수원 개발 과정을 잘 보여 주는 것은 무엇보다 인구의 증가이다.

1985년 수원시청 신축조감도(수원박물관 제공)

1987년 수원시청(수원박물관 제공)

표 3 **1970년대 이후 동수원 주요 동의 인구 변화**

인구 \ 연도	1970	1976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9
인계동	12,238	16,252	20,449	27,397	31,561	37,365	39,595	39,637	39,360
우만동	–	–	–	–	28,117	42,019	38,318	45,885	40,095
매탄동	–	–	–	–	67,453	102,656	99,069	90,887	98,397
영통동	–	–	–	–	–	–	90,264	97,783	99,469

자료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각 연도.

〈표 2〉에 나오듯이 동수원은 인계동을 제외한다면 1980년대까지도 그리 주목받는 지역은 아니었다. 시 외곽지대로 변두리 성격이 강하였다. 그것은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화장장은 가장 대표적인 주민 혐오시설일 텐데, 인계동에 위치한 화장장은 동수원이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수원시립화장장은 원래 세류동에 있던 것이 1962년 6월 인계동으로 이전되었다. 이전 당시만 해도 인계동은 변두리 지역이라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동수원 개발로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집중 건설되면서 화장장이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아파트는 물론 효원고등학교와 삼성전자 등도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수원시에서도 발 벗고 나서 안산, 용인, 화성 등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행정관서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8)]

1990년대 이후 동수원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인구 변화의 주요한 국면은 1990년대였다. 인계동을 비롯해 우만동과 매탄동 등의 인구는 1990년대 들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미 1995년이 되면 동수원의 인구 증가는 포화상태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동의 인구 증가가 완만해지거나 심지어 줄어들기도 하는 등 일정한 조정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동수원의 마지막 개발지역으로 불리는 영통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는 다시 한 번 증가한다.

인구 증가와 연계되어 개발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주택, 즉 아파트 분양이었다. 1980년대 중반 동수원 아파트 분양 광고의 핵심은 투자가치와 재산가치를 집중 강조하는 것이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교육환경, 교통환경 등도 제시되었지만 전면에 내세운 것은 "동수원 신도시개발로 수원의 영동"이라는 슬로건이었다.[9)] 당시 분양가는 27평형이 2,700만 원대였고 32평형은 2,800만 원대였다. 광고 문구에서 보이듯이 동수원 개발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개발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의 영동'이란 표현은 동

동수원 개발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한국신도-수원」, 『경향신문』, 1987년 8월 18일)

1989년 인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현장(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이 서울의 강남처럼 신흥 중심지로 기능할 것이며 그렇기에 거대한 부의 축적이 가능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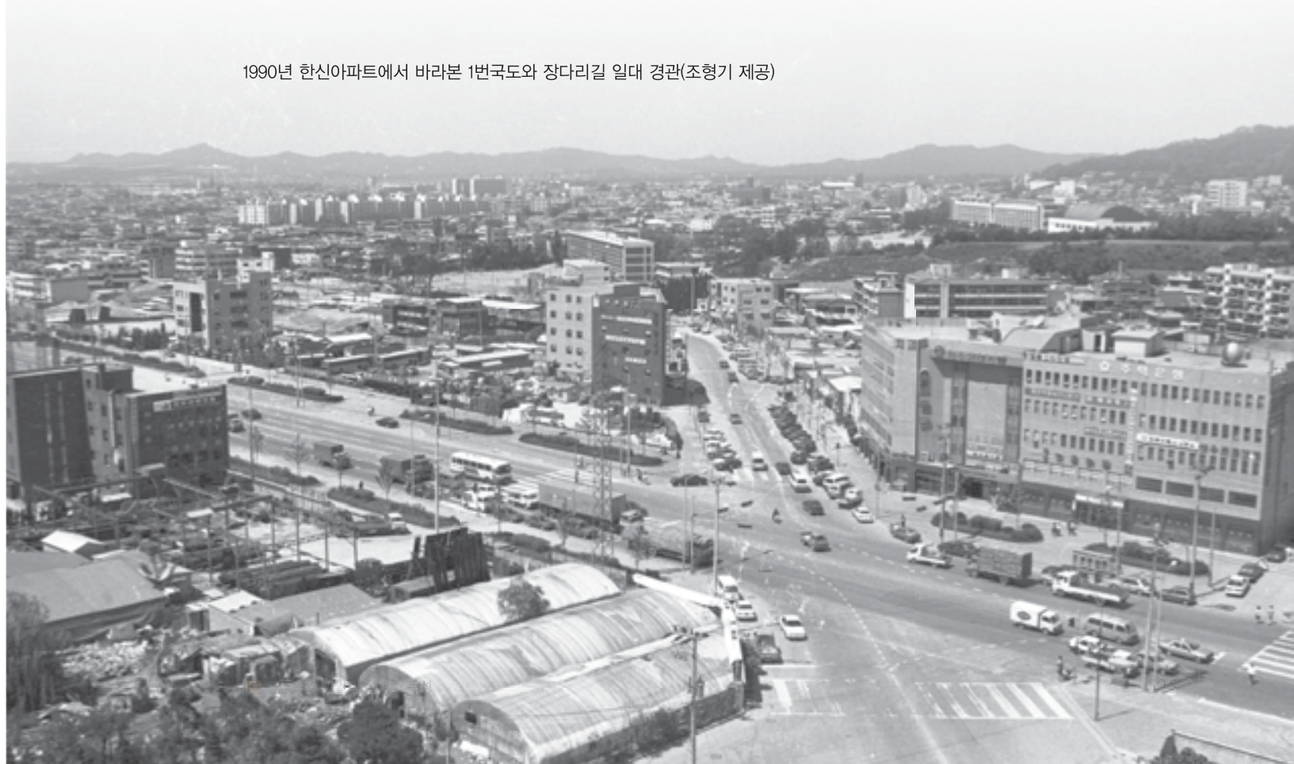
이러한 분위기에서 동수원 개발은 중앙 일간지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경향신문』 1987년 8월 18일자에는 '한국신도(韓國新圖)'라는 시리즈 기사에 수원을 집중 소개하였다. 이 시리즈 기사는 한국의 개발상황을 보도하여 그 발전상을 보여 주고자 기획되었는데, 수원편에서는 정조 이래의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당시 동수원 개발이 중요 소재로 소개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인계동과 매탄동 일대 185만 평의 동수원 개발지역에는 인구 30만 명의 생활권을 건설한다는 청사진이 준비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125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예술회관과 경찰서, 반공회관, 여성회관 등의 공공시설을 비롯해 10여 곳의 시장과 9개교의 학교가 들어설 계획임을 소개하였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도 5만 7,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임을 밝혔다.[10] 신문기사에는 수원 화성 성곽과 함께 매탄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이 큼지막하게 게재되어 개발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 주

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일간지에 동수원 개발 과정이 소상하게 소개됨으로써 수도권의 다양한 인구층에게 강렬한 선전효과를 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측된다.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언론에서 사실보도의 형태로 제시된 동수원 개발의 전망은 곧 새로운 투자 가능성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효과를 낸다. 시청의 이전과 중앙 일간지의 개발 전망 보도 등으로 동수원 개발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었고 또 그 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따져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욕망을 생성시켰을 것이다. 이것이 계획을 뛰어넘는 인구 증가 현상을 설명해 주는 주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1988년경이면 이미 동수원 지역에 8,000여 가구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4,000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 상황이었다.[11] 동수원의 도시개발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시가지 면적은 여전히 부족하였다. 다르게 보면 1980년대 동수원의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1990년대에는 역으로 시가지 면적이 부족해진 측면도 있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1992년 수원시에서는 도시구역을 확대하는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다. 이는 두 가지 내용

1990년 한신아파트에서 바라본 1번국도와 장다리길 일대 경관(조형기 제공)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 중인 인계동(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90년 인계동 오피스텔 건축 현장(수원박물관 제공)

을 핵심으로 한 것이었는데, 도시계획구역을 123.94㎢에서 129.15㎢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도시계획지역의 25.5%에 불과한 시가지 면적을 34.7%인 44.87㎢로 확대하는 것이 그것이었다.[12]

또한 구시가지인 서부와 신시가지인 동부 두 개로 나뉘었던 수원시를 동수원, 서수원, 북수원, 중앙 등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이 계획되었다. 중앙은 상업, 동수원은 행정과 업무, 북수원은 문화, 서수원은 교통과 서비스 등으로 각각 집중 개발한다는 것이 구체적 내용이었다.

이는 1980년대 계획이 대폭 수정된 것이다. 서부와 동부 두 개의 축으로 단순화된 구도가 네 개 권역으로 복잡하게 세분화된 것이다. 이는 또한 수원의 급속한 도시팽창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새 계획은 인구 150만 명 수용이 가능한 도시 규모를 상정하고 준비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두 개 권역만으로는 비대해진 도시기능을 담아내기에 힘들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은 상공회의소가 연구용역을 통해 만들어낸 계획과 상당히 유사하다.

1991년 경기은행 수원본부 신축기공

1994년 동수원우체국(수원박물관 제공)

상공회의소 안에서 5개 생활권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네 개로 약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계획에 따르면 동부권역에서 상업기능이 누락된 점이 눈에 띈다. 새 계획에 따르면 상업기능은 중앙부에 집중되고 동수원은 행정과 업무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는 애초 동수원이 상업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사실상 확인시켜 준 것으로 평가된다. 원래 계획은 공공시설 이전만으로는 동수원 개발이 불안했기에 상업기능도 포함시켰다고 보이는데, 실제 진행과정은 과도한 상업기능 확대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과열된 투기 분위기나 기존 상업 중심지였던 구시가지의 상대적 쇠퇴 등이 그러한 문제들 중의 하나였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수원의 상업시설은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1996년에는 창고형 할인매장까지 입주하게 되었다. 이미 백화점을 개점한 뉴코아가 킴스클럽 동수원점을 개점한 것이다. 수원의 킴스클럽 회원만 이미 8만 명이어서 하루 매출 2억 원이 목표였다.[13] 수원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던 동수원 중에서도 특히 인계동이 주목되었다. 인계동은 보험, 증권, 농·수·축협 등 제1·2금융권과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 관공서, 신문사 사옥들이 대거 이전하거나 건립되면서 행정, 문화, 쇼핑 등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을 비롯해 향후 늘어날 사무실 수요를 겨냥한 대형 업무빌딩과 주상복합빌딩 그리고 서울의 대형 백화점들까지 잇따라 건립되거나 출점하고 있었다. 인계동에는 가장 높은 빌딩인 21층짜리 삼호파크타워는 1998년 완공 목표로 근린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편의시설, 아파트 등을 고루 갖춘 대형 복합 건물로 설계되었다. 또한 삼성물산도 17층짜리 업무용 빌딩을 건축 중에 있었고 코오롱건설이 시공을 맡은 16층 규모의 태우빌딩도 공사 중이었다.[14]

또한 1993년에는 수원 영통지구에 1996년까지 100만 평의 택지를 개발해 1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15] 이 시기의 도시계획은 1989년 발표되고 199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분당, 일산 등의 제1기 신도시 계획의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주택난과 과밀인구 분산을 위해 계획된 신도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 팽창의 주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분당에 이어 용인 수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서울 남부권 전체가 개발열풍에 휩싸이게 된 셈이었다.

2003년에는 영통구가 팔달구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는 그만큼 동수원의 발전이 무르익어 분구가 불가피할 정도로 진행되었음을 반증해 준다. 영통지구는 동수원 신시가지의 마지막 개발지역으로 지칭되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영통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1997년 상업·업무지구로서 각종 사업체가 들어선 인계동(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99년 농협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들어선 인계동(수원박물관 제공)

1994년 2월부터 분양이 시작되어 총 10만 명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 25개교가 새로 들어서고 세무서, 경찰서, 등기소 등 공공기관과 더불어 1만 평 규모의 병원 부지도 마련되어 있었다. 반경 4㎞ 이내에 수원지법, 지검, 아주대병원, 경기도문화의 전당, 하이웨이백화점, 뉴코아백화점 등이 입주해 있어 입지조건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16]

동수원의 개발은 관공서와 주택 그리고 상업지역의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애초 1984년 계획에서도 상업과 업무지구가 주요한 초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2년 계획에서는 상업지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았다. 상업기능은 중앙 지역이 담당하고 동수원은 행정과 업무가 주요 기능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급속하게 시의 주요 기능이 동수원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존 시가지의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동수원의 역할을 행정 중심으로 재조정하고자 한 것이지만 실제 개발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 즉 동수원의 상업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었던 것이다. 동수원이 상업·업무지구로 개발되면서 다양한 상업 서비스 업체가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보험업종이었는데, 동방생명 동수원지점이 개설된 것은 1986년 1월이었다.[17] 이후로 각종 금융기관을 비롯한 서비스 업체들의 동수원 지점 설립이 지속적으로

표 4 1970년대 이후 동수원 주요 동의 식품접객업수

인구 \ 연도	1976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계동	200	220	77	328	1,223	1,722	1,882	1,764
우만동	–	–	–	118	566	560	640	661
매탄동	–	–	98	386	1,334	1,290	1,399	1,360
영통동	–	–	–	–	–	666	1,313	1,407

자료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우만동은 당시 지동과 분리되기 전인 지만동 시절이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다. 지만동의 업소수는 127개소였다. 1980년 통계는 모든 업소를 통합해 상점수로 집계한 것이다.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동수원 지역의 상점과 점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통계가 보여 주듯이 동수원의 상점수는 폭증양상을 보였다. 인계동의 경우 1990년대에 식품접객업소수가 폭증한 다음 완만한 성장과 후퇴를 반복하였다. 매탄동도 1990년대 이후 식품 접객업소수 폭증을 보여 주며 영통동은 개발 시기가 2000년대였기에 상점수 역시 그 이후 폭증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였다.

표 5 1970년대 이후 동수원 주요 동의 숙박 및 서비스업

동 \ 연도	1976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계동	–	–	77	117	216	366	349	363
우만동	–	–	–	70	170	138	160	141
매탄동	–	–	82	128	297	346	264	308
영통동	–	–	–	–	–	112	167	196

자료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각 연도.

인계동의 숙박 및 서비스업 점포수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폭증하다 그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게 된다. 우만동과 매탄동의 숙박 서비스업 점포수는 1990년대 폭증하고, 영통동은 2000년대 이후가 주된 성장기였음을 보여 준다. 1993년이 되면 개발을 통해 동수원은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당시 한 언론은 수원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동수원권이 수원의 새로운 중심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각종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속속 들어선 데 이어 대형 판매시설과 주상 복합건물도

2000년 금융기관과 상업시설이 들어선 인계동(수원박물관 제공)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급 음식점들이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게다가 아직 개발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주변의 권선1~2, 영통·영덕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이 진척되면 동수원권의 중심지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18]

또한 2000년대까지 20만 평 규모의 종합유통단지가 계획되기도 했다. 수원과 용인 접경지역으로 예정된 종합유통단지 부지는 동수원권역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원시는 동수원 개발지구에 대규모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 계획으로 이미 부지까지 마련해 둔 상황이어서 일정한 조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수원시와 경기도는 도매시장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었다.[19] 이에 따라 동수원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신축 아파트들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프리미엄까지 붙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상업지구에서 더욱 큰 폭으로 올랐다. 시청 앞의 경우에는 170만~200만 원을 호가하는 상황이었다.[20]

동수원이 개발되면서 특정지역의 특화된 상가거리가 조성되기도 했다. 예컨대 권선동

2000년 인계동 경관(수원박물관 제공)

2003년 완성기에 들어선 인계동 시가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산업도로변 올림픽공원 인근에 가정 및 사무용 가구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구점들이 모여 가구거리가 조성된 것이 대표적이다. 1990년부터 개점하기 시작한 이 거리는 불과 1년 6개월 만에 30여 개의 전문 가구점이 들어서 경기 남부 지역 최대의 전문상가로 변모하였다. 주차시설이 완비된 5~6층 건물 전체가 가구점으로 꾸며진데다 유명 메이커의 대리점들이 한곳에 모여 있어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상가가 된 것이다. 특히 이곳은 혼수용 가구를 찾는 손님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되었다. 혼수용 가구 가격은 다른 곳보다 비교적 저렴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21]

또한 1992년 연말에는 하이웨이 동수원백화점에서 '사은품증정 큰잔치'라는 제하의 광고가 중앙일간지에 게재될 정도로 중요한 상업지구로 거듭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22] 1993년에는 뉴코아백화점 동수원점이 개점하여 지역 상권이 확장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23]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동수원의 개발 붐도 잠시 주춤하였다. 그러나 1999년 들어서서는 다시 한 번 각종 아파트 분양광고가 봇물을 이룰 정도로 개발 열풍이 재연되었다.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동수원의 핵심지는 인계동 수원시청 주변의 4개 블록 99만 5,000㎡로 지목되었다. 이 지역은 수원시 전체 상업지역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지만 성장 속도는 여타 지역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개발에 따라 동수원 지역의 자금 여력도 크게 신장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신탁은 1997년 6월 동수원지점을 개설했는데, 불과 50일 만에 수탁고 550억 원을 달성하였다. 이는 서울이 아닌 지방 신설지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다.[24]

2000년대 들어서는 동별로 사업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 인계동의 사업체는 4,749개로 수원시 전체에서 제일 많았다. 그러나 종사자수는 3만 3,271명으로 매탄3동의 3만 4,528명에 비해 근소하게 적었다. 매탄3동의 사업체수는 1,588개에 불과해 인계동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였다. 단순 대비로도 인계동의 사업체가 영세 소규모였음을 보여 준다. 인계동과 매탄동의 종사자수는 장안구 전체 종사자 5만 5,959명, 권선구의 5만 9,520명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었다. 동수원을 포괄하면서 인계동과 매탄동이 포함된 팔달구 전체 종사자수는 12만 4,216명이었다.

2005년에는 인계동의 사업체수는 조금 감소하여 4,656개였고 종사자수는 3만 3,985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매탄3동은 사업체수는 1,453개로 약간 줄었고 종사자수 역시 3만 3,406명으로 근소하게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인계동이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에서 수원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2017년 현재 인계동의 사업체수는

2006년 경수대로 일대(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6,291개에 종사자수는 4만 8,813명이다. 매탄3동은 1,999개에 4만 9,058명이다. 여전히 두 개 동은 수원시 전체에서 압도적인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개발계획 수정을 통해 동수원은 상업지구 성격은 약화하고 행정 업무지구 특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상업지구 성격 역시 매우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점포수나 종사자수 모두 수원시 전체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 줄 정도로 동수원의 상업 중심지로서의 성격은 분명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유통형태의 등장과도 긴밀히 관련된다고 보인다. 특히 대형 할인매장이나 대규모 마트의 등장이 주목된다. 구시가지처럼 소규모 상점 밀집 형태가 지배적인 조건에서는 대규모 할인매장이 새롭게 들어서기 곤란하다. 창고형 할인매장처럼 대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매장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일종의 후발자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동수원의 개발 과정은 단지 일회적 개발로 끝나지 않았다. 인계동의 개발은 곧이어 우만동과 매탄동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영통동의 개발로 연결되었다. 수원 구시가지에서 시작된 개발의 방향은 동수원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3. 동수원 개발의 특성

동수원 지역은 급속한 개발이 진행되어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개발에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투기가 뒤따랐다. 당시 신문보도에 따르면 1983년도에 벌써 서울의 복부인 등 투기꾼이 몰려 신개발지인 동수원 일대 상업지역의 땅값이 한 달 사이에 무려 5배로 폭등했다는 것이다. 우만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 평당 14만 원에도 안 팔리던 택지 값이 갑절인 30만 원으로 오르고 인계동사거리 상업지역은 17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폭등했음에도 매물이 없다고 했다. 복부인 등의 투기꾼들은 수원시가 실시한 지만, 인계, 파송 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매각입찰에도 무려 554명이나 응찰 평균 5.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요지로 평가받던 인계지구와 지만지구의 20획지에는 33 대 1, 92획지는 20 대 1, 36획지는 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25]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에서는 1985년 4월 1일부로 토지거래 신고제를 실시했고 이에 동수원 개발지역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선지구와 인계지구는 토지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당시 시세는 택지의

2013년 인계동(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경우 최하 평당 40만 원 최고 80만 원에 달했으며, 대로변 상가 부지는 평당 90만~150만 원에 달하였다.[26] 동수원 개발이 본격화되자 정치권에서도 동수원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현실정치의 중요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다.[27]

개발의 여파는 기존 상권의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것은 재래시장의 쇠퇴를 불러왔다. 개성 상권과 쌍벽을 이루며 번영을 누리던 수원 남문 상권의 영동시장은 1993년 들어 금은방 2곳이 문을 닫았고 30여 개 점포가 매물로 나와 있는 형편이었다. 의류점도 전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되었다.[28] 재래시장은 상품 가격은 물론 주차공간 서비스 등 대형 유통점들과 경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다. 1992년 연면적 1만 5,600평의 하이웨이백화점이 문을 열었고 1995년까지 한양유통, 벽산, 그랜드, 코아, 선경리빙프라자, 인계종합시장 등 대형 백화점과 복합상가 등이 줄지어 들어설 예정이어서 상권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여겨졌다.

재래시장만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 상가들 역시 대형 백화점과 유통센터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주부들은 저녁 준비를 위해 아파트 상가 대신 인근 하이웨이백화점을 이용하는 게 일반화된 상황이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대형 백화점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동수원에 그치는 현상이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걸친 문제임이 지적되기도 했다.[29]

동수원 개발 과정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 사례가 수원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였다. 수원시는 1989년 수원역 인근의 시외버스터미널을 동수원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으나 3년이 지난 1993년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건설부의 도시계획시설승인도 나지 않았고 사업자조차 선정되지 않아 언제 문을 열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동수원시외버스터미널 상가를 분양한다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억 3,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이 사기사건은 동수원 개발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30] 또한 개발 여파로 동수원사거리는 수원에서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조사되기도 했다.[31]

동수원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반대로 서수원의 상대적 침체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1994년부터 서수원 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금곡동, 호매실동, 탑동 일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경지와 야산 등이었으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착수되어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미 3월에 수원시는 2011년을 대비하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확정하고 서둔동, 고색동, 율전동, 오목천동 등 자연 생산녹지지역 108만여 평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10만 평을 공업지역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대 7개 지구 71만 평을 토지

2019년 인계동 경관(김승일 제공)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32)]

동수원 개발로 서수원뿐만 아니라 구시가지 전체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수원역 지역과 동수원 지역이 시대의 경과에 따라 점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원화성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현상이 나타난다. 구도심이 수원시에서 차지하는 공간 비중은 1966년 22.5%에서 1987년에는 16.35%로 감소하였으며 1998년에는 다시 3.14%로 급감하였다.

이는 여타 도시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강남 개발을 위시해 다양한 신도심과 부도심이 개발되었지만 구도심의 인지도나 중요도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 물론 많은 자원이 강남으로 분산되고 특히 부동산 중심으로 그 중심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구도심의 문화적,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완전 대체할 수는 없었다.

이는 청와대나 정부청사, 서울시청 등의 주요 행정기관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정과도 관련될 것이다. 그러나 수원은 시청이 동수원으로 옮겨 가고 인구 밀집지역이 형성됨으로써 구시가지가 독자적으로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아졌다. 서울의 종로와 광화문 일대처럼 역사적 상징성도 약했기에 독자적 역할 수행이 곤란해졌다고 보인다. 동수원의 개발 과정은 수원 전체의 지형도 자체를 변화시켰다고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수원이란 지명 자체가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수원 개발의 중심은 오히려 서수원이었고 동수원은 기존 시가지를 지칭하던 용어였다. 즉 1970년대까지 고화동 등의 서수원이 신흥지구로 여겨졌고 새로운 개발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다. 고화동이 고등동과 화서동으로 분리되어 100만 평 이상의 새로운 개발지구가 된 것이다. 기존 시가지는 오히려 동수원으로 불렸으며 장안문 북쪽의 북수원과 함께 수원을 삼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33)]

수원의 확장 과정은 곧 중심부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시 행정의 중심인 시청이 이전하면서 새로운 중심이 형성되고 기존의 중심지는 중앙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의 특정 방향으로 지시되게 된 것이다. 즉 서수원이 개발되면서 기존의 성곽 중심은 동수원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다시 동수원 지역이 개발되면서 기존의 성곽 주변은 더 이상 동수원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동수원 개발은 서울의 개발 과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체 발생이 계통 발생을 반복하듯이 동수원은 서울의 강남개발을 연상시켰다. 즉 기존의 시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에 그쳤던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되어 기존 중심지를 넘어서는 번영을 구가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이는 동수원의 상업시설을 홍보하면서 동수원을 서울의 강남으로 비유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1991년 인계동에서 분양된 10층 규모의 한 상가 건물은 "수원의 강남, 동수원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집중 강조하였다.[34)]

이 광고에 따르면 동수원은 완벽한 투자조건을 갖춘 곳으로 설명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거단지, 교통기관, 관공서가 인근에 위치한 투자 요충지라는 것이며 미래지향적 기업들이 다투어 사옥을 짓고 있음도 선전하였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최고의 황금상권을 형성해 대규모 백화점과 중소규모 백화점이 밀집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이 건물이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은 층별로 나뉘어 제시되었다. 1~2층은 증권, 은행, 가전제품 등과 각종 전시장, 3~9층은 보험, 제약, 건설, 무역, 변호사, 회계·세무, 병원, 학원 등이 추천되었고 10층은 스카이라운지와 호프, 레스토랑, 소극장 등이 제시되었다.

얼핏 동수원 개발은 그 자체로 자기완결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 변두리에 불과했던 지역이 불과 십수 년 만에 기존 도심을 능가하는 발전상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의 성공담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발은 기존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수원이 개발되면서 수원의 동쪽이란 지리적 범주가 변경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수원의 중심이란 지정학 내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범주 역시 유동적인 것으로 변모하였다. 수원의 중심은 이제 더 이상 고유한 자기 대상을 갖기 힘들어졌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동수원 개발과 함께 수원은 더 이상 기존의 수원으로 인식되고 파악되기 힘들게 되었다. 요컨대 수원 자체가 변화된 셈이다.

무엇보다 동수원의 개발은 서울의 개발방식을 원형으로 한 한국의 개발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모든 지역이 자신들만의 '강남'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의 정치경제학이 동수원을 통해 수원 전체를 변모시켰다고도 할 것이다. 그 변모가 결국 서울의 모방인 것도 분명할 것이다. 이 개발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동수원은 수원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동수원의 확장은 또 다른 수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개발의 무한성은 인정되기 곤란하다. 기존의 개발이 확장과 팽창을 의미했다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는 돌아 나오기 위해 수축과 축소를 위한 개발의 전망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다.

1) 수원시정연구원. 『70년. 수원도시공간의 역사–데이터북』. 2019.
2)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재정비』. 1984. 7~9쪽.
3)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재정비』. 1984. 3쪽.
4)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재정비』. 1984. 15쪽.
5)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재정비』. 1984. 66~68쪽.
6)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재정비』. 1984. 196~198쪽.
7) 『매일경제』. 1988년 6월 13일.
8) 『경향신문』. 1988년 4월 18일.
9) 『동아일보』. 1986년 2월 20일. 3면 하단 광고 참조
10) 「한국신도」. 『경향신문』. 1987년 8월 18일.
11) 『경향신문』. 1988년 6월 6일.
12) 『한겨레신문』. 1992년 1월 26일.
13) 『매일경제』. 1996년 7월 24일.
14) 『매일경제』. 1996년 10월 1일.
15) 『경향신문』. 1993년 2월 1일.
16) 『동아일보』. 1995년 1월 21일.
17) 『매일경제』. 1986년 1월 18일.
18) 『매일경제』. 1993년 6월 10일.
19) 『매일경제』. 1988년 6월 2일.
20) 『매일경제』. 1988년 8월 4일.
21) 『경향신문』. 1992년 4월 11일.
22) 『한겨레신문』. 1992년 12월 17; 『동아일보』. 1992년 12월 18일.
23) 『동아일보』. 1993년 1월 29일.
24) 『매일경제』. 1997년 8월 2일.
25) 「서울 외곽 땅값 긴 동면 깬다」. 『경향신문』. 1983년 3월 17일.
26) 『경향신문』. 1985년 4월 6일.
27) 『경향신문』. 1985년 1월 22일.
28) 「위성도시 재래시장 사라진다」. 『동아일보』. 1993년 7월 29일.
29) 『한겨레신문』. 1994년 8월 19일.
30) 『경향신문』. 1993년 2월 18일.
31) 『경향신문』. 1997년 5월 2일.
32) 『경향신문』. 1994년 11월 18일.
33) 「새향토기 9. 신흥주택지구로 개발된 서수원」. 『동아일보』. 1977년 3월 16일.
34) 『동아일보』. 1991년 6월 11일. 3면 하단 광고 참조.

1980년 12월 기공되어 1983년 8월 입주가 시작된 이래 인계동 한신아파트는 많은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해 왔다. 처음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한신아파트는 수원 시내에서 꽤 좋은 아파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헌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2장 |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주거문화와 주민생활

1.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과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1]는 1983년 준공된 아파트단지이다. 최저 10층, 최고 12층 높이의 건물 10개 동으로 이루어진 1,185세대의 대단지로, 인계동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단지이다. 1980년 12월 기공되어 1983년 8월 입주가 시작된 이래 인계동 한신아파트는 많은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해 왔다. 처음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한신아파트는 수원 시내에서 꽤 좋은 아파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0년대 말 한신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지금까지 살아온 김명자(가명)[2]의 기억에 당시 한신아파트는 "높은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로 알려져 있었다고 했다.

김명자 여기가 원래 그런 동네였대요. 변호사니 뭐 그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살았대요. 얘기만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차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부자들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내가 1988년도에 이사 왔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가 되었어요. 잘살지도 않고, 못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아파트.

인계동 한신아파트(신반포아파트) 평면도(kakaomap)

한신아파트 위성사진(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수원 시내에 다른 아파트단지들이 건설되면서 한신아파트는 점차 처음의 명성을 잃고 '보통 아파트'로 변해 갔다. 첫 입주로부터 3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 한신아파트는 낡고 오래된 아파트로 주변에 알려져 있을 뿐이지만 단지 내부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을 보여 주는 각종 시설들이 남아 이 아파트가 지닌 오랜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고 있다. 2018년 현재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인 서영진은 요즘 지은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여러 시설들의 특징을 강조한다.

서영진　이 단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그런 게 제법 있어요. 옛날에는 중앙난방이었기 때문에 굴뚝 하나 서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그 앞에 예전 소각로 하나 있던 게 아직도 철거 못하고 있는 거도 있고. 그런 것도 나중에 결국은 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40년 된 도면들도 있어요. 여기는 또 특이한 것이, 요새 아파트들 보면 승강기가 보통 한 층에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절씩 1~2층 사이 중간에 승강기가 있어요. 40년 전에 과거에는 여기가 좋은 아파트였다고 하는데, 그런 승강기 구조는 요새 찾기도 힘들어요. 물론 승강기 내부는 계속 보수를 하고 해서 지금도 작동 중이지만, 구조 자체가, 건축물 구조 자체가 그런 건 찾기 힘들 거예요.

중앙난방용 굴뚝이나 소각로 같은 경우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승강기는 여전히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다. 물론 승강기가 각 층 사이 중간에 선

1980년 한신아파트 건축 현장(수원박물관 제공)

1982년 한신아파트(수원박물관 제공)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서쪽 방향에 위치한 정문에서 본 아파트단지 입구

단지 동쪽에 위치한 청소년문화공원에서 본 아파트단지 모습

각 층 사이 중간에 위치한 승강기 구조

관리사무소 한 구석에 지금까지도 보관되어 있는 예전 도면. 색이 바랜 도면들은 이 아파트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 주는 듯하다.

아파트단지 남서쪽에 위치한 높다란 굴뚝

굴뚝 바로 앞에 위치한 소각로

위에서 바라본 노인정 건물
고즈넉한 팔각정 모양의 건축물이다.

정면에서 본 노인정
지붕의 노란색은 낙엽이 내려앉은 모습이다.

다는 건 이제는 편리함과는 거리가 다소 있는 게 사실이다. 승강기에서 내린 뒤 반 층 계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든 주민이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택배 기사들의 경우 불편함이 가중된다. 그래도 지금은 불편하지만 "옛날엔 잘 지었던 거 같다."거나 "옛날에는 절약한다고 이렇게 지은 거 같다. 머리를 잘 썼다."고 평가하는 주민들도 있다.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주민들은 오래된 아파트에 살기에 어쩔 수 없는 요소로 이해하고 적응해 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한신아파트의 오랜 역사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주인공은 단지 북동쪽에 위치한 노인정이다. 1980년(준공 시점 기준) 당시 유행하던 팔각정 모양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지금까지도 단지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한신아파트 내에서 현재 활동 중인 유일한 아파트 자생단체인 노인회의 무대로서 노인정은 여전히 활발히 활용되는 '옛날 시설'이다.

2. 한신아파트의 주민 구성과 활동

건설된 지 40년이 다 된 오래된 아파트라는 사실은 한신아파트의 현재 주민 구성과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지의 노후화는 입주민들의 전반적인 연령대 상향을 가져왔다. 이에 대한 관리소장 서영진의 증언을 들어보자.

서영진 아무래도 여기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노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많죠.

조사자 단지에서 관리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많이 안 보이나요?

서영진 빈도수로 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죠. 없지는 않지만, 여기 동네가 오래됐잖아요? 낡은 아파트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동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대략적으로 보면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다,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제가 출근해서 단지 안에서 어린애들 많이 보기가 힘들거든요. 밖에서 놀러 온 어린 아이들을 본다거나 그렇지, 여기 실제 거주하면서 어린 아이들은 찾기 힘들어요.

물론 처음부터 한신아파트에 사는 젊은 입주민의 수가 적었던 건 아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지에 거주해 온 김명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김명자 예전에는 아파트에 애기들 엄청 많았어요. 요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꾸 나가니까, 이제 애기들이 별로 ……. 여기가 애들 키우면서 살기도 괜찮긴 한데, 돈 있는 사람은 더 좋은 데로 가나 보더라고. 애기들 있으니까 좀 넓은 집으로 가나 보더라고.

조사자 요새 그럼 애기들은 많이 안 보이나요?

김명자 보여요, 보이긴. 있는데, 예전같이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꽤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애기들이 두셋 되면, 여기 평수가 큰 게 별로 없잖아요. 22평, 15평, 17평 이게 한두 개 있고 22평이 세 개 있고 27평이 한 동 있고, 36평이 한 동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큰 평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또 방이 작아서 애기들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사 많이 가고.

이와 같이 젊은 입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에는 단지의 노후화와 함께, 아파트 값이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실도 한몫했다. 아무래도 집값이 다른 아파트단지보다 낮다 보니 대개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될 수밖에 없고, 세입자의 경우도 나이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파트단지의 주민 구성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것은 2010년대 이후 한신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소유 가구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이다. 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한 바로는 전체 1,185세대의 거주 세대 가운데 임대가구가 623세대로 절반 넘는 비중

①

②

③

④

① 단지 내 위치한 놀이터 풍경
② 단지 내에 위치한 또 다른 놀이터의 모습
③ 부녀회 활동 흔적이 남아 있는 단지 내 나무 벤치
④ 1997년 부녀회의 기증으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 52.6%)을 차지하고 있다.[3] 이처럼 높은 임대가구 비율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각종 동의서 취합 등 아파트단지 내 주요 현안에 대한 무관심으로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내 각종 현안들을 다루는 동시에 주민자치활동의 중심축이 되는 집단이 바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한신아파트의 경우 2018년 말 현재, 총 9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 10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 규모를 감안할 때 원래 정원 역시 각 동별 대표자 수에 맞춰 10명이어야 하나, 한 동에서는 가장 최근 있었던 동대표 선거에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바람에 대표를 뽑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9명의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동대표 선거에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거나, 선거가 진행되더라도 투표율이 낮은 현상은 한신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느 아파트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신규 아파트냐 노후 아파트냐의 여부를 떠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민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건 국내 아파트단지들의 전체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 입주민의 90%가량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심이 없고, 나머지 10% 주민들 가운데 일부 관심 있는 이들이 동대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곤 한다.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다가 실제 입주민 중 임대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무관심을 부채질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시설과 주민 구성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상황은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모이는 여러 가지 자체적인 활동의 부재도 가져왔다. 보통 아파트단지들에는 부녀회나 노인회 혹은 각종 동호회 모임 등 '자생단체'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한신아파트의 경우 2018년 현재 부녀회 조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단지 내에서 전개되었으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 중에서는 부녀회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을 가진 이들을 찾기 힘들다.

서영진　부녀회는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대요.

조사자　부녀회가 없어서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서영진　들어보니까 부녀회가 있으면 아파트에 협조도 해 주고 그래서 좋은 점이 있더구먼요. 그런데 부녀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해 주는 게 없어요.

사실 다른 아파트단지들의 경우를 봐도 최근 들어 부녀회의 활동력이 예전보다 약화되는 모습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신 젊은 주민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다른 아파트단지의 사례를 보면, 부녀회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른바 '맘 카페(엄마들 카페)'라 불리는 '젊은 엄마들'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각계각층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특히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커뮤니티가 발달해 왔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네이버(Naver)나 다음(Daum)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맘 카페'는 주로 젊은 여성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육아와 관련한 내용이나 아이들 유치원과 초등학교 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또한 각 가정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각종 육아용품이나 학교 교보재를 서로 교환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된다.

반면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경우 이런 식의 '맘 카페' 역시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들어 단지 내에 거주하는 젊은 주민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3. 살기 좋은 삶의 터전 : 입지와 조경

비록 아파트단지가 건설된 지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입주민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었다 하나, 많은 입주민들에게 한신아파트는 여전히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주택과 비교하여 '아파트'이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있다. 조사자가 만난 주민들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다른 곳에 살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 사는 곳이 갖는 이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이순임　여기서 아파트에 처음 살아보니까 좋은 점이 많아요. 비가 와도 걱정을 안 하고, 눈이 와도 걱정을 안 하고. 전에 살던 데는 자꾸 걱정을 하고 그랬어요. 비가 새니까.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신미자　나는 처음에 수원 와서 살 때 주택에 살았거든요. 아파트는 여기 오기 전에는 못 살아 봤어요. 근데 여기 이사를 오게 됐는데, 밖에 나갈 때도 딱 잠가 놓고 나가면 그만이고 좋아요.

한신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

한신아파트 동쪽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공원(청소년문화공원)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입지(김승일 제공)
한신아파트는 경수대로(국도1호선)과 중부대로(국도42호선)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으며,
청소년문화공원, KBS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접해 있다.

단지 내 오솔길에 자연스레 자리 잡은 나무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는 단독주택을 누르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형태로 꼽혀 왔다. 이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아파트가 제공하는 생활양식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지녔다고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앞의 구술에서도 주민들이 강조한 시설 관리나 보안 등의 이슈에서 아무래도 아파트가 지닌 이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으로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특히 아파트 거주 경험이 없는 주민들, 한신아파트 입주를 통해 아파트 생활을 처음 경험해 본 주민들에게 이러한 아파트의 생활 이점은 한신아파트가 가진 장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신아파트만의 고유한 특성들, 이를테면 지리적 입지와 조경은 이 단지가 지닌 분명한 강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바로 근처에 병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성루카의료원 등)이 있고, 잘 정비된 넓은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주민들이 경험하는 생활의 편의를 높여 준다. 또한 수원 영동시장 등 큰 재래시장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과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 중의 하나이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 내에 나무가 많아 조경이 잘 되어 있다는 것과 차도로부터 단지가 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한신아파트 주변을 표시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아파트단지는 대로변에서 가까우면서도 차도 바로 옆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그 덕분에 단지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바깥 차도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으며 자동차 매연 역시 직접 접하기 힘들다.

최미자 우리 아파트는 공기가 좋아요. 여기 바로 앞에 차가 안 다녀서, 이 근방으로 찻길이 없어서 살기가 참 좋아요. 의외로 찻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옆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장점인 조경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에 나무가 많은 덕분에 단지 생활의 이점으로 여겨졌다. 이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건설된 상당수 아파트단지들이 보여 주는 특징으로, 이미 재건축이 시행되어 사라진 다른 단지에서 옛 시절을 보낸 많은 사람들이 과거 살았던 아파트에 대해 가진 좋은 기억으로 공히 꼽는 점이기도 하다. 재건축으로 사라졌거나 재건축을 앞둔 이들 아파트단지는 울창한 나무가 단지 구석구석을 장식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아파트단지 건립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며 건물은 노후화를 피하지 못했지만, 반대로 나무의 경우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단지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매우 자연스러운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인계동 한신아파트 주민들 역시 단지의 나무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최미자 그리고 여기 단지 안에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 이렇게 나무 많이 쓰는 데가 없어요. 아주 나무 숲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같기 때문에 좋아요. 공기가 참 좋아요, 여기가.

서영진 아파트 안에서 나무가 또 엄청 공기를 좋게 해 주는데요. 여기는 아주 그냥 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단풍이 떨어졌으니 문 열어 두면 아주 빨갛고 파랗고. 그냥 좋잖아요, 별장 같이. 여기 나무가 많고 그러니까는 무슨 산 속에 들어온 것 같이 좋다고 다들 그래요. 나는 10층에 사는데, 요즘 창문 열어서 밖에 보면 아주 뻘겋고 퍼렇고 아주 그냥 좋아요.

김명자 공기도 좋고. 밖에서 사람들도 오면 아유, 너무 좋다고, 무슨 숲속에 들어온 것 같다고 그래요. 가을에는 울긋불긋하고 진짜, 창문 열어 놓으면 다 보이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조화를 이룬 나무와 건물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높은 나무들이 자연스레 위치해 있다.

4. 살기 좋은 삶의 터전 : 이웃과의 관계

인계동 한신아파트가 낡고 오래된 아파트단지라는 점은 다른 한편으로 여타 단지에 비해 돈독한 이웃관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인심 좋고, 인사 잘 하는 주민들”은 조사자가 만난 주민들이 강조하는 지점이었다.

라인 입구에 붙은 문구
“이웃끼리 서로서로 정답게 인사합시다.”

조사자　여기 아파트 살아 보시니까 제일 좋은 점은 어떤 걸까요?

최미자　여기 인심이 좋아요. 인심이 후해요. 그래서 좋아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서로 인사도 하고. 불량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조사자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서 이웃 분들 만나면 인사도 많이 하시나 보죠?

김명자　그렇죠. 길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서로 아니까 인사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자주 보니까. 자주 만나니까 인사를 해야지 어떡해요. 아파트에 다가도 이제 뭐 인사 잘 하라고 써 붙이고 했잖아요. (웃음)

아파트단지를 가리켜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 덩어리’ 혹은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진 파편화된 공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나, 더 나아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런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 지어진 아파트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특히 같은 동이나 같은 라인에 사는 입주민 중 마음이 맞는 이웃들의 경우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4] 그리고 이는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전형적인 복도식 아파트 구조를 보여 주는 건물의 정면 모습

건물 안에서 본 복도 라인

조사자　여기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서영진　네, 저는 그래서 더 좋아요. 오며 가며 얼굴 알고 이렇게 보고 해서 좋아요.

조사자　같은 라인에 사시는 분들끼리는 얼추 아시나요?

서영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재건축 이야기 때문에 자꾸 이사를 가고 그래가지고는. 저기 전세 들어오면 이 년 만에 나가고, 자꾸 정들 만하면 가고. 내 집 같으면 오래 살 텐데 여기는 아무래도 세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세 살면 이사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 새길 만하면 이사 가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조사자　아까 복도식 아파트라서 좋은 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김명자　[계단식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 사이에 두고 두 집 있고 그런 것보다도, 복도식이니까 오다가다 이웃집도 만나서 그러니까 좋고. 누가 사는지 알아서 좋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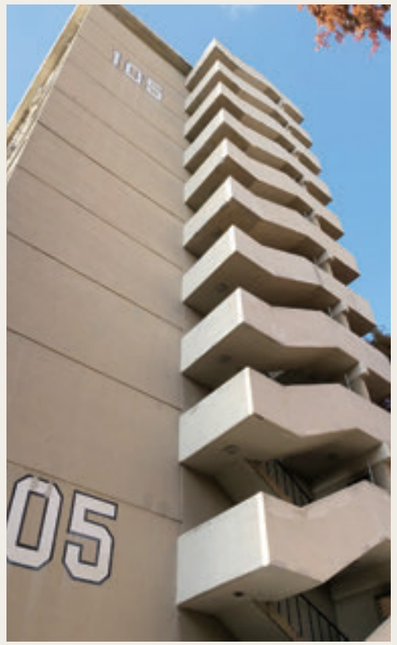
최미자　나는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안 좋아요.

김명자　답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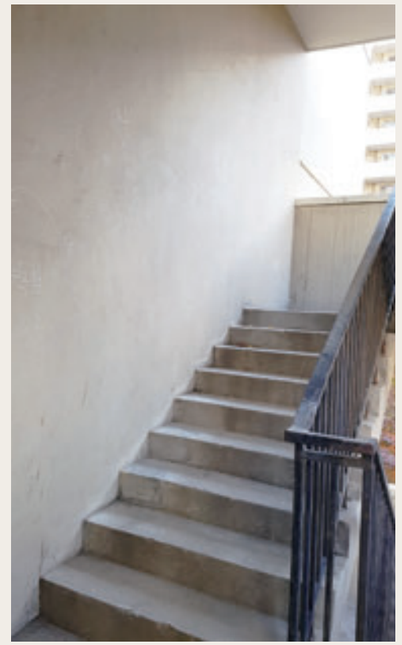
최미자　그거 들어가 딱 문 닫아 버리면 뉘 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자기 혼자만 사는지 모르잖아요. 복도식 아파트가 그래도 손님 살기엔 좋아요.

김명자　오며 가며 이렇게 문 열고 나오면 마주칠 때도 있고. 보고 얼마나 좋아.

인계동 한신아파트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아파트 건물 바깥으로 설치된 외부계단의 존재이다. 모든 건물 측면에는 외부계단이 놓여 있는데, 외부계단은 본래 위급한 상황에서 쓰이는 비상구로 쓰이기 위해 설치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외부계단은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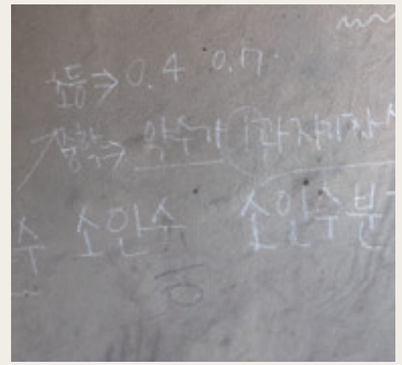


건물 측면으로 설치된 외부계단을 바깥에서 본 모습



안에서 본 외부계단의 모습

외부계단으로 올라가는 1층 입구



외부계단 벽면에 남은 낙서

래의 목적보다 아파트의 옛 정취와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보여 주는 역할에 보다 충실한 듯 보인다.

이처럼 노후화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단지 곳곳에서 이웃 간 정과 예전 생활의 정취를 보여 주는 한신아파트이지만, 모든 주민들이 다 함께 잘 지낼 수만은 없다. 이를테면 많은 국내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험하는 층간소음과 같은 문제는 한신아파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김명자　층간소음이나 그런 문제도 더러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건 사람 만나기에 달렸어요. 너무 까탈스러우면 조금만 시끄러워도 뭐라 하고, 이해하시는 분은, "아유 애들 있는데 이해해야지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웃도 잘 만나야 돼요. 그것도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난 이제 손자를 기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먼저 "아유 미안해요, 손자가 자꾸 뛰어요."라고 말하면 애기가 그럼 그렇지 그럼 어떠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까탈스러운 집은 트집을 잡아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어떤 집은 살다가 이사를 가는 집도 있어요. 위층 시끄럽다고. 아니 우리 딸네가 세를 놔 보니까는, 작년에 세를 놨는데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둘이 있는데 말썽부릴 거 같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끄럽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2년만 살고 이사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만나야 돼요, 이웃을. 그런 게 있어요.

단지 규모도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웃관계에서 좋은 점들만 있을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인심이 좋고 이웃 간 사이도 나쁘지 않은 것이 한신아파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관리비 비리 등 시끄러운 이슈들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들려오기 십상인 현실에서, 낡았지만 이웃 간의 정이 아직 남아 있는 한신아파트의 사례는 인상적이라 하겠다.

5. 노인회와 단지 내 어르신들의 생활

이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주민 구성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부녀회를 비롯한 자생단체의 조직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단지 내 자생단체로 활동 중인 조직이 바로 노인회이다. 보통 15명 내외, 한창 때는 2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신아파트 노인회는 아파트단지의 오랜 역사를 보여 주는 노인정 건물을 배경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친목도모 활동 등을 전개 중이다.

노인회의 주요 활동은 단지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식사 대접과 요가 등 건강교실의 진행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요가교실의 경우 매주 3회씩 단지 바깥의 요가 교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동절기를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총 네 명의 교사가 수업을 맡고 있으며, 매번 수업 때마다 15~20명가량의 주민들이 참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세가 있는 주민들의 경우 아파트단지 바로 외곽에 운동하기 좋은 공원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자주 이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인회를 통해 제공하는 건강교실은 어르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활동은 매주 3회씩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식사 대접 서비스이다. 평일 중 사흘(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걸쳐 제공되는 식사 대접은 요가교실과 더불어 단지 내 노인

노인정 입구

노인정 내부 전경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최숙자　보통 노인정에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서 헤어지고 그래요. 오늘은 밥 안 해먹는 날이니까 별로 안 나오는데, 밥 해먹는 날은 보통 많이 나오죠. 월수금으로 밥을 해먹거든요, 여기가. 옛날에는 매일 계속 해 먹었는데 이제는 힘들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주방에서 너무 힘들다 해서 세 번만 하라고 해서. 월수금 점심으로.

조사자　식사 대접 하실 때는 몇 분 정도 나오나요?

최숙자　요새요? 열다섯 명 정도 돼요. 예전에는 더 많았었어요. 올여름에 먼저 가신 분도 있고, 병원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보통 그전에는 이십 명도 넘었어요.

조사자　요리는 어떤 분들이 해주시나요?

최숙자　요리는 시에서 주방 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주방 일은 계속.

노인정을 드나드는 주민들이 연령(대략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한신아파트 입주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사실이다. 누군가는 아파트단지가 건설된 초창기인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경우도 있는 한편으로, 다른 누군가는 비교적 최근 들어 입주해 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노인정에서 만난 두 분의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한신아파트로 입주해 온 삶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었다. 1980년대 입주한 김명자와 2010년대 입주한 최숙자의 이야기이다.

김명자　여기는 온 지 한 삼십 년 됐어요. 저는 저기 충청북도 감곡이라는 데서 살다가, 사위가 이 동네 주변 호텔에 있었어요. 호텔에서 직원, 저기 주방에 있는 데 관리하는 일 했어요. 시골에 살면서 우리는 양계장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좀 편하게 살자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인계동 한신아파트 노인정의 어느 날

노인정의 주요 활동을 사진으로 정리한 패널

걸 정리해 가지고 뭐 좀 해 보자고, 식당 좀 해 보자고, 저기 가보정이 기둥만 세울 때, 이 주변에 식당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때 왔어요, 삼십 년 전에. 꼭 삼십 년 됐어요.

조사자 1988년, 올림픽 하던 때네요. 이 아파트가 83년에 지어졌더라고요.

김명자 그때는 이 아파트가 좋고, 좀 있는 사람들만 살고 그랬지요. 처음에 우리는 그때 세로 다 살았죠. 막 이사 와서 집 장만은 못 하고 전세로 살면서 영업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집을 장만했어요. 여기 살아보니까 먼지가 별로 안 나고 좋더라고요. 찻길도 멀고, 멀미도 별로 안 나고.

조사자 여기는 찻길이랑 떨어져 있고, 공원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김명자 좋아요. 공원도 잘 해 놨고. 지금은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손자하고, 며느리하고 네 식구. 바깥양반은 돌아가시고.

최미자 여기로 이사 온 거는, 저기, 2012년 11월에 왔어요. 그 전에는 영등포에서 한 삼십 년 살았어요. 처음부터 이 동네로 와야겠다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딸이 여기 101동 살거든요. 걔는 여기 온 지도 한 삼십 년 됐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영등포에서 혼자 사니까, 애들은 다섯 남매나 되는데 다 멀리 떨어져 살아요. 그렇게 자식들이랑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냥 와서 집에 와 보면 내가 혼자에요, 언제든지. 그래가지고 영등포에서 한 이십 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뭐 병을 앓았어. 뭐 나도 모르는 병이 생겼었어요. 그래갖고 체중이 싹 빠졌어요. 칠십 키로가 나갔는데 육십 키로가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 환자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추석에 와 보고는 엄마 여기 엄마 살 집 해 놨으니까 빨리 이사 오라더라고. 그래서 왔어요.

조사자 2012년에 오셨으면 한 육 년 정도 되었는데, 지낼만하세요? 어떠세요?

최미자 살기에 지낼 만하죠. 여기 오면서 바로 노인정에 들어왔어요. 노인정에 와가지고 이제 만 오 년 지냈죠.

이렇듯 한신아파트단지 내 노인 주민들의 주된 활동지로 자리 잡은 노인회이지만, 노인정에 나오는 어르신들의 친교 영역이 노인회에 국한되는 건 아니다. 가깝게 지내는 다른 노인에게 노인정에 같이 나가자고 권한다 해서 모두가 따르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조사자 그럼 어르신께서 자주 만나는 분들은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뵙는 분들인가요?

김명자 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노인정에도 오시는 분들만 오지 안 오시는 분들은

과거 노인회의 활동 흔적을 보여 주는 낡은 식수대

식수대 상단에 자리한 건립 기록(1992년 5월 20일) "충효(忠孝)"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오는 것도 아유, 저기 가고 싶다 하고서 오는 분이 오지, 권한다고 오진 않더라고요. 오라고 해도 알았어요, 하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살아도 심심한데 노인정 나오지 해도, 나는 바빠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다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오고 싶어야지 그렇게 되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은 한신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 주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 2014년에 입주해 온 신삼례처럼 근래 들어 노인정을 찾기 시작한 어르신,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노인정은 정 붙이기 어려운 도시 생활에서 중요한 안식처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신삼례 여기가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보다도, 원체 가격도 그렇고. 근데 내 힘에 맞아. 그래서 여기 온 거여. 근데 와서 보니까 좋네요. 뭐 나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 만해요. 내가 혼자서 뭐, 그렇게 날아다녀. 어지간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조사자 그러게요, 여기 특별히 뭐 나쁜 건 없나 봐요.

신삼례 살아 보니까 좋아. 정이 들었어, 인제는. 이제 정이 들어서, 또 여기 노인들 없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갈 데도 없고, 진짜.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사귀니까.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던 어르신들 크게 웃음)

김명자 아유, 형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셔. (웃음)

신삼례　한신아파트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가기 싫어. 한 번씩 옮기려면 힘 좀 들어? 옮기는 것도 젊어서 해야지, 늘그막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아유, 창피하잖아.

6. 단지 내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

지난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자리해 온 인계동 한신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갖는 아쉬운 점들은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수원 시내에 분당선과 신분당선 등 새로운 지하철 노선들이 들어서면서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약 30분 걸리는 위치의 1호선 수원역이 전부였지만, 새로 개통된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시내를 지나며 수원에서도 지하철 노선이 다양화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신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라 해봐야 대중교통으로 약 20분이 소요되는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전부이고, 또 다른 새로운 지하철역인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역시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걸리는 곳에 들어서게 되었다. 결국 지하철역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수원 시내 다른 동네와 비교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한신아파트 근처에도 바로 지하철역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박정자　제 생각에는 병원도 가깝고 공원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런데 지하철이 어떻게 그렇게 안 와. 지하철만 왔다면 최고인데. 여기 지하철 교통이 좀 그래 가지고 어디 곳곳으로 나가려 하면 불편해요. 여기 근방에만 왔으면, 요기 저 사거리[한신아파트앞 사거리]쯤에만 왔으면, 진짜 최고인데. 그래서 시장 갔다 오면 여기 들어오는 건 버스로밖에 못 와요. 다 좋은데 지하철역이 좀 먼 게 그래서 그래요. 진짜로 여기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겼으면 좋겠어.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보다 더 큰 단지 내 생활문제는 협소한 주차공간이다. 오래된 단지인터라 요즘 유행하는 지하주차장은 당연히 없고, 지상공간에도 주차장이 풍족한 편은 아니다. 그래서 단지 내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단지 바깥의 어중간한 공터에 주차하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김명자　맨날 불편하고 너무 좁아서 늦게 오면 들어오지도 못 해요. 바깥에다 막 세워 놓고 그래서. 엄청 불편해요, 주차가. 딴 데는 다 지하로 차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지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깥에다 갖다놓으니까 세대수는 천 몇 세대라고 그러는데 차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지.

박정자　차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외부에서 오면 저기 바깥에다 대고서 오죠.

조사자　주차가 문제네요. 밖에서 다른 가족이나 손님들 오실 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단지 안에는 댈 데가 마땅치 않나요?

박정자　여기 안 살면 들어오지도 못 해요. 일단 내부에 차 댈 데가 없고, 들여보내질 않아요. 들여보내면 더 복잡하지. 단지 앞에 저기 뭐 차단기 있잖아요. 자동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 있는 사람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문이 빨리 열리고 하는데, 안 되어 있으면 거기서 열어 줘야 들어오죠. 주말에는 그래도 열어 놓긴 하는 거 같고, 예전에는 택시도 안 들어왔는데, 요즘은 택시도 들어오고 그러대요. 전에는 꼭 택시 타고서도 정문 앞에서 내렸는데.

단지 북동쪽에 위치한 주차장 전경

다른 방향으로 본 주차장 전경. 단지 밖 빌라 촌과 바로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아파트단지 자체가 노후화했기 때문에 수도나 난방과 같은 시설 설비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 중 하나이다. 그로 인해 근래 들어 새로 이사 오는 세대의 경우 수도를 한 번씩은 미리 손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서영진　이게 뭐 겉에만 이렇지, 속에 파이프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살면서도 맨날 불안한 거예요. 절단 내면 고쳐야 돼서. 그냥 살림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야 돼서.

조사자　아직 그런 일은 없죠?

서영진　있어요, 아주 그냥 팍 터져서 고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거야.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이사만 갔다 하면 뜯어고쳐요. 여기 그러니까 세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터질까 봐. 그러니까 고쳐 줘야지, 살다가 터지면 나쁘잖아. 이 보일러 다 뜯고 고쳐야 하니까 살림 다 끄집어내야지 엄청 골치 아파요. 이제 살긴 살면서도 언제 터질지 몰라서 맨날 불안해요.

조사자　이사 오시고 나서 보일러 문제 있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신미자　아유, 여기 고치고 그랬어요. 여기 이사 올 때 다 고치고 들어왔지. 저기 뭐 그냥, 어디 터졌다 그래서 그거 고치고. 하나씩 막 터지는구나 싶어요. 근데 뭐 워낙 오래됐으니까.

조사자　그렇죠, 파이프가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수도는 괜찮고요?

신미자　여기 먹는 물도 좀 저기스러워. 수도도 개별로다가 새로 뚫을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안 뚫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은 녹물을 먹는 거지. 오래 된 데서 나오니까 녹물이 나오고. 고친 집에서는 새 물을 받아서 먹고. 그거 뚫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것도 또 안방에도 뚫어야 되고 거실에도 뚫어야 하고 주방에도 뚫어야 하고 아주 골치 아파.

그런데 이 같은 주차공간 부족이나 시설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현재 최대 현안이자 관심사인 재건축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준공일 기준으로 이미 35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단지에서 무언가를 새로 고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항상 재건축 진행 여부가 걸리게 된다. 어차피 조만간 재건축을 진행할 거라면 굳이 돈을 들여 환경 개선작업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박정자　사실 주차장 관해서 저기 뭐 놀이터에 새로 만든다고, 설명 봤는데도 안 하게 되요.

조사자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개조하자는 얘기도 있었군요.

박정자　네, 그런데 이제 재건축 들어가니까는, 주차장에 새로 투자를 못하니까 서명을 안 한 거야 사람들이. 어차피 재건축되면 새로 생길 건데 왜 거기다 돈 쓰냐는 거죠. 근데 여기 새 아파트만 들어서면 수원에서 입지는 좋대요. 제일 좋다고.

조사자　위치가 워낙 좋잖아요.

2018년 현재 인계동 한신아파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재

인계동 한신아파트단지 내 건물 1층에 위치한 낡은 경비실과 주변 풍경
건물 출입구 밖으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단풍은 이 단지 주민들의 자랑이다.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의 삶과 함께해 온 이 나무들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건물 출입구 한구석에 위치한 낡은 우편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입주민들을 웃고 울게 만든 소식들이 여기를 통해 전해졌을 터이다.

재건축 추진을 반대하는 쪽에서 내건 플래카드

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역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찬성 쪽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하나,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 역시 만만찮다. 재건축조합 측에서는 시행사와 시공사 선정을 모두 마치고 수원시청의 재건축 인허가(관리처분인가)만을 받으면 되게끔 추진해 왔으나, 재건축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을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파트단지의 노후로 인한 각종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주민들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추가분담금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들은 재건축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사업성 문제로 인해 실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재건축 반대 측은 단지 내 노인정 등을 빌려 진행하는 반대 공청회에 다수의 주민들이 모이며, 불과 수십 세대의 재건축 반대 구역해지 동의서만 받으면 입주민 과반수의 반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건축 조합 측은 이미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로 조합이 설립되어 추진해 왔고, 시청의 인가만 남은 상황이기에 재건축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인계동 한신아파트가 1980년 전후의 비슷한 시기에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에서 수도권 각지에 건설한 주공아파트처럼 5층짜리 건물들로 이루어진 단지였다면 재건축은 진즉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이전의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이후 늘어나는 세대수로 인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12층짜리 건물 10개 동으로 지어진 한신아파트의 조건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시청 측으로부터 허가 받을 최대 제한 높이와 용적률[5]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그리고 미래를 쉽게 전망하기 힘든 국내 부동산시장을 감안할 때 한신아파트 재건축 찬반 양측의 입장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주민들의 이야기처럼 한신아파트는 인계동을 비롯한 수원시 구도심 근방에서 몇 안 남은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중 하나이다. 아무쪼록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잘 해결되어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이 지역이 많은 시민들의 삶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살기 좋은 아파트로 남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2019년 어느 가을 날, 한신아파트단지의 풍경
어느덧 35년을 훌쩍 넘긴 이 옛날 아파트는
지금도 많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삶의 공간이다.

1) 이 아파트단지의 정식 명칭은 '신반포 수원아파트'이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주변 시민들에게 더 익숙한 이름은 '인계동 한신아파트'이다. 사람들에게 실제로 통용되어 불리는 이름을 존중하여, 이 글에서도 '인계동 한신아파트' 혹은 줄여서 '한신아파트'로 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
2) 이 글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 처리하였다.
3)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이 역시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아니다. 소유가구 562세대와 임대가구 623세대라는 숫자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입주자명부에 의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실제로 복도식 아파트에 살다가 계단식 아파트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 복도식의 '옛날 아파트'에서는 이웃 간 교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런 사실이 복도식 아파트의 이웃 교류를 좋게 평가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계단식 아파트의 '남에 대한 관심이 없는' 특징을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역시 한국사회의 일반적 특성 중 하나이다.
5)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의 비율이다.

청년층인 이예슬와 박성민의 경우 '박스'를 중심으로 인계동 상권을 구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박스'나 '무비사거리'는 술을 마시는 곳으로 상징되고 나혜석거리는 식사를 하는 곳으로 상징된다. 여전히 인계동의 밤을 밝히는 공간은 나혜석거리가 아닌 '박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환 아주대학교 박사과정
이정수 아주대학교 박사과정

3장 |

인계동 상업지역의 소비경관

1. 인계동 상업지역으로 들어가다[1)]

인계동은 수원 사람에게 단순한 행정구역 이상의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 인계동이 품고 있는 다양한 경관들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수원의 행정 중심인 시청에서부터 금융기관과 각종 사업체들이 모여 있는 고층빌딩 등이 중심업무지구로서의 면모를 보이는가 하면 백화점과 골목마다 들어찬 식당들, 1990년대부터 성행하여 아직까지 남아 있는 룸살롱과 단란주점, 트렌드한 감성의 술집과 차려입은 젊은이들의 클럽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한 곳에 밀집해 있다. 특히 인계동은 수원에서 가장 번화한 상권이자 유흥가로, 많은 식당과

수원도심 상권 현황
(「인계동 중심상업지역 성장전략수립 추진계획」, 2017)

수원시청4 상권과 수원시청3 상권(김승일 제공)

수원시청1 상권과 수원시청2 상권(김승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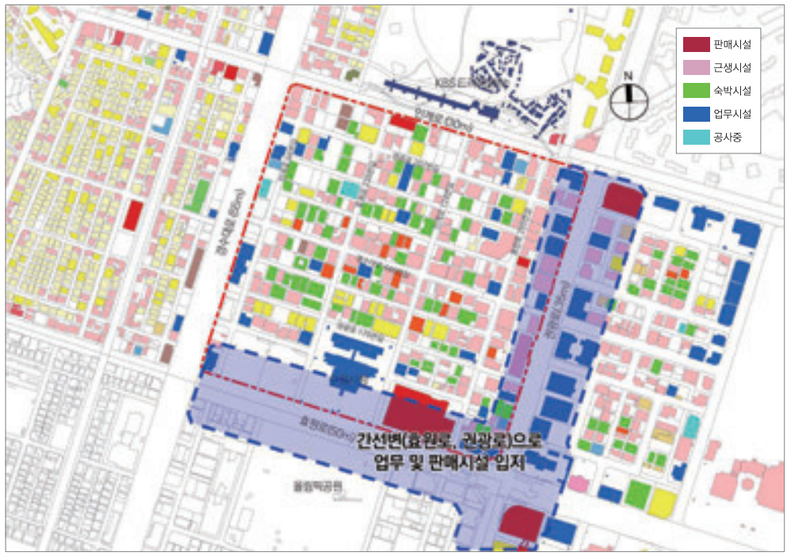
수원시청 상권 조감도(수원시 도시관리과, 「수원시청 일대 활성화 기본계획」, 2018)

술집이 소재하고 있는데, 수원시 각 구청 위생과 동별 자료를 보면 550여 개의 유흥주점 중 180여 개가 인계동에 있으며, 이는 다른 동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이다.[2)]

복잡하고 다양한 얼굴을 한 인계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인계동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원시청 일대 상업지역의 성장과 소비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원시청 일대 상업지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수원을 생활권으로 둔 사람들의 '인계동 상업지역 경험'을 통해 인계동 소비경관의 역사적 흐름과 그 특성을 짚어 보고자 한다.

인계동 수원도심(수원시청 일대) 상권은 갤러리아백화점 블록(수원시청1), 올림픽공원 블록(수원시청2), 나혜석거리 블록(수원시청3), 수원시청 블록(수원시청 4) 등 4개 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원시청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권광로 주변으로 유흥·위락시설 및 관광호텔, 모텔 등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다. 경수대로 주변은 주거 및 숙박시설이 밀집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활발히 신축되고 있다. 권광로와



주용도 현황도(수원시 도시관리과, 「수원시청 일대 활성화 기본계획」, 2018)

효원로 주변으로 업무시설 및 대규모 판매시설이 입지하고 있는데, 업무시설이 10% 이하로 일부 입지하고 있고, 이면부에는 근린생활, 숙박, 주거 등 용도가 혼재되어 도심으로서 위상을 고려한 업무·판매 등 중심기능 확대를 위한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물의 주요 용도는 근린상업시설(49.5%), 숙박시설(21.6%), 주거시설(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수원시청 일대 건축물 주용도 현황

(2018년 현재)

구분	동수(동)	구성비(%)
합계	338	100.0
근린생활시설	160	49.5
숙박시설	70	21.6
주거시설	25	7.7
기타시설	83	21.2

자료 : 수원시 도시관리과, 「수원시청 일대 활성화 기본계획」,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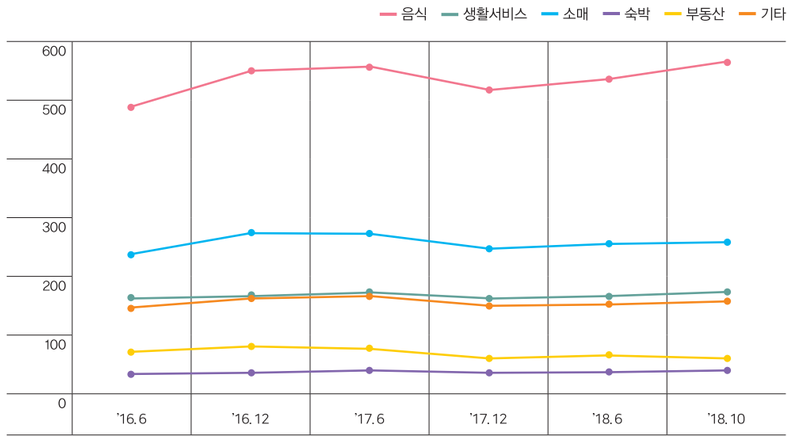
수원시청4 상권은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점포가 증가(99개소)하고 있는 추세로 증가율은 114%이다. 이 중 음식, 소매 등의 식음위주 점포가 가장 많은 비율(831개, 65.5%)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 여가, 오락 등 유흥·위락시설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수원시청4 업종별 점포수

(2018년 10월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2016년 6월	2016년 12월	2017년 6월	2017년 12월	2018년 6월	2018년 10월	비율(%)
음식	497	556	536	523	542	570	45.0
생활서비스	168	165	172	161	167	172	13.5
소매	245	278	276	255	259	261	20.5
관광/여가/오락	84	96	97	81	81	83	6.5
스포츠	14	17	18	17	17	18	1.4
학문/교육	52	53	54	56	56	60	4.7
숙박	38	39	41	42	42	43	3.3
부동산	76	81	80	66	66	66	5.1
합계	1,174	1,285	1,274	1,201	1,230	1,273	100.0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2018년 주요상권정보)



수원시청4 업종별 점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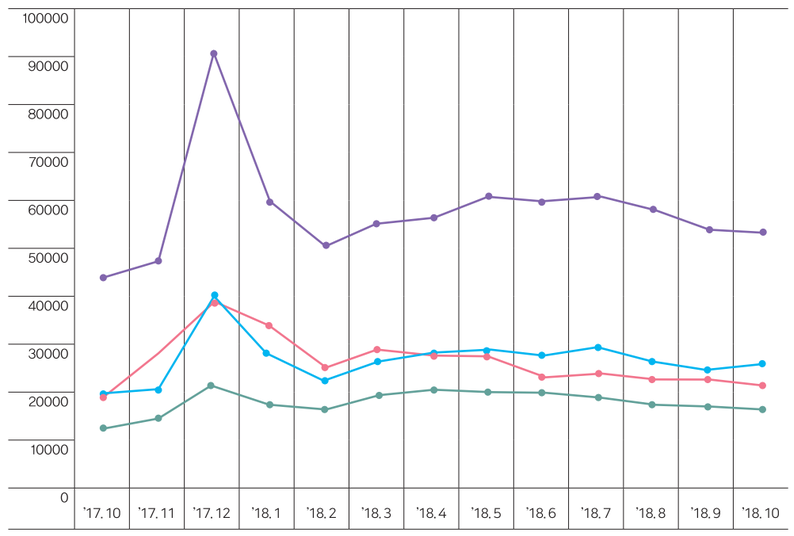
수원시청 일대 상권 중 수원시청4 상권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8~10월 3개월간 유동인구 비율은 미미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표3 수원시청 일대 상권 유동인구 현황

(2018년 10월 현재)

구분	2017년 10월	2017년 12월	2018년 2월	2018년 4월	2018년 6월	2018년 8월	2018년 10월
합계	95,765	190,714	115,350	133,283	131,484	125,610	118,036
수원시청1	19,748	38,792	25,902	28,178	23257	23,053	21,771
수원시청2	12,722	21,330	16,399	20,678	20,120	17,933	16,935
수원시청3	19,407	40,117	22,937	28,248	28,303	26,700	25,939
수원시청4	43,888	90,475	50,112	56,179	59,804	57,924	53,391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SKT 통화량 기반 추정 유동인구)



수원시청 일대 상권 유동인구 현황

음식점 및 주점업

숙박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업종별 분포 현황(수원시 도시관리과, 「수원시청 일대 활성화 기본계획」, 2018)

상업기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중심의 업무기능도 일부 입지하고 있어 기존 업종 특성을 바탕으로 부족한 중심업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상업기능의 주요 업종으로는 음식점 및 주점업이 28.1%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소매업(9.6%), 도매 및 상품중개업(6.9%), 숙박업(4.8%)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업무기능의 주요 업종으로는 개인 서비스업이 5.1%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표4 **수원시청 일대 업종 현황**

구분	업종수(개)	구성비(%)
합계	1,389	100.0
음식점 및 주점업	390	28.1
소매업	133	9.6
부동산업	97	9.6
도매 및 상품중개업	96	6.9
기타 개인 서비스업	71	5.1
숙박업	66	4.8
사업지원 서비스업	59	4.2
보건업	57	4.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52	3.7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	3.6
기타	318	22.9

자료 : 수원시 도시관리과, 「수원시청 일대 활성화 기본계획」, 2018

2. 내가 기억하는 인계동[3)]

필자(김정환)는 1986년에 수원에서 태어나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 그리고 석사와 박사과정까지 모두 수원에서 마친 수원 토박이다. 내 입장에서는 이미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문화와 소비 관련 연구 경력이 있고, 생애사나 생애과정 조사방법 경험이 있으며,

또한 부모님이 과거 인계동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었기에 인계동의 소비문화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인계동에 대해 조사하며 깨달은 것은 내가 연구자로서도, 수원을 사는 생활인으로서도 인계동이 무엇인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수원에서 태어나 줄곧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고, 30여 년 넘게 수원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새삼 인계동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수원 사람으로서 직접 겪은 인계동에 대한 어릴 때의 기억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인계동에 대해 회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기억은 '외식'이다. 인계동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즐겨 찾았던 '먹자골목'의 식당들이 위치한 공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나혜석거리 일대였는데 1990년대 초반에는 '나혜석거리'라는 이름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 일대를 '먹자골목'이라 불렀다. 그곳엔 아버지의 지인이 운영하던 '중국성'이라는 청요릿집, 돈까스는 물론 비후까스와 함박스테이크를 파는 세련된 경양식집 '가무', 경기문화재단 건물 뒤편의 토속적인 매운 갈비찜 식당 그리고 당시로서는 새로운 유행이었던 패밀리레스토랑 '코코스'[4]가 효원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 정도를 떠올릴 수 있었다.

2001년 나의 아버지는 '외식'공간을 직접 경영하기에 이른다. 당시 수원에서는 생소한 이태리 스타일 레스토랑과 원두를 내린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나혜석거리 초입에 열었다. 당시는 원두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문화가 한국에 자리 잡기 전이었다. 파스타와 리조또 같은 음식 역시 생소하였다. 현재로서는 매우 흔한 것이지만 당시의 '카페'라는 곳은 인스턴트커피 가루에 설탕을 탄 커피와 각종 주스, 간단한 맥주 정도를 팔던 곳이었다. 결국, 아버지의 가게는 시대를 너무나 앞서갔던 탓에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했지만 나에게 인계동은 수원에서 가장 세련되고 앞서가며 다양한 메뉴의 '외식'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인계동과 관련한 또 다른 기억은 바로 '대형 쇼핑몰'이다. 1990년대 초반에 유년기를 보낸 나에게 인계동 '킴스클럽'은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던 곳이다. 당시 수원에는 '뉴코아' 같은 백화점이 이미 운영되고 있었지만, 회원제 창고형 매장 '킴스클럽'은 맛있는 과자나 음료 등이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이를 박스 단위로 대량 구매하는 대형 공간이다. 유년기의 나에게 특별한 인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상이 내가 수원 사람으로서 갖고 있던 인계동에 대한 기억이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단편적이기는 하나 소비경관으로서 인계동을 이해하는 출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계동은 '수원에서 유행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흔하지만 프랜차이즈 개념이 생소한 1990년대 초반 프랜차이즈의 초창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가장 먼저 들어온 곳, 미국의 대량 소비방식에 영향을 받은 '킴스클럽'이라는 생소한 형태의 마트가 유일하게 들어와 있던 곳, 프랜차이즈 형태의 외식업체가 대중화되던 2000년대 초반 여러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이 모두 모인 곳이 바로 인계동이다. 즉 인계동은 외식 공간임과 동시에 술집과 유흥업소가 많은 곳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옷가게와 같은 패션 상점과 백화점, 영화관도 있는 복합적인 소비공간이다.

1995년 킴스클럽 개장(수원상공회의소 제공)

그렇다면 나의 기억 이외에 어떤 자료를 통해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계동의 소비경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5] 인계동에 대한 선행자료가 체계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소비와 관련한 행위자들의 구술을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계동에서 소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들과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다. 소비자의 경우, 인계동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성별, 연령, 인계동을 소비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려 했다.

1998년 뉴코아(수원박물관 제공)

표 5 **구술자 인적사항**

구술자명(가명)	성별	나이	비고
송성갑	남	60대	인계동에서 20년 해장국집 운영, 1970년대부터 수원 거주
김대인	남	50대	자영업자, 1980년대부터 수원 거주
유성자	여	50대	주부, 1980년대부터 수원 거주
최진명	남	40대	사무직, 2000년대부터 수원 거주
박성민	남	30대	대학원생, 수원 토박이
이예슬	여	20대	대학생, 수원 토박이

3. 인계동 상권의 탄생과 도약 그리고 위기

인계동은 여느 수원 사람들의 상식으로도, 각종 통계로도 수원에서 가장 번화하고 규모가 큰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원 최대의 상권인 인계동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먼저 구술자 중에서 가장 연배가 높은 송성갑에게서 인계동이 수원 최고의 상권이 되기 전의 모습을 들을 수 있었다. 화성시 동탄이 고향인 송성갑은 1970년대부터 수원에 거주하였으며 인계동에서 20여 년째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다. 1970년대 수원의 최대 상권은 인계동이 아닌 남문(팔달문)이었으며, 인계동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고 한다.

동수원 개발에 따른 수원 상권 이동

송성갑 그때는 여기(인계동)가 다 논바닥이지. 과수원, 논, 밭. 지금 임광아파트 앞에가 화장터였고. 그 자리가 화장터 자리야.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 복숭아밭이었고.

언제부터 인계동에 상권이 형성되고 번화해졌는지 물으니 송성갑은 '동수원 개발' 이후라고 하였다. 여러 문헌에 따르면 인계동 상권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6]으로 개발된 상권임을 알 수 있다.[7] 당시 정부의 도시계획에서는 수원의 기존 시가지인 수원 화성과 신시가지인 동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2개의 핵이 구상되었다. 그리고 동수원 지역에 중심상업 및 업무기능을 부여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인계동이다. 당시에는 논밭만 있던 변두리 땅을 국가 차원에서 매입하여 개발을 추진한 것이 인계동의 시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인의 구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대인 인계동이 (서울) 강남식으로 토지들을 다 흡수해 가지구 개인들한테 토지정리들을 해가지고 판 땅이야. …… 원래 시청 뒤에는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업무지역으로 분양을 했어. 그리고 그 구역 끝에 부분만 상업지구고. 내가 건물 갖고 있었던 쪽(나혜석거리)이 상업지역이었지. 나혜석거리하고 갤러리아백화점 뒤에. 거기가 상업지역이었고, 시청 뒤편은 업무지역이었어. 그런데 개발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니까 상업지역으로 다 풀어 준 거야. 그러면서 그쪽에 술집들이 많이 생긴 거지.

1990년대 초 수원시청 뒤편 개발 현황(김충영 제공)

1998년(좌)과 2013년(우) 인계동 중심상업지구의 변화
(이준희,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김대인의 구술에 따르면 현 갤러리아백화점 인근과 나혜석거리 쪽은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이 일대에는 1층으로 된 낮은 건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김대인은 이것이 당시 택지개발의 흔적이라고 하였다. 상업지역 용도 허가 유지를 위해 땅주인들이 단층 건물을 우선 지어 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물에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 인계동 소비경관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수원 주민들이 '먹자골목'으로 인식하는 소비경관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인계동 상권이 수원의 주요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 이는 다름 아니라, 수원시청 뒤편 업무지역에서 시작된 유흥업소 붐이다. 교동에 있었던 수원시청이 동수원이 개발되면서 인계동으로 이전해 오자, 신청사 뒤편 블록으로 모텔과 유흥업소가 하나둘 영업을 개시하더니 이제는 인계동 상권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김대인의 구술에 따르면 1990년대에 전국에서 가장 유흥업소가 밀집한 동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구역의 건물마다 유흥업소가 생겨났고 이 업소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다른 업종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인계동이 수원의 대표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이 무엇인지, 인계동이 가진 화려함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알 수 있다.

유성자　거기(시청 뒤 업무지구)는 유흥술집 같은 게 많았지. 여자 나오는 술집.

김대인　(시청 뒤 업무지구에) 맨 처음에는 내가 알기에는 모텔이 한두 개 생겼는데 그게 영업이 잘됐어. 영업이 잘되니까 너도나도 하나씩 짓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선 거지 모야.

인계동 상권은 1980년대 동수원 개발로 조성되었고 1990년대 애초 업무지구로 설정되었던 시청 뒤편 구역에 유흥업이 흥하면서 수원뿐만 아니라 수원 외부 지역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상권이 되었다. 이 시기의 인계동 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인계동 상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소비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그 협력사와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송성갑　옛날에 삼성의 생산라인이 여기 있을 때, 그때 월급날이 21일이야. 삼성전자 월급을 타면, 지금 구매탄시장이나 인계동이랑 남문 상권이 들썩거렸지.

2000년 갤러리아백화점과 나혜석거리 인근의 상업지역(수원박물관 제공)
상업지역 용도 허가 유지를 위해 토지주들이 1층으로 된 낮은 건물들을 지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1969년부터 인계동과 인접한 매탄동에 자리 잡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수원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80년대 수원의 지역 내 생산율은 11.8%로, 당시 전국 평균 7.1%를 훨씬 상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8] 한국 기업의 회식문화와 접대문화, 음주 중심의 여가문화를 고려하면 1990년대 인계동의 유흥업과 요식업이 성행하는 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관련 업체들의 영향이 상당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김대인의 구술에서도 삼성전자 관련 임직원들은 인계동 상권의 매우 중요한 소비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인　맨 처음에 거기(인계동)에 식당들이 생긴 거는 삼성 사람들이 회식을 많이 했어. 내가

2000년 인계동 수원시청 뒤편 중심상업지구(수원박물관 제공)

그 전에 세놓은 집(인계동 소재)도 삼성 사람들이 회식을 많이 하니까 삼성전자 상대로 장사하던 사람이야. 일반 사람보다는 삼성 사람들이 단체로 와요.

송성갑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이 다 가고, 연구소가 남아서 사자 들어가는 석사, 박사들이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수원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은 월급은 여기서 받지만 돈 쓰는 건 다 강남이나 서울이야. 인계동으로는 안 와.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 안에 식당 메뉴가 육십몇 개가 있대.

하지만 삼성전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 수원사업장의 생산 라인을 광주, 기흥, 화성, 구미 등 국내 타 지역과 해외로 이전하였다. 수원 사업장

삼성전자 이전반대 여론을 전하고 있는 지역 신문기사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은 연구 개발·상품 기획 기능에 집중하는 연구개발단지로 전환되었다. 송성갑과 김대인은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이 수원에서 타지로 이전한 이후 인계동 상권에 상당한 타격을 미쳤다고 했다. 삼성 수원사업소에 있었던 노동집약적인 생산 라인이 이전되면서 수원에 상주하였던 생산직 노동자들 역시 감소하였고, 인계동 상권의 유흥업소와 식당 역시 주요한 소비자층을 잃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나혜석거리의 부상

삼성전자와 관련한 소비자층이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계동 상권은 현재까지 수원 최고의 상권을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인계동을 찾는 삼성전자 관련 임직원이 감소한 2000년대 이후 인계동 상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먼저, 과거 '먹자골목'으로 불렸던 나혜석거리의 변화와 부상을 말할 수 있다. 수원시는 수원 태생인 최초의 한국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을 기리고자 2000년에 인계동 효원공원부터 서쪽 440m가량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나혜석거리'로 조성하였다. 나혜석거리 입구에는 나혜석 동상과 조형물 등이 세워져 있고 거리의 중간 지점에는 야외무대가 마련되어 있다.

송성갑　상권이 이쪽(시청 뒤편)이 아니라 나혜석거리 쪽으로 넘어갔잖아. 지금 수원의 최고의 상권이 거기(나혜석거리)야.

김대인　지금은 전세가 역전됐데. 시청 뒤편이 장사가 잘 안되고, 나혜석거리 쪽이 장사가 잘 된대.

나혜석거리 경관

이예솔　나혜석거리에 진짜 맛있는, 진짜 인도 사람이 하는 카레 식당이 있거든요. 좀 비싸긴 한데 되게 맛있어요. 진짜 정통 인도 카레. 그런 식으로 먹을 것도 많고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구술에 따르면 시청 뒤편 구역은 1990년대 성업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과거 '먹자골목'이라고 불렸던 나혜석거리 일대에서의 소비 활동이 우세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혜석거리가 수원에서 새로운 유행 상품과 이에 부합하는 인테리어가 먼저 도입되는 소비경관이기 때문이다. 나혜석거리 일대에는 일반적인 고깃집이나 토속적인 음식점에 더해 세련된 카페나 이색적인 식당들로 대변되는 소위 청년들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감성의 업소가 다양하게 뒤섞여 있다. 그리고 이들 각 업소들의 경영 상황에 따라 그리고 소비 상품의 사회적 유행에 따라 업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간판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20~30대 젊은 층을 나혜석거리로 불러모으는 원동력이다. 다시 말해, 시대가 흘러도 새로운 소비자층이 계속해서 유입되어 상권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나혜석거리에 남아 있는 단층 건물

나혜석거리에 있는 세련된 카페와 식당

이예솔　상권이 빨리 변한단 말이에요. 엄청 빨리 망하고 엄청 빨리 생기고, 유행에 그래서 민감해요. 요새 뜨는 메뉴라든지 요새 뜨는 감성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빨리 바뀌니까 유행 타는 집들이 많이 생기고 많이 없어지고, 여기 요즘 핫하대, 하면 여기 가서 먹어 보고. 그런 느낌?

나혜석거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주요 소비자층은 30~40대 직장인이다. 회식을 하러 나온 직장인 모임을 자주 목격했다는 것이 구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는 각종 회사와 기관이 밀집한 인계동의 상황과도 부합한다. 인계동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인 최진명 역시 직원들과 회식을 하거나 술을 마시러 나혜석거리를 자주 찾는다고 하였는데, 다음 구술을 통해 직장인들이 인계동을 찾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다.

최진명　자기네 동네 아니면 회사 근처에서 모이지. 왜냐면 직장인들은 일 끝나고 다른 곳까지 가서 모일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 돈은 있지만. 나만 해도 평일에는 누구 만나러 남문을 가거나 수원역을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주중엔 회사 근처에서 먹거나 집 근처에서 먹거나.

이상의 구술과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2000년대 들어서 인계동 상권의 주요한 소비층 중 하나인 삼성 관련 임직원들이 이탈하며 소비자 관점에서는 시청 뒤편 구역보다 나혜석거리 일대의 상권이 더 번화한 소비경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인계동 상권의 주축이 되는 소비자층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임직원들과 먹자골목을 찾는 가족 단위의 소비자들이었다면 점차적으로 청년 계층과 인계동 인근에 위치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을 포괄하는 다층화된 소비경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박스'를 통해 본 인계동 방문화의 변천 : 나이트클럽에서 헌팅 술집으로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성매매업소

박성민　저는 거의 식사를 하러 가면 나혜석거리 쪽에서 주로 먹고요. '무비사거리'나 인계동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나혜석거리 바로 근접한 '무비사거리' 쪽은 술집들이 많아요. 식사라기보단 술 먹으러 갈 때 거길 가는데, 거기도 사람이 많을 때는 더 안쪽으로 내려가죠.

'박스'구역과 '무비사거리' 라인의 유흥업소(『스카이데일리』, 2017년 1월 2일 참조)

이예솔　'박스' 안에는 거의 90%가 술집인데, '박스' 밖에는 먹을거리가 되게 많아요. 나혜석거리도 그렇고.

1990년대까지 인계동 상권의 성장을 이끌었던 시청 뒤편 구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청년층의 구술을 통해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 20대 여성인 이예슬과 30대 남성인 박성민은 연령상 청년층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인계동에 대해 얘기할 때 다른 연령층의 구술자들이 쓰지 않는 인계동의 특정구역을 지칭하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시청 뒤편 격자형으로 구획된 블록을 의미하는 '박스'라는 용어와 시청 뒤편의 상권 중에서도 나혜석거리 초입 건너편에 위치한 멀티플렉스 CGV 건물 뒤편 사거리 일대를 가리키는 '무비사거리'라는 용어이다. 즉, '박스'와 '무비사거리'에서의 소비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 시청 뒤편 구역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예솔　인계동 가면 (밤) 11시? 11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고. 왜냐하면 11시 이전에 갈 사람들은 다 가거든요. 막차 끊기기 전이죠. 11시부터 남아 있는 애들은 그날 밤샐 애들이니까, 다 달리는 애들이고 다 놀 애들이기 때문에 같이 놀면 재미있어요. 금요일 11시부터 시작이에요. 사람들 미어터져요. 길거리에 차가 못 다녀요.

박성민　나혜석거리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러 오거나 회사 근처에서 회식을 하거나 그래서 무비사거리 쪽보다는 사람이 좀 더 일찍(이른 시간에) 많구요. 대신 가게들이 (새벽) 1시 2시면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아요. 무비사거리는 거의 한 (새벽) 4시, 5시 이후까지도. 금요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 밤에 사람이 많고, 일요일은 아무래도 학교를 가거나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적고). 제일 손님이 없을 때는 월요일 정도. 무비사거리는 (오후) 4시, 5시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술집들이다 보니까.

청년층인 이예슬와 박성민의 경우 '박스'를 중심으로 인계동 상권을 구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박스'나 '무비사거리'는 술을 마시는 곳으로 상징되고 나혜석거리는 식사를 하는 곳으로 상징된다. 여전히 인계동의 밤을 밝히는 공간은 나혜석거리가 아닌 '박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스'에는 젊은 취향의 다양한 술집들이 즐비하다. 구술자들은 인계동 상권의 술집을 수원역 일대 술집보다 고급스럽다고 평가한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수원역 앞 일대의 술집은 인계동의 술집보다 가격이 싼 대신 음식의 질이

'박스'의 밤 시간대 술집들

떨어지고 맛이 없다. 수원역 앞 일대는 20대 초반 연령대가 주를 이룬다면 인계동 상권에는 상대적으로 20대 초반보다 20대 후반 이상 연령대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 수원에서 클럽과 헌팅 술집 등 다양한 유흥 공간이 하나의 상권에 모여 있는 곳은 인계동뿐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술을 마시러 가는' '박스'에서의 활동이 음주만은 아니다. '박스'에 밀집한 다양한 형식의 유흥 공간은'술을 마시는 장소'이며 '새로운 만남을 위한 장소'이다. 이예슬은 힙합 '클럽'을 종종 찾으며, 박성민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한 '스탠딩 펍'에서 사귄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헌팅 술집'이 있다. 이예슬에 따르면, '박스'에서 20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헌팅 술집'이다. '헌팅 술집'은 몇몇 남녀 무리가 각각 다른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주로 남성들이 여성들 술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만남을 이루는 술집이다. 합석은 종업원의 매개로 이루어지거나 남성의 직접적인 접근으로 성사된다. 합석 이후에는 미리 준비해 놓은 가명과 실제와는 다른 소속, 직업으로 자신을

2016년 인계동 상업지역 야경(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합석한 이들과 출신 중·고등학교 선·후배 등 지인 관계로 얽히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 이예슬 특성 명확해요. 무슨 특성이 있는 줄 알아요? 완전 헌팅 술집. 막 이렇게 목적성이 뚜렷한, 짝짓기를 위한 헌술 목적이, 약간 모텔 가려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인계동이 최근 들어 '만남의 장소'가 된 것은 아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인계동의 밤은 밝았다. 다만 지나간 시대의 청년들이 새로운 만남을 위해 찾았던 곳은 '헌팅 술집'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이었다. 과거 인계동에서 성행했던 나이트클럽의 주소비자 연령층과 현재 인계동에 남아 있는 나이트클럽에 가는 주소비자 연령층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2018년 인계동 상업지역 야경(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또한, 인계동 '박스'구역 안에서도 연령층별로 확연한 구획이 나누어지는데, 20~30대층은 '무비사거리'를 중심으로 밀집하고 40~50대층은 시청 뒤편 구역의 주변부 테두리 지역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예슬에 따르면, '박스'의 바깥 라인은 '아줌마·아저씨 라인'이다.

박성민　줄리아나사거리라고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비사거리에서 반대 블록인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 쪽이 활발했어요. 나이트가 있었거든요. 줄리아나나이트라고. 그쪽에나 술집들이 있고, 나머지 외곽, 지금 무비사거리 그쪽은 다 여자 나오는 유흥업소였죠. 그때는 나이트 갈 때 아니면 인계동 갈 일은 별로 없었던 같아요. 현재는 많이 문 닫았고 두 개인가 남았는데, 코리아랑 찬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30대 이상이고, 찬스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연령대가 다양하기는 한데 젊은 애들이 그나마 오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찬스 같은 경우는 회식하고들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르신, 어르신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한 40대, 50대들이 자기 친구들끼리 술 한 잔 하러 오시기도 하고.

이예슬　나이트는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클럽을 가면 갔지 나이트는 안 가 봤어요. 나이트는, 왜냐하면 술 취한 여자 억지로 부킹해 주는 식으로, 인식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박성민　(박스 안은) 일단 20~30대가 70~80% 되지 않을까요. 특히 무비사거리 그쪽으로는 많게 잡으면 90%까지 잡아도 적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그쪽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가는 술집들이. 대부분 바깥쪽('박스'의 주변부)에 조용한 술집들이 많이 있고 40~50대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거리 포차같이 젊은 애들 가는 그런 데는 40~50대들이 가기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인계동 상권의 특성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점이 '성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소비경관이라는 것이다. 인계동에는 과거부터 흔히 '룸살롱'이라고 부르는 유흥주점, 즉 유흥 접객원이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형태의 주점부터 다종다양한 형태의 '성적 서비스'가 거래되는 업소가 존재했으며, 수원 외 지역까지 그 명성이 높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구술과 기사에 따르면, 인계동의 각종 유흥주점은 1990년대에 가장 성행하였다가 2010년 이후 그 세가 줄어들거나 상권의 주변부로 밀려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박성민　2000년대까지만 해도 진짜 다 유흥이어서 일반 술집들도 있지만 대부분 유흥들이 많아서, 말로는 술집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유흥처럼 운영되는 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무비사거리'(현 CGV 건물 뒤편 사거리 구역) 그쪽은 다 유흥이었죠. 옛날부터 수원에서 유흥은 파장동이나 인계동이었거든요. 지금 가보면 파장시장 그쪽은 아직도 다 유흥이거든요. 인계동은 그런 게 많이 바뀐 거죠. 일반 술집들이 많이 생겼고, 대부분 유흥들은 사이드 쪽, '박스' 테두리 쪽이나 '박스' 군데군데 듬성하게 밀려난 거죠.

이예슬　2008년인가 2010년 정도였던 거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인계동 박스뿐 아니라 나혜석거리에도 성매매 업소가 있었어요.

인계동 박스의 유흥주점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인계동에서는 현재에도 '성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불법화 이후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단계와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 노동자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박성민의 구술에 따르면, 성매매의 양상이 음주가무와 성매매가 결합된 유흥업소의 형태에서 음성화되어 암암리에 행해지되, 성매매에 집중하는 형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박성민　유흥주점은 예전보다 줄었는데 대신에 다른 게 많이 생겼죠. 오피스텔이건, 마사지건. 요즘에는 오피스텔이 진짜 오피스텔 방 몇 개를 빌려서 돌리는 식이다 보니까 사실 일반 술집 하는 것보다 공간도 그렇고 사람을 많이 쓸 일도 없고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많이 생겨 버려서.

최진명　지금도 유흥 많아. 오피스텔 엄청 큰 건물인데 그 안에 오피랑 있고 막.

박성민　유흥주점은 소프트를 하던 하드를 하던 그런 게 있고. 오피스텔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마사지나 오피스텔도 있고, 휴게텔이라고 그런 식으로도 있고, 휴게텔 같은 경우는 약간 저렴한 대신에 외국인들. 오피스텔은 한국 여성들이 주로. 마사지도 한국 여성이 하는 데가 있고, 외국 여성들이 하는 데가 있고.

여전히 인계동에서 성매매가 성행한다는 사실은 인계동 '박스' 내의 성매매 호객 행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30대 남성인 필자가 인계동 밤거리 풍경을 관찰하기 위해 새벽 1시경 인계동 '박스'구역을 방문했을 때, 한 블록을 나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성매매 호객 행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받았다. 이는 소비자의 구술에서도 교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계동에서 20여 년 동안 장사를 한 송성갑은 식당 업주의 입장에서 유흥업소의 호객행위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진명　CGV 뒤가 제일 정신없고 제일 환락가고. 삐끼 엄청 많지. 모텔도 많고. CGV 뒤편에서 동수원우체국까지 그 부분이 모텔도 엄청 많고 유흥업소 많고 술집 많고. 거기는 웬만해서는 안 가.

송성갑　(인계동이) 수원에서 중심상권인데 이것도 업종에 따라 달라. 유흥업소 쪽의 호객행위, 삐끼라고 그러나, 호객 행위하는 것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저녁에 밥 먹으러 이쪽으로 잘 오질 않아. 그래서 상권이 이쪽(시청 뒤편)이 아니라 나혜석거리 쪽으로 넘어갔잖아. 지금 수원의 최고의 상권이 거기(나혜석거리)야. 그건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

6. 다가올 갤러리아백화점의 영업 종료 : 쇼핑 중심지 인계동의 쇠락

지금까지의 구술들을 통해 인계동의 소비경관은 시대와 세대, 시간과 공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에 따라 인계동의 소비경관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청 뒤편 구역, 나혜석거리 일대, 갤러리아백화점과 그 인근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역시, 인계동 상권의 주요 상징 중 하나이다. 수원은 물론 경기 남부 지역에서 손꼽히는 고급형 대형 백화점이었기 때문이다. 갤러리아백화점

1997년 갤러리아백화점 개점(수원상공회의소 제공)

수원점은 1995년 개장하였는데 갤러리아백화점 이전에도 수원에는 뉴코아백화점이나 크로바백화점, 시민백화점 등의 백화점이 있었으나, 최고급 명품을 취급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고급형 백화점으로서는 인계동의 갤러리아백화점이 수원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계동의 갤러리아백화점은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것일까? 10여 년 동안 갤러리아백화점을 이용해 온 중년 여성 소비자 유성자의 구술을 통해 그 단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유성자는 2000년 인계동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갤러리아백화점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백화점 내 옷가게 점원, 점장들과 사적인 친분이 생겼고 이들과 사적으로도 어울리게 되었다. 그러다 비슷한 또래의 VIP 고객 중년 여성 지인들을 알게 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유성자　수원은 작은 지역이자나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들이 옷도 많이 팔아 주니까 언니들이 친하게 된 거지. 같이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 옷도 보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

2019년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일대

고 모여서. 주부들이 뭐 그렇지 뭐. 쇼핑도 하고. 저녁때는 시장보고 집에 가는 거지.

갤러리아백화점은 유성자와 같은 중년 여성들에게 단순한 쇼핑공간을 넘어 부유한 중년 여성들의 사교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성자에 따르면 이 사모임 구성원의 공통점은 수원과 용인, 화성 등 수원 인근에 거주하는 상류층 중년 여성들이었다. 이들에게 갤러리아백화점은 주요한 사회적 공간이다. 유성자는 최근 갤러리아백화점보다 더 크고 좋은 백화점들이 인근에 생겨도 이곳을 통해 맺어진 관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곳을 찾던 사람들은 계속 갤러리아백화점을 찾는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한 기사[9]에 따르면, 갤러리아백화점은 이제 2019년 11월에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읽을 수 있을까?

유성자　그때(2000년대 초반)는 (브랜드나 물건의) 종류가 더 많았어. 지금은 더 없어. 장사가 잘 안 됐나 봐. 여기가 지역이라 수원이 2000년대 중반쯤 됐나 그때가 수원이 좀 장사들이 잘 안 되더라고. 되는 데만 되고. 요즘은 분산이 많이 됐데. 신세계도 있고 현대도 있자나 판교에.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는 거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수원역과 광교,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 인접 지역에서 갤러리아백화점을 대체할 수 있는 더욱 고급스러운 백화점과 세부적인 소비자층을 겨냥하여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는 대형 쇼핑몰이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경우 수원역에 생긴 AK백화점이나 롯데몰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30대 이상 여성들의 고급 소비 수요나 기존의 갤러리아백화점을 찾았던 수원 인근 도시의 소비 수요는 광교와 성남 분당, 용인 수지에 생긴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갤러리아백화점의 성쇠는 인계동 상권 변천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1990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수원과 수원 인접 지역에 대해 인계동 상권은 유흥뿐만 아니라 쇼핑 중심지라는 상징이 있었지만 인접 지역 상권의 부상과 인터넷 쇼핑 증가 등으로 점차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계동 상권은 만나서 먹고 마시는 소비경관으로 그 역할이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성민　수원역을 데이트 코스로 더 많이 가죠. 백화점(AK백화점) 같은 것도 있고, 옷 쇼핑할 것도 수원역에서 많이 하고. 그런데 인계동은 쇼핑보다는 유흥 쪽이 강하고.

최진명　요새 분위기는 무슨 무슨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큰 몰로 가지. 롯데몰 같은 거. 인계동은 그런 거 없잖아. 수원역에는 롯데몰 생겼잖아. 거기 가면 다 있는데 굳이 길바닥 돌아다니지 않고 편하게 건물 안에서 다 하잖아.

이예솔　(시청 인근의) 홈플러스는 가족 장 보는 거 때문에 자주 가긴 하구요. 갤러리아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지금 AK(수원역 AK백화점)랑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작고 입점된 게 적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과 같이 인계동 상권과 관계하여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구술, 현재 인계동 상권과 관련하여 드물게나마 존재하는 역사적 자료와 통계자료 등을 비교하면서 소비공간 인계동의 변천을 거칠게 살펴보았다. 1980년대 이루어진 인계동 상권의 형성 과정과 1990년대 수원 최고의 상권으로 도약한 인계동의 위상과 그 성격, 2000년대 이후의 인계동 상권의 변화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10]

신축 중인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조감도
(한화갤러리아 제공)

소비행위가 압도하는 현대 사회의 삶에서 지역의 중심상권이 지역민에게 갖는 상징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인계동은 수원 사람에게 단순한 행정구역 이상의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 인계동 상권의 역사는 특정 공간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회사원, 주부, 상인, 청년 등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 각자의 삶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지점이 인계동을 하나의 시각이나 주제로 정리하기 어렵게 한다. 누군가는 인계동을 없는 것 없이 다 모여 있다는 의미로 '수원의 강남'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리 새로운 지역이 개발돼도 결국, 수원 사람들은 인계동에서 만난다는 뜻에서 '수원의 제일 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인계동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설렜던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회식 때문에 퇴근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끌려 나와 직장 상사의 흉을 맞추던 곳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하듯 인계동의 현재와 미래도 그러할 것이다. 다만 수원 사람들의 삶은 계속 쌓여 갈 것이다, 인계동이라는 중첩된 그라데이션 위에서.

송성갑　인계동을 쉽게 이야기해서 단적으로 표현하면 인계동에는 온갖 것이 다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라데이션'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1) 「수원시청 일대 활성화 기본계획」, 2018.(수원시 도시관리과 제공)
2) 인계동 다음으로 영화동 71개, 영통동 55개, 정자1동, 31개 순으로 나타났다.(최지연 외, 『수원의 문화적 공간해석을 위한 기초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4)
3) 필자 자신의 이야기를 밝히는 이유는 수원 사람이지만 인계동을 잘 몰랐던 필자가 조사과정을 통해 인계동을 알아가는 과정을 글을 읽는 이들과 좀 더 생생하게 공유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유는 조사방법론적인 목적으로, 인류학 특히 민속지 방법에서는 연구 현장에서의 연구자의 위치와 상황에 대한 성찰이 연구결과와 해석에 중요한 측면임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문화연구와 사회학적 질적 연구에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자에 의한 인터뷰 수행과 해석 과정에는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연구자의 편향에 의한 왜곡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구자의 맥락을 연구결과를 읽는 이들과 공유함으로써 대안적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연구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연구자가 어떻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등을 좀 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연구자가 완전히 객관적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반증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4) 코코스(COCO'S, ココス)는 일본의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이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미도파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도입되었으나, 2004년에 경영난으로 인하여 철수하였다.
5) 한국에서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서 '지역'을 연구한 역사는 길지 않다. 사료나 통계, 각종 자료를 동 단위로 수집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인계동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 선행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소비와 관련한 자료는 인계동의 상점수와 분포를 알 수 있는 행정자료 정도만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업종별 상점수 정보만으로 인계동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가령 "인계동은 유흥지역이다.", "인계동은 먹자골목이다." 와 같은 표면적인 수준의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글을 위해 수집한 구술자료는 향후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탐색적 성격의 단초이다.
6)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의 수원의 구도심과 신도심, 권선구와 장안구 일대의 북서권역과 인계동, 영통을 포함하는 남동권역 사이의 개발의 격차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에 따르면 인계동, 영통 등을 포함하는 남동권역은 북서권역에 비해 일반상업지역은 3.3배, 근린상업지역은 17배에 이르고 있으며, 북서권역에는 중심상업지역이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7) 이건원·김세용, 「수원시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1), 2010, 7~20쪽; 이우종·김상호, 「수원시 도시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7(3), 2002, 231~244쪽.
8) 「'48년 동행' 수원-삼성, 어디서부터 갈렸을까」, 『한겨레』, 2017년 9월 5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9676.html#csidxd5642172d5e9081a8d61639b44d7fb).
9) 「갤러리아 수원점,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경기신문』, 2019년 1월 23일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811).
10) 하지만 말 그대로 이는 주어진 자료를 통해 인계동 상권의 개략적인 흐름을 짚은 것에 불과하다. 자료 수집의 한계로 여러 가지 부분이 비어있다. 다만, 구술을 통해 몇 가지 향후 연구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1970년대 이후 수원에서 주요한 경제적 행위자인 삼성이 수원의 상권 및 수원 주민들에게 미친 경제 및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1980년대 택지개발 이후 수원에 나타난 동수원과 서수원 혹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관계를 영통과 광교신도시 조성 및 수원역의 재개발 등을 고려하여 수원 내 도심의 역학이나 수원 내부의 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계동 상권의 주소비자층인 청년들의 소비방식과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계동이 동수원의 문화거리로 뜬 과정은 흔히 '일번지'로 불리는 중심지의 형성과 발전을 보여 준다. '일번지'라는 정겨운 표현은 이제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대체되며 밀려난 구식 명칭이 되었지만, 역사가 쌓인 문화거리를 꼽을 때는 어쩐지 일번지가 어울리는 듯싶다. 이름이야 무엇으로 부르든 동수원의 문화적 중심거리는 인계동이라는 인식과 현실이 자리를 확고히 잡았다.

정수자 시인

4장 | 인계동의 문화거리

도시의 중심지는 그 지역의 문화를 이끄는 주역이다. 중심지가 그곳의 문화를 견인하는 동시에 문화가 그 중심지를 다시 꽃피우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와 중심지가 맞물리며 발전하는 특성상, 문화를 견인하는 힘이 약해지면 중심지도 급격히 세를 잃는다.

수원의 문화 중심 거리는 크게 네댓 곳을 꼽는다. 구도심인 팔달문 주변과 신도심인 동수원 지역, 수원역 주변과 아주대 거리, 그리고 영통 중심가 등이다. 동수원 중에서도 문화적 중심 거리는 단연 인계동이다. 인계동은 동수원 개발 직후부터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며 부상하기 시작한 곳인데, 동수원 지역의 신설 문화공간이나 편의시설 등이 몰리며 중심지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수원의 '東'쪽이라는 위치에 따라 붙인 동수원의 중심 인계동은 동부로 서부로 나눠 볼 수 있다. 같은 마을이면서 개발 효과가 먼저 나타난 것은 인계동의 동부 쪽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변화로 득세를 한 것이다. 아파트단지와 새로운 인구 유입은 인계동에 상권에서도 크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계동은 성 안 마을의 중심부인 팔달문 주변이 지녀 온 '수원 일번지'와는 조금 다르게 젊은 문화 일번지로 떠올랐다. 젊은 아파트 문화 중심지가 되다 보니 성 안보다 젊은 문화를 표상하는 변화도 역동적으로 수반된 것이다.

인계동은 행정동과 법정동이 처음부터 같은 마을로 넓은 편이다. 1동과 2동으로 분동(分洞)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아 그냥 두고 있다. 인계동 중에서도 동수원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거리로 꼽을 수 있는 곳은 수원시청 뒤편과 그 건너편에 조성된 나혜석거리 부근이다. 붐비는 거리가 동쪽에 몰려 있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지는 서쪽은 다른 동네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서쪽도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수원공업고등학교 앞)이니 곧 시멘트 숲이 더욱 울창해질 것이다. 인계동 특유의 젊은 문화는 그래도 개발 초부터 선점한 동쪽의 두 거리가 계속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1. 동수원 개발과 수원시청 이전

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논밭이 어우러진 시골 마을 같던 인계동. 인계동의 인계(仁溪)는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작은 내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인도천', '인도래', '인도내' 등으로도 불렸다고 하는데, 옛 이름을 간판으로 달아 인계의 전통을 잇는 식당처럼 꾸미는 곳도 더러 보인다.

그런 마을이 동수원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부상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로는 동수원 개발의 귀결인 아파트 대단지 건설과 그에 따른 인구와 문화의 새로운 유입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수원시청의 인계동 이전 역시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나혜석거리'라는 새로운 이름의 문화거리 조성도 기여했을 것이다. 도시의 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흡인 요소가 뒷받침된 셈이다. 도시계획에 뒤따르는 변화가 시골마을 같던 인계동을 동수원의 문화적 중심지로 키운 것이다.

그 중에도 수원시청이 동수원으로 이전한 것은 인계동에 중심 역할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보인다. 수원 제1의 관공서가 동수원 개발과 함께 이전했으니 수원 전체의 주목을 받는 뜨거운 장소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예전 수원시청은 현재 가족여성회관(한동안은 권선구청으로 사용) 건물에 있었는데, 시 인구가 늘고 살림 규모가 커지면서 인계동에 청사를 새로 짓고 1987년에 이전하였다. 시청 이전은 여러 면에서 큰 이동을 유발하는데, 일종의 중심이 옮겨 가는 변화로 이어진다.

그 중에도 시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권의 이동이 시민들 피부에 크게 와 닿는 변화

수원시청과 수원시의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일 것이다. 인계동으로 새 청사가 들어선 뒤 시청 뒤쪽에 새로운 상권이 빠르게 형성된 것만 봐도 청사 이전의 위세와 실세를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외관을 새롭게 차린 가게들이 들어서며 상권이 형성되자마자 시청 관계자들 외에 새로운 분위기를 찾아드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된다. 시청 뒤 거리가 자연스럽게 동수원의 새로운 중심지로 문화적 힘을 누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나혜석거리를 조성한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당초 동수원의 문화 거점으로 기획을 했든, 새로운 거리 조성의 하나로 만들었든, 젊은이들이 더 몰리며 중심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거리의 부상에는 문화거리를 표방하는 거리답게 지은 '나혜석'이라는 이름값도 제 몫을 톡톡히 했다. 거리의 번성이 소비를 견인하듯, 소비 또한 젊음과 밀접한 속성을 갖고 있으니 젊은 문화의 형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다.

2. 수원의 문화·예술공간 일번지

인계동이 동수원의 문화거리로 뜬 과정은 흔히 '일번지'로 불리는 중심지의 형성과 발전을 보여 준다. '일번지'라는 정겨운 표현은 이제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대체되며 밀려난 구식 명칭이 되었지만, 역사가 쌓인 문화거리를 꼽을 때는 어쩐지 일번지가 어울리는 듯싶다. 이름이야 무엇으로 부르든 동수원의 문화적 중심거리는 인계동이라는 인식과 현실이 자리를 확고히 잡았다.

인계동은 수원의 문화 전체를 놓고 봐도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인계동에 문화공간을 신설하고 옮기는 등 새롭게 배치한 덕이 크다. 먼저 1991년 개관한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 당시 명칭은 경기도예술회관)이라는 본격 전문공연장의 설립이 문화적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였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인계동에 문을 열며 동수원은 물론 수원 전역의 문화·예술을 즐기게 되었다.

1987년 올림픽공원 착공식

1991년 경기도문화의전당 개관식

1994년 KBS수원방송센터 건립

1995년 야외음악당 준공식

경기도의문화의전당은 이름표만큼 경기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다양하게 담아내고자 했다. 전문 공간이 자리를 잡으면 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향유를 견인하는 것처럼,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문화적 기대에 부응하는 충전소 혹은 발전소 역할을 것이다. 그 이전에 수원시민회관이 수원의 웬만한 공연은 다 책임지는 문화공간 역할을 감당했던 데 비하면, 음향이나 전시 등의 면에서 전문성이 더 갖춰진 공연장에서의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문화재단도 '경기'를 앞에 단 기관이지만 수원에 이곳 문화·예술에 몫을 더하는 것이다. 외관부터 튀는 색깔을 입혀 다른 시설과 변별성을 보여 주는 재단 건물은 인근을 문화재단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국내 첫 문화재단으로 출범할 때 장안동에 있다가 2001년 현 위치로 사옥을 이전해 인계동의 문화공간 노릇을 하고 있다. 출범 이후 외국에까지 본보기가 될 만큼 발전한 경기문화재단은 예술 정책이나 지원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1997년 경기문화재단 창단식(장안동)

2001년 나혜석 동상 제막식

2005년 현충탑 준공식

2014년 수원영상미디어센터 개관식

2016년 야외음악당(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5년 7000인 시민대합창(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6년 수원국제음악제 개막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는 시민들(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공연장과 강연장을 갖춘 재단에서는 강연과 회의 등 주요 행사가 수시로 열린다. 건물 1층에서도 다양한 전시를 상시적으로 열고 있는데 새로운 개념의 전시가 많아 방문객들의 눈과 감각을 즐겁게 한다. 새로운 전시를 끊임없이 열다 보니 어쩌다 방문을 하더라도 관람의 맛을 누릴 수 있어 문화재단다운 공간 활용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1층 한쪽에 아트플랫폼을 열었는데 작은 모임이나 강연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책도 꽤 갖추고 있어 작지만 알찬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옆의 수원야외음악당도 수원의 문화적 품격과 인계동의 위상을 높여 주는 문화공간이다. 이 음악당은 건축 당시부터 흰 천의 지붕 등으로 눈에 확 띄는 외양과 잔디밭 공연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야외 공간으로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수원에서의 역할이 아주 큰 대기업의 기증이라 관심을 널리 끌었다(1995년 삼성전자에서 건립 후 수원시에 기증). 이목을 끈 야외음악당은 최신 첨단 음향장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로 고정 관람석과 1만 5,0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잔디광장 등 공연 문화를 새롭게 쓰고 있다. 획기적인 공연장이었던 만큼 시민들의 문화적 기대도 컸는데 그에 부응하는 발전을 견인하는 셈이다.

건립 20년이 넘는 동안 야외음악당은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과 함께 즐기는 대중적 문화공간이 되었다. 공연 입장료가 만만치 않은 이즈음의 현실을 감안하면 앞의 일부 고정석 외에는 무료인 잔디밭 공연으로 소풍처럼 즐기는 야외공연문화를 견인해 온 셈이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도시락이나 치킨 등을 먹으며 잔디밭에 앉아 즐기는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같은 공연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높여 주는 동시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하였다. 그런 점에서 야외음악당은 인계동이 문화적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는 물론 수원의 공연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문화마당이라 하겠다.

야외음악당 앞에 또 다른 문화공간으로 인계동의 문화지수를 높이는 곳이 또 있다. 바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다. 1989년 새 청사를 짓고 인계동으로 옮겨 왔으니 수원시청 이전과 시기가 비슷하다. 본래는 경기도여성회관으로 1970년 신풍동에 신축 개관한 것을 동수원 택지개발과 함께 이전한 것이다. 성 안 구도심에서 인계동으로 주요 시설 이전이 늘면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이나 수원야외음악당 같은 신축 개관 등이 어우러졌으니 인계동이 신도심을 이루게 된 것은 당연한 변화겠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개관 초부터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등 여러 활동과 비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주요 프로그램도 양재, 자수, 미용 등에서 도배, 요리 등이 신설되고 사진, 무용, 문예창작 등으로 확장되며 생활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모든 활동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이 공간 역시 '경기도'를 달고 있지만, 수원에

KBS수원센터와 수원청소년문화센터(김승일 제공)

자리하고 있어서 수원의 문화공간처럼 활용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나 문화 생산 그리고 향유를 다양하게 견인하고 있다. 그 건물에 전국주부교실경기도지부도 들어있다 보니 뜻 있는 여성들이 모여 무엇인가 만들어 내는 문화적 생산과 나눔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인계동의 문화지수를 높이는 문화공간을 살피다 보니 지나칠 수 없는 곳이 또 있다. 수원의 산하기관이 아닌 또 다른 문화공간으로 유의미한 곳은 바로 KBS수원센터다. KBS수원센터에서는 방송과 상관없이 연극 공연도 가끔 하므로 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연극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연극은 갈수록 힘든 상황이라 연극을 보려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그런 연극 관람의 갈증을 KBS수원센터에서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기회와 또 다른 문화 체험도 할 때가 있으니, 인기드라마 주인공이 KBS수원센터에 뜨는 시각을 어찌 알았는지 몰려온 청소년들의 괴성과 환호성을 만나는 날이다. KBS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던 때는 아이돌 스타에 대한 팬덤현상 같은 아우성을 가끔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를 무심히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광경이자 문화 충격 같은 경험이었다. 지금 청소년들은 유튜브에 빠져 드라마도 별로 안 본다니 인기드라마 시청률이 40%대를 넘나들던 시절 이야기다.

인계동의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수원청소년문화센터를 빼놓을 수 없다.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은 이 문화센터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앞선 청소년 정책의 실현이자 문화공간의 건립(2000년)이다. 무엇보다 딱히 갈 곳이나 놀 곳 없이 공부만 강요당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놀이공간으로 중요한 마련이었던 것이다. 이후 청소년문화센터는 수원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배출을 견인하며 학교 밖의 공간에서 가능한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놀이터가 된다. 연극이나 동아리활동 등 다채로운 표현과 공연 같은 발표를 추동하는 문화적 해방구 역할을 감당한 셈이다.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각종 동아리 모임은 인계동에 젊은 문화를 불어넣는 또 다른 힘이다. 센터 한쪽에 마련한 작은 운동장의 농구대나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운동하는 청소년들 함성이며 열기가 밤늦게까지 울려 퍼진다. 자전거 타는 아이들도 많이 보이지만, 공원 쪽 건물의 새천년수영장에서 물 가르는 소리도 힘차게 들리곤 한다. 주말이면 센터의 작은 야외공연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알뜰장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인계동에 또 다른 활기를 불러일으킨다. 인근 아파트 주민이라면 소음에 신경이 쓰일 정도로 다양한 행사 마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 옆에 넓은 인계공원이 있어 추운 계절을 제외하면 거의 매주 문화행사가 청소년센터 하늘을 푸르게 흔들고 있다.

최근에는 센터 한쪽에 수원영상미디어센터(2014년 개관)까지 갖추어 더 다양한 문화

KBS 수원아트홀(김현락 제공)

2003년 KBS수원센터 여름축제 행사(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청소년문화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청소년들(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활동의 장을 열었다. 영상세대인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영상으로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성인들도 마을영화제나 시민영화제 같은 것을 여는 등 공간 활용이 활발하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어서 더 가능해진 영상 문화 생산과 향유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듯 수원청소년문화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는 수원의 젊은 문화 생산과 충전 그리고 생산을 꾸준히 견인하는 인계동의 새로운 문화적 충전소이자 발전소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 외에도 인계동의 문화 나눔이나 누림에 기여하는 곳이 또 있으니 바로 문화센터다. 갤러리아백화점과 동수원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동수원점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수요나 유행에 민감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다. 젊은 아기엄마들이 아기를 맡기고 문화를 즐길 만한 곳이 적을 때 이런 센터들은 놀이시설이 갖춰진 공간을 만들어 젊은 주부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었다. 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엄마들의 문화적 욕구를 풀며 생활에 반영하거나 직업 전선으로 나설 수 있는 것까지 시

의성 높은 교육과 교양 함양 등 다양성을 자랑한다. 이런 문화센터 운영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수강생들의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편의시설의 문화센터 운영이 나름의 소비는 물론 문화적 바탕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다.

3. 특화거리의 역사와 상징

수원의 문화를 운위할 때 인계동은 상대적으로 젊은 문화를 대변하는 거리로 꼽혀 왔다. 한때 수원의 일번지로 흥성스러웠던 팔달문 주변에 비해 훨씬 젊고 새로운 문화적 분위기가 풍기는 까닭이다. 젊음의 인파나 역동성만 두고 보면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나 아주대 앞의 거리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 젊은 직장인이 더 몰리는 인계동은 서울의 강남처럼 세련된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다.

2000년 나혜석거리의 탄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인지되면서 인계동은 최신 유행의 집결지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런 이미지 역시 인계동을 주로 찾는 젊음에서 촉발되는데, 젊은이들이 몰고 다니는 유행이나 취향, 소비 같은 것들이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새로 생긴 카페, 술집, 밥집, 옷집 등 시대의 유행은 이를 재빨리 반영하는 가게들의 겉모습에서 우선 나타난다. 젊은 분위기는 내용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유행을 선도하는 스타일이나 새로운 메뉴 등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나혜석거리가 있다. 시청 뒤편 거리와 함께 동수원의 문화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 거리다. 나혜석거리를 가운데 두고 양 옆의 거리들 역시 동수원 문화거리에 포함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인계동에 웬 나혜석이냐고 할 수 있지만, 짧지 않은 역사가 담겨 있는 성공적인 특화거리다. 1985년 주변(신매탄아파트단지 등)의 도시개발 때 현재의 거리 일대를 정비하면서 기획이 뒤따른 덕분이다. 당시는 나무가 꽤 충충한데다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아 우범지대 같은 분위기가 감돈다고 재정비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1998년 거리를 새로 조성하고 길을 다듬었으니 20년의 역사를 담보하는 거리가 되었다.

그때 이름 짓기에서 몇 의견을 제치고 채택된 것이 '나혜석거리'다. 심재덕 시장의 제안으로 수원의 예술인 나혜석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새로 조성한 거리에 붙였으니 획기적인 명명인 셈이다. 정월(晶月) 나혜석(羅蕙錫, 1986~1948)은 한국 최초의 여성서양화가라는 명성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앞선 페미니즘 소설과 선각적인 논설과 문제적 시를 남긴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화거리'에 썩 어울리는 이름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상존하는 여성의 이름을 거리에 붙인 것은 지금 봐도 나혜석만큼이나 앞선 작명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나혜석 생가 터가 있는 신풍동과 너무 멀다는 것은 문제로 남아 있지만 말이다.

나혜석거리는 300m 정도로 별로 길지도 넓지도 않은 길이다. 어찌 보면 조금 넓은 골목길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보기 좋게 다듬고 이름을 붙여 특화한 것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수원 출신의 큰 인물의 이름을 붙여 색다른 거리로 명명하니 이름값에 따른 효과인지 점점 놀라운 변화의 중심가 되었다. 미술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자리 잡았어도 문학에서는 소수가 적극적으로 조명하는 단계의 나혜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었다. 행인들이 무심히 지나다가도 나혜석이 누구냐고 묻거나 행적을 적은 나혜석 상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눈에 띄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거리 조성과 명명의 기림으로 새로운 거리 문화를 축적해 온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거리의 정체성을 선명히 보여 주는 것은 양쪽 초입에 세운 두 개의 나혜석 상(像)과 이력을 적은 조형물이다. 효원공원 쪽에는 어머니 나혜석 석상을, 반대편에는 화가 나혜석 동상을 세워 나혜석의 거리임을 예술적으로 선포한 셈이다. 어머니로서의 삶이 평탄치 못했던 어머니 좌상(坐像) 앞에는 그녀의 행장(行狀)이 간략하게 적혀 있다. '최초'라는 수식어로 앞서 나간 화가의 입상(立像) 앞에도 만만치 않은 활동을 요약한 연보가 그의 생을 새삼 들려준다. 전통적 어머니 상은 앉아 있는 모습으로, 현대적 여성이 화구를 든 채 먼 데를 바라보는 상은 서 있는 모습으로, 대조적인 조각도 나혜석의 예술인적 면모와 생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나혜석거리(김현락 제공)

유명한 이름값이 거리의 유명세를 빨리 올릴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유명인물 이름을 내건 많은 거리가 다 번성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혜석거리에는 사람을 불러들일 만한 각별한 흡인력으로 있었던 게다. 나혜석거리를 이루는 문화적 기억들을 돌아보면 이름값도 물론 한몫했지만, 근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시청이 가까운 인계동의 위치 효과를 톡톡히 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거리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사람이 붐벼야 하는데 두 요소 다 사람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는 흡인력인 까닭이다.

근처의 각종 은행, 영화관, 백화점, 아울렛 같은 편의시설이 포진한 동수원의 중심지에 자리한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젊은이들까지 몰리는 덕분에 동수원 신도심의 일번지로 성장세를 자연스럽게 탄 것이다. 구도심 신풍동보다 흡인의 매력이 크게 작동하니 거리가 마을과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젊음이 젊음을 부르고 젊음의 역동성에 따라 상권이 몰리듯, 그런 요소들이 서로를 일으키며 새로운 소비의 활력까지 만들어 냈던 셈이다.

나혜석거리? 이름을 듣고 갸우뚱거린 것은 오래 전에 옛 얘기가 되었다. 이제는 외지인도 수원에서의 약속을 나혜석거리로 잡는 등 한번은 꼭 들러야 하는 수원의 유명 거리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부터는 수원의 나혜석거리 좀 가보자고 명소 방문하듯 일부러 찾아오는 발길도 많아졌다. 나혜석거리 숙소에서 자고 가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여러 번 봤을 정도로 여행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거리가 된 것이다.

문화를 연상케 하는 나혜석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독특한 이름값에 인계동이라는 위치며 젊은이 문화와 소비 등이 더해지며 수원의 대표적 문화거리가 되었다. 동수원의 젊은 문화를 견인하며 이름값 좀 하는 나혜석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4. 문화판의 중심, 나혜석거리

나혜석거리가 유명해진 데는 문화적 요인도 있다. 우선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야외음악당, 경기도여성회관 등 '문화'와 '예술'로 연결이 되는 길의 매력이다. 그보다 대중적이고 폭발적인 흡인력은 봄부터 가을까지 길의 양 옆으로 펼쳐지는 노천카페들의 음주 천하일 듯하지만 말이다.

노천카페는 시원한 맥주 한잔의 만남으로 빚어내는 밤풍경이 특히 낭만적이어서 홀리지 않을 발길이 없을 정도다. 날 잡아 이 거리로 진출하는 약속도 많지만 지나다가 그 분

나혜석거리 풍경(김승일 제공)

2003년 나혜석거리의 분수대와 아이들(수원시포토뱅크 제공)

위기에 넋이 나가 부나비처럼 끌려드는 사람이 많으니 말이다. 문화니 뭐니 하는 것보다 주류천하가 홀림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물론 주변 식당들의 다양한 먹거리며 새로운 감각과 취향에 발 빠르게 맞추는 맛의 다양한 진열도 사람들을 계속 부르는 힘이다.

나혜석거리 가운데에 마련한 작은 무대도 거리 문화의 좋은 본이 되었다. 추위를 벗은 봄부터 이어지는 크고 작은 공연은 나혜석거리의 명성을 더욱 높여 주는 즐거운 판이다. 작은 언더그라운드밴드의 버스킹도 더러 있지만 예술단체에서 무대를 꾸미고 여는 문화행사도 더러 있다. 행사 성격에 따라 간혹 시낭송도 있었고, 정치적 외침의 무대로 활용되기도 했으니 문화·예술적 풀이의 흥겨운 마당이 되는 셈이다. 대체로 소음 속에서도 전달 잘 되는 대중적인 노래공연이 무대를 많이 차지하지만 말이다. 이렇듯 노천카페에서 맥주잔을 높이 들거나 색다른 메뉴의 저녁을 즐기는 저녁에 거리공연 같은 볼거리가 풍성해질수록 나혜석거리의 예술적 향기도 높아지는 것이다.

요즘은 길 가운데에 트레일러를 세우는 식으로 거리를 활용하고 있어 또 다른 소비문화를 이룬다. 각종 액세서리나 인형, 손수 만든 공예품 등을 트럭이며 수레에 싣고 파는 작은 가게를 허용한 것이다. 오가는 발길과 눈길을 잡아끄는 진열대는 약간 환상적인 분위기도 자아내는 까닭에 요기조기 눈요기 즐기는 맛이 더 풍성해졌다. 새로운 외국 음식이나 퓨전 같은 젊은이들 당기는 음식도 나란히 줄지어 있으니 새로운 맛과 감각 만나는 재미에 발길이 더 홍청거리게 된다. 이렇듯 귀요기, 눈요기, 맛요기 등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나혜석거리는 더욱더 감각의 해방구 같은 풍경으로 빚고 있다.

분수대 또한 여름마다 아이들 소리로 들썩이면서 조금 짧고 좁은 대로 차 없는 길맛을 높여 준다. 도심의 물놀이터가 되는 분수대 역시 크진 않아도 오가는 아이들 다 받아주며 동네수영장처럼 뛰놀게 하는 마당이 된다. 아이들의 '꺄아악~' 비명 소리와 깔깔 웃는 소리가 물소리 속에 소란스러워지는 여름철 한낮은 인근도 덩달아 환해진다. 제멋대로 홍청거리던 나혜석거리 밤의 음주문화는 전혀 다른 곳의 일인 양 도심의 작은 물놀이 소풍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수대 하나가 아이들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들에게 한층 밝은 산책과 활기찬 거리 분위기를 만들곤 하니 이런 도심의 물은 많을수록 좋겠다.

5. 맛과 축제의 거리

거리는 주민과 상생할 때 더 오래 즐겁게 살아남는다. 이는 나혜석거리 주변 상인들이 여는 '나혜석거리 맛울림축제'를 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맛울림축제는 10월 중순에 3일 동안 여는 나혜석거리만의 맛을 즐기는 잔치다. 2006년 수원시가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을 지정한 후부터 상인들이 힘을 모아 축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축제는 단순히 음식문화를 알리고 많이 파는 상술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데, 음식문화 시범거리로서의 위상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긴 때문이다.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10월 15일 전후면 가게마다 사람들이 줄줄이 서는 진풍경을 이룬다. 그렇지 않아도 식당 앞의 장사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줄서기는 소문난 맛집과 거리의 이름값을 높이는 또 다른 구경거리다. 물론 새로운 맛집을 귀신같이 찾고 나누는 SNS, 인스타그램 등에 따라 줄 서는 문전이나 줄의 길이가 달라진다. 맛을 기대하면서 줄이 얼른 줄기를 기다리는 표정들도 다양하다.

몇 년 전부터는 거리를 마구 차지하던 가게들의 의자도 영역이 정해졌다. 가게 밖의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김현락 제공)

2016년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축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6년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축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6년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축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거리로 최대한 내놓던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생긴 것이다. 너도나도 최대한 자리를 차지하며 손님을 잡으려 하니 길이 침범당하고 질서가 없어진 때문이다. 정해진 범위 안에 데크를 설치하며 열린 공간의 정도를 허용하니 노천카페의 운치에 지나는 사람도 편리해진 것이다. 적당한 선을 긋는 규제가 오히려 이전보다 정돈된 풍경을 이루면서 밖의 자리 잡기는 더 치열해진 셈이다. 바람이나 달빛이 유독 좋은 날이면 무슨 특권을 누리는 기분도 드는 것이다. 노천카페의 바람 맛을 만끽하는 모습들은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도 끌어들이곤 한다. 눈이 먼저 혀를 자극하는 효과랄까.

나혜석거리에는 신명나는 해방구의 추억이 많이 쌓여 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때는 가게마다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축구를 같이 보며 서울시청 앞 못지않은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모임마다 나혜석거리에 집결해 한 잔 마시며 목청을 높이고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거리는 떠나갈 듯 들썩거렸다. 요란한 응원 박수와 괴함에 목이 쉬는 것은 다반사였고, 밤 열두 시 넘도록 거리가 붉은 물결로 넘쳤다. 당시 빨간 티셔츠 입고 전국이 들썩거린 대한민국표 '붉은 악마' 응원전이 수원에서는 나혜석거리에 더 많이 집약되었던 것이다. 외신도 외국인도 흥분해서 함께 나와 외치던 거리 응원전을 돌아보면 그렇게 즐겁고 힘차게 하나 되는 경험이 또 있으랴 싶을 정도였다. 돌아볼수록 유례없이 뜨거운 몰입이자 신명나는 분출이었으니 나혜석거리 특유의 거리 문화를 쌓아 가는 즐거운 기억이다.

이후 나혜석거리 가게들에서 대형 화면으로 경기를 같이 보며 맥주 마시는 모습이 거의 모든 집에서 연출된다. 거리의 툭 트인 맛에서 더 커지는 함께 보고 마시고 즐기는 맛이 나혜석거리의 전통처럼 자리를 잡은 것이다. 물론 다른 동네 가게들도 대형 TV를 대부분 들여놓고 손님에게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나혜석거리의 대형 화면들에 못 미치는 크기도 그렇지만 툭 트인 노천카페 거리의 맛은 어디서도 따를 수 없는 특유의 풍경이 되었다.

아웅다웅 몰려 앉은 가게들이 술을 부르며 더 뜨거워지는 것인가. 모두가 있는 힘껏 목청 돋우던 월드컵전의 응원 열기는 잊을 수 없는 용솟음으로 종종 회자된다. 특정 시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매년 여는 행사들도 나혜석거리만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이 더 새로운 문화를 자극하며 거기 뒤따르는 문화 생산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렇듯 나혜석거리의 문화적 추억은 인계동만 아니라 수원 거리 문화의 한 상징으로 거리의 역사를 계속 새롭게 써나갈 것이다.

6. 시청 뒤편, 회식문화의 거리

수원시청 뒤편은 골목마다 음식점, 술집, 카페 등이 들어차 있어 소비가 매우 활발한 권역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직장인들의 회식이 많아 상대적으로 세련된 저녁문화를 즐기는 곳이다. 택시를 타고 '박스'로 가자면 알 만큼 이 거리의 별칭 '박스'가 널리 알려진 거리이기도 하다. 시청 이전 후 인구가 늘고 주변의 신축 아파트대단지에 사는 젊은 층이 많아진 것도 한 이유일 듯하다. 게다가 각종 은행과 오피스빌딩이 많이 들어서는 새 중심지의 이점이 작용하면서 신축 원룸이 밀집한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나혜석거리를 마주한 위치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겠지만, 사무실과 유동 인구가 많으니 상권이 어느 곳보다 빠르게 번성한 것이다.

본래 관청 근처에 자리 잡는 고급 한식집이나 일식집, 중식당 등 음식점도 시청 뒤편

거리에는 많이 보인다. 그만큼 음식 소비 수준도 높고 다양한 편이니 새로운 유행 앞세운 술집, 카페 등도 많이 따라붙게 된다. 한국의 특이한 문화현상으로 논하는 회식은 밤늦도록 먹고 마시는 뒤풀이까지 길게 즐기는 분위기를 이루어 왔다. 그에 따라 과도한 음주문화의 작태도 나타나게 마련인데, 아침 일찍 골목을 지나다 보면 간밤의 만취 흔적을 비둘기가 쪼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다른 까닭이 있어서인지 모텔이 유독 많더니 요즘은 조금 급을 높인 호텔도 늘고 있다. 회식 문화는 점차 줄거나 사라져 가는 판이라 시청 뒤편도 예전 같지는 않다지만, 가보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청 뒤편으로 나혜석거리 맞은편쯤에 자리한 시네파크도 인계동의 문화지수를 높이는 곳이다. 멀티플렉스 극장 CGV 동수원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 극장 CGV는 1998년 서울 강변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극장을 열었는데 수원은 2006년 인계동에 동수원점을 열었다. 수원의 영화관이 중앙극장과 로얄극장 등 모두 팔달문 근처에 몰려 있던 시절에 비하면 CGV 동수원점은 놀라운 변화상을 담고 있는 셈이다. 예전의 작은 극장들을 삼키고 들어선 시작부터 원성이 자자했던 멀티플렉스는 새로운 유형의 복합상영관으로 큰 몸집에 따른 비판도 많았다. 하지만 젊은이들 감각에는 더없이 즐거운 영상 놀이터로 자리를 잡았으니 인계동에서 젊은 문화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요인도 되었다.

특히 동수원점은 CGV만의 '아트하우스'를 갖고 있어서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 극장이기도 하다. CGV가 큰 도시에 하나씩 운영하는 아트하우스관을 동수원점에 두었으니 인계동이 수원에서도 젊은 문화의 중심지임을 인정하는 셈이랄까. 아트하우스관이 독립영화 등 비상업영화를 통칭하는 다양성영화 상영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잘 안 보는 예술영화나 비상업영화 등은 서울에 가야 볼 수 있었는데, 수원에서 관람할 기회를 만들었으니 영화 마니아들에게는 특히 환영을 받는 곳이다.

CGV가 운영하는 것이지만 아트하우스관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문화 공간이다. 다양성영화를 살리는 길인 동시에 영상 향유권이나 문화적 나눔의 기회를 확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뜻 있는 지자체나 문화운동에 앞서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전용영화관이 몇 있는데, 수원은 그런 정책이나 의지가 아직 없는 듯하다. 예술영화 전용관은 그 도시의 문화지수를 보여 주는 척도이자 다양성영화를 살리는 길이니 수원에도 공간 마련을 바라는 시민이 많다.

7. 예술을 부르는 문화거리

문화는 거리에 새로운 예술을 입힌다. 물론 먹고 입고 사는 것 자체가 문화이고, 읽고 쓰고 소비하는 것도 문화라는 점에서 보면 문화는 늘 생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문화'를 붙이려면 그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한다. '나혜석'을 붙였으니 그 이름값에 부응하는 작은 문화공간이라도 짓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거리 조성에 관여한 김충영(당시 도로과장)에 따르면, 초기엔 나혜석기념관 의견(심재덕 전 시장)도 나왔지만 사정이 어려웠다는데, 이후에는 생각이 아예 없었던 듯싶다.

지금도 나혜석거리에 어울리는 소극장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목소리가 나온다. 예술공간 마련은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도 이 거리에는 실현하고 싶은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고 문화가 곧 경쟁력임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경제 우선에 늘 밀리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예술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며 예술이 정책으로 밀어붙인다고 다 그만큼의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을 지속적

2009년 나혜석거리 예술축제(김현락 제공)

으로 펴야 문화·예술의 일상적 생산과 향유가 늘어난다.

그래도 이름 붙인 거리의 힘인지 나혜석에 대한 시가 여러 편 나왔다. 물론 나혜석의 선각적 면모와 그 이름이 뿜어내는 아우라에서 연유하는 매혹도 작용했을 것이다. 노천카페에서 술 마시며 쌓인 낭만과 추억들 그리고 나혜석의 여정 자체가 시를 부르기도 했겠다. 그 모두가 시적 자양으로 작용했든, 그 무엇인가가 시심을 자극했든, 나혜석거리 이름이 어른대는 시는 모두 수원의 문화·예술 자산이다. 예술이 예술을 부르며 거리에도 예술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문적 가치의 귀한 축적이자 문화적 공유이기도 하다.

인계동의 대표적 문화거리 나혜석거리와 시청 뒤편 거리. 널리 뜬 이름만큼이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도 많은 동수원의 대표거리다. 나아가 수원의 멋과 맛과 흥의 역사를 새로 쓰는 문화거리가 되었으니 더 많은 수원의 문화와 예술을 촉발할 것이다.

집필위원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석일 시인
김정환 아주대학교 박사과정
김현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박상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행궁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박설희 시인
박성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손승호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송주희 서울시 지역상권활력센터 주무관
유선영 이천학연구소 연구원
이승연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이정수 아주대학교 박사과정
이진희 시인
장은경 경기지역사연구소 연구원
정민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정수자 시인
정헌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조석곤 상지대학교 교수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기획·편집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수원시 마을지 시리즈 15 –

인계동

수원시 최대 업무지구, 행정 중심지

발 행 일 : 2019년 12월 15일

발 행 처 :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화 031–220–8058,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제작 및 인쇄 : 경인 M&B(전화 031–231–5522~7)

발간등록번호 : 11–B552980–000003–10

ISBN : 979–11–90343–30–5 94900

ISBN : 979–11–89160–62–3 (세트)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